

第12章 文 化

第1節 漢 文 學¹⁾

- ① 許 稠(1369~1439) : 〈자료 12-1〉
- ② 徐 涉(端宗朝) : 〈자료 12-2〉
- ③ 徐翰廷(1407~1490) : 〈자료 12-3〉
- ④ 徐居正(1420~1488) : 〈자료 12-4〉
- ⑤ 楊熙止(1439~1504) : 〈자료 12-5〉
- ⑥ 李叔樸(1519~1592) : 〈자료 12-6〉
- ⑦ 裴 紳(1520~1573) : 〈자료 12-7〉
- ⑧ 郭 趕(1529~1593) : 〈자료 12-8〉
- ⑨ 蔡應麟(1529~1584) : 〈자료 12-9〉
- ⑩ 全慶昌(1532~1585) : 〈자료 12-10〉
- ⑪ 郭再謙(1547~1615) : 〈자료 12-11〉
- ⑫ 朴 惺(1549~1606) : 〈자료 12-12〉
- ⑬ 徐思遠(1550~1615) : 〈자료 12-13〉
- ⑭ 孫處訥(1553~1634) : 〈자료 12-14〉
- ⑮ 李 輅(1556~1604) : 〈자료 12-15〉
- ⑯ 孫 遴(1566~1628) : 〈자료 12-16〉
- ⑰ 崔 誠(1567~1622) : 〈자료 12-17〉
- ⑱ 蔡先吉(1569~1646) : 〈자료 12-18〉
- ⑲ 金忠善(1571~1642) : 〈자료 12-19〉
- ⑳ 都聖俞(1571~1650) : 〈자료 12-20〉
- ㉑ 朴壽春(1572~1652) : 〈자료 12-21〉
- ㉒ 蔡先見(1574~1644) : 〈자료 12-22〉
- ㉓ 都應俞(1574~1639) : 〈자료 12-23〉
- ㉔ 李 軾(1576~1637) : 〈자료 1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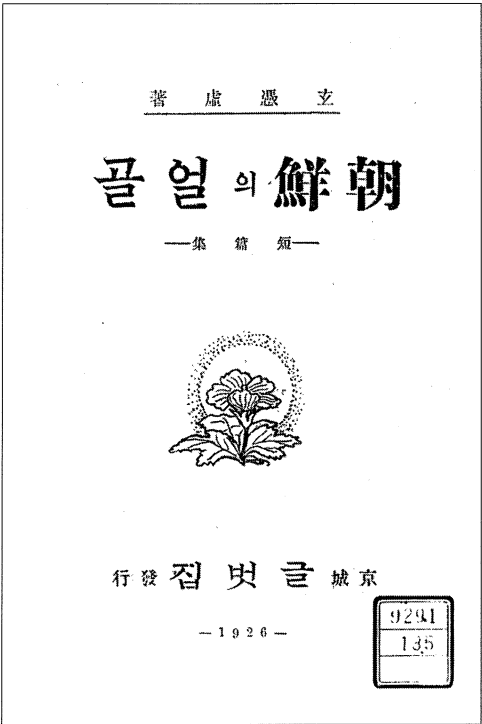
1) 第十三篇 文化 2章 藝術 1節 〈漢文學〉의 자료임.

- ㉔ 徐時立(1578~1665) : 〈자료 12-25〉
- ㉕ 徐思選(1579~1650) : 〈자료 12-26〉
- ㉖ 崔東巢(1585~1661) : 〈자료 12-27〉
- ㉗ 朴宗祐(1587~1654) : 〈자료 12-28〉
- ㉘ 都慶俞(1596~1637) : 〈자료 12-29〉
- ㉙ 都愼徵(1604~1678) : 〈자료 12-30〉
- ㉚ 都愼與(1605~1675) : 〈자료 12-31〉
- ㉛ 李言直(1631~1698) : 〈자료 12-32〉
- ㉜ 禹錫珪(1648~1713) : 〈자료 12-33〉
- ㉝ 禹洪迪(1691~1742) : 〈자료 12-34〉
- ㉞ 崔興遠(1705~1786) : 〈자료 12-35〉
- ㉟ 李泰宇(1714~1770) : 〈자료 12-36〉
- ㊱ 李若采(1727~1782) : 〈자료 12-37〉
- ㊲ 李翼龍(1732~1784) : 〈자료 12-38〉
- ㊳ 禹載岳(1734~1814) : 〈자료 12-39〉
- ㊴ 崔興昱(1736~1809) : 〈자료 12-40〉
- ㊵ 蔡必勳(1759~1838) : 〈자료 12-41〉
- ㊶ 朴光錫(1764~1845) : 〈자료 12-42〉
- ㊷ 崔象龍(1786~1849) : 〈자료 12-43〉
- ㊸ 崔孝述(1786~1870) : 〈자료 12-44〉
- ㊹ 李錫奎(1816~1892) : 〈자료 12-45〉
- ㊺ 朴宗鉉(1823~1900) : 〈자료 12-46〉
- ㊻ 李淵性(1824~1893) : 〈자료 12-47〉
- ㊼ 徐贊奎(1825~1905) : 〈자료 12-48〉
- ㊽ 禹成圭(1830~1905) : 〈자료 12-49〉
- ㊾ 徐永坤(1831~1913) : 〈자료 12-50〉
- ㊿ 鄭思和(1831~1883) : 〈자료 12-51〉
- ㊽ 蔡準道(1834~1904) : 〈자료 12-52〉
- ㊾ 李華祥(1842~1915) : 〈자료 12-53〉
- ㊿ 李夏祥(1845~1910) : 〈자료 12-54〉

2. 1948년 죽순시인구락부(대표 이윤수)가
주관하여 달성공원에 건립한 이상화 시인의
《상화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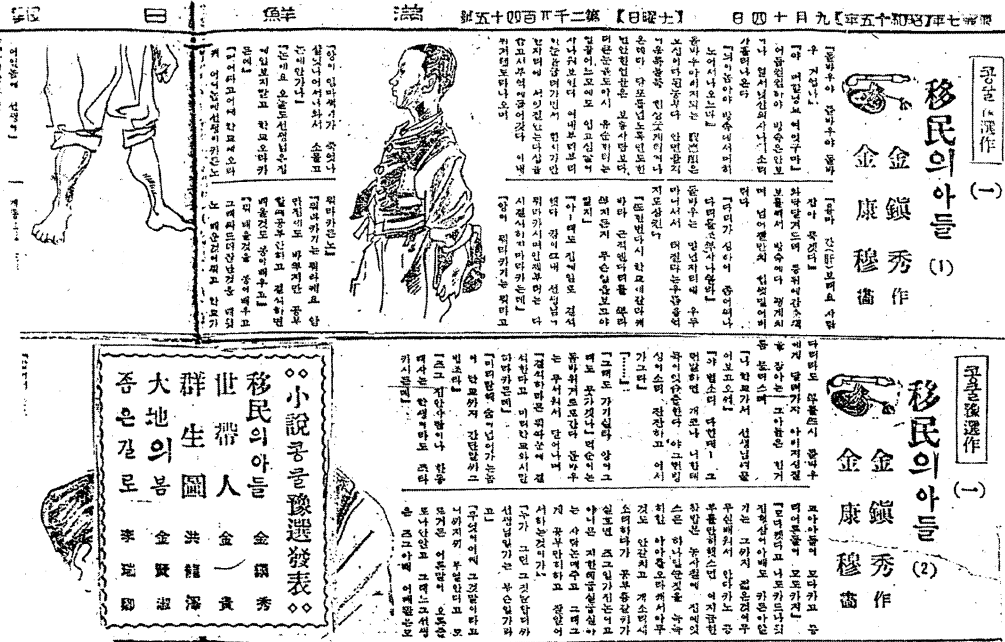
3. 1926년 글벗집에서 발행한 현진건의
첫단편집 《조선의 얼굴》 속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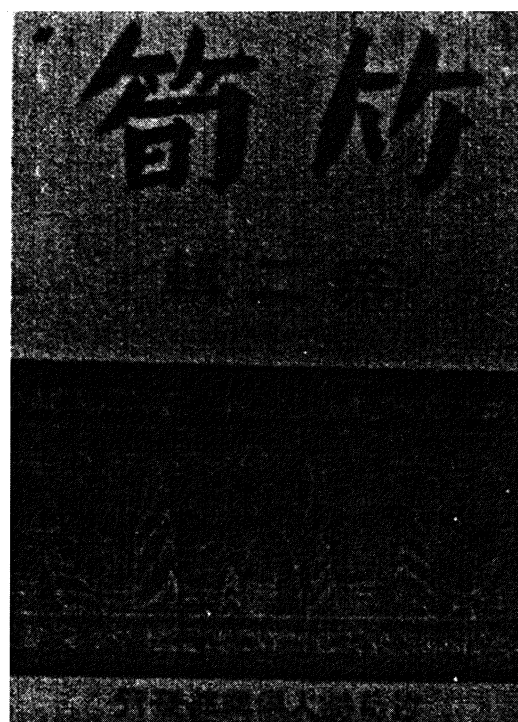


4. 1935년 <조선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한 김동리(김시중)의 단편 《화랑의 후예》.

5. 1939년 <만선일보> 소설콩쿨에 1석으로 입선한 김진태의 《이민의 아들》.



6. 1946년 죽순시인구락부의 동인지 《죽순》 창간호 표지와 2호의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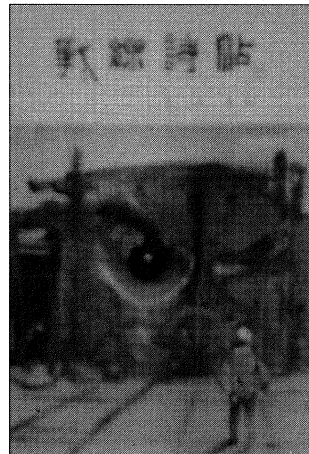


7. 1948년 대구의 교문사에서 발행한 신동집의 첫시집 《대낮》의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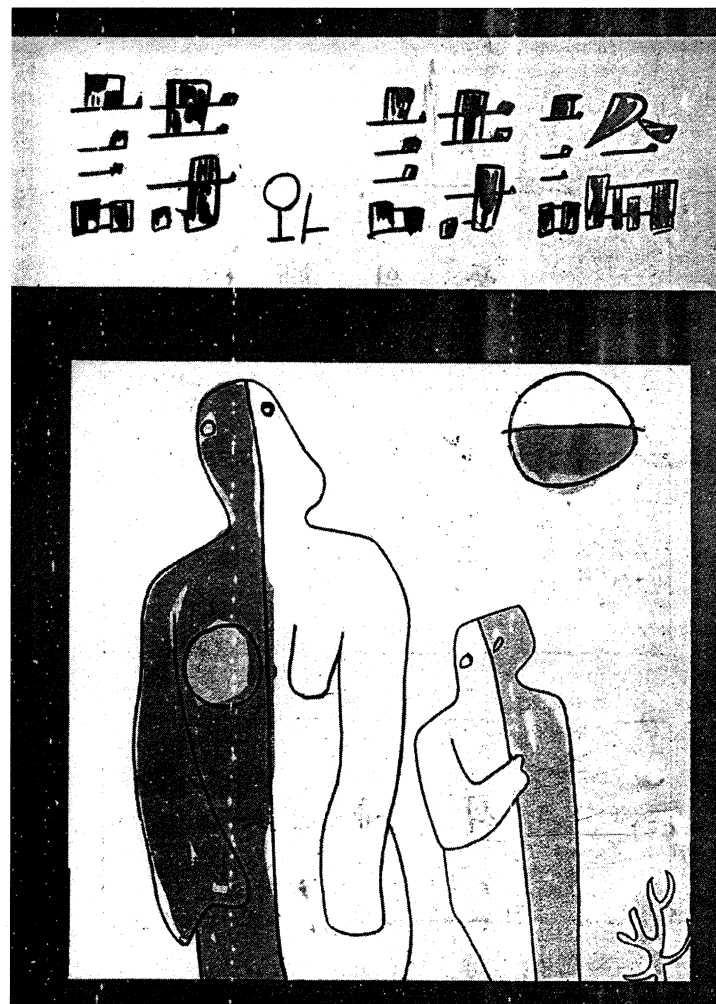


8. 1950년 문충구국대

경북지대에서 발행된 《전선
시첩》(편집 1984년 이윤
수)의 표지.



9. 1952년 대구 전선문학사에서 발행한 시 전문지 《시와 시론》
창간호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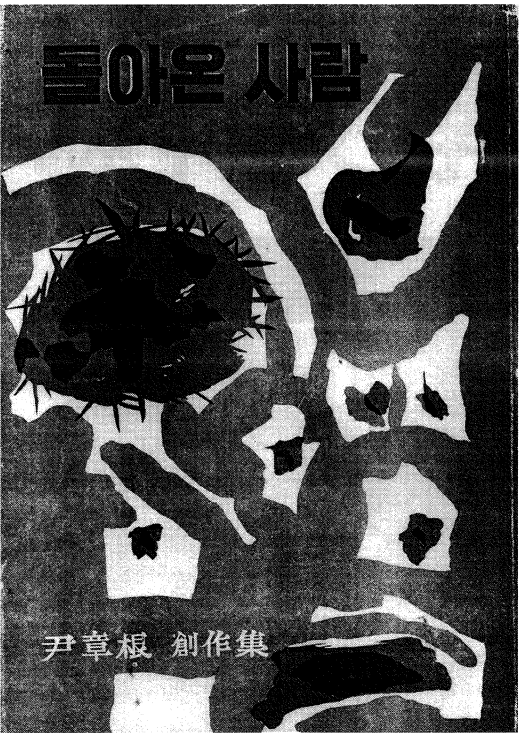


詩와 詩論 第一輯 定價 三千圓
檀紀四二八五年十一月五日發行
編輯處 大邱市東仁洞二九八
發行處 職線文學社
大邱市三德洞二九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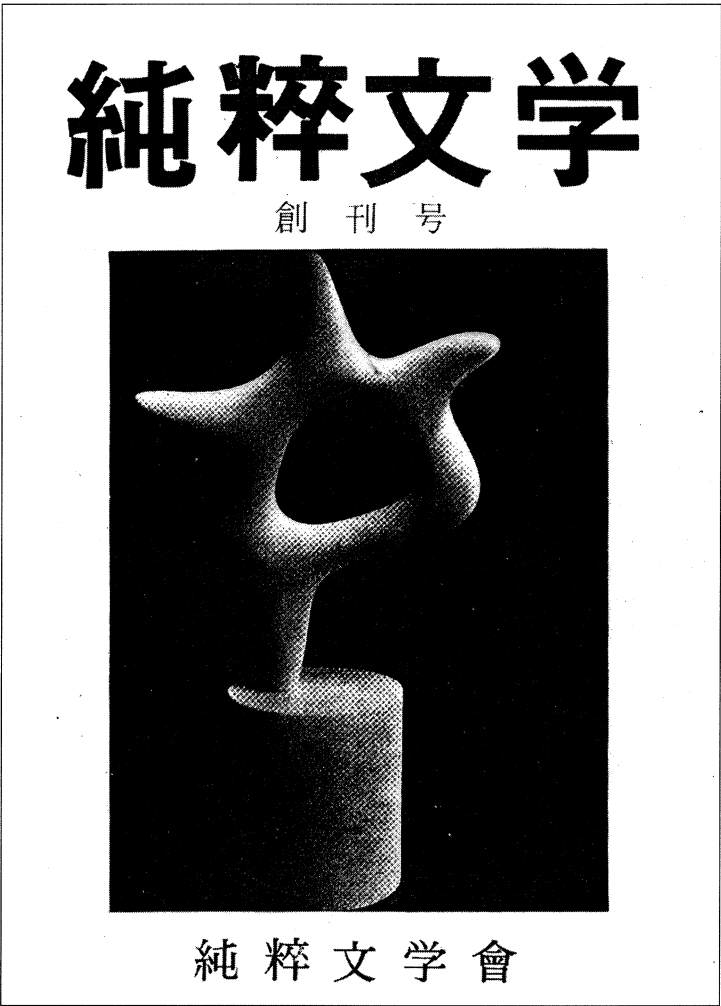
10. 1967년 대구의 영남시조문학회가
발간한 시조동인지 《낙강》 창간호 표지.



11. 1967년 대구의 영웅출판사에서 펴낸
윤장근의 첫 소설집 《돌아온 사람》 표지.



12. 1971년 대구의 순수문학회가 발간한 《순수문학》 창간호 표지.



입선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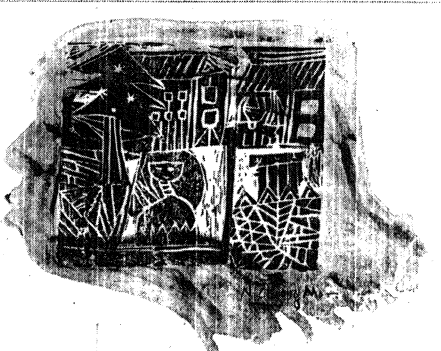


편력은 이것으로 끝났으면...

[illegible]

’77「每日新春文藝」佳作小說

나자레를 아십니까?



그 립·南 忠 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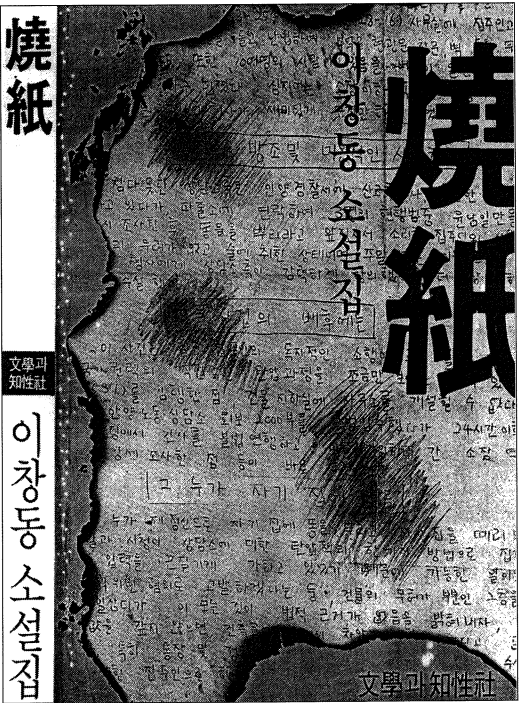
選後感

[illegible]

14. 1983년 대구수필문학회가 발행한
수필 동인지 《대구수필》 창간호 표지.



15. 1987년 문학과지성사가 발행한 이창동의
소설집 《소지》의 표지.



第3節 傳統音樂

1. 개인의 국악활동 (개인연주회) 현황

〈表 11-1〉

일 자	공 연 명	장 소	출 연 자 및 곡 목	후 원
85. 2.16	최문진가야금 독주회	동아문화센터 스 타 홀	· 중광지곡中 상령산 〈장고/하주화, 피리/곽태규, 대금/이경희, 해금/심인택, 거문고/김우진〉 · 傳說(作황의중)/그리움, 이야기, 놀이, 춤, 설레임 · 청산(作황의중) · 흙담(作이해식)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85. 6. 1	이재경 가야금 독주회	동아문화센터 스 타 홀	· 도드리〈가야금/최문진〉 · 달구벌소리(작곡/이해식)〈장고/하주화〉 · 비단길(작곡/황병기)〈장고/하주화〉 · 가야금독주/산조(김죽파류)다스름,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세산조시〈장고/하주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동창회
86. 5.19	미완성 기획 국악무대 이미경 가야금 독주회	어린이 회관 피꼬리 극장	· 다스름, 진양조,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세산조시 · 장고/김동준	주최/ 계대 음 악대학 동창회
86. 9.24	이동복 대금 연주회	동아문화센터 스 타 홀	· 경풍년 · 유초신지곡 中 상령산 외 4曲	
88. 3.30	김희숙 궁중 정재 발표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성택〈박예정의 11명〉진주검무〈김선희 외7명〉 · 헌천화〈박예정 외4명〉 · 승전무〈최정희 외15명〉	
89. 4. 4	동아문화센터 신춘특집 프로그램 최문진 향재 풍류 가야금 발표회	동아문화센터	· 다스름 · 본령산 · 세령산 · 가락달이 · 상현 · 세환입 · 하현 · 엄불 · 타령 · 군악 · 계면 · 양청 · 우조 · 풍류굿거리	
89.11. 9	89 순회 국악공연 조순 자 여창가곡 독창회	대구시민회관 소 강 당	· 우조 이수대엽의 7곡〈반주/구윤국, 윤명구, 김덕환, 이정자, 이동복, 김경배〉	
89.11.14	제2회 김경애 대금 산조 발표회	동아문화센터	· 대금산조제주〈정재표 외10명〉 · 승무〈신라국악예술학원〉 · 시나위합주〈장순애 외6명〉 · 가야금병창〈윤기명 외8명〉 · 대금독주/산조〈김경애, 교수/채찬복〉	
90. 4.17	김덕환 가야금 독주회	동아문화센터 비 둘 기 홀	· 가곡 · 별곡/도드리~우조가락환입	
91. 5.23	서미영 거문고 독주회	동아문화센터 스 타 홀	· 가진회상중에서/하현도드리, 엄불도드리(임석윤류) 〈대금/박용호〉 · 만, 수Ⅱ(백성기 작곡)〈대금/박용호, 장고/이세환〉 · 산조(신쾌동류)〈북/이세환〉	
91. 6. 5	정은하 민요 발표회	대구문화예술 회관 대극장	· 경기좌창/제비가〈장고/안비취, 창/정은하〉 · 아리랑 모음〈창/정은하 · 지휘/곽태천, 반주/영남국악관현악 단〉 · 회심곡〈창/안비취〉 · 사물과 민요/뱃노래, 짚은 뱃노래〈창 /정은하 외 문하생, 반주/영남사물놀이〉 · 경기좌창/금강산 타 령〈장고/안비취, 창/정은하〉 · 민요연곡/경기민요, 서도입창〈 창/정은하 외 문하생, 지휘/곽태천, 반주/영남국악관현악단〉	

일 자	공 연 명	장 소	출 연 자 및 곡 목	후 원
91.10.12	두번째 김남은 거문고 독주회	동아문화센터 비 돌 기 홀	· 중광지곡中 상령산, 산조(신쾌동류)<장고/이세환> · 소엽상방<작곡/황병기, 장고/이세환> · 수리재<작곡/정대석, 장고/이세환>	
91.11. 1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악학과 졸업연주회	경북대학교 대 강 당	· 정상지곡<대금/유석찬, 장고/임은숙> · 두음을 위한 5현금<작곡/이성천, 장고/임은숙> · 산조(강태홍류)<이숙희, 장고/신태형>	
95. 5.25	김영옥 전통가곡발표회	대구문화예술 소 극 장	· 우조/초수대엽(동창이) · 우조/삼수대엽(도화이화) · 우조/소용이(불아니) · 우조/연락(벽사창이) · 반우 · 반계면조/편락(나무도) · 계면조/편수대엽(진국명산) · 계면조/태평가(이려도 태평성대) <국악반주 · 장고/홍원기 외 5명>	
92.10.23	김죽파류 산조 이미경 독주회	대구문화예술 회관 대극장	·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세산조시	
92.10.23	한일교류 음악회 가야금/이경자, 쟁/石瀨雅璋	어린이 회관 피꼬리 극장	· 제2중주/난(논설)<제1쟁/石瀨雅璋/ 제2쟁/中村雅樂壽, 작곡/ 八橋檢校> · 가야금 독주(침향무)<가야금/이경자 · 장고/김정 수, 작곡/황병기> · 쟁독주/신선조무곡<石瀨雅璋, 작곡/唯是震一> · 제2중주/<제1쟁/石瀨雅璋 제2쟁/中村雅樂壽, 작곡/澤井忠夫> · 가야금독주/최옥산류산조<가야금/이경자, 장고/김정수>	
93. 4.12	제3회 김경애 대금산조 발표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대금산조제주<신수용 외 24명> · 가야금 산조병창<윤기명 외21명> · 시나위합주<정재표 외8명> · 대금산조(한주환류)<김경애, 고수/정철호> · 특별출연/부채 춤<주영희외 10명 경주신라국악예술단> (안무/장순애)	
93. 5. 3	권일지 (대구직할시 무형문화재 제5호) 시조, 가곡, 가사 발표회	동아문화센터 아 트 홀	· 평시조/한산섬 달밝은 밤에<김향교외 2명> · 여창지름시조/기러기산이로 잡아<권일지> · 가사/백구사<우장희 외2명> · 우조/이삭대엽(버들은 실이되고)<권일지> · 계면조/평릉(복두칠성)<권일지> · 우조/우락(바람은 지동치듯 불고)<권일지> · 계면조/중거(산촌에)<우장희> · 계면조/편삭대엽<우장희 외3명> · 계면조/태평가<권일지, 김경배> · 반주자/우리국악학회< · 대금/이동복 · 해금/김덕환 · 장고/경 덕명 · 피리/곽태천 · 가야금/이경자>	국 악 협 회 대 구 지 부
93. 5. 7	정해임 가야금 독주회	대구문화예술 회관 소극장	·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장고/신태형> · 다스름,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세산조시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93. 9.20	대백 예술극장 개관기념 문화축제 이미경 가야금 초청연주회 (황병기 작품 모음 연주)	대백예술극장	· 석류집 · 숲 · 비단길 · 침향무 · 영목 · 밤의 소리	

2. 전국민속경연대회 참가 현황

〈表 11-2〉

회 수	날 자	장 소	종 목	출 연 자	비고
제23회	82.10.26 ~10.28	광 주	孤 山 農 樂	상쇠/김호성·종쇠/곽질동, 정/강대환외5명·북/박수건외10명, 장고/김희호외8명·소고/권갑암외13명, 기타/장도환외7명	문공부장관상
제24회	83.10.17 ~10.23	안 동	날 외 북 춤 (민 속 무 용)	설북/김수배, 북/석쾌암외15명, 쇠/임문규, 정/문만조 장고/김애자	문공부장관상
제25회	84. 9.21 ~9.23	충 주	비산천왕매기 (민 속 놀 이)	쇠/김수기, 임무구·정/김삼철외5명, 북/김수배외9명, 소고/한해수외8명	
제26회	85. 9.19 ~9.20	강 릉	비 산 농 악	쇠/김수기, 임문구, 정/김삼철외5명, 북/김수배외9명, 소고/한해수외8명	장려상
제27회	86.10.17 ~10.18	천 안	비 산 농 악	쇠/김수기, 임문구, 정/김삼철외5명, 북/김수배외9명, 소고/한해수외8명	공로상
제28회	87. 9.29 ~9.30	수 원 안 양	옥 수 농 악	쇠/박원호, 김호선·정/허탁외7명, 장고/김희호외7명 북/최대규외7명, 소북/이만방외9명 기타/김영환외6명	문공부장관상
제29회	88.10.21 ~10.23	전 주	비 산 동 천 왕 매 기	쇠/김수기외9명·대북/김수배외9명, 장고/임숙자외5명·소고/한해수외8명, 기타/김용배외4명	문공부장관상
제30회	89. 9.28 ~9.30	마 산	공 산 민 요	선소리/송문창·쇠/곽정달, 북/박주홍, 장고/양기화·기수/채수덕·나발/최묘환, 농군/이성림외38명	
제31회	90.10.23 ~10.25	제주도 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	공 산 농 요	선소리/송문창·농군/배상도외38명, 기타/배주태외9명	문공부장관상
제32회	91.10. 1 ~10.18	여 수 진 남 경 기 장	건 들 바 우 치 성 곳 (민 속 무 용)	안무/권명화, 북/김수배·쇠/김수기, 장고/조은희·무용/대구시립국단원12명 정/채찬복·무속/16명	개인상:권명화
제33회	92. 9.25	구 미 시 민 운 동 장 금오공대체육관	날 외 북 춤 (민 속 무 용)	쇠/김수기외1명·정/김상원외1명·장고/ 조은주외1명·북/김수배, 방도수외37명· 영기/임영곤외1명·천왕기/권태희	문화부장관상
제34회	93.10. 6 ~10. 8	청 주 종 합 운 동 장	대 구 서 촌 상 여 소 리	선소리/송문창·상두꾼/정용수외39명, 기타/김도열외14명	장려상

3. 단체의 국악활동(단체 연주회) 현황

〈表 11-3〉

일 자	공 연 명	장 소	출 연 자 및 곡 목	주 최
83.11.10	제2회 경북대학교 예술대학정기연주회	대구시민회관 소 강 당	· 관현합주/평조회상中염불환입<집박/조성만> · 가야금제주/석류집<황병기작곡><국미숙외3명> · 가곡/연락, 우락<남창/이자경외2명, 여창/박영애외3명 반주/황영달외9명, 장고/홍원기교수> · 피리독주/평조회상中상영산<최성희> · 세악/계면가락환입, 양청환입<이숙희외 15명>, · 거문고독주/산조(신쾌동류)<박영부>, 사악합창(낙양춘)<12학년전원>	경북대학교 예 술 대 학 국 악 학 과
84. 5.31	제3회 경북대학교 예술대학정기연주회	경북대학교 대 강 당	· 관현악합주/수연장지곡<국악과학생일동> · 세악합주/하현환입, 염불환입, 타령, 군악, 계면가락환입, 양청환입, 우조가락환입	경북대학교 예 술 대 학 국 악 학 과
84. 9.17	대구시립국악단 창 단 연 주 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현합주/평소회상中상령산· 여창가곡/우락<조은희> · 독무/무산향<최정희> · 피리독주/경풍년<김종국> · 세악/중광지곡中하현환입, 염불환입, 타령 · 가야금제주/침향무(작곡:황병기) · 군무/무고· 관현합주/취타.	
84.10.12	제3회 달구벌축제및 제65회전국체전경축 대구시립국악단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현합주/수연장지곡 · 거문고독주/산조<원광호(객원), 장고/ 정미화> · 독무/춘앵전<김영희> · 세악/천년만세 · 가곡/남:편락, 여:편수대엽 · 남여:태평가<김호성, 조순자, 장 고/최문진외6명> · 군무/사선무· 관현합주/평조회상중 염불, 타령, 군악	
84.12.11	제2회 대구시립국악단 정 기 연 주 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악합주/함녕지곡 · 현악합주/황하청 · 독무/춘앵무<예은심> · 병주/중광지곡中 세령산<단소/김영옥, 양금/김진숙> · 시조/평시조 (여창지름시조)<권일지, 장고/임병렬, 대금/이인수> · 관현합주/만파정식지곡	
85. 5.13	제3회 대구시립국악단 정 기 연 주 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악합주/수제천 · 대금독주/평조회상中상영산<이인수> · 정재/검무 · 세악/천년만세 · 시창/관산용마<창/박의숙, 단소/석태호> · 창작곡/숲(작곡/황 병기) · 정재/포구락 · 관현합주/평조회상中삼현환입, 염불환입, 타령, 군악	
85. 5.25 ~26	우리음악과의만남 대학생발표회 -경북대학교편-	동아문화센터 스 타 홀	25일 · 세악합주/수연장지곡 · 피리독주/염양춘<김종국> · 거문고독주/산조(신쾌동류)<김순녀> · 세악합주/천년만세 · 대금독주/요천순일지곡<유석찬> · 가야금독주/산조<신관용류>×<이현주> · 가곡/여창우락<조은희> · 세악합주/유초신지곡中염불환입, 타령, 군악 26일 · 세악합주/유초신지곡中세령산외 7종목	

일 자	공 연 명	장 소	출 연 자 및 곡 목	주 최
85.10. 7	제4회 달구벌 축제 및 제4회 대구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현합주/여민락45장<전단원> · 거문고독주/산조(한갑득류)<조은희, 장고/김문홍>, · 정재/향발무· 세악합주/영산회상中세령산<라진명외7명>, · 여창가곡/우락<창/조순자, 거문고/구윤국의6명>, · 정재/가인전목단· 관현합주/세환입<전단원>	대구직할시
85.11. 8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제4회 국악정기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악합주/수채천<집박/이동복>· 거문고독주/산조<조은희> · 세악합주/천년만세<김진숙외12명>, · 대금독주/요천순일지곡<유석찬>· 여창가곡/우락<이경원> · 파리독주/염양춘<김종국> · 관악합주/장춘불로지곡<집박/김덕환>	경북대학교 예 술 대 학 국 악 학 과
85.11.20 ~22	경북대학교예술대학 국악학과 제1회 국악학과졸업연주회	동아쇼핑센터 스 타 홀	· 21일 가야금/정악 : 언편, 산조(신관용류)<변미영> 외 7종목	경북대학교 예 술 대 학 국 악 학 과
85.12.11	비슬회 국악 발표회	동아쇼핑센터 스 타 홀	· 유초신지곡中염불환입, 타령<임은숙외> · 거문고독주<라진명> · 가곡/우락<이경원>· 대금독주/청성곡<유석찬> · 중광지곡中하현환입<윤효상외7명> · 정재<양선희>· 천년만세<박정미>	동 아 문 화 센 터
86. 4.30	제5회 대구시 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현합주/도드리<전단원>· 정재/초무<재현안무/김희숙> · 여창가곡/우락<김영기>· 세악/천년만세<김문홍외> · 정재/최화무<재현안무/김희숙> · 남창가곡/편수대엽, 언편<김경배> · 관현합주/평조회상中염불, 타령<전단원>	대구직할시
86. 6. 4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제5회 국악정기연주회	대 구 어린이회관 피꼬리극장	· 여민락 45장<집박/최문진>· 함녕지곡 · 거문고독주/산조(신쾌동류)<이성원, 장고/김태영> · 대금독주/산조(한범수류)<김태영, 장고/김명숙> · 작법/불교무용(안무/김희숙) · 관현악을 위한 국연습<지휘, 작곡/이해식>	
86. 6.26	제6회 대구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대구시민회관 소 강 당	· 관현합주/정상지곡<집박/구윤국> · 정재/사선무<안무/김희숙, 김영순외 5명> · 세악/영산회상中세령산<정미란외7명> · 판소리/홍보가中박타는대목<이명희, 장고/채찬복> · 가야금제주/침향무(작곡/황병기) · 정재/향발무<안무/김희숙, 예은심외 7명>	
86. 7. 3	동아문화센터 월말상설프로그램 “전통음악 연주회”	동아문화센터 비 둘 기 홀	· 세악/중광지곡中상령산<김문홍외7명> · 시조/남창평시조, 남창우조지름시조<창/윤우현> · 대금독주/유초신지곡中상령산<신보식> · 병주/세령산<양금/김영옥, 단소/석태호> · 시창/관산음악<박의숙>· 세악/천년만세<박대일외7명>	

일 자	공 연 명	장 소	출 연 자 및 곡 목	주 최
86. 8.31	〈실내악 모음〉 창작국악연주회	동아문화센터 비 들 기 홀	· 중주/중주곡Ⅱ번(작곡/김대석)〈대금/이인수, 거문고/김대석, 장고/김문홍〉 · 독주/비단길(작곡/황병기)〈장고/김문홍, 가야금/정명에〉 · 중주/중주곡Ⅲ(작곡/이성천)〈피리/김문홍, 가야금/김명숙, 장고/황해랑〉· 독주/일출(작곡/김대석)〈거문고/김대석〉 · 중주/8주자를위한추초문(작곡/김정길)〈피리/김문홍외7명〉	대구문화회
86. 9.10	경북예술고등학교 86음악과 정기발표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국악합주/유초신지곡中염불, 타령〈집박/박선자〉 · 거문고독주/산조〈김정경· 장고/이지영〉	경북예술고등 학 교 학 생 회
86. 9.24 ~28	제5회 달구벌축제 제10회 아주대회문화 예술행사 “한국전통국악전시회”	시민회관상설 전 시 장	· 사부, 죽부, 토부, 혁부, 목부	한국전통악기 연 구 제 작 사
86.10. 2	제5회 달구벌축제 및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경축연주회 제7회 대구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악곡/장춘불로지곡· 독무/살풀이〈양선희〉 · 시조창/평시조, 온지름시조〈이수영외4명〉 · 독주/해금산조〈김영자〉 · 민요창/상주모심기노래, 함양양잠가, 진도아리랑〈이명희외2명〉 · 정재/포구락	대구직할시
86.11. 5 ~7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제2회 졸업연주회	경 북 대 학교 예 술 대 학	5일 · 가야금독주/산조(김죽파류)〈강승희〉외 6종목 6일 · 가야금독주/산조(박상근류)〈최옥희〉외 5종목 7일 · 가야금독주/산조(함동정월류)〈최난경〉외 5종목	경북대학교 예 술 대 학 국 악 학 과
86.11.14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제5회 국악정기 연주회	경 북 대 학교 대 강 당	· 사악/낙양춘〈집박/김경배〉 · 거문고독주/산조〈손연주, 장고/차금희〉 · 가야금신곡/비단길〈권미지외16명, 장고/김순녀〉 · 관악합주/표정만방지곡中상령산〈집박/전상호〉 · 남창가곡/연락〈김경배교수〉 · 관현합주/만파정식지곡〈집박/전상호〉 · 대금독주/산조〈유석찬〉 · 신곡(작곡/이강덕), 가야금/차금희	
86.11.26	민속의 밤	동아쇼핑 8층 스 타 홀	· 대풍류/시나위〈민속악회〉· 가야금병창〈이명희외4명〉 · 피리산조〈송선원〉· 남도민요〈이명희외 2명〉 · 시나위합주〈이인수외7명〉· 사물놀이시나위〈민속악회〉	
87. 4.17	제9회 대구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현합주/평조희상中상영산· 정재/향발무〈안무/김희숙〉 · 가곡/여창가곡中계면이수대엽〈경덕명〉· 정재/육화대 · 대금독주/요천순일지곡〈조창훈〉· 관악합주/보허자	
87. 5.12	대구음악제 〈국악의 밤〉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현합주/유초신지곡中염불, 타령, 군악 · 남창가곡/연락, 우편〈김경배〉· 정재집무〈재현안무/김희숙〉 · 시조/평시조〈권일지〉 · 피리독주/유초신지곡中상령산〈윤명구〉 · 판소리/춘향가中오리정〈이명희〉	대구직할시, KBS대구방송 총국, 예총대구 직할시지회
87. 6.15	신일전문대학 개교8주년 기념음악회	대구어린이회관 피 꼬 리 극 장	· 가야금독주/침향무(황병기작곡)〈이미경, 반주/경덕명〉	신일전문대학 음 악 학 과

일 자	공 연 명	장 소	출 연 자 및 곡 목	주 최
87. 9.22	87경북예술고등학교 음악과 정기발표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국악합주/유초신지곡中 상영산, 만파정식지곡<집박/신시내>	경북예술고등 학교 학생회
87.10.17	제6회 달구벌 예술제 국악잔치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무고 · 기악 · 시조 · 구고무 · 천왕메기 · 민요(한오백년) · 건들바위비선 · 살풀이 · 한마당놀이 · 설장구놀이 · 밋(무용) · 농악<권명화, 이용왕외7명>	예총대구직할 시지회
87.10.21	제6회 달구벌 축제 제11회 대구시립국악 단정기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악합주/함녕지곡(집박/이인수) · 대금독주/산조<김민자> · 정재/무고<안무/김희숙> · 가야금제주/석류집(작곡/황병기)<장고/경덕명> · 민속무용/살풀이(안무/김희숙)<양선희, 가야금/황종선의외7명> · 시창/관산용마<창/박의숙, 단소/석태호> · 관현합주/미환입<이인수>	대구직할시
87.10.23	신일전문대학 음악과 제3회 정기 연주회	대구어린이회관 피 꼬 리 극 장	· 가야금독주/석류집(작곡/황병기)<석혜정>	신일전문대학 음악과
87.11. 9	경북대학교예술대학 제6회 국악정기연주회	경 북 대 학 교 대 강 당	· 사악/보허자<집박/김경배> · 세악합주/천년만세(계면, 양청)<교수일동> · 관악합주/함녕지곡<집박/이동복> · 판소리/홍보가中박씨물어다주는대목<김연희> · 관악합주/유초신지곡(염불, 타령)<졸업생, 재학생> · 가야금독주/산조(김병호류) · 신곡/메나리주제에의한피리협주곡(이강덕작곡)<지휘/윤명구, 피리/김종국>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과
87.11.11 ~13	제3회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졸업연주회	경 북 대 학 교 대 강 당	11일 · 가야금산조(김죽파류)<김순진, 반주/이수준>외 7종목 12일 · 가야금산조(김죽파류)<이영아, 반주/차금희>외 7종목 13일 · 가야금산조(김죽파류)<하은숙, 반주/이경원>외 7종목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87.11.17	교학통련초청 국악 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악합주/유초신지곡中염불, 타령<경북대국악과 졸업생, 재학 생> · 가야금독주/전설(황병기/작곡)<정해임,장고/최문진> · 세악/계면가락도드리, 양청도드리<경북대국악과졸업생, 재학생> · 거문고독주/산조(한갑득류)<조은희, 장고/임은숙> · 가곡/언락, 우편<김경배> · 궁중무용/춘앵전<김희숙> · 피리독주/유초신지곡중상령산 · 판소리/춘향가중 이별대목<이명희, 교수/채찬복>	전국대학교수 학생남북통일 운동연합
87.12. 4	제12회 대구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현합주/취타 · 정재/오양산<재현안무/김희숙> · 시조<권일지> · 현악합주/황하천 · 판소리/홍보가中 박타는 대목<박동진>	대구직할시

第 12 章 文 化

일 자	공 연 명	장 소	출 연 자 및 곡 목	주 최
88. 4.25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제7회 신입생 연주회	경북대학교 대 강 당	· 세악/천년만세 · 피리독주/유초신지곡中 상령산<정영재> · 가야금독주/산조<신관용류><김후분> · 거문고독주/산조<신쾌동류><유수연> · 대금독주/경풍년<안승수> · 해금독주/유초신지곡中 세령산<정원경> · 관현합주/유초신지곡中염불타령<최보형외>	
88. 4.28	제13회 대구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악합주/장춘불로지곡 · 가야금제주/침향무(작곡/황병기) · 거문고2중주/산운(작곡/황병기)<거문고/라진명, 대금/유석찬> · 생황3중주/중광지곡中세령산<생황/이현주, 단소/김영옥, 양금/김중희> · 세악Ⅱ번<작곡/이강덕, 가야금/이미경외7명> · 정재<최화무> · 가곡/언락, 편락<창/홍원기>	대구직할시
88. 4.30	국악의 밤	동아문화센터 스 타 홀	· 가야금독주/산조(최옥산류)<가야금/이귀영, 장고/김태영> · 거문고독주/산조(신쾌동류)<이용순, 장고/김태영> · 해금독주/산조(한범수류)<해금/장주련, 장고/이귀영> · 대금독주/산조(한범수류)<김태영, 장고/이귀영>	동아문화센터
88. 5.19	제7회 대구음악제 <국악의 밤>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현악합주/수연장지곡<집박/구윤국> · 대금독주(한주환류)<김경애> · 여창가곡/우락(권일지) · 경기민요/한오백년외3곡<정은하외4명> · 가야금제주<이미경외9명> · 사물놀이<김수기외4명>	대구직할시 KBS대구방송총국 예총대구직할시지회 동아문화센터
88. 6. 1	경북예고 국악과 동문회 국악의 향연	동아문화센터 스 타 홀	· 관현합주/유초신지곡中염불환입, 타령, 군악<김미지외 18명> · 세악합주/천년만세<김희정외9명> · 가야금신곡/청산<최은정외2명>	대구직할시
88. 6.10	제14회 대구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악합주/수제천 · 단소독주/청성곡<김중섭> · 신곡/잡자리<정대석작곡> · 세악/중광지곡中 하현도드리, 타령 · 민속합주/시나위<조은희외1명> · 정재/무고	
88. 6.16	경북예술고등학교 88음악과 정기발표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대금독주/산조(한범수류), <대금/김유성, 장고/권미화> · 국악합주/유초신지곡中세령산<집박/민영옥>	경북예술고등 학교학생회
88. 7.26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과 “국악의 밤”	동아문화센터	· 가야금신곡/숲(황병기 작곡)<고경아외3명> · 가야금독주/산조(김병호류)<차금희> · 단소독주/청성곡<이기윤> · 거문고독주/산조(한갑득류)/<손연주> · 가야금신곡/전설(황병기작곡)<김희정> · 세악/중광지곡中 세령산<가야금/김은경외6명>	동아문화센터
88. 9.22	영남대학교음악대학 제7회국악정기연주회	어린이회관 피꼬리극장	· 만파적식지곡 · 수제천 · 평조희상중염불환입, 타령, 군악 · 회 혼례를위한시나위(작곡/백대웅) · 검무 · 살풀이 · 가야금산조(최 옥산류) · 가인전목단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88. 9.23	88서울올림픽기념및 제7회 달구벌축제 대구시립국악단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악합주/보허자 · 가야금독주/산조(김죽파류)<이미경, 장고/ 조은희> · 민속무/살풀이<박소현> · 남도민요/함양양잠가외2곡<이명희외5명> · 군악/대취타 · 정재 /검무 · 관현합주/수연장지곡	대구직할시

일 자	공 연 명	장 소	출 연 자 및 곡 목	주 최
88.10.12 ~14	제4회경북대학교 예술대학국악학과 졸업연주회	경북대학교 대 강 당	12일·대금정악/요천순일지곡<김태호>의 7종목 13일·피리정악/평조, 두거(경풍년)<우희갑>의 7종목 14일·가야금독주/산조(김죽파류)<김연수, 장고/이숙희>의 7종목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88.10.13	제15회 대구시립 국악단 정기연주회 전통성악의 밤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악장/보태평中 회문, 기명, 귀인<정영일, 서재진> ·시조/여창지름시조<권일지> ·가사/수양산가<김호성>·서도민요/회심곡<안비취> ·가곡/편락, 편수대엽, 태평가<김영옥, 경덕명> ·판소리/심청가中에서 '심봉사 황성가는 대목'<이명희, 고수/ 박근영> ·수악절창사/보허자	대구직할시
88.11. 1	제7회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정기 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관악합주/수채천·거문고독주/산조<손연주> ·세악/천년만세<김미수의7명> ·여창가곡/우락<이지은> ·가야금독주/산조(김죽파류)<차금희>·신곡/만선(황의종작곡)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88.11.11	제16회 대구시립 국악단 정기연주회 “가즈회상”	어린이회관 피꼬리극장	·다스름·상령산·중령산·세령산·가락덜이·삼현환입·도 드리·돌장·하현환입·염불환입·타령·군악·계면가락환 입·양청환입·우조가락환입	대구직할시
88.11.19	제26회 청소년을 위한 교사음악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사물놀이/영남농악<팽과리/김한기, 장고/배해근, 징/김승호, 북/김재화>	대구직할시 교육음악협회
88.12. 3	전통음악향음 창단연주회 “향음”	동아문화센터	·대풍류/수채천<집박/김영순외12명> ·가야금,대금중주/아이보개(황병기곡)<이숙희외 4명> ·거문고독주/산조(신패동류)<김영순> ·가곡/태평가<조길호, 경덕명>·민속무용/도살풀이<백현순> ·줄풍류/천년만세<장고/경덕명의 6명> ·합창과 국악기합주곡/밧삭<지휘/황해랑>	동아문화센터
88.12.20	제17회정기공연대구시 립국악단궁중정재의 밤	대구시민회관 소 강 당	·박접무<김선희외5명>·초무<류언선, 채한숙> ·하황은<안연주의8명>·살풀이<김영순>·무고<최정희외 8명>	대구직할시
89. 4. 6	제18회 대구시립 국악단 정기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관악합주/동동·가야금독주/산조(김병호류)<차금희> ·민속무/승무<권성경>·가야금제주/청산(작곡/황의종) ·정재/검무·거문고, 단소병주/거문고<김무규> ·3중주/중주곡2번(작곡/정대석)<연주/경덕명의 4명> ·관현합주/취타	대구직할시
89. 4.21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1989년 제8회 신입생 연주회	경북대학교 대 강 당	·피리독주/유초신지곡中상령산<정도영> ·거문고독주/산조(신패동류)<강수정> ·가곡/환계락(여창)<김진희> ·가야금독주/침향무(작곡/황병기曲)<지애경> ·대금독주/경풍년(병조두거)<김대성> ·해금독주/산조(한범수류)<김현주> ·관현악합주/유초신지곡中염불, 타령<신입생일동>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일 자	공 연 명	장 소	출 연 자 및 곡 목	주 최
89. 4.30	대구방송총국 개국 50주년기념 KBS국악관현악단 초청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산조주제에 의한 합주곡(작곡/김희조)〈지휘/이상규〉 · 메나리조에 의한 피리 협주곡/(작곡/이강덕)〈피리/윤명구〉 · 경기민요/희심곡(편곡/이상규)〈이호연〉 · 가야금협주곡/침향무(작곡/황병기 편곡/이상규)〈최문진〉 · 16개 타악기를 위한 시나위(작곡/이상규) 남도민요(편곡/김희조)〈성장순〉 · 동요모음곡(편곡/이상규)〈KBS어린이합창단〉	KBS방송총국
89. 5. 3	부산대구순회 국악연주회	대 구 피 꼬 리 노 래 극 장	· 수제천〈집박/김정수〉· 대금독주/유초신지곡〈김상준〉 · 기악합주/시나위〈김방현외 7명〉 · 풍물놀이〈원일외5명〉· 가야금협주곡1번(작곡/황의중)〈송순천〉 · 침향무(작곡/ 황병기, 편곡/이상규)〈가야금/함태이〉 · 아리랑접속곡(박범훈편곡) · 아쟁독주와 관현악(김희조 편곡)〈아쟁/이태백〉	
89. 5.11	제8회 대구음악제 〈국악의 밤〉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악합주/수제천〈집박/구윤국〉 · 정재/박접무〈최정희 외 5명〉 · 대금독주/산조〈김경애〉 · 구군악/대취타〈대구시립국악단〉 · 군무/봄의향연〈박소현, 도기순외35명〉 · 경기민요/태평가외 2곡〈정은하외4명〉	대구직할시 KBS 대구방송총국 예총대구 직할시지회
89. 5.24	북현대동제 축하기념 “국악의 밤”	경북대학교 대 강 당	· 관현합주/함녕지곡〈집박/조효장〉 · 판소리/제비박씨물어다주는대목〈김연희〉 · 대금독주/요천순일지곡〈양성필〉 · 가곡/언락〈조길호〉 · 아쟁산조〈한일섭류〉〈진윤하〉· 사물놀이〈조희대외4명〉	경북대학 예술대학 국악학과
89. 6. 1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제8회 국악 정기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현합주/별곡〈집박/곽태천〉 · 피리독주/계면자진환입〈김종섭〉 · 정재독무/무산향〈채한숙〉 · 정재군무/쌍무고 · 가야금제주/청산(작곡/황의중) · 관현악/엄불주제에 의한 환상곡〈작곡/이강덕,지휘/최문진〉	
89. 6. 9	제19회 대구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현합주/수연장지곡 · 정재/포구락 · 가곡/언락, 언편〈김경배〉· 거문고제주/일출(작곡/정대석) · 정재/춘앵전〈최정희〉 · 관현악/가야금협주곡1번(작곡/이강덕)〈지휘/장명화 · 가야금/이숙희〉	대구직할시
89.6.28	중앙국악관현악단 전국순회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특별출연:안비취/이준희/김성녀/김영림/정태춘/김수철/김덕수 · 사물놀이패	후원: 대구문화방송
89. 7. 6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국악학과 연구발표회 「관악합주의밤」	동아문화센터 스 타 홀	· 수제천/조장~4장, · 표정만방지곡/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제지, 삼현환입, 엄불환입, 타령, 군악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학생회

일 자	공 연 명	장 소	출 연 자 및 곡 목	주 최
89. 7.12	89. 대구시립국악단 호남(전남구례)공연	지리관 (구례중학교)	· 관현합주/수제천<집박/장명화> · 구례향제줄풍류/영산회상中염불, 타령<이주영외5명> · 무용/검무<최정희외3명> · 3중주/중광지곡中세령산<이현주외2명> · 무용/바라춤<백지현외3명> · 가야금제주/침향무(작곡/황병기) · 구군악/대취타 · 남도창/홍보가中매품팔러가는대목<이명희> · 관현악/관현악을위한시조<지휘/장명화>	대구직할시
89. 8. 5	중화민국 대중시 국악단초청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보천악 · 문호금파(합주곡) · 강남춘(적자협주곡) · 요원소 · 환악적야만(소합주곡) · 절령(합주곡) · 신운(파조협주곡) · 신년악	대구직할시
89. 9.12	중앙관현악단 제5회정기연주회	대구어린이회관 피 꼬 리 극 장	· 작곡, 지휘/박범훈 · 작곡/三木稔 · 지휘/田村拓男	후원 :KBS 한국방송공사
89. 9.26	제20회정기연주회 (달구벌축제) 대구시립국악단 대만초청귀국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악합주/수제천 · 무용/바라춤<최정희외3명> · 세악합주/시나위 · 민속무/승무<권성경> · 가야금병창/함평천지, 뽕따러가세<이명희외3명> · 사물놀이<임은숙외3명> · 창과관현악/성주풀이, 흥타령, 물레타령 · 관현악/관현악을 위한 산조	대구직할시
89.10. 2	제8회 달구벌예술제 국악잔치	대구시민회관 대강당	· 관현악합주/평조회상中염불, 타령, 군악<집박/이인수> · 시조/평시조<권춘화> · 가곡/언락<김영옥> · 민요/밀양아리랑외2곡<정은하외7명> · 경기민요<이은관외1명> · 관현합주/아리랑접속곡<지휘/곽태천> · 창과관현악/성주풀이외2곡<방경숙, 박진희, 지휘/곽태천> · 배뱅이굿<이은관> · 독무/태평무<박소현외 21명> · 사물놀이<김수기외5명> · 가야금병창/봉숭아꽃, 꽃노래, 꽃타령, 뽕따러가세<김행옥외11명> · 날피북춤<김수배외20명>	대구직할시 예총대구직할 시지회
89.10. 7 ~8	제8회 달구벌예술제 달구벌 국악경연대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특별출연: · 대금독주<김경애> · 경기민요<정은하> · 가야금병창<김행옥> · 시조<권일지>	대구직할시예총 대구직할시지부
89.10. 8	제1회 현음회 정기연주회	어린이회관 피꼬리극장	· 관현합주/도드리 · 단소독주/요천순일지곡<박재복> · 세악합주/천년만세 · 단소제주<현천수> · 가곡/우락<우장희> · 단가/진국명산<최은경, 북/정경희> · 가야금산조(김병효류)<이숙희, 장고/손경락> · 민요/함양양잠가, 진도아리랑, 아리랑	
89.10.10 ~13	제5회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과 졸업연주회	경북대학교 대 강 당	10일 · 거문고독주/산조(신패동류)<정영일, 반주/손경락>외9종목 12일 · 피리정악(유초신지곡中상령산)<권혁도>외 7종목 13일 · 피리정악(유초신지곡中상령산)<정은영>외 8종목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第 12 章 文 化

일 자	공 연 명	장 소	출 연 자 및 곡 목	주 최
89.10.19	제2회 교수교류연주회	경북대학교 대 강 당	· 신곡/중주곡 제4번(작곡/황의종)〈대금/유경조의 5명〉 · 남창가곡/평조소용〈노래/김경배〉 · 해금독주/산조(지영희류)〈해금/김영재, 장고/김광복〉 · 신곡/2중주, 산운(작곡/황병기)〈가야금/정해임, 대금/이동복〉 · 신곡/대금과 가야금을 위한 4중주(작곡/김영재) 〈대금/김광복외4명〉 · 가야금독주/산조(강태홍류)〈가야금/백혜숙, 장고/신태형〉 · 합주/유초신지곡中염불도드리, 타령〈3개대교수일동〉	경북대학교 예 술 대 학 국 악 학 과
89.10.30	제21회 대구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악합주/해령〈집박/이동복〉 · 정재/무산향〈독무/안연주〉 · 대금독주/유초신지곡中상령산〈장명화〉 · 중주/명(작곡/강석희) · 정재/가인전목단 · 관현악/춤을 위한 국악연습(작곡/이해식)	대구직할시
89.11. 7	제8회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정기연주회	경북대학교 대 강 당	· 관현합주/만파정식지곡 · 피리독주/유초신지곡中상령산〈이국도〉 · 남여창가곡/태평가〈남/조길호, 여/김진희〉 · 대금독주〈양성필〉 · 세악/천년만세〈가야금/이가야외7명〉 · 아쟁독주/산조(한일섭류)〈진윤하, 장고/손경락〉 · 창작곡/합주곡 제1번(작곡/김희조)	경북대학교 예 술 대 학 국 악 과
89.11. 9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연구발표회 “산조의 밤”	동아문화센터 스 타 홀	· 해금독주/산조(한범수류)〈박선자〉 · 가야금독주/산조(최옥산류)〈신현주〉 · 피리독주/산조(박범훈류)〈곽효상〉 · 거문고독주/산조(한갑득류)〈박상현〉 · 대금독주/산조(원장현류)〈신보식〉	동아문화센터
89.11.29	달구벌사물놀이 창단3주년기념공연 우리소리 위대한진동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영남농악〈김수기외5명〉 · 사물놀이/지신풀이〈김수기외5명〉 · 사물놀이/우도굿〈김수기외5명〉 · 날피북춤/웃다리풍물〈김수기외5명〉 · 도살풀이〈황정환〉 · 판굿〈김수기12명〉	후원: 매일신문 한국방송공사, 대구방송총국
89.12 8	제22회 대구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현합주/여민락中〈집박/구윤국〉 · 정재/향발무 · 가곡/평룡, 계락〈조순자〉 · 민속무/살풀이〈김희경〉 · 중주곡/8주자를 위한 추조문(작곡/김정길) · 관현악/민요연곡(방아타령, 진도아리랑, 화초사거리, 동백꽃 타령)〈편곡/이강덕〉 · 관현악/만선(작· 편곡/황의종)	대구직할시

일 자	공 연 명	장 소	출 연 자 및 곡 목	주 최
90. 1.23	동아문화센터 설날맞이 특집문화행사 국악의 향연	동아문화센터 스 타 홀	· 관현합주/만파정식지곡<양성필외9명> · 대금독주/상령산<이현창> · 민요모음/태평가, 풍년가, 양산도, 뱃노래, 아리랑 · 거문고독주/산조(신쾌동류)<윤선숙> · 삼중주/하현도드리<신시내외2명> · 풍물놀이<조희대외3명>	동아문화센터
90. 3.15	제23회 대구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현합주/보허자<집박/구윤국> · 정재/무고 · 현악합주/수요남곡 · 정재/박접무 · 관현악/송춘곡(작곡/이강덕)	대구직할시
90. 4. 2	우리국악회 국악연주단창단 국악 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현악/합주곡3번(작곡/김희조) · 관악합주/수제천<집박/최문진> · 가야금독주/산조(김병호류)<가야금, 강문득, 장고/채찬복> · 가곡/태평가<김경배, 조순자> · 정재/연화대무(안무/김희숙) · 대금독주/산조<김경애, 장고/김문홍> · 민속무용/백의관음(안무/박소현) · 남도민요/사절가, 신아리랑<이명희외3명> · 창작곡/단군신화<지휘/김덕환, 노래/김경배, 경덕명>	우리국악회 대구직할시
90. 4.18	제24회 대구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악합주/함녕지곡<집박/김경배> · 정재/오양선 · 현악3중주(작곡/이강덕)<가야금/문미희, 거문고/김남은, 강경자> · 정재/진주검무 · 홍보가中 박타는대목<창/이명희> · 관현악/합주곡1번(작곡/김희조)<지휘/장명화>	
90. 5.21	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 축하 공연 시립예술단 합동공연	문화예술회관 대 강 당	· 국악단/보허자창사 · 소년소녀합창단/설악산아, 목련화, 경북 궁타령 · 합창단/추천가, 산길, 보리타작	대구직할시 예총대구직할시지회
90. 5.22 ~25	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 축하공연 전국시조 경창대회	문화예술회관 대 강 당	· 을부/평시조, 사설시조 · 갑부/남창지름, 여창지름 · 특부/사설시조, 남· 여창지름 · 명인부/각시조, 우조지름, 위음지름 · 국창부/중허리 시조, 우조지름, 사설지름, 위음지름	대구직할시 예총대구직할시지회
90. 5.28	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 축하공연 시립국악단 연주회	문화예술회관 대 국 장	· 관악합주/수제천<집박/구윤국, 지휘/장명화> · 대금독주/요천순일지곡<독주/조창훈> · 민속무용/부채춤(안무/김행옥) · 정재/포구락<재현안무/김현주> · 특별출연<대만대중시국악단> · 세악/하현, 타령<우리국악회> · 관현악/기악합주곡(민요연곡)합동연주(편곡/이강덕) · 관현악/합주곡1번(작곡/김희조)<합동연주>	대구직할시 예총대구직할시지회
90. 5.31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제9회 국악정기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대취타, 종묘제례악, 보태평전전폐회문 · 거문고독주/산조(신쾌동류)<거문고/최수정, 장고/선보식> · 살풀이<임경희> · 해금협주곡3번(작곡/이강덕)<고윤정> ·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악신모듬(작곡/박범훈)<최경옥외4명>	

第 12 章 文 化

일 자	공 연 명	장 소	출 연 자 및 곡 목	주 최
90. 6. 8	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 축하공연 국악공연	문화예술회관 대 국 장	· 무고(안무/박인회)〈박인회무용단〉 · 부채춤(안무/김행옥)〈이건애외15명〉· 가곡〈권일지〉 · 살풀이〈권명화〉· 회심곡/정은하외6명 · 기악합주/서울대구합동공연〈이생강외7명〉· 사랑가〈방경숙〉 · 창〈신영희〉· 승무〈박인회〉 · 가을풍경 및 한마당놀이/(안무/권명화)	대구직할시 예총대구직할 시지회
90. 6. 9	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 축하공연 대구국악인의밤	문화예술회관 대 국 장	· 개막연주〈시립국악단〉· 시조〈권춘화〉· 가야금병창〈김행옥〉 · 남도민요〈방경숙외5명〉· 입춘〈김운선〉· 대금산조〈김경애외10명〉 · 연합관현악〈지휘/이인수, 가야금독주/산조〈이미경〉 · 구군무〈박인회〉 · 날피북춤 및 사물놀이〈비산농악대, 달구벌사물놀이〉	대구직할시 예총대구직할 시 지 회
90. 6. 9	문화예술회관개관기념축 하공연전국국악경연대회	문화예술회관 소 국 장	종목/무용, 성악(판소리, 민요), 기악	대구직할시 예총대구직할시지회
90. 6.10	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축하공연 전국명인 명창 특별공연	문화예술회관 대 국 장	· 판소리〈박동진〉· 도살풀이〈김숙자〉 · 가야금병창〈박귀희, 안숙선〉 · 경기민요〈안비취〉· 한량무〈임이조〉· 창〈신영희〉 · 대금독주/산조〈이생강〉· 무용〈최선〉· 아쟁산조〈김일구〉	대구직할시 예총대구직할 시 지 회
90. 6.12	제25회 대구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현합주/경풍년〈집박/구윤국〉 · 가야금중주곡/청산(작곡/황의중) · 중주곡/대금3중주(작곡/이상규)〈대금/김민자, 박정, 장순애〉 · 민속무용/강강수월래(안무/김현주) · 가야금협주곡/비단길(작곡/황병기, 편곡/이강덕)〈지휘/장명 화, 가야금/김미수〉	대구직할시
90. 7.14	포항시주최 영남대학 음악대학 국악연주회	포항시민회관	· 합주/수제천〈집박/곽태천〉 · 거문고독주/산조(한갑득류)〈강상호, 장고/신보식〉 · 협주곡/해금협주곡3번(작곡/이강덕)〈지휘/최문진, 해금/고윤 정〉외 5종목	포 항 시
90. 9.22	제26회 정기연주회 (달구벌축제)	대구중앙공원 선 화 당	· 관현합주/염불, 타령, 군악〈집박/장명화〉 · 민속무/바라무〈김희경외3명〉 · 남도민요/새타령, 진도아리랑〈노래/주은숙외2명〉 · 사물놀이/영남농악(임은숙외3명) · 판소리/춘향가中오리정이별대목〈이명희〉 · 관현악/염불주제에의한환상곡(작곡/이강덕)〈지휘/윤명구〉	대구직할시
90. 9.23	제2회 현음회 정기연주회	문화예술극장 소 국 장	· 관현합주/취타〈장고/이숙희〉· 단소독주/수룡음(평릉)〈김용환〉 · 가곡/환계락· 단소제주/중광지곡中상령산 · 병주/천년만세〈단소/이상민, 양금/윤정희〉 · 영제시조/평시조〈예찬건〉 · 세악/중광지곡中염불도드리, 타령 · 동요/새야새야, 반달, 오빠생각〈기타/우영하, 정권술, 단소/이 상민〉· 민요/상주모심기, 밀양아리랑, 뱃노래〈장고/정경희〉	

일 자	공 연 명	장 소	출 연 자 및 곡 목	주 최
90. 9.28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연구발표회 산조의 밤	동아문화센터 스 타 홀	· 해금산조(지영희류)〈고윤정〉· 가야금산조(김죽파류)〈정모란〉 · 피리산조(박범훈류)〈김현호〉· 거문고산조(신쾌동류)〈이성원〉 · 대금산조(원장현류)〈사재원〉 · 장고/김문홍	
90.10.10 ~13	제6회 영남대학교 음악대학국악과 졸업연주회	영남대학교 음 악 대 학 대 강 당	10일 · 피리〈김용우〉의 10종목 11일 · 가야금〈최은정〉의 10종목 12일 · 거문고〈강상호〉의 10종목 13일 · 정재/살풀이〈임경희〉의 13종목	영남대학교 음 악 대 학 국 악 과
90.10.16 ~19	제6회 졸업연주회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경북대학교 대 강 당	16일 · 대금〈양복귀〉의 9종목 17일 · 가야금산조〈조정임〉의 8종목 18일 · 가야금산조〈김선주〉의 8종목 19일 · 대금산조〈위연환〉의 9종목	경북대학교 예 술 대 학 국 악 학 과
90.11. 2	제27회 대구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악합주/표정만방지곡中 상령산(집박/곽태천) · 정재/무고 · 대금독주/산조〈한주환류〉×〈김경애〉 · 중주곡/중주곡제4번(작곡/황의중)〈해금/황성숙, 가야금/이미경, 거문고/김영순〉 · 관현악/밀양아리랑주제에의한관현악(작곡/이상규)〈지휘/이의경〉 · 관현악/동구나무의사계(작곡/이의경)〈지휘/이의경〉	
90.11. 8	제9회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정기연주회	경북대학교 대 강 당	· 관현합주/여민락(집박/김경배) · 피리독주/유초신지곡中상령산〈조희대〉 · 가사/춘면곡(김민정) · 가야금독주/산조(김죽파류)〈김은주, 장고/손경락〉 · 염불주제에 의한 환상곡(작곡/이강덕)〈지휘/윤명구〉 · 태평소와 사물놀이를 위한 관현악 “푸리”(작곡/황의중)	
90.11.11	개교35주년기념 연주회 협성고등학교 합창단	협성고등학교 대 강 당	· 거문고 독주/유초신지곡中 타령, 군악(서상원)	협성고등학교 학 생 회
90.11.25	달구벌 사물놀이 창단4주년 기념공연 우리의소리 위대한 진동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지신놀이 · 3장2북 · 영남농악 · 호남우도굿 · 옷다리풍물(달구벌사물놀이패) · 특별초청/풍물놀이와 태평소〈태평소/곽태천, 풍물/이인수와4명〉 · 선반(관굿)	
90.12.14	제28회 대구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구군악/대취타〈등채/장명화〉 · 독무/장고독무, 고향춤, 명전놀이춤〈특별출연/이록순〉 · 정재/처용무(안무/이명실)〈백지현외4명〉 · 현악합주/천년만세벼주곡(편곡/이상규) · 관현악/국악현악 반주에 의한 가곡연곡(편곡/이성천)〈바리톤/박영국, 소프라노/김원애〉 · 관현악/합주곡제1번(작곡/김희조)	
91. 2.11	영남대학교 국악과 연구발표회 민속음악의 밤	동아문화센터 비 들 기 홀	· 남도굿거리 · 승무〈권성경〉 · 대금산조제주(원장현류)〈신보식, 사재원, 이완석〉 · 살풀이〈김희경〉 · 시나위 · 사물놀이/영남농악〈구성/이장우〉(김은주 외 4명)	

일 자	공 연 명	장 소	출 연 자 및 곡 목	주 최
91. 3.15	제29회 대구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현합주/태평춘 지곡<집박/장명화> · 현악합주/도드리 · 시조/평시조<노래/채숙자> · 민속악시나위<이국도의7명> · 정재/춘앵무<김선희> · 중주곡/산운<대금/류석찬, 거문고/라진명> · 관현악/해금협주곡(작곡/황의중)<지휘/김덕환, 해금/송권준>	대구직할시
91. 3.27	제3회 어울림의 밤	대구교육대학 상록문화원	· 관현합주/수연장지곡<집박/구윤국> · 가야금독주/비단길(작곡/황병기)<김영준> · 세악/천년만세<장고/문명희> · 민요<창/송지민의 14명> · 창작가요<문석주> · 사물놀이/영남농악<여병동의 4명> · 창과관현합주/아리랑집속곡(편곡/박범훈)<지휘/여병동, 창/ 강묘숙>	대구교육대학 국악관현악단
91. 4.18	경북대학교예술대학국악과 제10회 신입생 연주회	경북대학교 대 강 당	· 대금독주/경풍년(변조두거)<강상구> · 거문고독주/산조(신쾌동류)<조수경> · 해금독주/산조(한범수류)<임순영> · 세악/중광지곡中 하현도드리, 타령<장고/박현영외 6명> · 판소리/홍보가中 ‘홍보가 매 맞고 쫓겨나는 대목’<이호연> · 가야금독주/산조(김죽파류)<박현영> · 피리독주/산조(정재국편)<최창선> · 관현합주/수연장지곡<집박/박희정의 29명>	경북대학교 예술대학국악학과
91. 4.27	제16회 전국대시습놀이전국대회판 소리 명창부장원 청소년 판소리 전수소준공기념, 이명희선생과 문화생의 홍보가 원창 발표회	청소년판소리 전수소 (경북청도군각 남면함박리)	· 유초신지곡中/염불, 타령<우리국악회회원> · 홍보가원창<정원표외 14명>	후원/ 우리국악회
91. 5. 2	제30회 대구시립국악 단정기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현합주/경풍년<집박/장명화> · 가야금독주/산조(김죽파류)<이미경, 장고/김문홍> · 무용/김기무<김영순외 7명, 정재지도/이명실> · 세악/수요남곡(편곡/홍종진) 김중국의 7명 · 관현악/합주곡4번(작곡/김희조)<지휘/김덕환> · 관현악단/단군신화(작곡/김영동)<노래/김경배, 김덕명>	대구직할시
91. 5.14	제10회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정기연주회	경북대학교 대 강 당	· 관악합주/서일화지곡 · 대금독주/요천순일지곡<이현창> · 관현합주/유초신지곡中염불환입, 타령 · 세악/중광지곡中세령산<신시내외7명> · 창작곡/거문고협주곡 수리재(작곡/정대석, 거문고/윤선숙) · 창작곡/합주곡제3번(작곡/김희조)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91. 5.21	문화예술회관 개관1주년기념 대구시립국악단 특별연주회	문화예술극장 대 극 장	· 관악합주/수제천<집박/장명화> · 대금독주/산조(한주환류)<이생강 · 장고/이성진> · 세악/중광지곡中상령산<우리국악회> · 정재/김기무(정재지도/이명실) · 판소리/심청가中인당수가는길<김소희 · 고수/김청만> · 관현악/소금협주곡(작곡/이강덕)<지휘/김덕환, 소금/장명화>	대구직할시

일 자	공 연 명	장 소	출 연 자 및 곡 목	주 최
91.5.30 ~31	동아문화센터 특집음악프로그램 1991영남대학교 음악대학국악과 전통음악연구발표회	동아문화센터 스 타 홀	30일<현악의밤> · 황하청 · 향제줄풍류中하현, 엽불, 타령, 군악, 계면, 양청, 우조, 굿거리<가야금/마해정외19명, 거문고/이주희 외 13명, 양금/오정희, 배미애, 장고/이종임> 31일<관악의 밤> · 수제천, 취타, 절화, 길타령, 별우조타령, 군악 · 보허자 · 표정 만방지곡中 세령산, 가락덜이, 삼현환입, 엽불환입, 타령<피리/ 박세홍외19명 대금/표정미외7명 · 해금/박영란외17명 · 아쟁/김홍리의 3명>	동아문화센터
91. 6. 8	대구시립국악단 특별야외공연	중앙공원 선화당	· 관현합주/평조회상中엽불, 타령 · 민속합주/시나위<피리/이국도의6명> · 판소리/홍보가중 박타는 대목<이명희, 주은숙 · 고수/채찬복> · 정재/무고<정재지도/이명실, 권성경외 7명> · 남도민요/사절가, 지경다짐, 신아리랑<이명희외4명> · 사물놀이<임은숙외 6명>	대구직할시
91. 6.14	제31회 대구시립국악단 중주곡의 밤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여섯악기를위한류<작곡/박일훈><이자경외5명> · 가야금3중주/상주모심기<작곡/백대웅><차금희, 김연정, 문지숙> · 단소와줄가락3중주<작곡/이상규><장명화, 문미희, 김남은, 주정민> · 세우영<작곡/김기수><김민자, 강경자, 김문홍, 김종국> · 작은중주곡<작곡/전인평><임은숙, 장순애, 이계숙, 정미란, 김순녀> · 발바심<작곡/김용만><정영일의 11명>	대구직할시
91. 6.15	경북예술고등학교 제26회 음악과 정기 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현악/사물놀이와 국악 신모듬<지휘/이종진, 조수양외 66명>	경북예술고등 학교음악과
91. 9.17	UN가입 경축 음악회 제32회 대구시립국악 단정기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악합주/동동<집박/장명화> · 무용/살풀이<안무/이명실> · 가야금2중주/석류집<작곡/황병기> · 관현악/노송나무<작곡/김기수><지휘/김덕환, 노래/김경배> · 관현악/합주곡1번<작곡/김희조>	대구직할시
91.10. 9	제10회 달구벌 축제 기념연주회 대구시립국악단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현합주/취타<집박/장명화> · 경기민요/한오백년, 강원도아리랑, 뱃노래, 잣은뱃노래<노래/ 정은하외4명> · 거문고독주/산조<신쾌동류><김순녀, 강경자, 김정희> · 정재/포구락<정재지도/이영실> · 경기도민요/한강수타령, 태평가, 방아타령<노래/정은하외4명> · 사물놀이<팽과리/김문홍, 양성필외 5명>	대구직할시
91.10.11	경북대학 예술대학 국악학과 평조회상의 밤	경북대학교 대 강 당	· 평조회상/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덜이, 상현도드리, 엽불, 타령, 군악,<가야금/김철미외 27명>	
91.10.14 ~17	경북대학 예술대학국악학과 제7회 졸업연주회	경북대학교 대 강 당	14일 · 거문고산조<한갑득류><하현희, 반주/손경락>외 7종목 15일 · 대금정악/평조두거<윤효상>외 7종목 16일 · 피리산조<박범훈편><서성미>외 7종목 17일 · 가야금산조<김죽파류><신시내, 반주/양성필>	

일 자	공 연 명	장 소	출 연 자 및 곡 목	주 최
91.11. 1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제10회 국악정기 연주회	문화예술회관 대 극 장	· 관합주/보허자 · 가곡/우락, 편수대엽<김선미> · 독무/살풀이<채은정> · 정재군무/오양선<김효주> · 원무<문윤경외3명> · 관현악/가야금과 관현악을 위한 비단길 <가야금/손현정> · 관현악/아쟁독주와 관현악<한일섭류 아쟁산조,김희조편곡> <아쟁/김홍리>	영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91.11. 5	제2회 우리국악회 국악 연주단 정기 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집박:김덕환, 지휘:김경배>	우리국악회
91.11. 7	제2회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전통성악의 밤	동아문화센터 스 타 홀	· 가곡/남여창 편수대엽<편곡/김경배><성악반일동> · 가곡/남창우편<최창조> · 가사/황계사<김진희> · 가사/춘면곡<김민정> · 가사/어부사<김진희, 김민정> · 판소리/홍보가中돈타령대목<윤미지> · 매품팔러가는 대목<이호연> · 홍보마누라가 신세타령하는 대목<이경희> · 홍보마누라가 음식 차리는 대목<정원표> ※정가반주/서성미외 6명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91.11.13	제33회 대구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전통춤>	문화예술회관 대 극 장	· 구성, 안무지도/이명실<출연/대구시립국악단한국춤외6명> · 무고 · 무산향, 학, 연화대, 처용무합설<집박/최성희> · 농굿<농기/곽효상, 사물/ 임은숙외 3명>	대구직할시
91.11.14	1991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악학과 졸업연주회	경북대학교 대 강 당	· 가곡/평조조음<대금/윤병천, 장고/김문홍> 평조초수대엽 · 창작곡/수리제<작곡/정대석> · 산조/진양, 중모리, 엇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한갑득류> <장고/김문홍>	
91.11.19	대구시립국악단 부산순회공연	부산문화회관 대 강 당	· 관현합주/도드리<집박/장명화> · 판소리/홍보가中홍보밥빌러가는대목<이명희> · 정재/무고<안무/이명실> · 관현악/바다<작곡/황의중><지휘/김덕환> · 관현악/소금협주곡<작곡/이강덕><소금/장명화> · 관현악/단군신화<노래/김경배, 경덕명>	대구직할시
91.11.30	제5회 향토사연구 전국학술기념공연	대구 뉴영남호텔 3층	· 사회/김경배 · 가야금산조<강태홍류><이숙희> · 가곡/여창우락<권일지, 반주/이소영외5명> · 대금/산조<김경애, 장단/김문홍> · 판소리/홍보가中박타는대목<이명희, 고수/채찬복>	우리국악회
91.12.23	제34회 정기연주회 대구시립국악단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현합주/평조회상中 상령산<집박/장명화> · 정재/학, 연화대, 처용무합설<안무/이영신> · 거문고 독주/산조<신쾌동류><이세환> · 관현악/바다<작곡/황의중><지휘/김덕환> · 관현악/동구나무의 사계<작곡/이의경>	대구직할시

일 자	공 연 명	장 소	출 연 자 및 곡 목	주 최
92. 2.22	울선 국악회 대금연주회	동아문화센터 아 트 홀	· 수연장지곡· 평조회상中 세령산 · 산조제주(한범수류)〈이성래, 김정임, 김미란, 박종옥, 천희영〉 · 민요연곡(한오백년, 아리랑, 밀양아리랑, 닐리리아, 뱃노래) · 가곡/연풍〈창/김영옥〉 · 대금독주/평조회상中 상령산〈김성진〉 · 종묘제례악中 전폐회문· 유초신지곡	동아문화센터
92. 3.20	제35회 정기연주회 대구시립국악단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현합주/유초신지곡中염불, 타령, 군악〈집박/장명화〉 · 정재/가인전목단〈채현안무/김천홍, 정재지도/이명실〉 · 중주/어디로갈꺼냐, 삼포로가는 길, 누나의 얼굴(편곡/장명화)〈김민자외2명〉 · 현악합주/천년만세변주곡(편곡/이상규) · 관현악/매굿(작곡/김영동)〈지휘/김덕환, 노래/김경배, 대구시립합창단〉	대구직할시
92. 4.16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1992학년도 제11회 신입생연주회	경북대학교 대 강 당	· 대금독주/청성곡〈이미향〉 · 거문고독주/산조(신쾌동류)〈한혜순〉 · 해금독주/산조(한범수류)〈정경란〉 · 세악/중광지곡中하현도드리〈우희자외5명〉 · 판소리/춘향가中이별대목〈염수희〉 · 가야금독주/산조(김죽파류)〈정지은〉 · 피리독주/산조(정재국편)〈김민정〉 · 관현합주/수연장지곡〈집박/이정섭외 30명〉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과
92. 5. 7	제36회 정기 연주회 대구시립국악단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표정만방지곡中상령산〈집박/장명화〉 · 가야금2중주/청산(작곡/황의종) · 대금산조(한주환류)〈대금/김경애〉 · 관현악/국악관현악을 위한 파랑새 환상곡(작곡/전인평)〈지휘/김덕환〉 · 창과 관현악/성주풀이, 흥타령, 개고리타령(작곡/김희조)〈지휘/김덕환, 노래/이명희〉	대구직할시
92. 5.13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창립10주년기념 동문국악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경풍년〈집박/권태욱〉· 청성곡〈신보식〉 · 박접무〈김선희외5명〉 · 살풀이〈오향란〉· 경기민요(정은하외3명) · 사물놀이를 위한 신모듬〈지휘/이종진〉〈뽕과리/최경옥외 3명〉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국악학과
92. 5.21	국악가요와 김덕수패 사물놀이의 밤	대구문화예술 회관대강당	· 꽃분네야(작곡/채치성)· 누나의 얼굴(작곡/김영동) · 상주모심기· 애사당(작곡/김영동) · 은빛바다(황의종곡)〈소금/장명화〉· 산도깨비(작곡/조광재) · 한네의 승천(작곡/김영동) · 쑥대머리〈노래/강호중, 구하나· 반주/대구시립국악단, 지휘/김덕환〉 ·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합주곡/신모듬(작곡/박범훈)〈지휘/김덕환, 김덕수외3명〉	대구문화예술 회관

일 자	공 연 명	장 소	출 연 자 및 곡 목	주 최
92. 5.27	제2회 경대인을위한 음악회	경북대학교 대 강 당	· 대금독주/유초신지곡中 상령산, 요천순일지곡<이동복교수> · 관현악/사물놀이를 위한 신모듬(작곡/박범훈)<지휘/윤명구교수>	경북대학교 예술대학국악학과
92. 6. 3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창립10주년 기념 국악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낙양춘<집박/최문진> · 민속무<권성경> · 사선무 · 길춤<작곡/이해식> · 가야금 협주곡 7번(작곡/이강덕)<가야금/문지숙> · 수리제(작곡/정대석)<거문고/이성원>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92. 6.18	대구시립국악단 제37회 정기 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현합주/수채천<집박/장명화> · 살풀이<류언선> · 현금증주곡/일출(작곡/정대석) · 부채춤(안무/이명실)<김희경외 11명> · 관현악 합주곡 5번 (타령에 의한 전주곡)<작곡/이성천 · 지휘/곽태천> · 관현악/군무(작곡/원한기 · 지휘/곽태천)	대구직할시
92. 6. 20 ~21	제3회 대구 국악제	대구문화예술 회관 대극장 소 극 장	· 가곡/태평가 <권일지, 김경배> · 가야금 병창/ 내고향의 봄, 범벅타령, 꽃타령 <김행옥외 15명> · 무용/장구춤 <이은자의 40명> · 남도민요/동백타령 · 무용/부채춤<신이화외 15명> · 사물놀이/영남농악<팽과리/김수기외 4명> · 건들바우/치성굿<권명화외 30명>	대구직할시 예총대구직할 시지회
92. 6.29	동아문화센터 초청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창설 10주년 기념 교수음악회	경북대학교 대 강 당	· 가곡/편락, 편수대엽, 태평가 <조창훈, 조순자> 춘앵무 <김희숙> · 보태평지곡/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덜이, 상현도드리, 하 현도드리, 염불, 타령, · 군악<곽태천 외 5명>	동아문화센터
92. 8.17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악학과 졸업연주회	동아문화센터 아 트 홀	· 대금독주/중광지곡中 상령산<손경락> · 산조/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92. 9. 4	추석맞이 동아문화센터 초청 우리국악회 연주 회 유초신지곡의 밤	대구문화 예술회관 소 극 장	· 유초신지곡/상령~군악(연주/곽태천외 15명)	
92. 9. 5	심인고등학교 한소리 사물놀이의 밤	대구문화 예술회관 소 극 장	· 대금과 사물놀이<대금/천희영외 4명> · 영남농악가락<팽과리/이상성의 7명> · 설장고가락<천희영외 3명> · 호남농악가락<팽과리/천희영외 4명> · 가야금 산조(박상근류)<김은정, 장고/이귀영> · 운우풍뢰/구름, 비, 바람, 천둥, 번개<팽과리/이상성의 4명> · 웃다리농악<팽과리/천희영외 4명>	심인고등학교 심인고등학교 총동창회 · 어머니회
92. 9.18	제38회 정기연주회 대구시립국악단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대취타<등채/장명화> · 아쟁산조(한일섭류)<박종선> · 천년만세 변주곡(편곡/이상규) · 만선(작곡/황의중) · 클라리넷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어울림”(작곡/이병욱) <클라 리넷/임현식, 지휘/김덕환>	대구직할시

일 자	공 연 명	장 소	출 연 자 및 곡 목	주 최
92. 9.23	제1회 청소년 국악제	문화예술회관 대 극 장	· 대금독주/유초신지곡 中 세령산 <전구술> · 단소합주/어디로 갈까나, 상주모심기, 닐리리아, 밀양아리랑 <해서국교 단소반> · 판소리/춘향가 中 이별대목 <최경희> · 세악/영산회상 유초신지곡中 엄불 도드리,타령 <김성두외 5명>	대구교사 국악회
92.10. 6	제3회 이명희 선생과 문하 생의 홍보가 원창 발표회	청도군민회관 공 연 장	· 홍보가 전바탕 <출연자:고수/채찬복, 조용수, 주은숙, 이경희 이호연, 윤미지 외 11명>	청소년 판소리전수소
92.10. 7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연주발표회 산조의 밤	동아문화센터 아 트 홀	· 피리산조(박범훈 편) <박세홍>· 가야금 산조(최옥산류) <조 미숙> · 해금산조(지영희류) <고윤희> · 거문고 산조(한갑득류) <성민정>	동아문화센터
92.10.11	제11회 달구벌 축제 국악의 밤 야외공연	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	· 여창가곡/우조우락 <권일지, 박진희 외 5명> · 정재/가인전독단 <재현안무/김희숙> · 남도민요/사철가 <방경숙 외 5명> · 국악관현악/신모듬 <지휘/윤명구> · 경기민요 <이은자 외 7명>	대구직할시 예총대구직할 시지회
92.10.20	92춤의해 특별공연 대구시립국악단 한국 춤 “우리춤 한마당”	대구문화 예술회관 대극장	· 구성, 안무지도/이명실<대구시립국악단> · 부채춤·춘앵무·처용무 · 풍물굿	대구문화 예술회관
92.10.20	창설 10주년 기념 경북예술대학 국악과 정기연주회 전통음악의 밤	경북대학교 대 강 당	· 관악합주/수제천 <집박/이동복> · 가야금 독주/산조(강태홍류) <이지영> · 관악합주/함녕지곡 <집박/김경배> · 대금독주/경풍년(변조두거) <김유성> · 세악/천년만세 <이지은외> · 거문고 독주/산조(신쾌동류) <강수정> · 현악합주/수요남곡지곡 <이윤정의> · 관현합주/영산회상 中 상현, 하현도드리 <우희자의>	경북대학 예술대학 국악학과
92.10.26	국악실내악회 “한솔” 구미·대구 순회연주회	동아쇼핑센터 아 트 홀	· 어머니(조광재곡) · 봄비에게(조광재곡) · 하얀이별(작곡/황의중) · 억새풀(작곡/황의중) · 정읍사, 아침의 소리 (작곡/김영동) · 고향진달래(작곡/황의중) · 가뭄(작곡/김민기, 편곡/진상길) · 여름새벽(작곡/이준호) · 사물놀이 <김정희 외 3명> · 산도깨비 (작곡/강호중) · 소금장수 (작곡/조광재)	
92.10.27 ~30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제8회 졸업연주회	경북대학교 대 강 당	27 · 대금독주/청성곡 <김종국> 외 6종목 28 · 창작곡/대금, 피리, 소금을 위한 관악 3중주 제1번 <강현경>외 7종목 29 · 대금독주/경풍년 <김유성> 외 7종목 30 · 피리독주/경풍년 <박은주> 외 6종목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92.10.29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관악의 밤	동아문화센터 아 트 홀	· 타령 · 동동 · 잣은한잎	동아문화센터

第 12 章 文 化

일 자	공 연 명	장 소	출 연 자 및 곡 목	주 최
92.10.31	제17회 판소리 학술대회 및 연창회	연창회: 문화예술회관 소강당 학술대회: 힐사이드호텔	· 춘향가 中이별대목 〈이명희〉 · 심청가 〈범피중류〉 〈은희진〉 · 흥보가 中박타령 〈박송희〉 · 춘향가 中 옥중상봉 〈김소희〉	판소리학회 대구문화방송
92.11. 5	창설 10주년 기념 경북 예술대학 국악과 정기 연주회 창작국악의 밤	경북대학교 대 강 당	· 창작곡/동구나무의 사계 〈작곡/이의경 · 지휘/윤명구〉 · 가야금/침향무(작곡/황병기) · 대금협주곡 1번(작곡/황의중)신모듬(작곡/박범훈)	
92.11.10	창설 10주년 기념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부산순회 연주회	부산시민회관 대 강 당	· 관악합주/수제천〈집박/이동복〉 · 대금독주/경풍년 (변조두거)〈김유성〉 · 세악/천년만세〈이지은외 7명〉 · 가야금 독주 (작곡/황병기)〈김윤희, 장고/박현영〉 · 창작곡/대금협주곡 1번 (작곡/황의중)〈이수준, 경북대예술대 학 국악관현악단〉 · 창작곡/신모듬(작곡/박범훈)〈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관현악단〉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92.11.14	제39회 정기연주회 대구시립국악단	대구문화예술 회관 대극장	· 관악합주/해령〈집박/장명화〉 · 정재/무산향〈독무/백지현〉 · 현악합주/도드리 · 관현악/메나리조 주제에 의한 피리협주곡 〈작곡/이강덕 · 지휘/윤명구 · 피리/박춘석〉 · 관현악/태평소와 사물놀이를 위한 관현악 “푸리”(작곡/황의중)	대구직할시
92.11.15	대구교사국악회 창단연주회	대구문화예술 회관 대극장	· 관현악 합주/유초신지곡中 염불도드리, 타령〈집박/배해근〉 · 가야금독주/전설(작곡/황병기)〈정필우〉 · 정재/만수무〈이은선의 5명〉 · 평시조/동창이 밝았느냐(이근토) · 설장고가락〈천진숙외 5명〉 · 관현악합주/수연장지곡〈장고/김한기〉 · 청중과 함께〈창/이해원〉 · 사물놀이/웃다리농악〈김한기외 4명〉	대구교사 국악회
92.11.19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제3회 전통 성악의 밤 〈가곡 · 판소리〉	동아문화센터 아 트 홀	[가곡] · 평조여창/우락(바람은)〈우희자, 김민정, 김진희〉 · 반우반계 남창/(나무도)〈최창조〉 · 계면조 여창/평룡(북두칠성)〈김민정〉 · 계면조 여창/계락(청산도)〈김진희〉 [가사] · 죽지사(전곤이)〈김민정, 김진희〉 [판소리] 춘향가中 · 적성의 아침날〈염수희〉 · 춘향이 추천하는 대목〈이경희〉 · 방자가 춘향부르러가는 대목〈이호연〉 · 천자풀이〈윤미지〉 · 남도민요/동백타령〈염수희, 이호연, 이경희, 윤미지〉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과

일 자	공 연 명	장 소	출 연 자 및 곡 목	주 최
92.11.30	제3회 우리국악회 국악연주단 정기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악합주/취타 · 군악<집박/구윤국> · 거문고 독주/산조(신쾌동류)<거문고/김영순 · 장고/박근영> · 정재/향발무<재현안무/김희숙> · 판소리/홍보가 中 홍보매맞는 대목<창/주은숙 · 고수/박근영> · 관현악/피리 산조를 위한 합주곡 ‘바라지’ (작곡/박범훈)< 지 휘/윤명구 · 피리/곽효상>	
92.12. 8	제40회 정기연주회 대구시립 국악단	대구문화예술 회관대극장	· 관악합주/함녕지곡<집박/장명화> · 피리독주/상령산<정재국> · 풍물굿/얹은반/설장고가락, 영남농악가락 선반/날피북춤, 12발상모<지도안무/이명실, 상쇠/김대균> · 관현악/한갑득류 거문고 산조와 관현악 <거문고/하주화> · 관현악/합주곡 2번 (작곡/김희조)<지휘/윤명구>	대구직할시
92.12.23	92년 KBS 송년 음악회	경북대학교 대 강 당	· 관현악/한국청년의 음악 (작곡/전인평) <KBS 국악 관현악단, 지휘/이상규> · 협주곡/피리협주곡(창부타령)<피리/김원선> · 민요와 관현악/육자배기 · 자진육자배기 · 방아타령 · 진도아 리랑<창/안숙선> · 국악가요와 관현악/칠갑산, 빈손, 꽃분네야<노래/주병선> · 사물놀이와 관현악/신모듬(박범훈작곡)/KBS사물놀이패 · 피아노와 사물놀이<피아노/임동창> · 가곡과 사물놀이/농부가, 라단짜,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테 너/박인수> · 사물놀이 선반	한국방송공사 대구총국
92.12.26	제4회 현음회 정기연주회	대구향교 명 료 당	· 대금독주/경풍년 <김정임> · 시조창/평시조 (동짓달)<김향교, 단소/예찬건, 장고/우장희> · 세악합주/천년만세<우장희 외 14명> · 단소제주/세령산<남성호외 14명> · 가곡/우편(봉황대상)<예찬건> , 평릉 (북두칠성)<우장희> · 대금 · 거문고제주/수연장지곡 <김정임외 7명> · 판소리/춘향가 中 도련님 광한루 풍경 읊는 대목<창/최은 경 · 북/김태완> · 동요/산도깨비, 아가야 가자 <노래/박윤경외 3명 · 반주/정경 희외 6명>	성균관 청년 유도회 대구직할시 본부
93. 2.24	제14대 대통령취임경축 국악한마당	대구문화예술 회관 대강당	· 관악합주/수제천<집박/장명화> · 민속악/시나위<이국도의 7명> · 민속무용/부채춤(안무/이명실)<춤/대구시립국악단 한국춤> · 세악합주/천년만세<경덕명외7명> · 관현악/아리랑 순회<지휘/윤명구 · 편곡/김희조> ·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 합주곡/신모듬(작곡/박범훈)<지휘 /윤명구> <달구벌 사물놀이 패>	

일 자	공 연 명	장 소	출 연 자 및 곡 목	주 최
93. 3. 5	대구의 전통 춤	대구문화 예술회관	· 날피북춤<김수배> · 살풀이 · 건들바우치성굿<권명화> · 선비춤<박소현> · 달구벌흠은춤<최희선>	
93. 3.10	제41회 정기 연주회 대구시립국악단	대구문화예술 회관 대극장	· 관현합주/만파정식지곡<집박/장명화> · 세악합주/중광지곡 中하현도드리, 타령<가야금/이미경, 거문고/김영순, 해금/주정민> · 민속무용/신칼대신무 <안무지도/이명실> · 국악가요/쑥대머리<채치성곡>의 2곡 <노래/임은숙, 신디사이 저/김명관, 기타/최성희> · 관현악/송춘곡 (작곡/이강덕)<지휘/윤명구> · 관현악/가야금 독주와 국악관현악<김죽파류><가야금/박현숙>	대구직할시
93. 4.12	제1회 예술 국악회 발표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대금산조제주<신수용외 24명> · 가야금 산조, 병창<윤기명의 21명> · 시나위 합주<정재표외 8명>· 부채춤<주영희 외 10명> · 대금산조 독주<한주환류><김경애, 고수/정천호>	후원 예술 국악회
93. 4.14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과 1993학년도 제12회 신입생 연주회	경북대학교 대 강 당	· 관현악 합주/유초신지곡 中 염불환입, 타령<집박/김성두> · 대금독주/경풍년 <천희영> · 거문고 독주/산조 (한갑득류)<김지은, 장고/윤선숙> · 해금독주/산조<한범수류><권민형, 장고/박현영> · 세악/중광지곡中 하현도드리 <류정아의 5명> · 피리독주/유초신 지곡 中상령산 <최민영> · 가야금 독주/산조 (김죽파류)<백경숙, 장고/이수준> · 판소리<유장화, 북/이호연>· 사물놀이/영남농악<천희영외 3명>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93. 4.24	연합 국악 동호인 단체 국악제	대구프린스 호텔 별관5층	· 영제시조/남창-청산은 어찌하여<퇴계시>, 여창-차창을 내다 불제<이은상><영조시우회> · 사물놀이/영남농악<금강 어머니 사물놀이단> · 여창가곡/우락<바람은 지동치듯 불고><현음회> · 정재/만수무<춤사랑 연구회> · 강령탈춤/말뚝이, 팔목중춤 <강령탈춤 보존회> · 사물놀이/호남우도 농악 <풍물패 날피> · 국악관현합주/유초신지곡 中 염불, 타령 <대구교사 국악회>	한국국악협회 대구직할시 지부
93. 5. 5	대경초등교사 국악관현악단 어린이를 위한 교사 국악한마당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현합주/평조희상 中 타령, 군악 <집박/권기현> · 대금독주/산조<원장현류><양광호> · 청성곡/요천순일지곡 <배형일> · 민속합주/시나위 · 단소, 양금병주/한오백년, 아리랑, 도라지, 날리리아 <단소/김문수, 양금/김영주> · 살풀리<작곡/이병욱><가야금/임혜란외 4명> · 창작동요/어화등등우리사랑, 두껍아 두껍아, 부채춤<영일연 국민학교 합창단, 대구경동국민학교 중창단> · 국악관현악과 합창/아리랑 모음곡<지휘/박경준> · 사물놀이/영남풍물<괭과리/여병동의 4명> · 관중합창/다함께 아리랑	대구직할시, 매일신문사 포항제철

일 자	공 연 명	장 소	출 연 자 및 곡 목	주 최
93. 5. 6	제42회 대구시립국악단 광주국악관현악단 대구, 광주 합동교류 연주회 정기연주회	대구문화예술 회관 대극장	· 정재/검무(정재지도/이명실) · 광주국악관현악단<지휘/김광복> · 창과관현악/육자배기<창/이은하, 최혜정> · 피리를 위한 협주곡/바라지(작곡/박범훈)<피리/김광복> · 가야금, 국악관현악을 위한 2개의 악장/길군악, 패지나칭청 (작곡/백대웅)<대구 시립국악단, 지휘/윤명구> · 영호남 합동연주/태평소와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듬 (작곡/박범훈)<지휘/윤명구, 태평소/박경현> · 특별출연/달구벌사물놀이패 <김수기 외 4명>	대구직할시
93. 5.15	스승의 날 기념 동아문화센터 특집 대구교사 국악회 연주회	동아문화센터 아 트 홀	· 관현합주/수연장지곡<집박/김기생> · 평시조/태산이 높다하되<김한기, 장고/이기능, 단소/예찬건> · 대금독주/보태평지곡<이동복> · 사물놀이/영남농악<팽과리/김한기외 7명> · 정재/춘앵무<이은선> · 창과 관현악/아리랑, 한오백년, 뱃노래<창/홍완숙, 장고/배해근>	동아문화센터
93. 5.24	제3회 경대인을 위한 음악회	경북대학교 대 강 당	· 국악가요/조각배<우희자>, 어디로 갈까나<김종국> · 한네의 승천<우희자>, 개구리 소리<김종국>, 솔아솔아 푸르른 솔아<김종국, 우희자>반주<장고/박현영외 11명> · 국악관현합주/합주곡 1번(작곡/김희조)<지휘/김덕환>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93. 5.27	대구시민과 샤프르 시민교류의 밤	대구프린스 호텔 별관5층	· 일본전통음악공연<샤프로공연단> · 한국전통음악공연<대구시립국악단>	
93. 5.31	천안시 충남 관현악단 제10회 정기 연주회 (협주곡의 밤)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관현악/한갑득류 산조에 의한 거문고 협주곡(하주화 편곡) <거문고/곽윤정> · 관현악/한범수류 산조에 의한 대금협주곡(김 희조 편곡)<대금/정승은>	천안시
93. 6.3	제12회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국악정기 연주회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여민락<집박/곽태천> · 춘앵전<독무/최유정> · 아쟁독주/산조(한일섭류)<김효정> · 무고<채정은 외7명> · 대금협주곡(작곡/이상규)<대금/임종순> · 송춘곡(작곡/이강덕)<지휘/최문진>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93. 6.18	제43회 정기연주회 대구시립 국악단	문화예술회관 대 극 장	· 관악합주/대풍류 · 실내악/황토길(작곡/안성우) · 가곡과 관현악/편수대엽 우조두저, 태평가<이동규, 경덕명> · 관현악/신강강수월래(작곡/백성기)<지휘/윤명구> · 창과 관현악/수궁가 中 토끼가 용궁갔다 세상나오는 대목<창 /전정민>	대구직할시
93. 6.23	제2회 청소년 국악제	대구문화예술 회관 대극장	· 단소제주/아리랑, 그네, 산도깨비<배지훈 외30명> · 설장구가락<정인숙외 5명> · 가야금 독주/산조<사공혜경> · 사물놀이/영남농악<이채은 외4명> · 부채춤<최화진 외11명> · 세악/영산회상 유초신지곡中 염불도드리, 타령<오선영외 5명> · 장구춤<전민경> · 대금독주/영산회상中 상령산<전상봉> · 강령탈춤/팔목중춤, 못동춤<성화여고> · 고전무용/선녀무<김소연> · 가야금독주/산조(박상근류)<전현정> · 사물놀이/삼도가락<김대관외5명>	대구교사 국악회

일 자	공 연 명	장 소	출 연 자 및 곡 목	주 최
93. 8.31	대구시립국악단 제1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대구시민회관 대 강 당	· 가야금협주곡/침향무(작곡/황병기,편곡/이상규)<가야금/김민정> · 거문고협주곡/수리재(작곡/정대석)<거문고/조현희> · 피리협주곡/자진한잎(작곡/이상규)<양윤선> · 아쟁독주와관현악/한일섭류 아쟁산조(편곡/김희조)<김효정> · 가야금협주곡 제1번(작곡/이강덕)<가야금/정세희>	대구직할시
93. 9. 3	줄풍류 국악 발표회	동아쇼핑 아 트 홀	· 수요남극<장고/윤선숙 외8명> · 가을<권세미 외5명> · 가야금 독주/산조<장고/윤선숙 외 7명> · 단소독주/청성곡<이이옥> · 가야금병창/강강술래, 노들강변, 남도방아타령,진도아리랑<장고/윤선숙, 가야금/이명호 외4명> · 침향무<장고/최옥희 외5명> · 사물놀이<김재범 외6명>	
93. 9.17	제44회 정기연주회 대구시립국악단	대구문화센터 회관 대극장	· 실내악/명(작곡/강석희)<지휘/김용진> · 실내악/천년만세에 의한 새울림(작곡/이병욱)<대금/양성필 외4명> · 합주곡 제1번(작곡/김희조) · 가야금 협주곡/비단길<장혜숙> · 16개 타악기를 위한 시나위(작곡/이상규)	대구직할시
93. 9.21 ~22	동아문화센터 초청한가위 특집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연구발표회	동아문화센터 아 트 홀	21일 “현악의 밤” · 중광지곡/상령산~군악 22일 “관악의 밤” · 수제천/조장~사장 · 표정만방지곡/상령산~군악	동아문화센터
93. 9.24	경상북도립 국악단 제5회 정기연주회 “협주곡의 밤”	구미종합문화 예 술 회 관	· 대금협주곡 제1번(작곡/황의중)<김현학> · 거문고를 위한 관현악 수리재(작곡/정대석)<윤선숙> · 가야금과 관현악을 위한 비단길(작곡/황병기, 편곡/이강덕)<심숙희> · 창부타령주제에 의한 피리협주곡(편곡/박범훈)<피리/강민배> · 아쟁산조를 위한 협주곡(한일섭류)(편곡/김희조)<진윤하>	경상북도
93. 9.28 ~29	대백예술극장 개관기념 문화축제 한가위맞이 사물놀이 초청공연 풍물패 “진동”창단공연	대백예술극장	제1부:얹은 반/비나리, 삼도설장고, 영남농악, 우도농악, 웃다리 제2부:선반	
93.10.20	제1회 백운 예술제 교수 음악회	문화예술회관 대 극 장	· 남창가곡/언락, 편락<김영옥> · 피리독주/상령산<문정일> · 가야금독주<황병주 · 장고/조은희>	돈보스포 예술대학 학생회
93.10.22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제1회 현악의 밤	경북대학교 대 강 당	· 보허사<집박/장미래, 박미옥 외17명> · 거문고 독주/산조(신편동류)<거문고/조현희 · 장고/김문홍> · 침향무<김수경외 15명 · 장고/박현영> · 도드리<마순경 외18명, 장고/김관림> · 일출<조수경 외6명, 장고/김은진> · 가야금독주/산조(강태홍류)<최지연 · 장고/박현영> · 수요남극지곡<최선경외 15명>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일 자	공 연 명	장 소	출 연 자 및 곡 목	주 최
93.10.22	제4회 이명희 홍보가 완창 발표회	시민회관 대 강 당	· 단가/사철가, 만고강산· 판소리/홍보가 · 가야금병창/사랑가· 남도민요/진도아리랑 · 대금산조/(한주환류)<김경애>· 판소리/춘향가중 사랑가 · 민요/뱃노래<출연:이명희외 제자들>	
93.10.26 ~29	제9회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졸업 연주회	경북대학교 대 강 당	26일· 가야금 독주/산조(강태홍류),<최지영, 반주/박현영>외 7종목 27일· 가야금 독주/산조(최옥산류)<송미진, 반주/김문홍>외 6종목 28일· 가야금 독주/산조(최옥산류)<홍경우, 반주/윤선숙>외 7종목 29일· 가야금 독주/산조(김죽파류)<조일양, 반주/박현영>외 7종목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93.10.30	대구 국악교육 연구회 93. 교원 국악 한마당	대구문화예술 회관 대극장	· 관현합주/취타<집박/이인수>· 일파금독주/홍<황병주, 장고/ 조은희>· 단소, 양금병주/세명산<단소/김하조, 양금/정필우> · 평시조/태산이~<정철일 외 3명 대금/이인수, 장고/김영옥> · 장구놀이/맛, 멋, 흥<이태원 외6명> · 태평소 독주와 사물놀이 <김광복 외4명> · 독무/한량무<임관규> · 창작곡/신풍이<작곡/이병옥><추은엽외 4명> · 민속합주/대풍류(편곡/박범훈) · 민요창과 관현악/청춘가,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창/정은하, 지휘/이종진>	
93.11. 3	돈보스꼬 예술대학 제1회 국악과 정기 연주회	어린이회관 피꼬리 극장	· 관현합주/도드리<집박/김영옥> · 대금독주/청성곡<박정희> · 현악합주/천년만세(편곡/이상규)<김준영외> · 사물놀이/웃다 리 풍물<최병길 외3명> · 관악합주/함녕지곡<집박/김영옥> · 가야금 독주/산조(최옥산류)<김미량· 장고/최병길>· 관현악/ 아리랑 접속곡(편곡/박범훈)<지휘/황병주, 창/김외순 외2명>	돈보스꼬 예술대학
93.11. 4	제11회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정기연주회	경북대학교 대 강 당	· 수악절창사/낙양춘<집박/김경배> · 가야금 독주/산조(강태홍 류)<정여진, 장고/박현영>· 관악합주/절화, 일승월향<집박/이동복> · 대금독주/산조(원장현편)<박은희· 장고/박현영> · 판소리/홍보가 申늘부심술대목<이호연· 고수/염수희> · 창작곡/협주곡 제1번(작곡/김희조)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93.11. 7	93 해서 국민학교 국악 발표회	어린이회관 피꼬리극장	· 단소합주· 시조· 고전무용· 가야금병창 · 공산농요(특별출연)/송문창· 향피리 합주· 설장구 가락· 단소독 주· 화관무· 향피리 독주· 사물놀이<해서 어머니 사물놀이 단> · 관현합주/한오백년, 아리랑, 뱃노래<지도교사/천진숙>	
93.11.11	제4회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전통성악의 밤	동아문화센터	[가곡] · 평조여창/우락(바람은)<우희자의 5명> · 계면조 여창/편수대엽(모란은)<우희자의 5명> · 평조여창/두거(일각이)<우희자, 김성미> · 반우반계 여창/환계락(앞내나)<우희자, 김성미> [가사] · 백구사/(나지마라)<최창조> [판소리] · 단가/사철가<이경희외 3명> · 홍보가中 /집터잡이 대목<유장화> · 홍보가中 /가난타령<염수희> · 홍보가中 비단타령<이경희> · 춘향가中/사랑가<윤미지, 고수/백경우>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일 자	공 연 명	장 소	출 연 자 및 곡 목	주 최
93.11.18	제45회 정기공연 대구시립국악단 한국춤	문화예술회관 대 강 당	· 사물놀이/호남가락, 경기, 충청, 웃다리가락(지도/김대균) 〈연주/한국춤〉 · 북춤(구성 지도/이명실)〈한국춤단원〉 · 살푸리(한영숙류)〈이애주〉 · 승무(한영숙류)〈한국춤 단원, 음악/대구시립국악단, 구성·지도/이명실〉	대구직할시
93.11.18	동아문화센터 초청 산조의 밤	동아문화센터 아 트 홀	· 아쟁산조(박종선류)〈김소희〉· 해금산조(지영희류)〈조수영〉 · 가야금산조(김죽파류)〈배미애〉 · 대금산조(서용석류)〈이장욱〉 · 거문고 산조(신쾌동류)〈조지영〉 · 피리산조(박범훈류)〈김종섭〉	동아문화센터
93.12. 9	제46회 정기연주회 대구시립국악단	대구문화 예술회관	· 세악/중광지곡 中 하현도드리, 타령, 군악(구윤국 외 5명) · 크리스마스캐롤/북치는 소년,화이트크리스마스, 징글벨〈장명화 외 10명〉 · 가곡과 관현악/산도화, 기다리는 마음〈바리톤/김정웅〉 · 가야금협주곡 7번(성금련류)(편곡/이강택)〈가야금/황병주〉 · 관현악/신모듬 제 2악장 「기원」 〈사물놀이〉(작곡/박범훈)〈김문홍외3명〉	대구직할시
93.12.10	93 영남대학교 음악대학국악과 연구발표회 정제의 밤	대구어린이회관 피포리 극장	· 오양선〈유정아 외 6명〉· 검무〈채정은 외 3명〉 · 무산향〈곽득임〉· 가인천목단〈한태양외 7명〉	영남대학교 음악대학국악과 동문회
93.12.10	제4회 우리국악회 국악연주단 정기 연주회	문화예술회관 대 강 당	· 관현합주/함녕지곡〈집박/이동복〉 · 정재/ 장생보연지무〈재현안무/김희숙〉 · 가야금독주/산조(강태홍류)〈정해임〉 · 시조/우조시조〈김경배〉· 여창지름시조〈권일지〉 · 민속무용/살푸리〈김희정〉· 농요/어사용〈송문창〉 · 남도민요/상주모심기, 상주아리랑〈이명희외6명〉	

4. 국악 및 고전무용 학원 현황

〈表 11-4〉

명 칭	대 표	설립일	소 재 지	교 습 부 문	비 고
황정환 무용학원	황 정 환	62. 2. 1	중구 대신동 115-7	고전무용	254-9413
백연옥 무용학원	백 연 옥	66. 8. 6	중구 남산동 2121-13	무용	252-6768
민속무용연구원	권 명 화	68.	동구 신암3동 167-1	무용	958-4936
박소현 무용학원	박 소 현	70. 9. 24	중구 남산동 698-22	무용	253-4595
박인희 무용학원	박 인 희	71. 7.	대명7동 2155-2	고전무용, 장고, 가야금, 판소리	621-4469
김남수고전무용학원	김 남 수	72. 2.23	북구 대현3동 270-1	무용	92-4946
금농가야금연구소	서 상 열	72. 9.	수성구 지산동 761, 녹원APT 105동 1301	가야금	765-9778
임숙자무용학원	임 숙 자	79. 4.	수성구 상동 196-10	고전무용, 사물, 경기민요	762-3469
신라국악예술학원	김 행 옥	81. 9.	달서구 성당동 54-57	고전무용, 장고, 가야금, 남도소리	621-0525
이명희판소리연구소	이 명 희	85. 1.	남구 대명 9동 448-6	판소리	625-3637
정은하민요연구소	정 은 하	86. 9.17	중구 향촌동 10-3	민요	23-6406
김경애국악교습소	김 경 애	87. 3. 4	남구 대명2동 1959-34	대금, 가야금	651-2813
줄풍류국악교습소	최 옥 희	88.	중구 포정동 16, 무궁화백화점 314호	국악	
강령탈춤연구회	김 신 효	88. 1.	동구 신천3동 70-4	탈춤, 장고	754-3359
팔공국악연구원	방 경 숙	88. 7.	중구 종로1가 98	판소리, 고법, 장고	254-5738
성경숙무용학원	성 경 숙	88.11.21	남구 봉덕동 1301-15	고전무용	32-1064
송문호고전무용학원	송 문 호	89. 1.20	서구 원대3동 1371-11	고전무용	557-3303
다스름국악원	전 상 봉	89. 3.	남구 대명2동 811-1	대금, 거문고, 사물	621-8742
계명무용학원	공 민 선	89. 5.31	달서구 송현동 1042-3	고전무용	623-3291
김영리국악예술학원	김 영 리	89. 6.14	중구 동인4가 61	국악	46-2153
공주무용학원	류 정 순	90.11.17	달서구 감삼동 155-32	고전무용	561-2585
이영미무용학원	이 영 미	91. 1. 8	달서구 송현동 165-1	고전무용	652-6026
청소년판소리전수소	이 명 희	91. 5.27	남구 대명9동 459-7 (청도군 각남면 함박리)	판소리	625-3637
이화영무용학원	이 화 영	91. 7.10	수성구 범어동 814-56	고전무용	941-8071
동경무용학원	김 효 은	92. 7.14	남구 대명8동 2008-9	고전무용	621-0582
도드리국악연구회	김 문 홍	92.10	남구 이천3동 255-32 12/6	아쟁, 피리, 사물	476-0660
신정희무용학원	신 정 희	93. 1.	달서구본동 959-10	고전무용	623-4381
주운숙판소리연구소	주 운 숙	93. 5	남구 대명5동 38-4	판소리, 장고	653-7367
대구무용학원	백 현 순	93. 9	동구 신천4동 304-2	이론, 실기지도 (한국, 현대, 발레)	743-8508
달구벌무용학원	김 춘 혜	93. 9. 4	서구 미당동 897-6	무용	253-5650

5. 악 기 장 현 황

〈表 11-5〉

명 칭	대 표	설립일	생년월일	소 재 지	제 작 종 목	비 고
가 야 농 악 기 공 예 사	梁承學	1980	43. 4.10	달서구 죽전동 170-15	장고, 타악기	566-0079
대 가 야 사	金昌斗	1951	30. 3.22	북구 침산동 806-7	북, 소고	357-0986
북·단청제작소	車泰淳	1970	40. 6.28	동구 불로동 1039-7	장고, 북, 악기단청	981-2027
신라 고흥악기제작소	金東鎭	1971	46.12.17	남구 대명동 580의 16 /	거문고, 가야금(주종) 현·관·타악기	472-0621 66-7545
불로농악기제작소	金殷洙	1969	52. 3.27	동구 불로동 536	장고, 북	984-7721
영남농악기제작소	金鍾文	1958	32. 6.23	북구 구암1동 271	북, 악기단청	30-2846
영진공예사	禹鍾洙	1975	50. 4. 6	달서구 성당1동 442-2	장고, 북	558-7050
이조전통공예사	金房吉	1964	42. 3.10	달서구 두류2동 107-10	북	981-0463
전통농악사	鄭外德	1969	51. 8.30	동구 불로동 813-3	장고	981-1695
진흥금속공예사	姜再馨	1980	44.12.25	수성구 범어3동 2017	악기주물	981-0248
한국전통국악기연구제작소	申載烈	1965	56. 5. 6	남구 대명11동 1565-10	거문고, 가야금(주종), 현·관·타악기	66-5774 474-5774

第4節 西洋音樂

〈사진 12-1〉 박태원은 대남학교를 6년간 다녀 졸업한 후, 1911년 9월 13일 계성학교에 2학년으로 입학하였다. 당시 교육 체계는 지금과는 달리 학교형편에 따라 학생의 나이 및 교육정도를 보아 2학년으로도 입학시킬 수 있었다. 대구 최초의 혼성합창단을 조직하여 지휘한 박태원은 특히 음악점수가 높았음을 그의 학적부 뒷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별가’를 비롯하여 몇 곡을 작곡했으며, ‘클레멘타인’·‘켄터키 옛집’ 등 여러 외국곡을 번역하여 보급시켰다.

박태준의 형님이기도한 박태원은 연극·체육 방면에도 조예가 있어 ‘대공포강도’라는 연극에 출연하였으며, 전대구야구팀의 투수로 활동하였다. 또한 문학 방면에 있어서도 조예가 있어 많은 글과 시를 쓰기도 했는데, 1919년 시인 이상화가 그의 서울 하숙집에 같이 지내면서 많은 영향을 받은 사실이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관계로 이상화는 1921년 박태원의 부음을 접하고 “이중의 사망”이란 애도의 시를 지어, 박태원이 사망한 후 2년 후인 1923년에 「白鳥」 3호(9월)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사진 12-2〉 이 박태원 초상화는 1993년 5월 서양화가 김정대 화백이 그린 것이다. 박태원이 1897년 6월 27일에 대구에서 태어나 1921년 8월 5일 24세에 요절하였기 때문에 그에 관한 사진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1930년 그의 가족들의 기념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그렸다.

특히 그의 아버지 박순조와 2명의 남동생(박태준·박태석)의 얼굴을 바탕으로 하여 20대의 박태원을 묘사했다. 지금까지 대구 최초의 혼성합창단을 조직하고 지휘한 박태원의 사진 한 장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초상화는 매우 귀중하게 여겨진다.

〈사진 12-3〉 1913년부터 작성된 현제명의 계성학교 학적부에는 대남학교를 4년간 다녀 졸업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계성학교를 1913년 3월 29일에 입학하였으나, 졸업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현제명은 5년 중 4년간 계성학교를 다녔으며, 3년간의 학업성적을 받았음이 뒷면 성적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이유를 현제명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현상과 전문학교의 진학을 위한 것으로

私 立 學 校 學 生 名 冊									
年 次	姓 名	年 次	姓 名	年 次	姓 名	年 次	姓 名	年 次	姓 名
六 年	朴 泰 元	六 年	朴 泰 元	六 年	朴 泰 元	六 年	朴 泰 元	六 年	朴 泰 元
入 學 日	1911 年 9 月 13 日	入 學 日	1911 年 9 月 13 日	入 學 日	1911 年 9 月 13 日	入 學 日	1911 年 9 月 13 日	入 學 日	1911 年 9 月 13 日
退 學 日		退 學 日		退 學 日		退 學 日		退 學 日	
備 註		備 註		備 註		備 註		備 註	

〈사진 12-1〉 박태원의 계성학교 학적부



〈사진 12-2〉 박태원 초상화

私 立 學 校 啓 事											
會 社			資 格 者			入 學 者			退 學 者		
姓名	職 務	年 齡	姓名	職 務	年 齡	姓名	職 務	年 齡	姓名	職 務	年 齡
李 大 南	會 長	45	李 大 南	會 長	45	李 大 南	會 長	45	李 大 南	會 長	45
李 大 南	副 會 長	40	李 大 南	副 會 長	40	李 大 南	副 會 長	40	李 大 南	副 會 長	40
李 大 南	監 事	35	李 大 南	監 事	35	李 大 南	監 事	35	李 大 南	監 事	35
李 大 南	監 事	30	李 大 南	監 事	30	李 大 南	監 事	30	李 大 南	監 事	30
李 大 南	監 事	25	李 大 南	監 事	25	李 大 南	監 事	25	李 大 南	監 事	25
李 大 南	監 事	20	李 大 南	監 事	20	李 大 南	監 事	20	李 大 南	監 事	20
李 大 南	監 事	15	李 大 南	監 事	15	李 大 南	監 事	15	李 大 南	監 事	15
李 大 南	監 事	10	李 大 南	監 事	10	李 大 南	監 事	10	李 大 南	監 事	10
李 大 南	監 事	5	李 大 南	監 事	5	李 大 南	監 事	5	李 大 南	監 事	5

〈사진 12-3〉 현재명의 계성학교 학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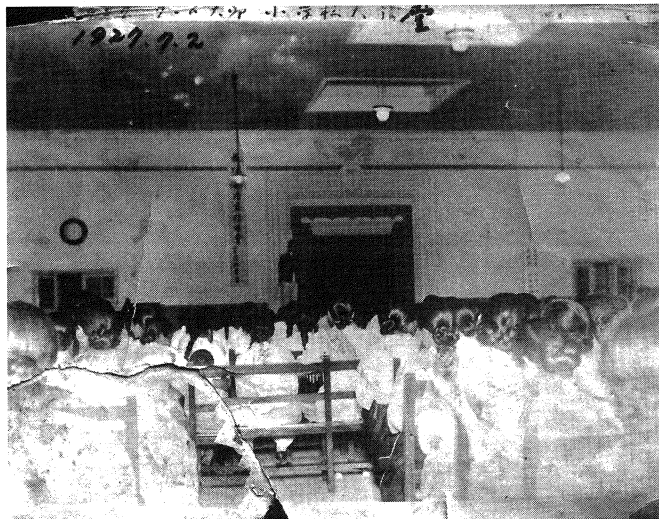
규명한 적이 있다(손태룡, 「한국음악사의 큰 별」, 대구:중문출판사, 1994). 따라서 지금까지 계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현재명의 내용은 수료한 것으로 정정되어야 마땅하다. 이후 현재명은 숭실전문학교로 진학하게 되는데, 당시는 전문학교에 진학하려면 중학교를 4년간 다녀 수료 이상이어야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사진 12-4〉 이 사진은 1914년 10월 22일 계산성당의 로베르 신부의 진갑기념으로 촬영된 것이다. 로베르 신부는 당시 성립학교 교장이었다. 1913년 5월에 성립악대가 창단되었음이 필자에 의해 밝혀졌는데, 초창기 9대의 악기로 시작하였다(손태룡, 「악대연구론」, 대구:대일출판사, 77-83쪽).

그 9개의 악기는 부글(신호나팔) 4대·트럼펫 1대·알토 1대·큰북 1대·작은북 2대의 불란서제였다. 성립학교악대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악대이며, 이 단체의 활동과 함께 계성학교악대가 1917년에 창설되어 악대활동을 하였다. 이들 두 단체의 악대는 초창기 대구 악대문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사진 12-4〉 대구 최초의 악대(성립악대)



〈사진 12-5〉 대구 최초의 독창회(권태호)

〈사진 12-5〉 이 자료는 1927년 7월 2일 대구소학교강당에서 열린 대구 최초의 독창회에 관한 사진이다. 청중들은 여자들만인데, 머리모양을 보아서 여학생과 주부들임을 알 수 있다. 이날 독창자는 권태호인데, 이 사진자료로 인하여 대구지역 최초의 독창회 일자가 밝혀졌다. 따라서 매우 중요한 음악자료 중 하나이다. 권태호는 일본고등음악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해방 직전 2년간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자신의 모교에 교수직을 하였다. 또한 그는 성악분야 뿐만 아니라, 작곡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였는데, ‘나리 나리 개나리’로 시작되는 ‘봄 나들이’가 그의 동요작품이다.



〈사진 12-6〉 대구사범학교 관현악단

〈사진 12-6〉 대구지역 관현악의 효시는 대구사범관현악단이다. 1929년에 개교한 대구사범은 교사를 배출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여러가지 음악 활동을 했다. 그 일환으로 탄생된 것이 관현악단이다. 1933년 음악부를 조직하여 바이올린에 하루히치(哈魯히チ)·첼로에 고바야시(小林)·피아노에 나리타(律田)가 학생들을 개인

으로 서양악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동경교향악단의 제1바이올린연주자였던 하루히치가 대구사범의 교사로 부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관현악단을 조직했던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구사범관현악단은 1937년 대구사범강당(현 부속고등학교)에서 창단연주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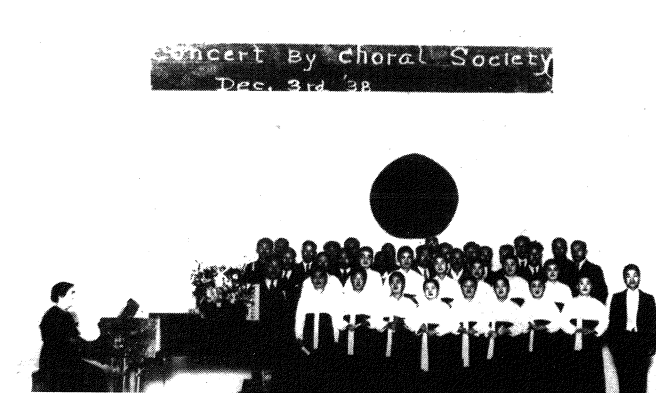
사진은 왼쪽 1번이 피아노 이용수 음악부장, 2번이 지도교수 고바야시, 4번이 바이올린 강수현, 5번이 바이올린 배덕호, 9번이 첼로 이영구, 오른쪽 1번이 한석동이며, 현 사대부고강당에서 1933년 음악회가 끝난 후이다.



〈사진 12-7〉 서문교회악대

〈사진 12-7〉 1910-20년대 초창기 대구에서의 악대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한 성립학교악대와 계성학교악대에서 시작했다. 이후 1930년대에는 교회에서도 악대활동이 전개됐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서문교회에서다. 서문교회는 면려회에서 1934년 11월 11일 3백여원을 들여 서양악기를 구입하여 교회에 기증함으로써 악대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대구지역 교회에서의 악대활동은 7군데에서 전개했으며, 서로 유대관계를 가져 합동

아유회를 갖기도 하였다. 사진은 1934-35년경 서문교회에서 찍은 것이다.



〈사진 12-8〉 대구성가합창단 창단연주회

배옥희 · 한정신 · 김성숙 · 서옥련 · 이영경 · 서순련 · 금성출 · 주복남 · 이영현 · 이은조 · 김진주 · 견신희 · 서상훈 · 문영복 · 이문주 · 현거선 · 이근수 · 김종해 · 서순학 등이 활동하였다.

〈사진 12-8〉 박태준은 1938년 6월 18일 대구에서 혼성성가합창단을 조직하여 그해 12월 3일 대구공회당에서 창단연주회를 개최하였다. 피아노반주는 당시 계성학교 교장인 헨드슨의 부인인 현애라가 맡았으며, 지휘는 박태준이 하였다.

사진에서 무대 뒷면에 일장기가 크게 보이는 것이 인상적이다. 당시 음악회에는 필히 무대 뒷면에 큰 일장기를 걸고 연주했었다. 합창단원은



〈사진 12-9〉 대구성가협회 창립

찬송가의 보급과 합창활동에 목적을 두고 제일교회를 중심으로한 기독교 교인들과 경북의학전문학교(현 경대의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성가협회 단원은 문영복 · 이병화 · 서상훈 · 이상우 · 송창화 · 한병두 · 황용운 · 이근수 · 김창수 · 임덕빈 · 김종희 · 박상호 · 황용원 · 금성출 · 금메리 · 권뉴디 · 강애레 · 문귀옥 등이었다. 이 성가협회는 이후 밀양 · 김천 · 경주 등지에 순회연주를 하였으며, 해방 후 대구합창협회로 개명하여 1950년 4월 28-29일 대구공회당에서 제1회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사진은 1938년 6월 18일 대구성가협회 창립기념으로 헨드슨의 자택에서 찍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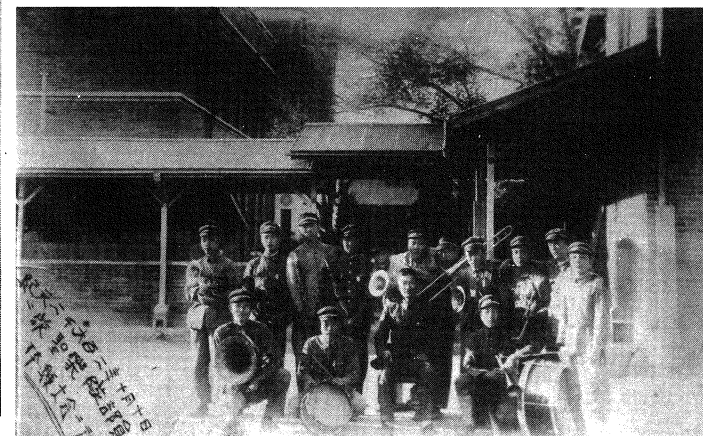
〈사진 12-9〉 박태준은 1938년 6월 18일 대구성가협회를 조직하여 그해 12월 3일 대구공회당에서 창단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이 사진자료의 장소는 당시 계성학교 교장인 헨드슨의 자택인데, 연습은 주로 헨드슨의 자택에서 하였다. 그 이유는 헨드슨의 부인인 현애라의 피아노가 있었기 때문이며, 물론 피아노반주는 현애라가 맡았다.



〈사진 12-10〉 “춘희”의
제르몽역으로 분장한 이점희



〈사진 12-11〉 성탄축하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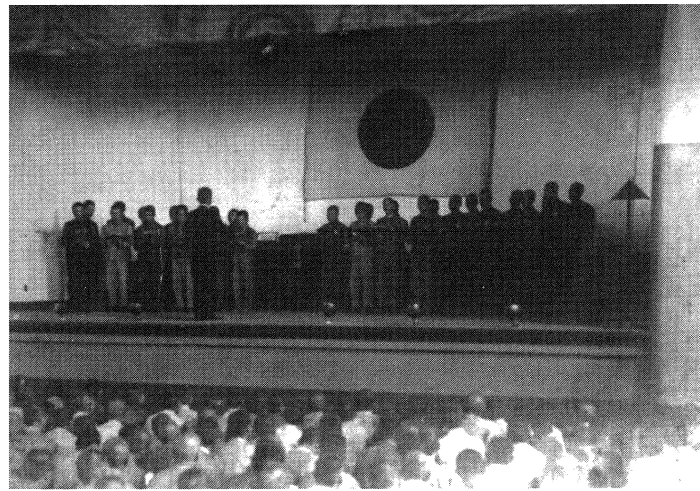
〈사진 12-12〉 계성학교 악대부

〈사진 12-10〉 이점희는 일본 중앙음악학교 4학년 때인 1939년 새기야오페라컴퍼니에서 주최한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춘희) 중 제르몽역에 뽑혔다. 그해 11월 본격적인 공연을 앞두고 6월 하순부터 3개월간 상해·남경·북경·항주·몽고·대만·평양·서울에서 연습공연을 가졌다. 당시 연습 및 공연은 이탈리아어인 원어로 불렀는데, 이 연주회는 1939년 11월 15일 동경의 히비야공회당에서 공연되었다. 이 공연은 이점희의 생애 첫번째의 무대가 된다. 이러한 계기로 인하여 이점희는 그해 11월 19일 미즈차와(水澤)의 미즈차와유치원 원장의 초청으로 제1회 독창회를 열게 되었다.

〈사진 12-11〉 사진은 1940년 12월 25일 신정교회당(현 서문교회)에서 열린 성탄축하음악회에서의 악대활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뒤줄 오른쪽부터 1번이 김법, 2번이 김만복, 3번이 추연중, 5번이 베이스 김명구, 바리톤 이갑수, 튜바에 황??, 그리고 앞줄 트럼펫에 심영근·임성준·이??, 오른쪽 5번이 서유

택, 클라리넷 김치경·윤??, 왼쪽 1번 서 있는 분이 지휘를 맡은 금성출이다. 이들 연주자들은 서문교회 악대원과 계성학교 악대원이 주축을 이루었다.

〈사진 12-12〉 박태준은 계성학교에 세 번 12년동안 근무했다. 이 사진자료는 세번째 근무하게 된 1941년 10월 10일 교내 체련대회를 마친 후 계성악대부원들과 함께 찍은 것이다. 사진 앞줄 의자에 앉은이가 박태준, 그 뒤쪽이 김만복이다. 계성학교악대는 1917년에 정식으로 서양악기를 구입하여 조직된 단체이다. 1913년 성립악대가 조직된 이후 대구에서 2번째로 생긴 악대가 계성학교악대인데, 성립악대와 함께 초창기 대구의 악대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사진 12-13〉 계성학교 합창부

회·김만복 등이 그들이다.

〈사진 12-13〉 이 사진은 1943년 11월 15일 대구시공회당에서 계성학교 학생들의 연주회 광경을 찍은 것이다. 악대부와 합창단 모두 박태준이 지도하였음은 물론 지휘를 맡았다. 계성학교는 기독교재단의 학교인 까닭으로 악대부와 합창단을 통한 교내외 음악활동·성탄축하음악회·자매학교인 신명여학교와의 음악활동을 많이 하여 유명한 음악인을 많이 배출하였다. 박태원·박태준·현제명(수료)·이점



〈사진 12-14〉 전주교회악대

〈사진 12-14〉 1913년 계산성당 소속의 성립학교에서 악대를 운영한 이후, 이 악대는 1915년에 결성되었던 해성체육단에서 체육만이 아닌 본격적인 가톨릭청년운동을 전개하고자 1920년 12월 15일 교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교회 내의 중·노장년을 위시하여 청년들을 총망라한 해성청년회를 창설하였다. 이 해성청년회가 중심이 되고 최재복·이재동·이장채 세 사람이 주축이 되어 해성학교 출신인 교육청년들로서 해성악대를 조직하여 1924년 교회의 각종 체육대회에

주악을 담당하여 대회를 빛나게 했다. 이로 인하여 대구사회에 해성악대(전 성립악대)의 명성을 높히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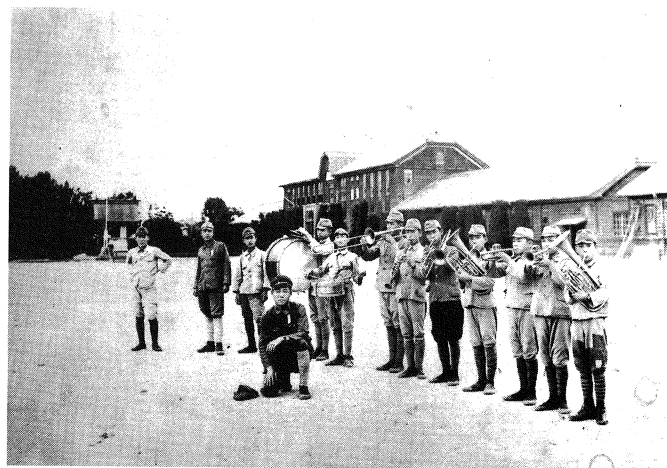
해성청년회는 후에 천주교락원으로 변경되었으며, 1920년경 1914년에 설립된 성유스디노신학교로 악기가 이관되었다. 이 당시 2대교구장인 문제만(Motsset) 신부의 지도로 괄목한 성장을 보였다. 그리고 다시 1930년에 서울천주교회로 악기가 이관되었다가 1942년 재차 대구교구로 신순균 신부의 알선으로 전 명도회의 악기를 이관받아 1942년 12월 5일 다시 운영하게 됐는데, 계산성당에서는 이 악기를 전공하여 교회내의 각종 행사에 연주를 담당하였다. 사진은 뒤줄 왼쪽에서 4번이 최재복, 앞줄 왼쪽에서 1번이 윤광선이다(1943.9.26).



〈사진 12-15〉 경북도청악대

〈사진 12-15〉 경북도청악대는 서유탉·우중무·권영두·최석현·임성준 5명으로 창단되었다. 사진은 1944년 경북도청(현 중앙공원 자리)이며, 지휘자는 일본인이다. 1944년 시민들의 정서순화를 목적으로 무용단과 함께 10여명으로 구성된 도청관악대가 관악활동을 하였는데, 이 단체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대구 최초의 악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발판으로 여러 관악연주인들이 많아짐으로써 더 많은 관악인구가 탄생하여

규모가 크고, 격식을 갖춘 대구관악단이 1945년 6월에 창단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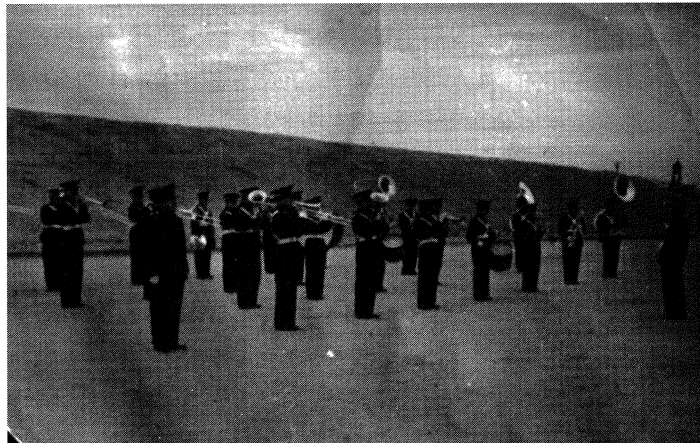


〈사진 12-16〉 대구농고 악대부

〈사진 12-16〉 초창기 대구지역에서의 학교악대는 종교적인 바탕에서 시작되었다. 가톨릭재단인 계산성당에서의 성립학교악대와 기독교재단인 계성학교악대가 그것이다. 이후 종교적인 성격이 아닌 악대활동을 시작한 학교를 꼽는다면 대구농림고등학교를 들 수 있다. 대구농고는 1910년 일제의 교육방침에 의해 생긴 학교인데, 해방 이전에 악대활동을 했음이 사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사진은 1945년 7월 해방 직전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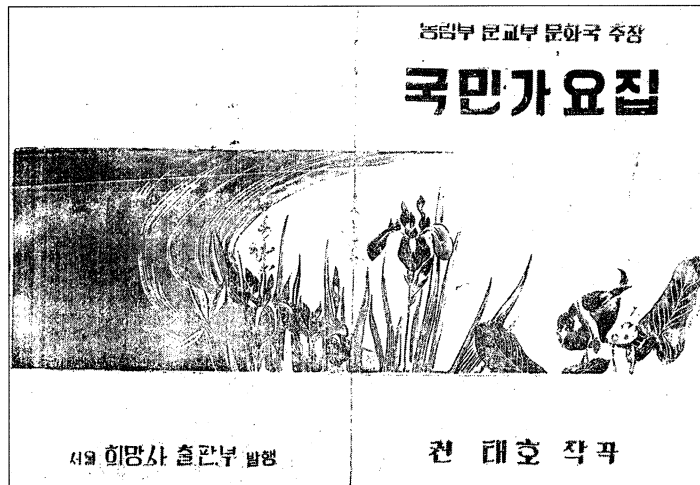
코오롱 자리에서 찍은 것인데, 악장 1명을 비롯하여 트럼펫 2명, 트롬본 2명, 바리톤 2명, 클라리넷 1명, 작은북 1명, 큰북 1명, 이외 대원 3명, 이상 9대의 악기로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12-17〉 대구경찰악대

해 12월 5일에는 미국측의 초청으로 미제8군사령부 특설무대에서 8군장병을 위한 위안공연을 갖기도 하였으며, 12월 7일 대구형무소 수감자를 위한 공연을 하였다. 12월 21일에는 수해복구공사 종료식이 끝나고 오후2시부터 육군중앙극장에서 경찰예능대의 위안연주가 있었다. 1960년 2월 13일에도 활동을 전개했는데, 이후 대표적인 활동은 지방순회공연이다. 그러나 1961년부터 1962년에 걸쳐 전국의 각 시도경찰악대가 서울치안본부 경찰악대로 통합됨으로써 1961년 대구경찰악대는 해산되고 말았다. 이 당시 대구경찰악대의 활동은 주로 시가행진·공개연주회·국경일기념행사 및 정서순화 등이었다.

〈사진 12-17〉 1947년 6월 5일 제5관구 경찰청 특별경찰대 소속 대구경찰악대가 대구경찰서 위치에서 서유택을 악대장으로 하여 35명으로 발족하였다. 1959년 11월 18~21일 4일간 경북경찰국에서는 도내 36개 군민을 위해 경찰예능대가 공연하였다. 경찰예능대는 그해 18일에 봉화, 19일에 풍기와 영주, 20일에 예천, 21일에 함창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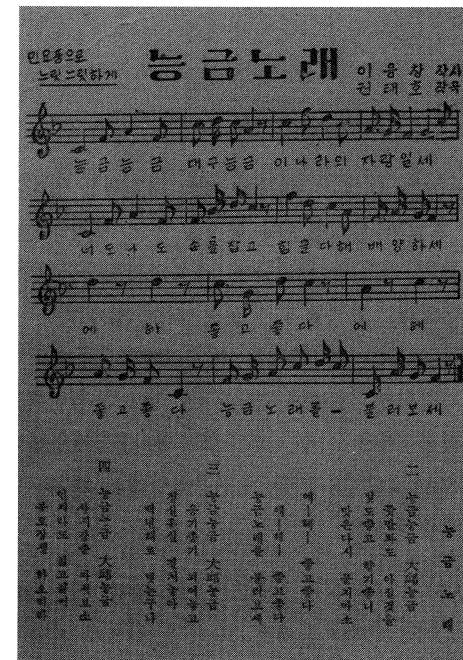


〈사진 12-18〉 권태호의 「국민가요집」 앞뒤 표지

〈사진 12-18〉 해방 이후 대구 지역에서 많은 성악활동을 한 권태호는 1949년 9월 20일 당시 농림부·문교부·문화국에서 추천 장려한 자신의 곡을 모아 「국민가요집」을 펴냈다. 이 가요집에는 8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대한의 노래’(김형규 작사)·‘농부의 노래’(윤복진 작사)·‘일터로 일터로’(윤복진 작사)·‘대한아가행진곡’(남궁량 작사)·‘기억 나는 배우세’(윤복진 작사)·‘대한아들행진곡’(윤석중

작사) · ‘누에를 치세’(윤복진 작사) · ‘대한능금노래’(이용창 작사)가 그것이다.

권태호는 이 가요집 머리말에서, “한 편의 노래가 한 민족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한 민족을 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농부·노동자·청년남녀들에게 명랑하고 씩씩하고 진취성이 있는 노래를 보내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 12-19〉 대구능금노래 악보

〈사진 12-19〉 대구를 상징하는 노래는 몇 곡 되지 않는데, ‘능금노래’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노래는 이용창 작사에 권태호 작곡이다. 대구를 가장 잘 상징하는 노래 중 한 곡이라 할 수 있는데, 4절로 된 가사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 1절: 능금능금 대구능금 이나라의 자랑일세
너도나도 손을잡고 힘을다해 배양하세
(후렴) 에-헤- 좋고좋다 에-헤-좋고좋다
능금노래를 불러보세
- 2절: 능금능금 대구능금 꽃만봐도 아실것을
빛도좋고 향기좋니 맛은다시 묻지마소
- 3절: 능금능금 대구능금 웅기종기 괴여놓고
청실홍실 걸쳐놓아 백년해로 맺은구나
- 4절: 능금능금 대구능금 사시강춘 자서보소
언제라도 젊고젊어 불로장생 하오니



〈사진 12-20〉 권태호 작곡 ‘대구시민행진곡’ 자필악보

〈사진 12-20〉 이곡은 박양균 작사와 권태호 작곡 ‘대구시민행진곡’의 자필악보이다. 권태호는 해방 직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고등음악학교에서 2년간 교수직을 지냈으며, 대구 최초의 독창회를 개최한 전문성악가이다. 또한 해방 후부터 대구에서의 성악 활동은 물론 수많은 곡을 작곡한 작곡가이기도 하다. 대구에 관련된 곡으로는 ‘대한능금노래’와 ‘대구시민행진곡’ 등이

있다. 박양균 작사의 '대구시민행진곡' 1절 가사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새아침은 밝았다 거리 거리에
우리의 보람으로 굳게 뻗었다.
이웃이여 나오라 새살림 꾸려
다같이 나오라 새터전으로
우리는 새나라의 일하는 시민
정다웁게 손잡는 대구의 시민



〈사진 12-21〉 대구합창협회 제1회 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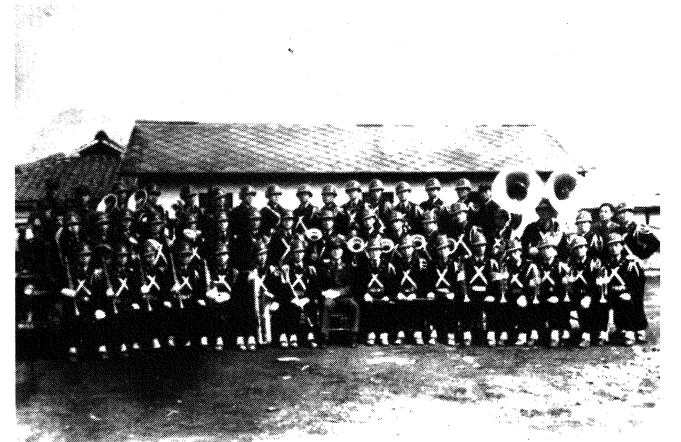
〈사진 12-22〉 대구음악연구회원

〈사진 12-21〉 1938년 6월 18일에는 찬송가의 보급과 합창활동에 목적을 두고 제일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교인들과 경북의학전문학교(현 경대의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합창단이 조직됐는데, 이들 단체가 대구성가협회이다. 이 성가협회는 1938년 12월 3일 제1회 합창대연주회를 가진 이후, 대구합창협회로 개명하여 1950년 4월 28-29일 대구공회당에서 제1회 발표회를 하였다.

〈사진 12-22〉 1952년 5월 테너 이장환이 경영하던 문창서점에서 그 뜻을 같이하는 음악인들이 모여 대구음악연구회를 발족시켰다. 이 자리에는 이점희를 비롯하여 이장환·김종환·이기홍·김홍교·김진균·손영규·김병곤·이상필·김진균·손영규·조사애·이경희·진영희·용명희·이금자·조태석·이흥옥·성두영·강순옥 등이 참여했다. 이 연구회에서는 그해 7월 23일 제1회 대구음악연구회 발표회를 대구미공보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회에는 이기홍이 바이얼린 독주로 '추억'·'슬라브의 자장가' 등 2곡을 연주했으며, 이점희는 '호두나무'·

'두 척탄병' 등 2곡, 테너 진영희는 김진균 곡 '阿娘'을 비롯 2곡을 연주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김홍교가 사회를 맡으면서 곡의 해설을 하여 더욱 발표회를 빛나게 했다. 대구음악연구회는 이듬해인 1953년 5월 30일 대구문화장(현 국제호텔 옆)에서 제3회 발표회를 갖기도 하였다.

〈사진 12-23〉 사진은 1952년 8월 1일 보병육군군악대가 노력의 결정인 처녀행사를 맞으면서 대구에서 찍은 것이다. 대구에서는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하여 각 학교의 관악기는 징발되고, 관악연주를 한 학생들은 군악대원으로 징집됨으로써 군악대가 탄생하였다. 1947년 국방경비대 소속 제6연대가 현재 A-3비행장(현 앞산비행장) 자리에서 30인조의 군악대원이 조직되어 군가 및 행진곡과 서곡 등으로 군인들의 사기양양과 군부대의 의식행사에서 활동하였다. 그리고 1951년 40여인조의 공군군악대와 육군본부군악대가 현재 달성맨션아파트 주위에서 군대의 제반행사로 관악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보병육군군악대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에서 생긴 군악대라 할 수 있다. 이 군악대에 우종익이 참여하였다.



〈사진 12-23〉 보병육군군악대

〈사진 12-24〉 1941년부터 성당에서도 합창활동을 시도하였다. 이후 1951년 서울가톨릭합창단이 대구에서 합창활동을 하는데 자극을 받아 대구계산성당의 교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성당의 신자들도 함께 해서 대구가톨릭합창단이 창단되었다. 원래 이들 합창단은 음악을 통하여 종교의 개방과 종교적 음악의 사회적 인식을 꾀하기 위함이었다. 1941년 창단 때 김경우가 지휘를 맡은 이래, 1945년부터 신상조, 1951년부터 강영기, 1953년부터 김진균, 1956년부터 안중배가 각각 맡았다.



〈사진 12-24〉 대구가톨릭합창단 발표회

단원으로 장안라·황기석·임학권·김동수·김시열·박재향·허길용·임무건·신상국·손상우·정여식·이제호·차복재·송필수·윤광선 등이 활동하였다. 가톨릭합창단은 1953년 12월 김진균의 지휘로 성탄축하의 일환으로 생상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만경관극장에서 연주하였는데, 이때 합창 중 독창으로 소프라노 장안라·테너 김동진·바리톤 이점희가 맡았다. 사진의 첫째줄 오른쪽 2번이 이점희, 3번이 김진균, 6번이 김동진, 둘째줄 왼쪽 1번이 장안라이다.



〈사진 12-25〉 효성여대 교수진

〈사진 12-25〉 효성여대는 1952년 4월 15일 문학과·음악과·가정과 3개의 학과로 개설하면서 여성교육의 요람으로 문을 열었다. 당시 2년제 효성여대와 같은 재단인 효성여고에 출강하고 있던 이점희는 효성여대로 자리를 완전히 옮기고 초대 교무과장겸 음악과장직을 맡았었다. 당시 구호물자인 피아노 7대로 시작한 효성여대는 대구지역에서 처음있는 일이라 음악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후 피아노에 김병근, 음악이론과 합창에 김홍교, 후에 최규선·정훈모 등이 교수로 재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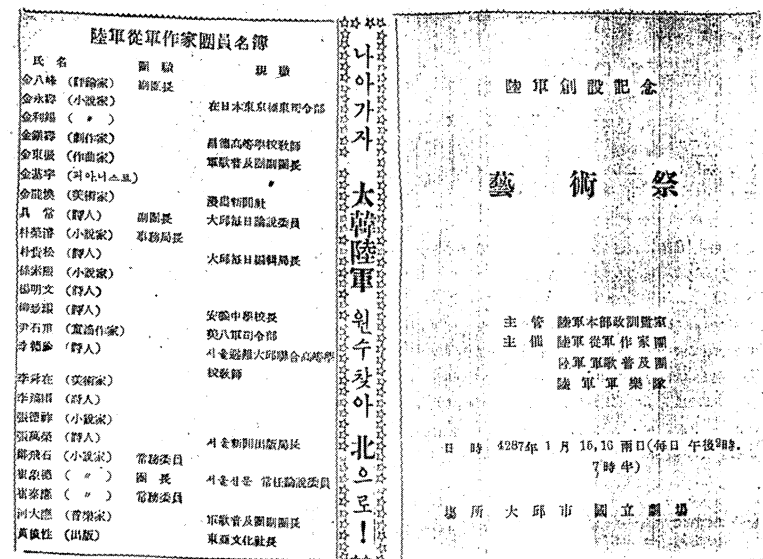
사진의 앞줄 오른쪽 1번이 이경희, 3번이 전석재 신부(당시 학장), 왼쪽 2번이 하대웅, 그리고

뒷줄 오른쪽 3번이 이점희이다(1953.5.15).

〈사진 12-26〉 1954년 1월 15-16일 오후2시와 7시 대구시 국립극장에서 육군본부정훈감실 주관과 육군중군작가단·육군군가보급단·육군군악대가 주체가 되어 예술제가 열렸다. 2부로 나누어 개최된 이날 음악회에는 제1부에서는 김동진의 독창이 있었으며, 제2부에서는 군악과 합창연주가 있었다. 군악연주에는 조병하의 지휘로 육군군악대·육군군가보급단·목금독주로 길형원이 맡았다. 군악연주는 군가 ‘육군가’·‘휘날리는 태극기’·행진곡 ‘충성을 다하라’·서곡 ‘희극’·원무곡 ‘봄의 노래’·목금독주

‘차르다스’·스트라우스의 ‘무궁동’·행진곡 ‘엘가바레로’(올리바도티곡)를 하였다. 그리고 합창연주는 지휘 강영기·피아노반주 김기우·연주에 육군군가보급단이 맡았다.

연주곡은 혼성합창으로 ‘집시의 합창’(베르디곡)·‘양산도’(한국민요)·‘노래의 궁전’(바그너), 베이스 김찬기의 독창으로 베르디 곡 “에루나” 중에서 ‘슬프고 아름



〈사진 12-26〉 육군창설기념예술제 프로그램

다웠던 그대에게’, 소프라노 윤상운의 마스카니 곡 “카바레리아 루스티카나” 중에서 ‘마마도 아시다싶이’, 윤상운·남정희·황혜경·김찬기의 혼성4중창 ‘유랑의 무리’, 남성합창으로 ‘무적국군의 노래’(하대웅 곡)·‘주인은 땅 속에’(웨스타 곡)·‘병사의 합창’(구노 곡), 소프라노 이실림의 독창으로 ‘부끄러움’(김동진 곡)·‘낮선 마을에서’(김동진 곡)이었다.



〈사진 12-27〉 대구코오러스 창립연주회

〈사진 12-27〉 1952년에는 서울가톨릭합창단과 육군정훈합창단을 합쳐 육군군가합창단이 창단되었다. 육군군가합창단은 장병들의 사기양양과 군가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는데, 1954년 서울 수복과 함께 육군본부의 서울 이동으로 인하여 자연 해산되었다. 이렇게 해산됨에 따라 임성길은 군목합창단원들과 함께 대구코오러스를 만들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시 중 군에 소속되어 합창활동을 하였으나, 이제는 소속에서 벗어나 순수한 합창활동을 목적으로 재창단된 것이다.

대구코오러스의 단장은 최성환, 부단장에 이점희·문영복·김필수, 지휘에 임성길, 반주에 이경희·이재원이 맡았다. 이 합창단은 1954년 12월 키네마극장(현 한일극장)에서 창립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주회에는 유재덕 작곡의 ‘대구시민의 노래’가 처음으로 발표되기도 하였다.

〈사진 12-28〉 1950년 2월 이점희는 추태엽의 도움으로 동성로에 위치한 그의 집에서 대구음악학원이란 간판을 내걸었다. 개강한 지 8개월만에 강의실이 비좁아 삼덕동 구 법원 앞으로 학원을 이전했다. 이 당시 수강생으로는 성기용이 있었는데, 6·25전쟁이 일어나자 더욱 성시를 이루었다. 그래서 봉산동 구 소년원 옆으로 자리를 옮기고, 성악 뿐만 아니라 피아노·바이올린·작곡과 등으로 세분하여 수강생을 모집했다. 또한 학원이름도 대구음악고등학교원으로 개칭하여 음악교육기관으로 부상했다. 강사로는 바이올린 이기홍·피아노 이경희·합창 임성길이 맡아 학생을 가르쳤다. 이때의 수강생으로는 임종명·석종환·안종배·조영호 등이 있었다.



〈사진 12-28〉 대구음악고등학교원

이렇게 학원이 성시를 이루고 수강생들의 실력이 향상되자, 1954년 4월 11일 제1회 대구음악고등학교원의 발표회를 대구문화장(현 국제호텔 옆)에서 개최하였다. 이때 박목월은 “가난한 오늘의 음악학원이 내일은 우리나라의 한결 큰 보람의 탑을 세울 음악의 전당이 되리라 믿는다”는 격려사를 보내왔으며, 이 음악회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사진은 학원앞에서 제자들과 기념촬영한 것인데, 앞줄 왼쪽 2번이 이기홍, 3번이 이점희, 제일 뒷줄 오른쪽 1번이 조영호이다.



〈사진 12-29〉 대구음악가협회 발기인

〈사진 12-29〉 1957년 1월 8일 대구 낙동강다방에서 대구음악협회를 만들기 위해 발기인들이 모였다. 사진 앞줄 오른쪽부터 하대웅·장안라·이경희·이기홍, 뒷줄 오른쪽부터 이점희·김진균·임성길·최병준·이상필·성기용·김종환이다. 1952년 5월 대구음악연구회가 결성되어 몇차례 연주회를 개최한 이후, 좀더 문호를 개방하고 앞날을 위해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새로 모임을 발족한 것이 대구음악가협회이다.

대구음악가협회는 “향토 음악문화의 발전과 향상 및 음악인의 상호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취지문을 발표하고 낙동강다방에서 발기인회를 가짐으로써 시작되었다. 회장에는 하대웅·부회장은 이점희·강사에 이상필이 선임되어 명실상부한 향토음악인의 모임이 탄생되었다. 이후 대구음악가협회의 첫 행사로 모짜르트 탄생200주년기념음악회를 청구대학강당에서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 12-30〉 모짜르트 탄생200주년 기념음악회

〈사진 12-30〉 1956년 1월 8일 낙동강다방에서 기존의 대구음악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대구음악가협회 발기인회를 가졌다. 발기인은 이점희·김진균·임성길·최병선·이상필·성기용·김종환·하대웅·장안라·이경희·이기홍 등이며, 회장에 하대웅·부회장에 이점희·강사에 이상필이 선임되었다. 대구음악가협회는 그 결성의 첫 사업으로 악성 모짜르트의 탄생200주년을 맞아 의욕적인 행사를 마련했다. 이 음악회를 위해 ‘대구시

민의 노래’를 작곡한 유재덕이 상금으로 받은 작곡료 상당부분을 회사하기도 했다. 이날 음악회에 출연은 피아노연주에 이경희·김종환·이상필, 바이올린에 이기홍, 성악에 이점희·성기용·장안라 등이 참여했다. 사진은 현악4중주 연주이며, 1956년 1월 27일 청구대학강당에서다.

〈사진 12-31〉 사진의 왼쪽 1번이 유치환, 2번이 이호우, 3번이 권태호, 오른쪽 1번이 이근직 도지사이다. 1956년 3월 1일 제1회 경북문화상을 받은 사람은 학술부문 이성관, 문학부문 유치환·이호우, 예술부문 이규환, 공로상 손일봉·권태호이다.



〈사진 12-31〉 제1회 경북문화상 시상식

권태호는 해방 직후 일본에서 귀국하여 경주예술학교 창설에 관여하였으며, 1946년 대구음악원 개설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민개창운동을 전개하여 대구시민들에게 음악보급을 꾀하여 대구지역 성악 및 작곡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대구에서는 1945년 9월 초순 대구공회당(KG홀)에서 경북문화건설연

맹이 창설되었다. 음악동맹위원장에 권태호를 비롯하여 위원으로 이응수·서혹파·윤일도가 맡아 참여했으나 얼마가지 못하고 이 모임은 해체되었다. 그후 대구의 예술인들은 1946년 5월 20일 대동서점에서 경북예술가협회를 결성했는데, 음악부문에 역시 권태호가 맡았다. 이후 권태호는 수많은 음악활동을 통해 대구의 음악발전을 꾀하는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여 그 공을 높이샤 제1회 경북문화상(공로상)을 받게 되었다.

〈사진 12-32〉 이기홍은 실내악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구현악회를 중심으로 대구에서의 현악기 연주자와 2군군악대 관악기연주자의 협조로 대구교향악단을 창단하였다. 창단 이전 대구교향악협회가 먼저 발기하게 되는데, 발기인은 이정희·장안라·성기용·최병준·김진균·강영기·김기우·김종환·김홍교·이상필·이점희·임성길·하대웅·이기홍이었다. 이들의 노력으로 대구교향악단이 창단된 것이다. 대구교향악단은 1957년 12월 19일 오후1시·3시 및 7시, 3회에 걸쳐 문화극장(현 한일극장)에서 창단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사진 12-32〉 대구교향악단 창립기념연주회 프로그램

창단연주회에는 이기홍의 관현악 지휘를 비롯하여, 합창지휘에 임성길, 작곡 및 편곡에 김진균이 맡았으며, 연주곡목은 슈베르트의 교향곡 제8번 '미완성', 모차르트의 바이얼린협주곡 제5번(바이얼린에 강효), 모차르트의 현악합주곡 '세레나데', 헨델의 '수상음악', 베르디의 '춘희' 중에서 2중창(소프라노에 장안라·테너에 백남영),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곡인 '푸른도나우'였다.

〈사진 12-33〉 대구의 현악기 연주자와 2군군악대 관악기연주자의 협조로 만들어진 대구교향악단은 1957년 12월 19일 문화극장(현 한일극장)에서 창단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사진 12-33〉 대구교향악단 창립기념연주회

단원으로는 지휘에 이기홍, 악장에 문길용, 제1바이올린에 이영애·손진현·이인희·강건·김진문·박관정·권성태, 제2바이올린에 안중배·송인식·강효·손진만·이근우·이상단·김수생·한갑희, 비올라에 천시권·구경자·정태호·서성은·김동식, 첼로에 조태석·김준덕·조현진·배종구, 베이스에 김항기·박여실·김종원이 맡았으며, 플룻에 허영운·한변성, 오보에 이상화·하상수, 클라리넷에 박은규·김성홍, 바순에 윤여정·김인철·

김종수, 호른에 이시성·천창욱·최성기, 트럼펫에 유준영·김동수, 트럼본에 이성국·송두상·박두용, 튜바에 정광덕·서성기, 드럼에 오재춘, 팀파니에 현철수, 피아노에 이경희·김종환·이재원이 각각 맡았다.

대구교향악단은 1957년 12월 30일 정식 발족을 위한 창립총회를 가졌다. 회장에 이효상, 부회장에 최영호·하영수(후원회장), 사무국장에 이상필, 총무에 진영희, 기술위원에 이기홍·김진균·임성길·문길용·안중배, 실행위원에 강영기·이점희·김종환·김성도·안복례가 맡았다. 계속적인 정기연주회를 개최한 대구교향악단은 1959년 12월 1-2일 제3회 공연을 한 이후, 대구관현악단으로 명칭을 바꾸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사진 12-34〉 미국공보원에서 1949년 9월 29일 오후7시 미국문화연구소에서 제1회 레코드 감상회를 개최한 이후, 200회 이상 대구에서 감상회를 개최했다. 미국공보원은 감상회 활동 외에도 음악회를 개최했는데, 1958년 1월 16일 한미친선음악회와 1962년 2월 15일 한국인 음악가 5명을 초빙하여 개최한 소음악회, 또한 1963년 1월 11일 신년음악회 등이 그것이다. 사진은



〈사진 12-34〉 미국공보원 레코드콘서트 100회기념

미국공보원 주최로 열린 제100회 레코드콘서트를 마친 후 촬영한 것인데, 1957년 4월 13일 미국공보원에서 열렸다. 미국공보원 주최의 음악감상활동은 예육회와 함께 당시 서양음악을 시민들에게 보급함은 물론, 대구지역 음악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음악감상회 해설은 당시 의사였던 손영규가 맡았다.

〈사진 12-35〉 효성여대는 1952년 5월 15일 구 효성여자중 학교에 위치한 교사에서 2년제 여자대학으로 개교하였다. 이후 1957년 음악과(50명) 학생들과 교수들은 제1회 효성의 날을 기념하는 음악회에 출연하였다. 개교 당시 음악과에는 이점희·정훈모가 담당하였다. 1953년 2월에는 4년제 여자대학으로 승격되면서 총 4개학과로 증가되었으나, 음악과의 정원은 50명에서 40명으로 10명이 도리어 감축되었다. 이 당시 하대웅이 취임하였으며, 정훈모가 퇴임하였다. 1954년에는 이점희가 퇴임하였으며, KG홀에서 정기연주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1956년 11월 대명동 교사에서 구 봉덕동 교사로 이전하였으며, 그해 3월 처음으로 구 대건고등학교강당에서 졸업연주회를 갖고 성악과 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사진은 1957년 5월 15일 준공한 음악관에서 효성여대의 효성의 날을 맞이하여 이보형의 독창이 이경희의 피아노반주로 이루어졌다(1959.11.19).



〈사진 12-35〉 효성여대 제1회 효성의 날

〈사진 12-36〉 대구농고악대는 대외적으로 활발한 음악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군부대 행사와 시민행사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학도호국단의 군사교육 활동을 비롯하여 음악회 개최 등 교내활동을 주로 하여 그 명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한 예로 1992년 5월 9일 개교82주년기념 제1회 관악부동문음악회를 시민회관대강당에서 개최한 것이 그것인데, 그 이듬해에도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사진은 교내음악회 때이며, 재학생을 대상으로 음악회를 개최한 것이다.



〈사진 12-36〉 대구농고악대 연주회

〈사진 12-37〉 5·16으로 정권을 잡게 된 군사정부는 1961년 예술문화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민족예술의 국제적인 교류를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그해 서울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를 창립시켰다. 이러한 한국예총의 창설을 기념하여 대구에서는 문화인단합경북예술제라는 명칭으로 대구문화인단합회가 주최하여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사진이 바로 그것인데, 1961년 10월 12-13일 제일극장에서 이기홍의 지휘로 대구관현악단이 연주했다. 이 연주회에는 대구가톨릭합창단(안종배 지휘)·대구코오리스연합합창단(임성길 지휘)이 출연하였으며, 또한 우종역의 트럼펫 독주가 있었다. 아울러 계성학교강당에서는 교육주관기념 학생종합예술제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사진 12-37〉 문화인단합 경북예술제
—한국예총창설기념연주회—



〈사진 12-38〉 하대응문하생 제1회 발표회

〈사진 12-38〉 1960년대부터 대구에서는 문하생발표회가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1962년 2월 28일 제1회 이보형문하생발표회와 제1회 하대응문하생발표회가 그것이다. 1962년 12월 13일 오후4시와 7시30분 2회에 걸쳐 개최된 하대응문하생발표회에는 소프라노 김군자·정태은·김귀자·최진숙, 테너 하재광·조병찬·장영호가 출연하여 김동연·조덕희의 피아노반주로 연주하였다.

〈사진 12-39〉 1962년 2월 14일에는 오후3시와 7시 2회에 걸쳐 계성학교강당에서 대구연합합창단을 지휘하기 위해 안익태가 내구하였는데, 당시 일본에서의 선후배 사이인 권태호와 안익태의 만남이다. 특히 이 음악회에는 안익태와 함께 온 코네의 피아노독주가 있었다.



〈사진 12-39〉

권태호와 안익태

당시 안익태는 외국에서 지휘 활동을 통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심었던 인물이며, 우리나라 ‘애국가’의 작곡가라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내용이다. 그리고 권태호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독일의 예술가 곡을 1928년 소개한 장본인이기도 하며, 한해 전인 1927년 대구에서 처음으로 독창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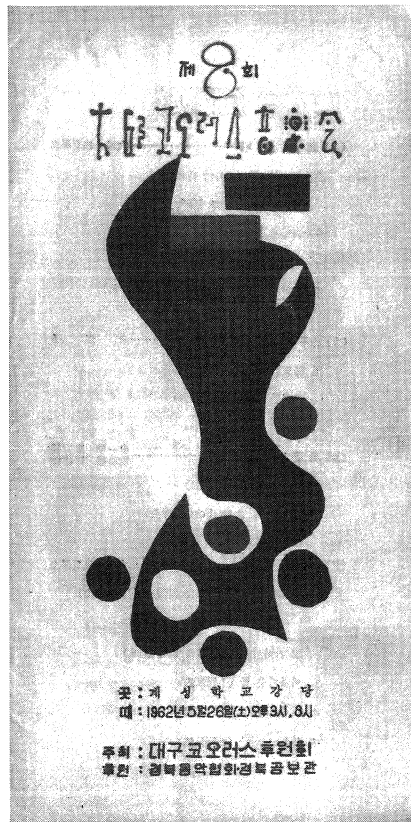
〈사진 12-40〉 대구코오러스는 1954년 12월 창립연주회를 개최한 이후, 지속적인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1955년 12월 제2회 정기연주회, 1959년 5월 21일 제3회 정기연주회, 그해 12월 8일 제4회 정기연주회, 1960년 12월 22일 제5회 정기연주회, 1961년 5월 27일 제6회 정기연주회, 그해 11월 25일 제7회 정기연주회, 1962년 5월 26일 제8회 정기연주회, 그해 11월 24일 제9회 정기연주회가



〈사진 12-40〉

대구코오러스 제1회 신라문화제 경주공연

그것이다. 한편 1962년 4월 20~24일 경주극장을 비롯하여 경주 일원에서 제1회 신라문화제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 대구코오러스가 참여했었다. 사진은 제1회 신라문화제 행사기간 중, 불국사 앞에서 ‘할렐루야’를 임성길의 지휘로 연주하는 모습이다. 이 당시 박정희 의장과 박경원 도지사가 참석하여 격려하였다.



〈사진 12-41〉 대구코오로스
제8회 음악회 프로그램

〈사진 12-41〉 1962년 5월 26일 오후3시와 8시 2회에 걸쳐 계성학교강당에서 제8회 대구코오로스음악회가 열렸다. 이 음악회는 대구코오로스후원회가 주최하고 경북음악협회·경북공보관이 후원하여 이루어졌다. 대구코오로스는 1954년 12월 키네마극장(현 한일극장)에서 ‘대구시민의 노래’를 포함해 제1회 창립연주회를 개최한 이후, 꾸준히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연주회에는 임성길의 지휘로 혼성합창 ‘충성가’ 외 12곡, 소프라노독창에 이강자의 ‘낙동강’ 외 1곡, 김동연의 피아노독주로 쇼파의 ‘譯詩聲’, 테너독창으로 조병찬의 ‘수선화’ 외 1곡이 연주되었다.

〈사진 12-42〉 권태호는 1959년 9월 28일 효성국민학교 음악실에서 국민가요합창단을 조직하였다. 당시 국민가요합창단원 16명과 김기우·안종배·김종환·최수화가 지도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1963년 6월 28일 창립음악회를 김승호·김경자를 비롯한 43명의 단원으로 이성수의 지휘로 개최되었다. 사진의 앞줄 오른쪽 1번이 반주를 맡았던 조강심, 2번이 당시 국민가요합창단 대표인 권태호, 3번이 지휘한 이성수이다. 당시는 국민가요를 보급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을 때였으며, 노래를 통한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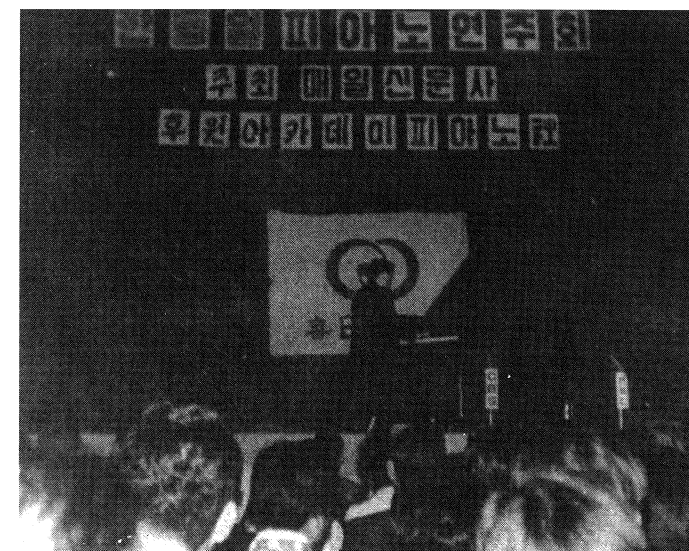
〈사진 12-42〉 국민가요합창단 창립연주회

〈사진 12-43〉 1964년 5월 26일 계성고강당에서 매일신문사 주최와 제일피아노사 후원으로 한동일피아노연주회가 열렸다. 당시 입장권을 예매했는데, 예매처는 제일피아노사이며, 입장료는 A석 130원·B석 70원·학생석 50원이었다.

한동일은 2년후 제24회 리벳트리트 국제음악경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기념으로 효성여대강당에서 1966

년 5월 20일에 특별초청연주회를 가진 바 있다. 이 당시 한국인으로 서 서양음악을 전공하여 외국에서 이름을 들어낸 음악가는 별로 없었다. 때문에 한동일을 대단한 음악가로 인식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지원을 받아 피아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사진 12-44〉 1958년 6월 이기홍이 결성한 현악회는 1960년 대구관현악단으로 개명하였으며, 이후 1963년 다시 대구방송관현악단으로 이름을 바꾸어 명맥을 이어갔다. 그 이듬해 대구방송관현악단은 대구시립교향악단으로 발족하여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사진은 대구시향 제14회 정기연주회 때인데, 1967년 9월 29일 KG홀에서 열렸다. 이날 음악회에는 이기홍 지휘로 베토벤의 ‘피델리오’ 서곡, 바리톤 남세진의 ‘가고파’ (김동진 곡) · ‘팔라아치 서창’ (레온카발로 곡) 독창, 트럼펫 우종억의 ‘협주곡 내림마장조’ (하이든 곡) 독주, 교향곡 제4번 라단조 (슈만 곡)가 각각 연주되었다.



〈사진 12-43〉

한동일피아노연주회



〈사진 12-44〉

대구시립교향악단 제14회 정기연주회

第5節 美術家の生涯と作品

I. 洋畫家

1. 李相定 (1897~1947)

산은(山隱) 이상정은 대대로 대구에서 살아온 선비였던 이시우(李時雨)의 장남으로 1897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그 아래 상화, 상백, 상오 세 아우가 있었으며 그들은 시인, 사회학자 및 체육인, 수렵가로서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인물들이다. 이들은 부친이 일찍 타계하여 백부인 이일우(李一雨)에게서 자랐다. 당대 거부였던 이일우는 북성로에 우현서루(友弦書樓)를 열어 많은 책을 소장하고 각지의 선비들과 교류했다. 1924년 일본 궁성의 니쥬우바시(二重橋)에 폭탄 세 개를 던지고 현장에서 체포, 지바(千葉)형무소에서 옥사한 김지섭(金祉燮)은 바로 우현서루 출신이며 장지연, 박은식도 출입한 것으로 보아 이 곳은 일종의 지사양성소였다.

이상정은 일본 국학원대학을 졸업하고 오산, 경신, 계성, 신명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다가 1923년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평위상(憑玉祥)의 막료로 활약했고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등지에서 항일투쟁을 벌였다. 32년 홍사단에 가입, 39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중국 국민정부의 초청으로 충칭(重慶)육군참모학교 교관을 지냈으며 그 해 임시정부의 의정원 의원에 선임되었고 류동열 등과 신한민주혁명당을 조직하여 중앙위원겸 군사부장에 취임하였다. 1941년 중국 육군 유격대학 교수를 지내고 이듬해 화중군사령부 고급막료로 있으면서 난징전(南慶戰), 한코우전(漢國戰)에 직접 참전했다. 해방까지 국민군 중장이었으며 그 후 상하이에 머물면서 교포보호에 힘쓰다가 1947년 귀국했으나 두 달 뒤에 뇌일혈로 사망하였다.

여기서 독립운동가인 이상정을 길게 얘기한 것은 단순한 무인이 아니라 시·서·화에 능했고 전각에 뛰어났으며 특히 대구에 처음으로 서양화구를 들여왔고 최초로 서양화 작품을 제작, 발표했다는 미술사적 의의를 밝히려는 데 있다.

아마도 일본 국학원대학 유학시절 그는 서양화를 접했고 미술에 취미와 소질을 가졌던 그로서 습작을 했으리라는 추측은 가능해진다. 1920년 귀국후 서양화 작품의 제작과 발표는 그가 중국으로 망명하던 1923년전의 일로서 21, 22년에 이루어졌음은 명확히 확인된다.

이렇게 볼 때 대구 서양화의 출발은 1920년대 초에 이루어졌음이 확정되고, 이상정은 대구 최초의 서양화가로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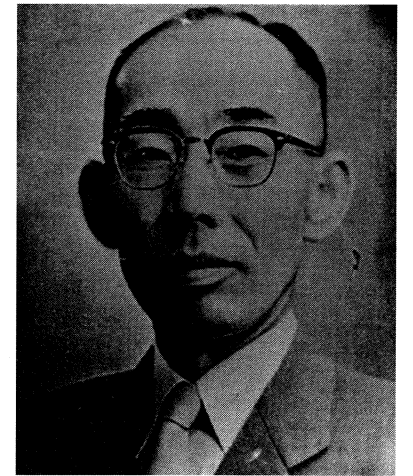
2. 徐東辰 (1900~1970)

소허(小虛) 서동진(사진 12-45)은 서기수(徐琦洙)와 윤매주(尹梅周)사이의 3남으로 1900년 1월 16일 대구시 중구 수동 62번지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정은 비교적 부유하고 진취적이었으며 그의 어머니

는 대구교육부인회를 창립했고 당시 신교육 운동가로서 활동했으며 그의 형제들은 항일운동가로 명성을 떨쳤다.

대구 계성학교 재학시 학생운동에 관련되어 퇴학을 맞고 곧장 서울로 올라갔다. 하루가 시작되면 그는 매일 휘문고등보통학교에 가서 교실 창밖에서 교실안의 수업을 경청하고 있었다. 기이하게 여겼던 학교에서 그가 학생운동으로 퇴학당하고 배움이 중단된 사실을 알고는 편입학을 시켜 주었다. 어렵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서동진은 이 시절에 본격적인 미술을 공부하게 되었다. 당시 일본에서 돌아온 미술교사 춘곡 교회동을 이 학교에서 만난 것은 행운이었으며 그로부터 많은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1924년 휘문고보를 졸업하고 일본에 건너가 미술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그가 어느 학교나 연구소에서 미술공부를 했는지는



〈사진 12-45〉 서 동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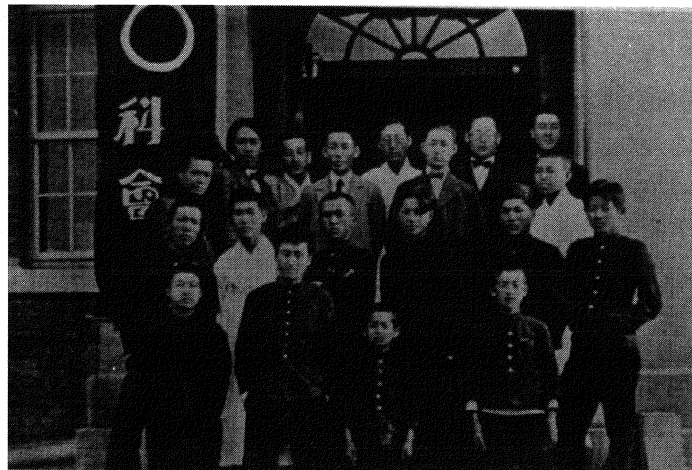
1925년 귀국한 후 15년간 교남학교(현 대륜중고)에서 보수없이 미술교사로 재직하는 한편 1927년에는 인쇄소겸 상업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대구미술사를 설립, 운영하였다. 당시 상호 등의 마크에는 「석판인쇄 회화도안 기타 미술·대구미술사」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인쇄소와 각종 상업미술 및 순수 회화 등 일종의 미술종합센터 역할을 한 듯하다. 주 경은 훗날 이렇게 회고하였다.

“서동진씨는 미술연구 및 인쇄소를 겸한 대구미술사를 개설, 많은 미술인을 배출해 내었는데 이 중에 이인성, 김용조도 섞여 있었다. 이 곳에서는 순전히 우리나라 사람끼리 결속되어 일체에 대한한 민족적인 조직으로서의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끼리는 아주 단단히 결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기 출신 화우들은 당시의 미술전을 휩쓸다시피 했으며 전국 화단을 흔들 지경으로 활기가 있었다.”
(대구매일, 1976. 1.11)

재담과 화술에 뛰어났던 서동진의 이 대구미술사는 대구 지방 문화예술가들의 사랑방 구실을 하며 신문화운동의 전초지 역할을 했다. 상업적 미술이외 후진 발굴에도 큰 공헌을 했다. 한국 근대회화의 천재로 불리워지는 이인성과 혜성과 같이 나타난 김용조도 대구미술사 출신이었다.

어느 날 교회가 있는 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서동진의 눈에 역시 그 곳에서 사생을 하고 있던 이인성 소년이 발견되었다. 수창보통학교 5학년인 이인성의 그림솜씨는 놀라웠다. 학교를 졸업하고 가정 형편으로 진학하지 못한 이인성은 대구미술사에서 일하면서 그림공부를 하게 되었고 역시 가난으로 달성보통학교만 마친 김용조도 스승의 도움으로 여기에 들어와 이인성과 함께 침식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대구미술사를 설립한 같은 해(1927)에 그는 대구 미술인을 결속하여 「영과회」를 창립하고 주도하기에 이른다. 일본인 미술그룹인 「자토회」에 일본 미술인들과 함께 출품하던 이들은 독자적인 그룹을 형



〈사진 12-46〉 조양회관 앞에서 영과회 전시기념 사진
가운데 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배명학, 그 뒤가 서동진, 그 오른쪽이 최화수

다. 이에 앞서 그는 이미 1927년 6월에 동아일보 대구지국이 주최한 「서동진 수채화전람회」를 조양회관 2층에서 가졌다. 당시 동아일보기사는 이러했다.

本報 大邱支局에서는 당시 예술계가 沈寂蕭條함을 개탄하고 만일이라도 斯界의 진흥을 圖謀코저 종래 懸案이든 예술의 일대부문인 양화 전람회를 今月 11・12・13 사흘 동안 朝陽會館 상층에서 개최키로 하였던 바 전개될 작품은 斯界 일류의 靑年畫家로 조예깊고 명성이 높은 徐東辰씨의 積年專攻 特選한 수채화로서 이는 同氏의 가장 寶藏品으로 여간한 기회에서는 공개를 허하지 않던 것인 바 본 支局의 사계 진흥과 후학 장려의 意趣에 동감하여 前記와 여히 徐東辰水彩畫展覽會를 개최케 되었던 바 출품의 점수는 풍경, 인물 등 총 50여점으로 榴花가 綠陰아르치는 이 때 넓다란 朝陽會館 상층에는 찬란작잡한 광채가 滿都人士의 心目을 醉悅케 하리라고 일반의 호평이 자자하다더라(1927. 6. 11)

카탈로그에 다음과 같은 그의 단문이 실려 있는데,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예술에의 염원이 잘 나타나 있다.

疲勞 — 倦怠
언제나 「새삶」을 잡으려나
「아트」는 인간의 調和性
모든 것을 초월한 調和性.

사람 — 사람아
삶의 씨앗을 찾아라

성하여 민족정신을 일깨우며 「자토회」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대구 최초의 한국인 서양화 그룹인 「영과회」는 교남기독교청년회관 2층에서 창립전을, 조양회관에서 2・3회전(사진 12-46)을 가짐으로써 대구 미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다지었다. 그러나 일본인 미술단체인 「경북미술협회」에 대항하여 이들은 「영과회」회원을 보강하여 「향토회」를 창립(1930)하고 조양회관에서 그 창립전을 열었

疲勞재 倦怠고개를 넘은
「아트」의 꽃이 피었나니.

新興藝術 —
새 그림의 光, 목숨의 表現
뛰노는 神祕의 미래
보아라 絢爛, 陸難한 저 빛을

創作 — 天才
우리가 목말라 하던 그들은
샛별같은 젊은 巨擘의 손에
꽃을 피우라 「아트」의 새 목숨.

이 전시회는 관람자가 매일 무려 천명에 달하는 성황을 이루었는데 수채화라는 한 미술의 영역으로
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미술사에 중요한 한 <사건>으로 받아 들여진 듯하다.

서동진은 다음 해인 1928년에 역시 동아일보 대구지국 주최로 조양회관에서 두번째의 개인전을 가졌
다. “氏의 개인전람을 축하겸 찬조하는 의미로 대구에서 명성을 날리는 일반화가의 찬조출품이 수십 점
있겠다는 바 氏의 작품을 비롯하여 名家의 독특한 개성과 기법이 유감없이 표현된 작품 6, 70점이 一
室에 집중된 장관은 대구 洋畫壇의 주목의 的인 동시 斯界 장려의 의미로 보아 일반의 기대가 크다더
라.”(동아일보, 1928. 7. 5)고 소개된 이 전시회에서는 그의 <역부근>, <자화상> 등 46점과 최화수
(습작, 풍경), 김용조(군상), 박명조(영선지, 습작)와 일본화가 千野左門(풍경, 끼리), 濱村文雄(풍경
2점), 野鶴利男(정물), 土肥實(庭園隅, 정물) 등이 찬조 출품하였다.

이 때에도 카탈로그에 단문을 싣고 있다.

얼마나 동경하였습니까?
畫面에 나타나는 새 예술의 氣分!
默示와 暗露의 陰影과 색채!
신비한 美의 莊蕭한 느낌은
황홀한 도취의 저 고개 넘어서
洗禮의 聖水로 心靈을 씻은 듯.

우리는 이러한 작가를 갖는 것이
얼마나 자랑이라!
우리는 이러한 예술품에 접할 기회가
온 것이

얼마나 다행이라!
 美의 전당이 열리는 곳
 예술의 三昧境, 순란한 異彩에 靈感이 울리울 때
 구비쳐 흐르느니 生命과 創造!

27, 28년 두 번의 수채화 개인전을 가진 서동진은 이제 확고한 작가로서의 위치를 차지했으며 이에 힘입어 「영광회」, 「향토회」(사진 12-47)를 창립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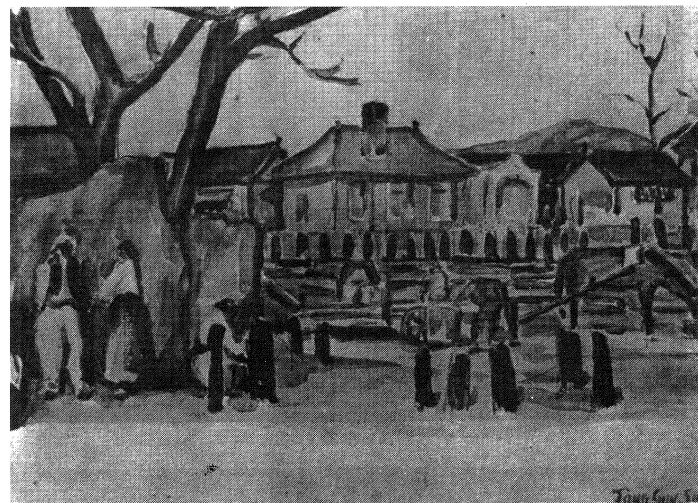
대구에서만 활약하던 그가 중앙화단에 등단한 것은 몇번 입선한 「선전」을 통해서였다. <역부근>(사진

12-48)으로 제7회전에 첫 입선으로 출품하였다. 한복차림의 근로자들이 말에게 먹이를 주면서 휴식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식민지 민족의 애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자신이 회고한 바 있다고 전한다. 이듬해 제8회에서는 서동진과 그의 제자인 이인성 두 사람만 입선하였다. "저보다도 이인성군이 입선한 일이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이군은 제가 2년전부터 가르쳐 금년 처음으로 출품한 소년입니다. 장래 두 사람이 같이 연구하여 1인자가 될 것입니다." (조선민보, 1929. 8. 30)고 하여 서동진은 자신의 입선보다 이인성의 입선에 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제8회전에 <역구내>로 연속 입선한 뒤 제10회에 <오후풍경>, 제11회에 <뒷골목>으로 입선하였다.

두 번의 개인전과 네 번의 「선전」 입선, 「영광회」, 「향토회」의 출품으로 왕성한 작품활동과 미술운동을 벌여오던 서동진은 1932년 제11회 「선전」입선을 마



〈사진 12-47〉 제3회 향토회전(1931. 10) 앞줄 왼쪽부터 최화수, 배명학, 서동진, 박명조 맨 뒷줄 가운데가 김용조



〈사진 12-48〉 서동진, <역부근>, 제7회 <선전>입선작, 1927년, 수채

지막으로 그 후로는 이렇다할 활동이 없었으며 성과 또한 거두지 못했다.

1930년대 후반은 전쟁준비에 광분한 일제가 한반도를 철저히 수탈했던 시기이며 우리 민족에겐 고난의 시기이기도 했다. 생활의 근거인 토지를 몰수하고 징병·징용으로 청장정을 전쟁터로 탄광, 철도공사에 끌고 갔으며 수 많은 처녀와 부녀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갔다. 집집마다 식기류, 제기들은 공출이란 이름으로 빼앗아 갔으니 온 나라가 파폐해지고 인심은 이를 데 없이 흉흉해져 갔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속에 생존하는 것만이 생의 목적이며 목숨을 지탱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레 여기게 되었다.

폭풍 전야와 같은 침묵과 불안은 하루 하루의 생존이외의 모든 것을 잠재워 놓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예술을 한다는 것은 정신나간 것이었으며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20, 30년대 그렇게도 활발히 전개되어 오던 미술활동은 긴 휴면기에 들어갔으며 대구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모든 분야가 공백기를 맞게 되었다. 서동진의 미술적 활동도 이 시대적 정황을 벗어날 수 없이 종말을 고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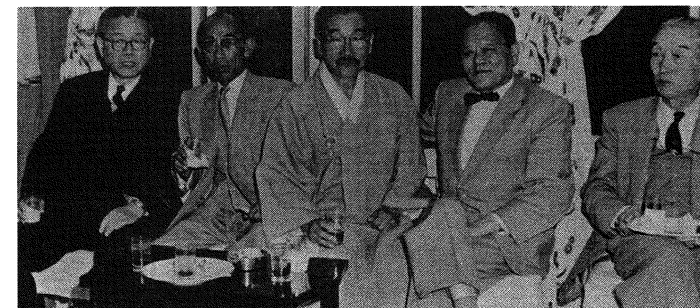
화업을 중단했던 서동진은 해방을 맞아 사회사업가로 변신하게 된다. 경북 청년회를 비롯하여 철공협회, 원호회, 후생회 등의 회장일을 맡아 보며 사회사업에 전념한다. 해방후 대구지방의 어려운 처지인 이재민들을 위해 수용소를 세우는 등 150만 이상에게 옷과 음식을 제공했다. 또한 대구종합운동장(현 시민운동장)의 건설에 참여하는 등 원호사업에 헌신했다.

해방되던 해 11월에 8·15해방기념전에 출품하고 1950년 6·25동란이 나던 해에는 주경, 손일봉 등과 「대구화우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51년에 영남일보사 취재역에 취임하고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의 경북지부장을 맡아 혼란한 전쟁중에서도 문화예술인을 규합하여 국가보위에 공헌했다. 53년 휴전이 되자 그는 대구 원화학원 재단이사 및 기성회장, 사친회 이사장에 취임하여 이 고장 교육진흥에도 이바지하였다.

화가로서, 사회사업가로서, 교육자로서 명망이 높았던 서동진은 독재와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던 자유당 정권하에서 54년 대구 갑구에 민주당 후보로 제3대 국회의원예 당선되어 정치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사진 12-49>. 그 후 민주당 중앙상임위원겸 산업부장에 선임되었고 60년에 다시 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국회의교분과위원장에 선임되었다. 61년 민주당 정권하에서 제15차 UN총회에 한국대표로 파견되어 활동을 마치고 귀국길의 제네바에서 5·16군사혁명을 맞고 정치계에서 완전히 은퇴하였다.

결혼주례를 맡는 등 노후를 보내다가 70세되던 1970년 1월 15일 다채로운 경력의 그는 부인과 4남 3녀의 유가족을 두고 세상을 떠났다.

“평생을 한결같이 민족과 조국만을 위해 몸바친 兄이기에 지금 兄의 영전에 머리 조아리고 섰으니 평소의 온화한 그 모습 대할



<사진 12-49> 서동진의 국회의원 시절
장 면, 서동진, 고희동, 조병옥(왼쪽부터)

길 없고 굳은 의지와 강한 투지 속에서도 언제나 훈훈한 재담으로 주위를 이끌어 가던 그 음성을 이제 영원히 들을 수 없으니 세상무상을 통탄하며 비창속에 오열할 뿐”(김상열 전경북대 총장의 추도사)이라고 온 대구시민의 추모를 받은 소허 서동진이었다. 그의 장례식은 대륜고 동문회에서 치루었고 장지는 경산군 고산면 연호동 선영하이다.

우리나라 근대미술의 수용기에 수채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수채화가로서 혹은 탁월한 미술운동가로서, 지도자로서 그리고 정력적인 사회사업가와 국회의원으로 소허 서동진은 국가와 민족, 이 고장을 위해 갖가지 고난에 항거하며 극복하여 70평생을 바쳐온 ‘작은 거인’이었다. 화가, 사회사업가, 정치가로 큰 족적을 남긴 그에 대한 인간적·예술적 평가와 연구가 미미하다는 것은 생존시 그의 공적에 대한 무례이며 죄책감마저 느낀다.

화가로서의 형성기 때부터 대구를 중심으로 작품활동을 해왔던 그는 수채화의 독특한 화풍으로 대구화단의 개성을 수립했다. “대구에서는 일찍부터 수채화에 대한 열이 높아 있었으며, 그것이 이 지방 특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오광수, 한국 현대미술사 p.87)는 것은 전적으로 서동진에 의한 것이다. 즉 수채화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 그 자체 독립된 한 장르로서 인식하고 수채화의 뿌리를 대구화단에 내렸고 그의 전 작품이 수채화였고 이 지방 많은 작가들이 30년대 한국화단을 수채화로 뒤덮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20년대 중반부터 30년대 중반까지 대구화단의 활기찬 미술활동이 바로 서동진의 활동시기와 일치하는 것은 그가 대구화단의 실질적인 주역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의 유작품은 대구·서울·부산 등지에 30여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의 70평생에 제작된 작품은 모두가 수채화이며, 〈역부근〉, 〈뒷골목〉, 〈오후풍경〉 등 명제가 말해주듯 대구와 그 근교를 그린 것이 대부분이다. 그의 작품은 한국 서양화 초창기 모든 작가들에게서 나타나듯 뚜렷한 개성이라든지 양식이 발견되기는 어렵다. 더욱이 그는 미술을 정통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며 또한 서구의 새로운 미술을 접하는 기회와 개인적 노력도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의 미술적 행위의 동기는 순수한 자신의 소질과 취미, 그리고 신문화수용으로서의 수단, 미술활동을 통한 사회단체의 활동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일제하의 미술적 상황을 논하는 가운데서 지적했다시피 민족의식과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내용의 작품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미술인이 아니라 미술운동가, 미술교육자, 사회운동가로서의 이미지가 짙게 남는 것은 전적으로 여기에 기인한다. 그러나 수채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한 장르로 정립한 수채화가, 「향토회」의 창설, 주도로 1930년대 대구미술을 한국 근대회화사에 커다란 몫으로 차지하게 한 그의 공로는 마땅히 재조명되고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朱 慶 (1905~1979)



〈사진 12-50〉 주 경

1910년대 칸딘스키나 몬드리안이 주창하여 단시일에 유럽의 미술언어로 불길처럼 번져갔던 추상미술은 1930년대 중반에야 한국에서 그 첫 걸음을 내어 디뎠다. 일본에 유학중이던 김환기와 유영국 그리고 국내에서 작업한 이규상에 의한 추상미술운동은 한국화단에서는 주목할만한 시대사적 의미를 지닌다. 6·25의 전화가 끝난 1957년 김창열, 하인두, 김서봉, 박서보, 정상화, 조용익 등이 참가한 「현대미술가협회」의 활약으로 추상미술은 본격적인 양상을 맞게 되었다.

“지나치게 외세주의에 경도되어 민족의 진실된 감성과 어긋나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 중략 … 때로는 지나칠 정도의 비역사적이고 반사회적인 모순까지 노출한 바 있다(윤범모, 한국현대미술 100년 p.238)”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추상미술에 동참하는 신진화가들은 불어났으며 단채운동으로서

뿌리를 깊이 내리었다.

첫 추상화가로 불리었던 주 경〈사진 12-50〉, 그는 1905년 12월 8일 서울 종로 2통 5호에서 아버지 주한영(朱翰榮)과 어머니 장자화(張子華) 사이의 6형제 중 4남으로 출생하였다. 본적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동 102번지이다. 본명은 재경(載慶)이고 (1927년부터 慶으로 사용) 아호는 태소(泰素)이다. 아버지가 종로통에서 금은 보석과 포목, 곡물 등 무역상을 크게 경영했으며 할아버지 주인섭은 가선대부(嘉善大夫)의 벼슬을 지내며 궁에 드는 물품을 독점하여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다. 부유한 가정의 뒷받침으로 그의 생활은 그야말로 호화로웠다. 그의 친구 정철원(의사)에 의하면 전용 인력거를 타고 통학하는가 하면 소학생으로는 서울에서 맨 처음 「구두」를 신었고 집에는 2명의 가정교사까지 두는 정도였다. 1909년 이후에는 집에서 맹선생의 지도를 받아 천자문, 계몽편, 소학, 맹자, 논어 등 한학을 이수하여 기초교양을 쌓았다. 그의 문학·음악·영화에 관한 관심과 야구(중앙구락부 야구선수)나 승마·수영·춤 혹은 글라이더·정원가꾸기와 같은 고급취미는 생활의 여유가 주는 다양한 지적 호기심의 발로였다고 보아 옳을 것이다. 이러한 성장환경으로 주경이 미술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수하동 보통학교 1학년 때부터 일본교사 山下의 영향으로 그림을 즐겨 그리기 시작한 주경은 중앙고 등보통학교 재학시 춘곡 교회동과 이종우에게서 그림 수업을 받는 행운을 안았다. 1922년에 그는 심영섭과 「동우회」를, 23년에는 그것을 확대하여 구본웅, 심영섭, 김영선, 이길수와 함께 「미술동우회」를 조직하였다. 1925년 YMCA에 미술과가 창설되자 이 곳에서 구본웅, 장기남, 심영섭 등과 함께 텃생 수업을 받았다.

화가 주 경의 본격적인 화가수업은 1928년의 일본 유학으로 시작된다. 도일하자 곧바로 가와바다화



〈사진 12-51〉 제3회 재동경미술협회전, 포스터, 1940년

학교 소묘과에 입학하였는데 여기서 김용준, 이마동, 김홍진, 길진섭, 구본웅, 최연해, 이봉용 등을 사귀었으며 그 뒤에 도일한, 심형구, 손일봉, 이인성, 김인승과 친교를 맺었다. 가와바다화학교에서 4년간 뎃상공부를 마친 후에 프랑스 유학을 목적으로 불어와 영어를 공부하였다. 프랑스유학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1932년 高間惣七의 문하에서 지도를 받으며 그의 영향을 받았다.

「백치회」동인들인 이마동, 김용준 등이 귀국하자 동경에 혼자 남

은 그는 「조선미술학우회」를 조직했고 다음 해 1932년에는 「백우회(白牛會)」라고 이름을 고쳐 발족하게 되었다. 이것이 확대 재조직된 것은 1935년이고 「재동경미술협회」(사진 12-51)로 개명한 것이 1937년이다. 「백우회」는 주 경이 핵심이 되어 창설로부터 해산에 이르기까지 운명을 같이 했으며 늘 리더의 역할을 했다. 창설 당시 회원은 이봉대, 심형구, 김 한, 김용환 등이었다. 「백우회」가 조직이 강화되고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1936년, 동경제국미술학교에 입학한 주 경이 총무를 담당하고 부터였다. 「백우회」 제1회전은 1938년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화신화랑에서 열렸다. 이 때 주경은 〈大阪中島風景〉과 〈정물〉을 출품하였다. 「백우회」는 일경의 탄압으로 이름을 「재동경미술협회」로 고치고 제국미술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신미술연구에 앞장섰다. 「백우회」를 이끌면서 한편 제18회 「선전」에 유화와 조각을 입선으로 19, 20회에 연속 출품하였다.

집안 사정으로 파리 유학을 포기했던 주 경은 또 하나의 커다란 꿈을 키웠다. 그것은 이종우, 이광수(춘원), 박광진, 고희동, 윤희순, 그리고 일본인 柳宗悅 加藤罐覺 등의 충고와 조언을 얻어 서울에 조선미술학교를 창설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마저 치열해지는 태평양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미술학교 설립을 위해 동경을 들리고 귀국중 대구 친구집에 왔다가 대구 계성학교에 잠시 근무하게 되었고 전쟁으로 인해 그대로 대구에 머무르게 되었다. 일본 유학을 떠난지 14년만의 일이었다.

해방 이듬해 중등미술교원 양성소를 주재하여 이 고장의 많은 미술교사를 배출하였다. 50년대 경주여중 교장으로 부임하고 경상북도 장학관을 거쳐 대구사범학교 강사와 대구미국공보원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그 이듬해 서동진, 손일봉 등과 「대구화우회」를 조직하고 54년에는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의 비서관을 지냈다. 50세의 나이로 늦게 홍익대학 교수로 부임했다가 다시 대구에 정착하였다. 경북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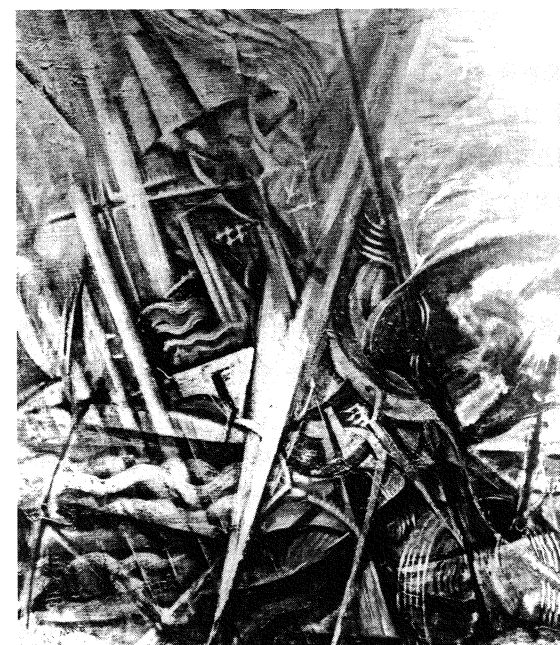
단체연합회 최고위원으로 피선되고 62년에는 한국미술협회 경북지부장을 맡는 한편 경북미술학원을 개설하여 많은 후진들을 양성하였다. 67세 되던 1972년, 그는 예총 10주년기념 전국예술인대회 미술공로상을 수상하였으며 2년후 「국전」 추천작가로 추대되었다. 이 해에 미술회관에서 〈파란〉 등 60여점으로 회고전(10. 13~19)을 개최하였다.

1976년 초기 대표작들과 만년의 작품 40여점으로 대구 맥향화랑에서 초대 개인전(11. 23~12. 5)을 가졌고 3년뒤 2월 27일 뇌졸중으로 미망인과 주성교 등 3남 1녀를 두고 이 세상을 떠났다.

한국미협 대구지부가 주관한 주 경 영결식에서 낭독된 조사의 일부를 소개한다.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조국의 수난과, 인간들의 어지러운 현실적 욕망속에서도 불의와 거짓, 불미와는 타협을 거부하고 오직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하시어 예술가로서 또 교육자로서의 이 땅에 남기신 빛나는 업적과 교훈을 회고하며 저희 후학들의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 중략 … 선생의 고매하신 예술과 학식이 청아한 인품, 따뜻하고 맑은 미소는 저희들 뇌리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산성당 영결식장에서 권원순 낭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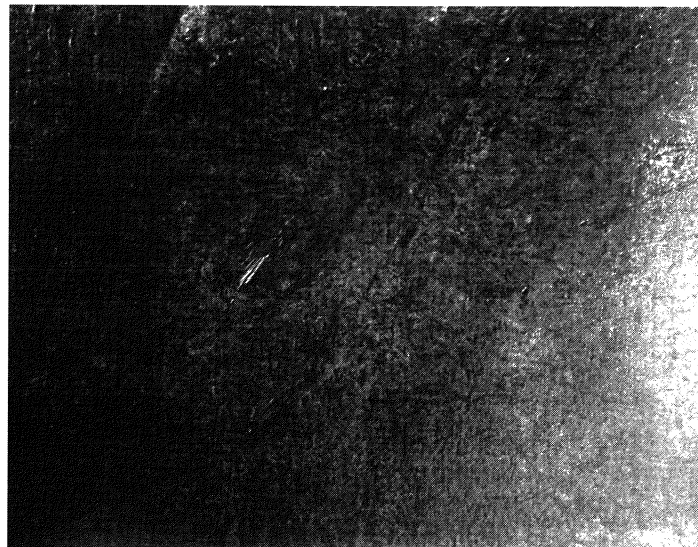
‘재능이라는 것은 한갓 뜬 구름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人間에게 있어서 重要하고 가치있는 일은 純粹한 姿勢로서 진실되고 誠實하게 모든 기회에 배움을 그르치지 않아야 한다. 人間은 自然의 被造物로서 自然에 對해서 겸허한 姿勢로 對하며 自然을 그렇게 믿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淨化되었을 때 그것이 ‘眞像’ 이며 眞像을 表現해야 한다.’(공간, 1947년 9월호, p. 18.)고 한 그의 말에서 그는 자연의 객



〈사진 12-52〉 주 경, 〈파란〉, 1923년, 유채

관적 진실을 외형적으로 추구하는 사실계 화가이며 자연에 탐닉하는 자연주의가 그의 예술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작가적 열정은 1920년대로부터 1930년대에 걸친 서구의 다양한 미술양식을 실험하는 수용기와 193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친 자연주의 시대, 그리고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친 만년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1920년대 다른 화가들이 아카데미즘과 인상파 아류에 만족하고 있을 때 그는 고전파, 야수파, 입체파, 그리고 추상미술을 편력하면서 금세기 미술을 한국에 이식하는 데 몸으로 실험하였던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파란〉(사진 12-52)과 〈생존〉(사진 12-53)에서 이러한 사실은 쉽게 발견된다. 작품 〈파란〉은 그의 나이 18세였던 1923

년에 제작된 것이다. 유기적 구성과 역동적 대각법, 적, 청, 황이 어울어진 선동적인 색가(色價) 그리고 무수한 곡선과 직선의 난무 등에서 세기 초의 미래파, 표현파가 갖는 비구상 수법을 발견할 수 있다. 아직 서구의 새로운 미술사조를 소화할 만큼 정신적, 지적 성숙이 이룩되지 못한 나이로서 서구의 새로운 미술정보를 모방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자기집안의 갑작스런 몰락과 파멸에 대한 마음의 고통을 심상풍경으로 표현함으로



〈사진 12-53〉

주 경, 〈생존〉, 1930년, 유채

써 서구의 비구상 회화의 형식과 같은 새로운 예술의 문을 스스로 여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였던 김환기, 유명국보다 10년 이상 앞서는 것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하나의 작품 〈생존〉은 20세기 후반, 세계를 풍미한 앙포르멜의 조형효과가 그대로 실현된 작품이다. 앙포르멜운동과 그 대표작가인 볼스이전에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한국근대미술의 일대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약간의 거치른 듯한 질감의 황색 평면 공간에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몇개의 빨간 색점과 선이 속도를 실은 채 퍼뜩 나타나고 암색의 색점과 선이 그림자처럼 뒤따르고 있다. ‘인생은 섬광’이라고 느꼈다는 작가의 말처럼 인간생존의 찰라성을 심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앙포르멜 계열 작품에 대한 선구적 시각과 전위적인 작업이 지속되지 못하고 사실의 세계로 돌아간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앞서 그의 지론에서 밝혔듯이 자연에의 애착으로 모처럼의 전위적 실험이 중단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할 따름이다.

주 경이 「선전」에 처음 출품한 것은 18회에 〈석류가 있는 정물〉과 조각부의 〈정온〉이 동시에 입상한 것이다. 19회에 〈다리아〉와 조각품〈여인의 얼굴〉이, 20회에는 〈뜨게질 하는 여인〉으로 입선하고 출품을 앓고 있다가 1974년에 「국전」 추천작가로 추대 되었다.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서구의 회화양식을 수용했던 1930년을 지나 1940년대까지는 자연주의시대가 지속된다. 「국전」에 출품된 양화와 조각에서 자연에 회귀하는 그의 조현이념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다리아〉는 화면구성의 짜임새, 선명한 색감으로 객관적 진실을 중요시 하는 리얼리티한 수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검은 머리에 검은 오버코트를 입고 의자에 앉아 뜨게질에 열중하는 여인의 모습을 그린 〈뜨게질 하는 여인〉은 화면이 수평으로 이분되고 윗쪽은 황색을 주조로 하고 아래쪽에는 격자문양이 있는 테이블과 소파, 그리고 마루로 표현되어 있는 사실작품이다.

해방이 되자 주 경은 미술교사, 정치계, 각종 예술단체에 참여하여 화가 외적 활동에 주력하였다. 이 기간이 그의 제3시기인 만년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오랜 휴지기를 가진 탓인지 날카롭고 무게있는 조형적 세계를 떠나 단순하고도 명량한 ‘아름다운’ 세계로 옮겨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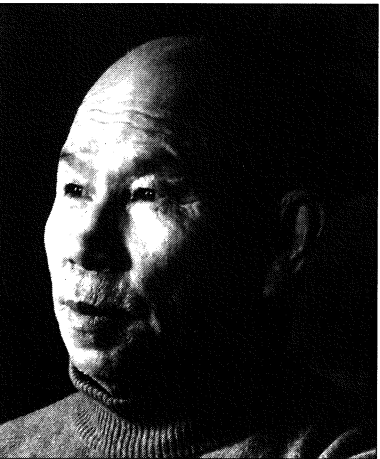
추상작가로 주 경을 주목하고 있지만 그는 오히려 철저한 사실주의 작가였다는 사실은 그의 말이나 글에서 잘 드러나 있다. 그가 최초로 그렸다는 추상화 〈파란〉이나 〈잔명〉은 비참하게 몰락한 가정환경을 토대로 한 것이며 〈생존〉 역시 인생의 찰라를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유럽의 추상이 사실정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데서 출발한 것에 비해 그의 추상작품은 완전히 사실정신에 의해 나타난 것이며 추상적인 표현을 빌어 사실정신을 추구한 것이다. 그의 미술형식에 대한 글에서 조형의 태도는 더욱 분명해진다.

“感激있는 寫實은 形式을 문제삼지 않는다. 皆書이든 草書이든 그 뜻이야 다름 없지, 佛語나 英語나 韓語나 그 綴字와 문법은 各自 다르지만 意味가 同一한 것과 같이 새로운 方途로서 설사 異例의이요, 奇怪하거나 過渡의이며 극히 驚嘆할 만한 것이라도 事實에는 틀림없다. 참된 작품에 있어 寫實이 아닌 것이 없다. 어떠한 樣相으로서의 名稱이나 種類를 막론하고 그 眞像을 變造할 수 있는 者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日記體 文集 40集)

“..... 이제사 자리잡아 安定을 기하니까 呼稱 抽象畵라 하듯 하나 무엇이랴든간에 어쨌든 좋은 것이다.”(41集)

4. 孫一峰 (1906~1985)

이질적인 서양화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을 때 전통적인 회화와 의 사이에 격심한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갈등으로 작가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갔으니 그 하나는 교회동, 박생광 처럼 동양화에 복귀한 경우이고 나머지 하나는 송병돈과 같이 충실한 사실주의에 나아간 경우이다. 당시로서는 놀랄만한 서구적인 감각과 충실한 리얼리티를 과시했던 김관호의 일본 보라색파의 취향은 그 뒤의 작가들에 의해 소재와 조형면에서 약간 수정되면서 사실주의적 경향으로 기울어졌다. 이종우, 이재창, 오점도 등은 김관호의 서구적 환상풍의 세계로부터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정적인 소재 선택과 사실적 묘사로 해서 오히려 통속적이고 정적인 사물의 세계, 즉 여인좌상, 나무, 실내와 같은 주변적 세계속에 침잠하므로써 현실과는 유리된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같은 경향은 초기「선전」의 상층기류를 이루면서 한국화단의 아카데미즘을 두텁게 형성해 나갔다.



〈사진 12-54〉 손 일 봉

아카데미즘 계열과는 달리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인상주의적 작가들이 있어 또 하나의 계열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인상주의도 일인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참된 자기 세계를 발견하는 데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다. 이처럼 정적인 아카데미즘과 왜곡된 인상주의가 서양화 수용기 우리의 화단을 누비고 있을 때 손일봉(사진 12-54)의 초기 작품들은 그러한 범주를 뛰어넘어 세잔느에 의한 걸음 다가서고 있었다. 〈사과〉(선전 7회, 1928), 〈인물〉(선전 7회 1928)〈설경〉(선전 5회, 1926)은 세잔느적인 면모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이같은 경향이 손일봉에 의해 처음 「선전」초기에 나타났는데 이는 서구적인 조형체험을 익히려는 그의 작가적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양화 수용기 한국화단에서 손일봉이 차지하는 위치는 가히 선구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어 신동이라 불리어졌던 손일봉, 그는 1907년 경북 경주군 현곡에서 출생하였다. 일제시대, 우수한 학생만이 입학할 수 있었던 경성사범에 입학했다. 이 학교 재학시 일본인 미술교사가 그의 천부적 재능을 발견하고 선생의 권고에 의해 그는 화가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1928년 경성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동경 우에노(上野)미술학교 유화과에 입학하여 1934년 졸업할 때까지 본격적인 미술공부를 하였으며 재학중에도 그 곳과 우리나라 관전에 주로 출품하였다.

그는 경성사범 재학시「선전」입선 1회, 특선 3회를 연달아 하여 천재라는 찬사까지 받았다. 경성사범학교와 우에노미술학교 재학생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최고 권위 공모전인 「선전」과 「제전」 그리고 「광풍회전」에 입·특선하고 F씨상까지 수상했던 그에게 세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그들로부터 앞날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 한 후 그토록 왕성한 작품활동은 중단되고 밑 모르는 침체의 늪으로 깊이 빠져 들어갔다. 졸업후 10여년간에 걸친 북해도 생활과 해방후 귀국하여 재직한 경주생활은 그에게 미술교사와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했고 그 자신도 창작생활과는 격리된, 예술가로서는 암울한 세월의 긴 터널로 들어서게 되었다. 사실상 가장 왕성한 창작생활을 할 시기에 국내 사정과 시대적 상황이 그의 예술적 삶을 앗아가 버린 것이다. 이것은 작가에게는 건디기 어려운 불행이요, 일찌기 천재로 지목되었던 손일봉 자신에게는 오히려 비극에 가까운 것이었다.

해방 이듬해 귀국하여 바로 경주중부설 사범학교에 부임하면서 1971년까지 경주예술학교, 계성중, 영주여중, 문경중, 신라중, 대구제일여중, 경주여자중고등, 의성여중 등 경북일원의 중고등학교를 전전하였다. 33년이란 결코 짧은 세월속에 그는 한국 현대사의 숨가쁜 격변을 몸소 체험하며 작가로서 서보다 교육자로서 자기의 현실 속에 안주해 버렸다. 그의 초기 활동 외에는 한 사람의 작가로 미술사에 기록 평가되기에는 이 긴 세월이 너무나 큰 저해 요소가 된다.

생애 중요한 시기의 대부분을 중등교육계에 몸바쳐 온 그는 1971년에 계성중학의 제자였던 김창락의 초청으로 수도여자사범대학(현 세종대)의 교수로 부임했다. 예술가로 가는 머나먼 뒀안길을 돌아 64세의 나이로 창작생활을 재개하였다. 회석된 감성과 둔화된 시각, 퇴행한 표현기술들이 다시 시작한 창작에 얼마나 고충으로 작용했을까? 그러나 그의 차분하고 치밀한 성격과 겸허함, 그리고 타고난 재질을 '한 때의 화가'로 주저 앉게는 하지 않았다. 4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억센 농부가 황폐한 땅을 일구듯 예술의 혼을 지피 가일층의 정열로 다시 일관된 예술세계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기나긴

예술의 공백을 한꺼번에 채우려는 듯 그의 예술은 만년에 와서야 지속적인 작업에 힘입어 어느 정도의 예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대학의 교단을 떠나던 1974년 그는 뒤늦게 「국전」에 추천작가로 추대되었으며 이듬해에 초대작가로 출품하고 심사위원까지 역임하여 노익장을 과시했다. 33년간의 긴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직한 성격과 천부적 재질은 그로 하여금 힘겹게 화가로서의 일관된 일생을 형성하게 한 것이다.

1974년 정년 퇴직 후 줄곧 대구에 거주하며 조용한 만년의 작품활동에 전념한다. 「신미술회」 창립회원으로 참여하는 한편, 1979년에는 「한유회」를 창립, 회장을 맡아 후진을 이끌기도 했다. 각종 초대전에 출품하고 8회에 걸친 개인전을 가졌는데 그 대부분이 만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미술에 대한 끈질긴 집념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의 예술세계만을 지향해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 우여곡절의 삶을 살아온 손일봉의 생애에 있어 고뇌와 불행은 하나의 시련으로 오히려 그의 예술적 저력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었는지 모르겠다.

겸허하나 강직한 성격, 과묵하고 나직한 음성의 손일봉, 1985년 11월29일, 막 추위가 시작되던 초겨울, 전시장(이목화랑)에 들어서다 쓰러졌다. 향년 78세, 그는 되돌아 올 수 없는 길을 영원히 떠나 버린 것이다.

손일봉은 제4회 「선전」에 〈사과〉(사진 12-55)가 입선되고 연이어 5.6.7회에 특선하므로써 작가적 출발을 보았다. 초기의 작품들인 〈사과〉, 〈설경〉(5회 특선), 〈인물〉(7회 특선)은 견고한 구도라든지 구축성, 형태의 처리에서 세잔느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본다. 특히 〈사과〉는 소재와 구도, 사물의 형태적 파악, 색채와 터치에 세잔느의 정물을 연상케 한다. 그 만큼 어린 손일봉은 인상주의를 넘어 새로운 조형방법에 눈뜨고 있었고 서구적 조형 체험을 익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30년대를 전후하여 인상주의적 경향은 세잔느풍의 도전을 받게 되고 이후 세잔느적인 회화가 크게 진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경향은 많은 작가들에 의해 시도되었지만 본격적인 세잔느풍의 그림을 그린 사람은 손일봉과 서진달이었다. 특히 손일봉의 1946년도 작품인 〈남산〉은 세잔느의 대상에 대한 지적파악과 형태 강조의 조형체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자신의 세계로 조형화시키며 현실감을 표출하려고 한 의도를 읽게 한다. 이러한 그의 세



〈사진 12-55〉 손일봉, 〈사과〉, 제4회 「선전」입선작, 1925년, 유채



〈사진 12-56〉 손일봉, 〈회방폭포〉, 연대미상, 유채



〈사진 12-57〉 손일봉, 〈돌산〉, 1973년, 수채

잔느적 조형체계는 〈회방폭포〉(사진 12-56)에서도 두드러진다.

동양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와 구도이지만 폭포와 암벽 그리고 바위와 나무들의 형태적 파악은 표피적, 감각적 묘사를 벗어난다. 불필요한 잡물을 없애고 폭포와 암벽을 주요 요소로 압축하며 화면에 질서를 부여하므로써 구도의 단순화를 획득하고 있다.

이 작품은 그의 초기 작품에서 보았던 세잔느적 면모가 거의 30년이 지나 다시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의 작품세계를 이루는 바탕은 어디까지나 자연주의이다. 유학시절에 습득한 정확한 덧상과 견고한 구도, 사물의 실재감 표출 등에서 사실을 추구한 자연주의 작가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작가적 경향은 그의 만년의 작품들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이같은 사실적 수법은 유화에서 뿐만 아니라 우수한 작품을 많이 남긴 그의 수채화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돌산〉(사진 12-57)과 같은 작품은 오랜 공백기를 극복한

작가의 능력을 과시한 우수한 수채화 작품이기도 하다. 60년대 작품인 〈호수와 산〉, 〈바다〉, 〈눈은 산〉과 같은 유화 작품에서도 수채화적 기법이 탁월하게 원용되고 있다. 만년의 그는 풍경, 정물, 인물과 같은 평범한 소재를 탁월한 심미안과 확실한 표현방법으로 훌륭한 작품을 남겼다. 세세한 대상들을 크게 바라보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부드러운 형태와 색채로 해서 화면은 편안하고

온유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제1회 경북문화상 수상(1956)을 비롯해서 「국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등 미술인으로서의 영예도 안았으며, 국전출신작가전, 대구서양화 15년전, 84현대미술초대전 대구 서양화 60년사전, 광복 40주년 향토작가초대전, 한중교류전, 현대미술초대전 등에 출품해서 작가적 완성을 더

해갔다. 그가 세상을 떠난지 2년후, 「신미술회」와 「한유회」의 주선으로 신세계 미술관은 「손일봉화백유작전」(1989. 6.16~25)을 개최했다. 유족들이 소장하고 있는 2백여점 중 유화·수채화·스케치등 58점이 전시되었다. 이 유작전은 20년대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대표작들이 거의 망라되어 그의 작품세계와 한 작가의 변모 과정을 한 눈에 읽게했다.

5. 李仁星 (1912~1950)



〈사진 12-58〉 이 인 성

‘유채화를 통하여 하나의 한국미를 정립한 작가’ 또는 ‘독자적인 세계와 양식을 이룩하지도 못한 화가’로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화단의 천재적인 존재 이인성.〈사진 12-58〉 그에 대한 평가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한국회화사에 남긴 그의 발자취는 크게 인각(印刻)되어 있으며 일제시대에 가장 성공한 화가로서 추앙되고 있다. 「선전」은 이인성이라는 천재적인 작가를 발굴, 배출시켰으며 이인성은 「선전」을 통해 성장하고 최정상급의 서양화가로 부각되었다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불과 17세의 소년으로 제8회 「선전」(1929)에 첫 입선을 시작으로 「선전」시대의 종막을 내린 마지막회(1944)까지 6회에 걸친 연속 특선에 최고상이었던 창덕궁상까지 받았다. 또 1937년, 25세에 추천작가가 되어 향후 3년간 유일한 추천작가로서의 권위와 영예를 누렸으며 다음 해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

으니 「선전」서양화부는 이인성을 위해 운영되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1930, 40년대 한국화단의 핵심적 화가로서 향토적인 정경들을 독특한 시각으로 형상화했던 그는 한국 근대회화의 천재적 작가로 기억됨에 고향인 대구 시민들은 큰 자긍심을 갖고 있다.

청정(靑汀) 이인성은 1912년 8월 18일 대구시 태평로 3가 52번지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이해원(李海元)은 음식을 곁들어 파는 조그만 주점을 경영했는데 취객으로 거의 무위도식하는 편이었고 실제 일은 어머니가 도맡아 했으며 집안 살림도 꾸려 나갔다. 5남매중 둘째 아들로 태어난 이인성의 집안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으로 자식들을 돌볼 여유나 열의가 없었다. 서당에 다니는동안 마는동안 하던 이인성은 동네 유지들의 도움으로 11세가 되어 수창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그의 수창보통학교 재학시 성적 및 생활기록부〈사진 12-59〉를 보면 도화(미술)과목은 1학년 때만 八점이고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줄곧 10점 만점을 받았으며 창가(음악)도 1학년 때만 七점, 그후 졸업할 때까지 계속 八점을 받았는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미술적 재능이 뛰어났으며 음악에도 상당한 취미와 소질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어려서 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또 그 재능은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한시(漢詩)와 서예를 권하며 그림 그리는 것을 완강히 막았다. 아버지의 감시를 피해 몰래 집 뒷담을 넘어 산격동에 가서 그곳 풍경을 그렸다. 집에 돌아오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화구를

빼앗아 내 팽개쳐 버렸다. 겁에 질린 이인성은 그림만 가지고 겨우 도망쳤다. 그 그림을 동경에서 열린 「세계아동미술전」에 출품하여 특선을 차지했다. 그의 나이 13세인 1925년의 일이다. 3년뒤인 1928년 10월 개벽사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한 「세계아동예술전람회」의 개인 회화부 공모에 수채화 〈촌락의 풍경〉으로 특선하기도 했다. 천재 소년화가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이며 그의 예술에 대한 신념은 이를 계기로 굳혀졌다.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는 살 수 없었던 이인성은 계성학교 정문에서 바라본 학교 건물을 그린 〈그늘〉을 제8회 「선전」에 출품하여 첫 입선을 했는데 17세 때인 1929년이었다. 이 때 그가 겪었던 심경을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다. (조선화단의 X광선, 신동아, 1935년 1월호 pp. 110~111.)

“나의 과거를 돌아보아도 역시 이해없는 환경이었으며 경제로 말하여도 구속을 받았다. 나의 부친은 한 시와 서도를 주장하고 회화에는 절대 반대를 가지고 그야말로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지경이었다. (중략) 특선을 받았으나 다만 나 혼자 기뻐다. 부모는 도리어 노하실 때 서러운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조금도 낙망하지 않고 의지 굳게 노력하여 조선미전에 〈음(陰)〉이라는 작품을 출품하여 당선 영광을 받았다. 그 후로부터는 호랑이같은 아버지도 이해를 가지게 되며 따라서 나는 새로운 웃음과 의지를 가졌다.”

가정형편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이인성은 교외로 스캐치를 하러 나갔다가 서동진의 눈에 띄었고 주위 인사들의 권유도 있고 해서 서동진이 경영하던 대구미술사에 취직하여 그의 지도로 미술 공

부를 하게 되었다. 이 즈음 서동진, 박명조 등이 창설한 「향토회」에 참여하여 9점의 작품을 출품, 화가로서의 기반을 굳혔다.

「선전」을 통해 등단한 이인성은 그 후 1944년 마지막 「선전」에까지 출품하여 입·특선 그리고 최고상인 창덕궁상을 받았으며 25세에 추천작가로 출품하고 이듬해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철저한 「선전」작가로 부각되었다.

두 차례의 입선으로 명망을 얻자, 마침 신라문화를 연구하던 대구여자고등보통학교(현 경북여고)교장으로 있던 白神壽吉의 주선으로 미술수업차 도일하였다.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낮에는 킹 크레용 회사에 일하며 학비를 벌었고 밤에는 태평양미술학교 야간부에 다니며 그림 공부를 하였다. 일본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선전」에 출품하여 입선과 특선을 했으며 그 곳의 「제전」과 「광풍회전」에서 입선을 하기도 했다.

1933년 태평양미술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계속 킹 크레용 회사에 근무하면서 제작생활을 하였다. 그 곳에서 마침 디자인 공부를 하던 같은 대구출신인 김옥순을 만나 사귀게 된다. 김옥순은 당시 대구에서 가장 큰 병원



〈사진 12-59〉 이인성의 수창학교시절 성적 및 생활기록부

인 남산병원<사진 12-60>원장인 김재명의 딸로 부유한 가정의 출신이었다. 김재명은 비천한 출신의 환쟁이 이인성과 자기 딸과의 결혼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로 맹렬히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인성의 재질을 아끼고 앞날을 기대하던 유지들의 끈질긴 설득으로 어려운 결혼이 성사되었다. 그것은 1936년 함께 귀국한 뒤였다.

결혼을 한 후 그의 부인과 김재명의 배려로 병원 3층에 아트리에 <사진 12-61>를 마련하고 마음껏 제작생활을 했으며 이인성양화연구소를 개설하여 후진을 가르치기도 했다.

안정된 제작생활을 하던 이 시기에 그는 「선진」 추천작가가 되고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39년에는 아카데미극장 옆 골목에 아루스 다방을 열고 거기서 그림을 그렸다. 이때에 한 가지 큰 사건이 벌어졌다. 수창보통학교 2년 선배인 김쾌돌이라는 사람이 다방에 걸어 두었던 이인성의 「문전」입선작인 <한정(閑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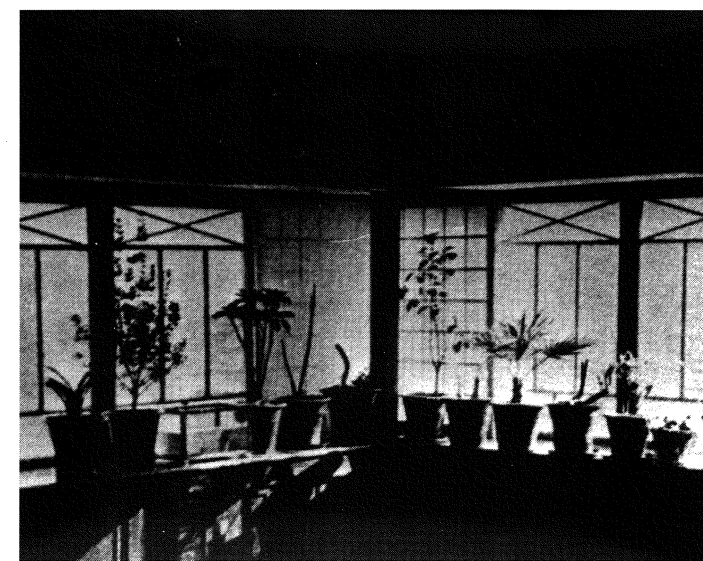
<사진 12-61> 남산병원 3층 아트리에 내부, 동남쪽 창문

을 칼로 찢은 것이다. 같은 미술 지망생이었던 김쾌돌은 그림에 자신을 잃고 있었으며 이인성의 눈부신 발전에 질투한 나머지 작품을 찢은 것이다. 아끼던 자기 작품이 칼에 찢기는 것을 본 이인성은 미친 사람처럼 단도를 들고 달려들어 김쾌돌의 몸을 난자(亂刺)했다. 며칠을 두고 문제가 되었던 이 사건은 김쾌돌이 먼저 사과함으로써 일단락 되었지만 찢어졌던 <한정>은 아직도 그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 사건이 있는 다음 해에 그의 예술을 이해하고 동반자가 되어 주었던 아내 김옥순이 병으로 사망하자 그는 깊은 실의에 빠져 폭음하였고 정상적인 생활의 패턴을 잃게 되었다. 이인성의 좋지못한 술버릇은 이 때부터 생겼다. 이인성과 자주 술을 마신 사람은 무영당 백화점 주인인 이근무와 음악평론가이자



<사진 12-60> 남산병원 전경, 1979년 도로확장으로 헐리기전 임대



동화작가인 윤복진이다. 정신적, 물질적으로 황폐했던 이인성에 이들은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그는 41년에 간호원 출신인 모여인과 사귀어 서울에서 동거생활을 하며 둘째 딸을 낳았지만 곧 헤어졌다.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도 제작은 지속되었고 「선전」에 추천작가로 매년 출품하였다. 44년에 이화여고 미술교사로 있다가 해방을 맞아 이화여대 미술과 강사로 출강하게 된다. 47년 35세때 김창경과 세번째 결혼하고 그녀에게서 1남 1녀를 얻었다. 해방이 되자 이인성은 「선전」과 「제전」출신작가로 한 때 천일파로 몰려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48년에는 유화·수채화 40점으로 서울 동화랑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정부수립후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약칭 국전)가 개최되고 서양화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6·25가 발발하던 해에 북아현동에 은거했으나 공산군에 잡혀 연행되기도 했다. 이 무렵 장남 채원이 출생했고 9·28수복후 아직도 멀리서 포성이 울리고 황폐해진 서울의 11월 4일, 집 근처 술집에서 밤늦게 술을 마시다 순경과 심한 말다툼을 했다. 집까지 뒤따라 왔던 마포 경찰서 교통순경 김성환이 쏜 총탄에 맞아 38세의 아까운 나이에 비명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전쟁이 끝난 1954년 7월 3일, 백문영 등 대구의 화우들이 백향다실(서성로 옛 영남일보 맞은편)에서 「이인성화백 유작전시회 및 추도식」을 거행하여 대구가 낳은 천재화가의 예술혼을 달랬다. 또한 서울 천일화랑에서는 김중현·구본웅과 함께 「3인 유작전」이 열리기도 했다.



〈사진 12-62〉 이인성, 〈가을의 어느 날〉,
제13회 「선전」 특선작, 1934년, 유채

30년대 우리나라의 인상파는 이인성의 등장으로 비로소 뚜렷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왜냐하면 그간의 일본적 감성에 의해 절충된 인상파의 경향을 벗어나 방법과 모티브의 해석에 있어 인상파의 본질에 그는 더욱 접근했기 때문이다. 그의 인상파 방법의 발전적 극복이 향토적인 소재의 심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서양화의 수용이 단순한 기술적 과정을 넘어서 예술적 차

원에 도달하고 있었음을 뜻한다.(오광수, 한국현대미술사, p.75) 이봉상은 그의 색감의 세계에서 이인성을 계승했고 박상옥은 그의 주제와 색감, 그리고 형태에서 거의 이인성의 것을 그대로 답습했으며, 김홍수는 도불전의 그의 작품속에서 색감과 형태를 계승하여 비구상으로 변신하고 나서도 역시 이인성적인 한국의 독특한 회화정서를 주축으로 삼고 있다.(이경성, 근대한국미술가논고, p.145)이러한 비평들로부터 30년대 한국화단에서의 이인성의 명성과 영향력이 어떠했는가를 추출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인성의 전 작품을 살펴보면, 초기작품으로서는 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50년대 전후에는 보나르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파란 지붕이 보이는 풍경〉(1932), 〈니콜라이 성당〉(1935 전후), 〈강변〉(1947 전후)등은 인상주의의 밝고 풍부한 색채와 텃치 그리고 다양한 물빛을 그대로 느끼게 한다. 그의 인상주의적 경향은 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 후반까지 10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가을의 어느 날〉(1934)은 모티브나 색감, 인물의 대체적인 처리에서 고갱의 영향이 짙게 나타나는 작품이다. 그리고 〈풍경〉(1935), 〈해바라기〉(1947 전후), 〈들국화〉(1947) 등의 동감이 넘치는 텃치와 색면을 둘러싼 선들은 고흐를 연상케 한다. 1940년대 이후의 작품들인 〈사과〉, 〈목욕〉, 〈가을풍경〉, 그외 자화상, 소녀, 정물 등은 세잔느가 즐겨 다룬 주제였으며, 구도의 질서를 추구한 점에 일치성을 볼 수 있다.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제작된 〈실내〉는 창밖의 정원을 실내의 일부로 끌어들인 화면 구성으로 밝고 눈부신 외광과 작고 짧은 텃치로 화사하고 충만한 색채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보나르의 경향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인성은 인상주의에서부터 보나르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여러 경향들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양식을 추구하는 노력을 보였다. 이인성의 독자성은 주제 선택의 향토성(형태와 색감), 해맑은 한국의 대기감을 성공적으로 잡은 데서 찾아야 하며 ‘유채화를 통하여 하나의 한국미를 정립’(이경성, 근대한국미술가논고, p.144)하였고 ‘한국적 소재를 작가 특유의 감성으로 표현하면서 독특한 자기 세계를 형성’(강명희, 서양화의 수용과 정착, 창작과 비평 1971년 봄호 p.192)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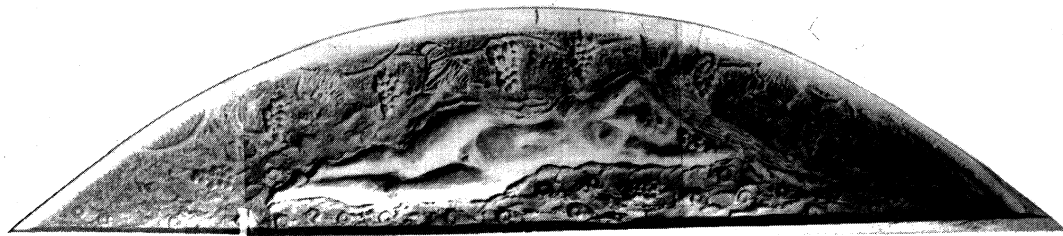
그러나 천재작가로 당대 서양화단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그에게 긍정적인 평가만이 있는 것도 아니



〈사진 12-63〉 이인성, 〈경주의 산곡에서〉, 제14회 「선전」 창덕궁상 수상작, 1935년, 유채



〈사진 12-64〉 이인성, 〈춤〉, 제17회 「선전」 출품작, 1938년, 유채



〈사진 1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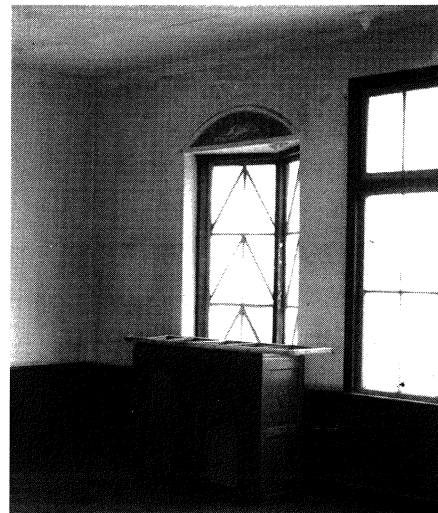
이인성, 〈누워있는 누드〉, 조각, 1930년대 후반

다. 그의 일생을 관통해 온 수난과 비극의 역사를 외면하고 당시의 체제에 극히 순응적이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가해지기도 한다. 그의 작품활동이 주제에서 역사 의식이나 민족의식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그 주요 근거이다. 그는 정상적인 교육과 지식을 쌓은 지식인으로서가 아니라 회화라는 좁은 테두리 안에서 감각과 기술 습득만을 익혔고, 그것이 당시의 일부 지식층이나 식민지체제에서 아무런 저항감 없이, 아니 크게 환영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현실이나 역사의 흐름에 맹목(盲目)하게 되었다. (김윤수, 한국현대회화사, p.137)

이인성의 작품 중에서 〈가을의 어느 날〉(사진 12-62)은 인상주의에서 출발했던 그가 소재와 색감에서 한국적 정서가 배인 세계로 옮겨간 주목되는 작품이다. 전체적으로는 고갱의 타이티 작품을 연상시키지만 시들한 해바라기와 옥수수가 있는 시골 들판에서 바구니를 든 반나의 여인과 어린 소녀는 진한 향토색을 느끼게 한다. 화면 중앙에 자리잡은 해바라기의 유연한 곡선과 독특한 형태로 파악한 여인과 소녀, 붉은 황토색의 들판과 푸른 하늘의 흰구름은 한국적 정서를 물씬 풍기게 한다. 이러한 한국적 색감의 세계는 〈경주의 산곡에서〉(사진 12-63)의 보다 정리된 화면에서 더욱 강하게 표출된다.

예의 한국초목과 산야 그리고 한국인의 정확한 체위를 가진 인물과 색감은 주제나 방법면에서 서구의 어떤 경향이나 영향이 배제된 순수 한국미의 독자한 세계를 열어 보이고 있다.

한국인의 정서와 애환을 다룬 〈춤〉(사진 12-64)은 조형적으로 잘 처리된 작품이다. 전통적인 검정저고리와 흰 치마의 춤옷을 입은 여인의 춤추는 동작을 화면 가득히 채우고 왼편 뒷쪽에 빗겨서서 생각에 잠긴 여인과 대조를 보이는 간결한 화면 처리에서 한국적 정서의 성취를 간파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된 유일한 조각품인 〈누워있는 누드〉(필자 명명)(사진 12-65)는 남산병원 3층 그의 아트리에 창문 위에 (사진 12-66) 부조로 된 것인데, 포도송이가 주렁 주렁 늘어진 풀밭 위에 누워있는 나무상이다. 풍만한 여체와 포도, 꽃, 풀들로 메워진 배경들이 회화적으로 처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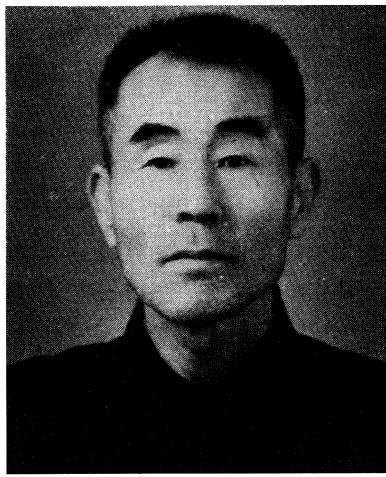
〈사진 12-66〉

남산병원 3층 아트리에 창문위 부조

6. 朴命祚 (1906~1969)

대구출신 화가로서 맨 처음 <선전>(제5회)에 입선하고, 그해 대구 최초로 서양화 개인전(1926)을 가졌던 박명조는 중앙에 진출한 첫 서양화가이며 대구화단의 선구자로서 대구미술사에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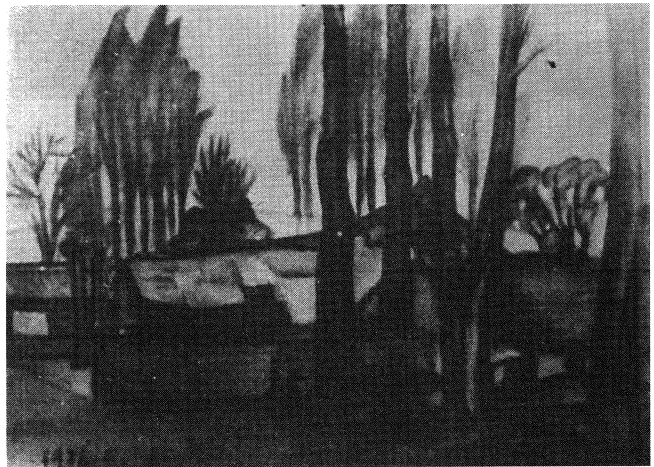
우현(又玄) 박명조(사진 12-67)는 1906년 대구시 덕산동 104번지(전 남부경찰서 부근)의 초가집에서 서당을 열고 글을 가르치던 박성문(朴聖文)의 2남 1녀중 2남으로 태어났다. 당시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6세때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큰 아버지 밑에서 엄하고도 어려운 청소년기를 보내었다. 어릴때부터 총명했던 그는 대구보통학교(현 대구국교)와 대구고등보통학교(현 경북고교)에 진학했다. 고등보통학교 재학시부터 미술의 재질을 보였고 17세에 대구미술전람회에 출품한 적이 있다.



〈사진 12-67〉 박 명 조

이 학교를 자퇴한 1926년 20세에 <초춘>(사진 12-68)으로 제5회 「선전」에 당당히 입선을 하였다. 그 해 9월 「박명조 개인전」을 대구 남성로에 있는 교남기독교청년회에서 수채화 작품으로 대구 최초의 서양화 개인전을 연 뒤 그림을 더 공부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동경에서 당시 명성이 높았던 石井栢亭 밑에서 그림을 배우며 화가로서의 꿈을 키웠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일년만에 유학을 포기해야 했고, 귀국후 월배에 있던 오산학교 교사로 부임했다.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귀국한 그는 대구에서 다시 화업에 몰두한다. 대구에 거주하는 일본 미술인들 그룹인 「자토회」와 「대구미술협회」에 반발하여 서동진, 최화수, 배명학, 이인성등과 「영과회」와 「향토회」를 결성하여 한국 미술인들의 결속과 미술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사진 12-68〉

박명조, 〈초춘〉, 제5회 「선전」입선작, 1926년, 수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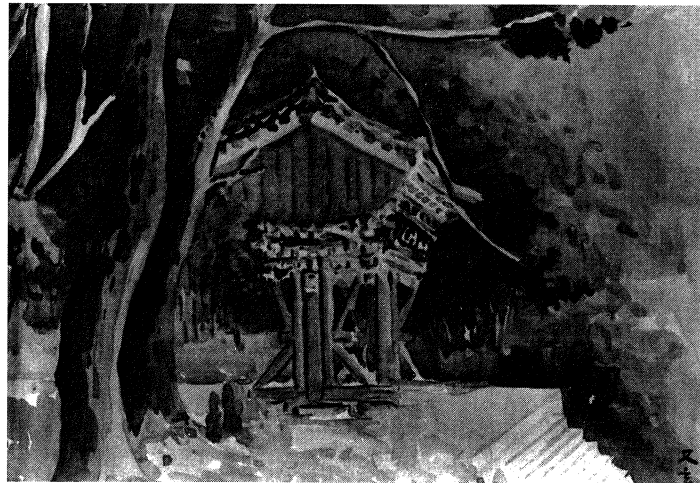
그의 활동무대에는 제5회 첫 입선 이후 7·10·11·12·13·14회에 연속 입선한 「선전」과 대구의 미술그룹인 「향토회」였다. 그가 그린 모든 작품은 수채화의 전통적 기법과 빈틈없는 구도를 가진 것들이다. 대구를 수채화의 본산지로 특징지우는 데는 서동진과 더불어 온전히 그의 공로가 컸다. 그와 동시대의 작가들과 같이 자연주의적 경향에 머물고 있는 것은 새로운 조형성을 추구하기엔 수채화의 한계성이 있다는 것과 담백한 색채로

자연을 재현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의 작품은 수채화가 갖는 재료와 붓질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형태를 간결하게 파악하고 의미를 함축하며, 새로운 시각과 신선한 표현방법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1930년대 작품인 〈노란장미〉(사진 12-69)는 나뭇잎과 어두운 녹색색의 배경이 묘한 뉘앙스를 이루며 간결한 터치로 노란 장미꽃을 환하게 띄어 올리고 있다. 6·25가 끝난 혼란의 시기에 담담한 심경으로 그린 〈해인사〉(사진 12-70)(1956)에서는 잡다한 것이 정리되고 투명한 색채의 세계를 보여준다.



〈사진 12-69〉 박명조, 〈노란장미〉, 1930년대, 수채

농담으로 중첩된 초록의 뉴앙스로 깊은 숲의 공간이 표현되고, 화면 가운데의 갈색 일주문(一柱門)은 이와 대조를 이루면서 화면에 액센트를 준다. 특히 오른쪽 윗부분의 여백은 하늘을 연상시켜 무한한 공간으로 연결되며 싱그럽고 투명한 화면의 색조는 숲의 청량감을 더 높여주고 있다.



제14회 「선전」이후 공모전 작품을 중단했고 공식적인 그의 마지막 「선전」출품 때인 14회에 2

〈사진 12-70〉

박명조, 〈해인사〉, 1956년, 수채

년간 그의 보살핌을 받던 6년 후배 이인성이 〈경주의 산곡에서〉로 창덕궁상을 수상했고 이듬해 추천작가로 추대된 사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추측도 있다.

최초「선전」입선작가요, 최초 개인전을 개최했던 기록적인 박명조는 성격이 천성적으로 강직하고 소탈하여 남 앞에 나서고 공명심을 욕심내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다. 6년 선배인 서동진의 활동성과 6년 후배인 이인성의 천재성에 그의 과묵은 침묵으로 바뀌어 버렸다. 식물과 정원 가꾸기에 남다른 취미를 가졌던 그는 평범한 교사로서, 일상인으로 그림을 사랑하며 만년을 보내었다.

7. 裴命鶴 (1907~1973)

… 나는 자연과 화필과 영원한 대화를 나누면서 부서지는 파도의 굽은 선에서 강렬한 터치를 찾고 바닷벌의 질펀한 한줌의 모래성에서 內在律을 간직한 소재를 얻어 畫筆에 문혀 살기를 40여 년, 아직도 나는 자연의 심오한 진실을 건드리지 못한 듯 이렇다 할 작품을 남기지 못한 아쉬움 속에서 오늘도 새로운 신념 아래 붓을 들어 파도에 도전해 본다 …

다소 길게 인용한 위의 글은 1968년 매일신문에 배명학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 쓴 것이다. 이 글은 장엄한 자연을 배우고 숭고한 예술 앞에 참회하듯 하는 그의 경건한 기도를 읽게 한다. 한 마디로 그는 나름대로 세운 원리나 원칙에 자신을 구속시켜 엄격히 자신을 관리했으며 모든 일에 요령이나 잔꾀를 부리지 않는 청교도적인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성품은 그의 회화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는 어떤 유파에도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으며 오직 자유로이 자신의 양식을 추구해 나갔다.

성파(星坡) 배명학<사진 12-71>은 1907년 7월 4일 경북 성주군 성주읍 용산리에서 배순봉(裴舜鳳)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합천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15세 되던 해에 부모를 따라 대구로 이주했다. 교남학교(현 대륜중고)재학시 조선학생미술전람회에 서 수위 입상을 했고 학생으로 서동진, 박명조, 최화수 등과 함께 「영과회」에 창립회원으로 참여하여 작가의 생활을 시작했다.

일본 지형사(地型舍) 서양화부에서 잠시 수학을 하고 귀국한 1930년에 그는 다시 「향토회」 창설에 참여하고 그 회원이 되었다.

「선전」 제9·10·11회에 연이어 입선한 그는 27세때 김을선과 결혼한다. 해방직전 대구방직주식회사 상무로 근무하다가 해방이 되자 선산 오산중학을 시작으로 66년까지 대구상업학교 교사, 청구대학(현 영남대)강사를 지냈다. 6·25가 끝난 후 경북미술가협회를 창립, 회장직을 맡았고, 경북교육회 미술분과위원장에 피임되기도 했다. 58년 대구미국공보원 초대 작품전을 개최한 후 8회에 걸쳐 개인전을 가졌다.

배명학, 그는 서동진, 박명조, 최화수 등과 함께 대구화단의 제1세대에 속하며 이 고장에 서양화가 들어온 20년대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대구미술 50년의 역사를 몸소 겪고 지켜온 작가이다. 물질적 가난에 비루하지 않았으며 그것에 마음도 쓰지 않았다. 가난도 그의 정직하고 성실한 삶의 한 형태요 방법이었다. 일생을 그림과 더불어 교사로 살아온 배명학은 향토화단의 역사적인 비(碑)를 세우고 1973년 1월 26일 흑한 속에 세상을 떠났다.



〈사진 12-71〉 배 명 학

배명학의 일생이 소박하고 정직하며 성실했듯 그의 작품들도 하나같이 시대의 조류를 타거나 기술상의 모방이거나 과장됨이 없이 그의 삶의 태도가 눈에 보이듯 배여있다.

외계의 변화와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보다 그럴수록 더욱 자신의 내면으로 침전되면서 자기반성과 자기발견에 경도된다. 우리나라 서양화 초기, 새롭고도 다양한 서구의 각종 경향들이 거의 동시에 밀려 들어 올 때 그는 어떤 경향이나 작가의 조형방법에 영향되어 그대로 따른 적이 없다.

단지 그는 세기말에서 금세기 초에 걸친 인상파, 후기인상파, 야수파, 표현파 그리고 입체파적인 경향을 주관적으로 수용하므로써 개성적인 화풍을 정립해 나갔다.

그의 화풍은 몽환적인 대상파악과 이를 강조하기 위한 부드럽고 다양한 색조의 독특한 분위기에서 찾아진다. 다시 말하면 그는 대상을 시각을 통해 감각적으로 파고드는 리얼리티한 접근 방법이 아니라 내재물에 의한 몽환적이고 상징적인 서정성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스모스-B〉〈사진 12-72〉는 갈색을 주조로 한 바탕색에 흰 코스모스가 화면 중앙을 가득 메우고 있는 정물화이다. 배경의 부유하는 듯한 녹색색의

부드러움과 테이블, 테이블천, 그리고 화병의 거칠고 질박한 마티에르는 묘한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대조 사이에 하이얀 코스모스가 광채를 뿜 듯 환히 빛나 화면 전체에 청초한 생명감을 환기시킨다.

〈추수〉〈사진 12-73〉에서는 거치런 붓질과 황색의 주조가 한국적 정서를 표현하는 데 잘 융합되고 있으며 또 그러한 표현의 중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특징적 화풍은 〈해바라기〉, 〈나막신〉, 〈토기〉에서 더욱 심도있게 나타난다.



〈사진 12-72〉 배명학, 〈코스모스-B〉, 1966년, 유채



〈사진 12-73〉 배명학, 〈추수〉, 연대미상, 유채

8. 徐鎮達 (1908~1947)



〈사진 12-74〉 서진달

보헤미안적 삶을 살다 간 도풍(稻風) 서진달.〈사진 12-74〉 그의 짧은 생애와 몇점 밖에 남지 않은 유작품 그리고 그에 대한 무관심으로 해서 대구는 물론 한국미술사에서 망각의 세계로 밀려났던 그가 근년들어 정체가 드러나고 그의 작품이 평가의 대상에 뒤늦게 오르고 있다.

자존심과 자의식이 남달리 강했던 그는 괴벽과 방랑벽 때문에 일정한 생활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정착된 창작활동도 하지 못했다. 그의 삶의 행적도, 작품도 그리고 무덤조차 묘연하니 흘러가는 세월 속에 잊혀질 수 밖에 없었으리라.

세잔느를 흠모한 그의 불나비 같은 생애는 1908년 대구출생에서 시작된다. 1930년 부산 동래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건너가 약 3년간 기초 덧상공부를 한 후 1935년에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했다. 이 학교는 동양 최고수준의 미술

교육기관으로 정원 35명에 한국인 학생은 식민정책으로 한 명 정도밖에 입학이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동경미술학교 입학은 커다란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동경에서 10년 동안에 3만원(요즘 6억정도?)을 들여서 세계적 수준의 미술공부를 해왔다. 너희들이 열심히만 공부하면 몇 개월 동안에 전부 가르쳐 주겠다.” 1941년 졸업한 다음 해 갓 귀국한 33세의 젊은 화가는 첫 부임한 계성학교에서 거창스런 자기소개와 함께 어린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러 일으켰다. ‘세계적 수준의 미술공부’란 말은 동경미술학교 출신이라는 엘리트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의식과 젊음은 자신의 작품에서 뿐만 아니라 미술부 제자들의 교육에도 크게 작용했다. 제자로는 오늘날 서양화단의 중진인 변종하, 김창락, 추연근과 백태호, 김우조, 서복섭 등이 있다.

부유한 가정이 반침이 된 서진달의 유학생생활은 그야말로 호화판이었다. 당시 면서기의 월급이 10원일 때 그는 매달 100원 이상의 생활비를 썼을 정도였다. 같은 대구출신으로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겨우 일본에 건너가 고학으로 미술공부를 한 이인성과 김용조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사진 12-75〉 서진달, 〈정물〉, 1942년, 유채

같은 해 계성학교에 재직하면서도 인천의 소화여학교에서 강의를 했으며 다음 해에는 만주로 건너가 하르빈 공과대학 강사로 강의를 맡기도 했다.

이처럼 대구·인천이라는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 두 학교에서 강의하고, 기독교 학교인 계성학교에서 미국인 선교사인 교장의 허락하에 그만인 교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었던 것은 화가로서의 자존심과 엘리트 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한 곳에 구속당하기 싫어하는 그의 자유방일한 성격과 생활태도에 연유된 것이다.

유학생활이 끝날 무렵 그의 가정이 파산되었다. 가정의 몰락은 서진달의 파멸을 가져오는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는 그의 방랑벽과 괴벽성은 난폭하고도 무질서한 생활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정신과 생활에 균형을 잃어버린 그는 육신의 병으로 생명이 시들어 가고 있었다. 아무런 준비없이 대구를 떠나 만주로 도피한 것은 그의 절박했던 정신적 상황을 말해 주는 것이다.

하르빈에서 계속 작품을 제작하여 30여점으로 개인전까지 개최했지만 병든 몸은 그 이상의 것을 따르지 못했다. 광복과 함께 귀국한 그는 부산으로 내려가 그 곳에서 미술연구소를 경영했다. 그런 가운데 폐결핵으로 고독한 투병생활도 계속되었다.

1947년, 정통적인 서양식 조형어법을 극복하고 이제 막 개척한 새로운 조형세계가 완숙의 경지로 진입하려는 순간, 39세의 아까운 나이로 대구 동산병원에서 눈을 감고 말았다. 외로운 방랑과 창조의 고통, 고독한 죽음의 그의 한평생은 불나비의 생애에 다름 아니었다.

동경미술학교 유학시 이미 서구의 조형어법을 체득한 그는 아카데미하면서도 인상주의적인 화풍에는 이미 친숙해져 있었다. 그의 회화세계는 일본 아카데미즘이 바탕을 이루고 있지만 다혈적이고 모험적인 그의 성격은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확립해 나갔다.

서진달의 공식적 미술활동은 1931년부터 1942년의 10여년에 걸친 「선전」을 통해서였다. 〈시장의 일각〉으로 제10회 「선전」에 첫 입선하고 〈소녀탄주도〉(11회), 〈인물〉(12회), 〈나무〉(13회), 〈실내〉(16회), 〈스토브〉(19회), 〈정물〉(21회)〈사진 12-75〉이 계속 입선하였다.

작품 〈정물〉은 기물과 과일이라는 소재 선택은 물론 어두운 실내에서 빛을 받은 물체의 형태적 파악과 견고한 구도는 세잔느의 조형문법을 읽게 한다. 미술을 지망하는 제자들에게 세잔느화집을 선사하며 평생의 교과서로 삼으라고 당부할 정도로 세잔느를 존경한 그였다.

확인할 수 있는 그의 유작 10점 가운데 3점이 나체화이다. 여체의 선을 섬세하고 율동적으로 묘사한 〈나무〉(1934), 부드러운 터치로 대상에 충실한 〈손을 허리에 댄 나무〉(1934), 풍만한 여체의 상반신을 화면 가득히 채운 〈왼손을 입에 댄 나무〉(1947)등에서 세잔느의 조형언어를 쉽게 대할 수 있다. 〈등을 보이고 있는 나무〉(1938)는 상당히 정리된 화면의 나체화이다. 화면 중앙에 비스듬히 선 모델은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쥐고 있다. 단순한 배경처리에 명암의 심한 대조를 이루는 인물이 크게 강조되어 주제를 통한 독자성을 보이고 있다.

9. 琴經淵 (1915~1948)



〈사진 12-76〉 금 경 연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어 193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 후반까지 20년간은 일제의 태평양전쟁, 광복과 6·25동란 등 역사적 대사건들로 점철된 격동의 시기였다. 피압박 민족으로서, 이 데올로기의 속죄양으로서 우리 민족은 암흑과 분열의 와류에 휘말려 한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처참한 운명을 실감해야 했고 엄청난 희생 또한 치루어야 했다.

이러한 각박한 현실 앞에 많은 사람은 화가의 길을 포기하거나 2, 30년간의 기나긴 공백기간을 본의 아니게 갖게 되었다. 금경연은 바로 이같은 암담한 시대의 한 가운데를 살다 간 그야말로 불우한 화가 중의 한 사람이다.

금경연(사진 12-76)은 1915년 6월 18일 경북 영양군 수비면 발리동 323번지에서 아버지 금용직(琴鏞直)과 어머니 최만송(崔萬崇)의 사이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당대 유학자였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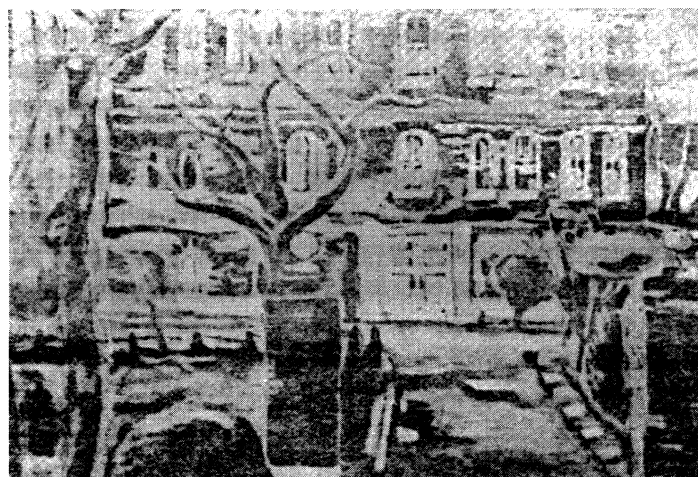
조부 노암(老菴) 금병규(琴秉圭)의 영향으로 10세 전에 4서3경을 통독했고, 재주가 영특하여 신동이라는 소문이 인근에 자자하였다. 형인 금두연의 주선으로 뒤늦게 영양보통학교 4학년에 편입학하였다. 이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으나 빈궁한 가정은 상급학교의 진학을 막았다. 이 사실을 안 일본인 담임교사였던 立見昇平의 도움으로 대구사범학교 응시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다. 수재들이 입학할 수 있었던 대구사범학교에 합격한 것은 전체 영양군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전 군의 관민이 축하해 주었고 관용차로 시가행진을 할 정도였다 한다.

금경연이 그림에 심취하게 된 것은 대구사범 재학시 일본인 미술교사였던 靑柳선생과의 만남에서 비롯된다. 짧은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은 물론 방과후에도 그는 언제나 이젤앞에 앉아 그림 그리기에 골몰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림에 대한 열정은 그가 타계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의 그림에의 열정은 드디어 제13회 「선전」에 〈양파와 능금〉(1914)으로 빛을 보았고 활화산처럼 더욱 열을 뽐기 시작했다. 이 해에 이인성은 특입선하고 김용조, 권진호, 최화수, 서진달, 박명조 등 대구출신들도 나란히 입선했다. 형 두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고통과 시련에 빠져 있던 그는 다음 해 14회전에는 〈시가지〉로 이인성의 창덕궁상 수상과 김용조, 박명조 등과 함께 입선했으며 제17회에 〈신록의 계절〉로 또 입선했다. 1939년은 그의 생애 최고의 해가 되었다.

봄부터 여름방학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려 제작한 〈붉은 건물〉(사진 12-77)이 18회 「선전」에서 특선의 영예를 얻었기 때문이다.

붉은 양식 건물을 정면에서 바라본 그림인 〈붉은 건물〉은 정문을 통해 본 붉은 건물이 화면 윗부분을 가득 채우고 앞쪽에 서 있는 나무의 곡선들이 건물의 기하학적 패턴과 대조를 이룬다. 형상과 색채가 강조된 야수파적인 경향을 보이는 이 작품은 확립된 자기양식을 보인다.

재학시 학비를 주었던 은사 立
見에게 입선작 〈시가지〉를 증정
하여 은혜에 고마움을 표시했고
교단에 서자 그는 매달 봉급에서
일정액을 떼어 송금했으며 은사
가 고인이 되자 미망인에게 은혜
입은 학비를 매달 갚아 나갔다고
한다. 특선작인 〈붉은 건물〉은
당시 교사 봉급의 2년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사겠다는 원매자
가 있어 그것을 팔아, 갖고 싶었
던 화구들과 「세계명화전집」(平
凡社刊)과 「세계미술전집」 50여
권을 구매 신청했다. 그 화집이 도착했을 때 그는 하늘을 날으듯 기뻐했다.



〈사진 12-77〉 금경연, 〈붉은 건물〉, 제18회 「선전」 특선작, 1939년, 유채

「선전」의 특선은 그의 창작의욕을 불러 일으키어 더 강한 불길로 타오르게 했다. 그러나 안동 중앙국
교, 경주계림국교 교사와 경주중학교 미술교사 겸임, 영양 입암국교 교장과 영양 수비국교 교장 등 일선
교사로서의 역할과 화가로서의 활동은 과로로 그의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

다른 지방으로 전임할 때마다 그 곳의 자연풍경에 심취하며 풍경을 화폭에 열심히 옮겼다. 낙동강 상
류의 청정한 안동 풍경, 신라천년의 숨결이 베어있는 고도 경주의 사적들, 태백산맥 준령의 한 맥인 수
양산 아래 해발 600미터 고지인 두메산촌 영양의 고향산하, 그 어느 것에도 애정을 갖지 않을 수 없었
고 그림으로 옮겨야 직성이 풀렸다.

자신의 예술관마저 남에게 말하지 않던 과묵한 그는 항상 철인(哲人)처럼 명상에 잠기거나 아니면 강
한 의지와 정신으로 창작에 열정을 쏟았다. 그 때는 일제말기라 생활물자의 부족으로 영양이 실조되고
노동시간은 더 많아졌다. 병든 몸으로 귀향한 그는 미술재료를 구입하지 못해 목탄작업만 계속하며 꺼
질줄 모르는 예술혼을 안으로 잠재우고 있었다.

1948년 열은 녹색이 고향의 봄을 채색하고 있는 4월 11일 새벽 3시. 삼라만상이 잠들어 있는 정적
속에서 그는 조용히 한 많은 세상을 떠났다. 33세의 아까운 나이로 눈감아버린 그의 유해는 수양산이
바라보이는 고향의 수비국민학교 뒷산에 각혈로 얼룩진 피묻은 화첩과 함께 묻혔다.

10. 金龍祚 (1916~1944)

가난과 천부적인 재능 그리고 요절, 이른바 천재적인 예술가들이 지녀야 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한
국근대미술사의 '천재화가' 김용조〈사진 12-78〉 그는 작품생활 10여년만에 '선전의 꽃'으로 일컬어졌
으며 암울한 시대에 온몸으로 불행과 싸우며 작가적 의지를 펼치다 너무나 일찍 가버린 요절화가이다.

1916년 3월 16일 대구시 내당동 1222번지에서 빈농의 아들로 출생한 김용조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



〈사진 12-78〉 김 용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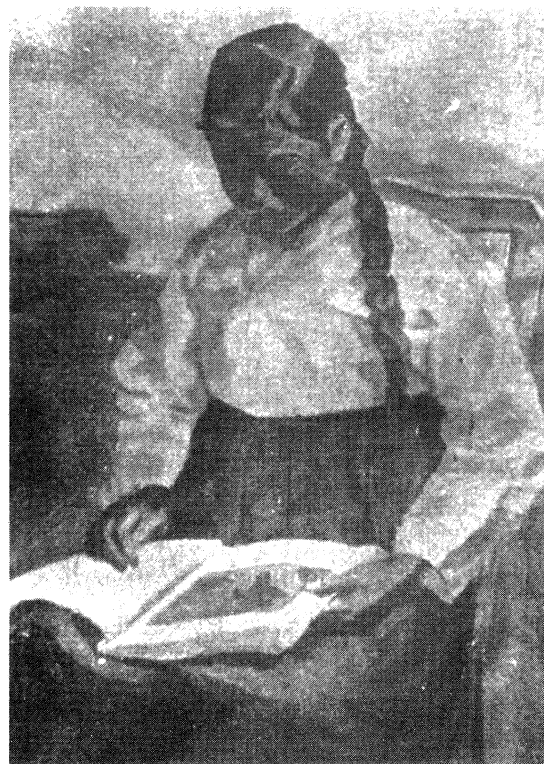
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과 고독을 배우며 성장했다.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은 겨우 달성보통학교를 마치게 했고, 상급학교 진학은 꿈도 꾸지 못하게 했다. 담임교사였고 화가로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아동문학가 이웅창(전 원화여중고 교장)의 도움으로 서동진이 경영하던 대구미술사에 들어가 입벌이를 할 수 있었다. 일하면서 그림공부를 했던 대구미술사에는 수 년전에 훗날 또 하나의 천재화가가 될 이인성이 이미 들어와 미술수업을 받고 있었다. 이인성이 작가로 성장한 거의 같은 과정을 뒤따른 것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서동진, 박명조, 최화수가 이끄는 「향토회」에 참여하여 작가적 역량을 가다듬었는데 이때 김용조는 15세, 이인성은 19세로 화가로서 조속한 출발을 보였다. 이들은 뒷날 1930년대 대구화단의 핵심적 서양화가가 되고 천재적 작가로 각광을 받게 된다.

대구미술사에 입사한 다음 해인 1932년 16세의 나이로 제11회 「선전」에 〈풍경〉을 출품하여 첫 입선의 기쁨을 맛보았다. 1934년에는 〈정물〉 〈어느 봄날〉 〈풍경〉 등 3점이 동시에 입선하여 기량을 인정받았다. 그의 재능을 일찌기 발견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은사 이웅창은 서상일(전 국회의원)과 함께 조양회관 2층에 그의 화실을 꾸며주었다. 모델을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 스승은 그의 처제를 모델로 추천하기도 했다. 생전 처음 자기의 화실을 마련한 김용조는 가난을 잠시 잊고 제품제작에 온 정열을 쏟았다. 바로 이 해에 그는 제14회 「선전」에 〈그림책을 보는 소녀〉로 특선을 차지하고 〈여름의 천변〉과 〈우후(雨後)〉로 입선했다. 김용조의 특선은 3년전 11회에 이인성이 특선한 이래 대구출신 작가로는 두번째 일이며 마지막이었다. 이어서 15회 〈좌상〉(무감사)과 〈맥하(麥夏)〉가 입선되었다. 2년간의 조양회관 생활을 마치고 무영당(백화점)을 경영하는 이근무의 도움으로 이 곳에 취직하여 미술도안과 장식 등의 일을 맡아 보았다. 자립생활의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이 때가 김용조로서는 처음으로 가난을 벗어나 마음 놓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안정된 생활을 누린 시기였다. 〈추경〉(16회), 〈옥상의 석양〉과 〈어선〉(17회) 〈흰돛대의 배〉(18회)와 〈배〉로 연속 입선한 것은 예술가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정된 정신세계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술가는 기질적으로 모처럼의 안정에서 오히려 불안을 느끼게 마련이다. 현실의 물질적 욕구가 충족된 후의 정신적 이완이 바로 창작의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혼자만의 고독한 창작생활에서 그는 조형기법과 미술사조에 대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현재의 이 조그만 안정에서 탈출하고 싶은 충동을 가누지 못했다. 드디어 그는 도일을 감행했다. 이제까지의 모든 도움에서 벗어나 외롭고도 고통스런 예술가의 길을 스스로 택한 것이다.

일본 동경. 낮에는 전사자들의 초상화를 그려 학비를 마련하고 밤에는 태평양미술학교에서 미술수업을 했다. 하루 종일 일하고 공부하여 쉼 사이없던 그에게 영양실조와 함께 원래 연약했던 건강이 병마에 좀먹기 시작했다.



〈사진 12-79〉 김용조, 〈그림책을 보는 소녀〉, 제14회 「선전」특선작, 1935년, 유채



〈사진 12-80〉 김용조, 〈어선〉, 제17회 「선전」입선작, 1938년, 유채

그러나 그는 귀국도 그림 그리는 일도 중단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일본에 왔으며 무엇 때문에 왔던가. 이런 생각만이 그의 뇌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일본 「광풍회전」에 〈우후(雨後)의 남선(南鮮)〉(유화 30호)이 입선하여 주목을 받고 「문전」에서는 〈남선의 농가〉(유화 50호)로 입선한 것은 그의 사투(死鬪)에 가까운 집념의 결과였다.

많은 것을 얻었으나 지옥같았던 3년간의 동경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은 이미 결핵으로 병들고 있었다. 이 해 〈봄의 남선〉으로 제22회 「선전」에 입선하고 23회에 〈어머니의 상〉으로 두번째 특선의 영광을 얻었다. 이제는 훌륭한 화가, 아니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을 때 결핵에 병든 몸은 이를 허락치 않았다. 특선의 기쁨도 채 사라지기전 6월 8일 한국근대미술이 기대했던 '선전의 꽃'은 시들고 만다. 28세의 너무도 젊은 나이였다. 〈그림책을 보는 소녀〉(사진 12-79)는 한복을 입은 소녀가 머리를 길게 땅아 늘어뜨리

고 그림책을 보는 좌상의 그림이다. 화면을 가득 채운 주제의 인물을 대담하게 파악하여 부분을 생략한 시원한 붓 터치와 원숙한 기량을 엿보이게 한다.

전통적인 소재로 독자적인 조형세계를 추구한 이러한 작품과는 대조적으로 배가 있는 바다 풍경의 작품이 많았다. 〈어선〉(제17회) (흰 돛대의 배)(18회)와 〈배〉, 그리고 〈해경〉 같은 작품에서 서양식 분위기와 표현기법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어선〉(사진 12-80)은 수평선 너머 흰히 트인 하늘과

바다 그리고 약간의 대각선을 이룬 부두로 3등분된 수평구도의 작품이다. 소재는 물론 밝은 채도의 적절한 배합, 간결한 붓질은 경쾌한 바다의 풍경을 특징있게 표현하고 있다.

김용조가 바다 풍경을 즐겨 택한 것은 한 사람의 작가가 되기엔 너무나 어려운 가난과 건강의 현실적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정신적인 해방감을 갖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인성의 예술적 성과를 바짝 뒤쫓던 김용조, 그의 천재성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그가 그토록 동경하던 수평선 너머 미지의 세계로 젊음을 안고 떠나가 버렸다.

Ⅱ. 書畫家

1. 徐丙五 (1862~1936)



〈사진 12-81〉 서 병 오

한국 근대문인화의 巨頭 徐丙五(사진 12-81)는 1862년 대구 시 동성로 3가 8번지(현 달성농협)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 이름은 丙潑였고 字는 舜原, 號는 石齊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10세전에 이미 四書三經에 통달했고 詩書畫棋의 뛰어난 재주는 世人들을 놀라게 했다. 12세가 되면서 善山の 巨儒 許舫山の 門下生으로 入門하여 士大夫로서의 기초를 닦았다. 약 3년간 舫山, 旺山, 郭면宇 등 당대의 석학들에게 다니며 수학하는 한편 한의사 李石谷에게 의학을 배웠다. 만석꾼이었던 대구 갑부 徐相敏의 3남중 차남으로 태어난 石齊는 공부보다도 노름과 장기, 바둑 등 잡기에 더 열중하였다. 그와 한문학에 쌍벽을 이루었던 崔一和(전 청구대학장 崔海淸의 부친)는 어릴 때 그의 행적을 이렇게 회상했다. (《達句伐의 脈》, p.297.)

어린시절 석제는 정말 개구장이였고 말쑥꾸러기였다. 엄한 부친 밑에 있으면서도 돈을 가지고 노름판에 끼어들기 예사였다. 그러다 한번은 새벽까지 노름을 하다 돈을 몽땅 잃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 주위에서 서성거렸다. 그 때 이웃 집에서 새벽까지 불을 켜 놓고 글 읽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들은 石齊는 내가 잘못 했구나 참회하고 부친에게 용서를 빌고 면학의 길에 들어섰다.

대구의 중앙통은 여름이면 야시장으로 붐볐는데 한번은 엽전던지기 투전판에 끼어 들었다. 10전을 세번 던져서 한 번 표적을 맞히면 건돈의 3배를 주는 방식이었다. 석제가 던지기만 하면 번번히 맞추기 때문에 나중에 투전꾼들은 석제가 나타나면 徐童이 온다면서 투전판을 거두어 달아나곤 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여름 밤에 목욕하러 가다가 야시장 도로변에 장기판을 펴놓고 까스등을

서고 있어 있는 박보꾼을 보았다. 10전을 걸고 이기면 數島(시기시마, 고급연초) 담배 한 갑과 돈 10전을 주고 지면 건돈 10전을 모두 빼앗기는 방법이다. 석제가 몇번 두자 박보꾼은 곧 패하고 말았다. 물려 있던 구경꾼들은 놀라 탄성을 지르고 박보꾼은 장기책과 담배와 10전을 건네니 석제가 자기 돈 10전만 되찾아 갔다. 석제가 자리를 뜨자 누군가가 그가 國手 徐石齋라고 하자 박보꾼은 물론 그 자리의 모든 사람들이 한번 더 놀랐다

八能居士인 石齋는 뒤에 叔父인 徐相蕙에게 養子로 들어갔는데 生家萬石, 養家萬石에다 詩·書·畫·文·琴·바둑·장기·의술 등 그의 여덟가지 재주를 각각 一萬石으로 쳐 그를 十萬石꾼이라 불렀다.

石齋가 어려서 공부한 곳은 대구 근교 桐華寺였는데 집안 대대로 시주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그의 부친은 조용한 곳에서 공부에 전념토록 이 곳에 보내 것이다. 아들이 공부를 태만히 할까봐 全紙장에 글씨 공부한 것을 적어 매일 심부름꾼 편에 보내도록 했다. 石齋가 주로 體本으로 삼은 것은 처음은 顏眞卿體였으나 나중에 구양순, 왕희지, 동기창 등의 중국 명필 필법과 우리나라 秋史體까지 두루 섭렵하였다.

石齋가 17세 되던 해, 영남의 귀재로서 장안(서울)까지 文名을 떨치자 당시 攝政 大院君이 親히 石齋를 召喚하여 當代의 碩學, 巨儒들을 모아 놓고 大院君이 直接 試問하였던 바 各項 無所不通하니 卽 詩, 書畫, 碁棋, 琴, 醫藥 등에 關하여 超人的 才能을 發揮하니 大院君을 爲始해서 周圍臨席 巨儒들이 驚嘆하여 마지 않았다(申大植, 《石齋 徐丙五》, pp.41~42).

운현궁시절의 대원군은 이미 아들 고종에게 실권을 넘긴 뒤라 올직한 마음으로 才士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달래려 했다. 石齋의 多才多能한 인품을 알게 된 대원군은 그가 中人출신이라 등용하지 못해 아깝다(惜哉)라는 말을 자주했고 그는 이 흠을 따서 자기 號를 石齋라고 붙였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대원군이 石齋라는 아호를 직접 지어 주었다는 說도 있다. 대원군 자기의 號는 石坡인데 徐丙五의 號는 石齋라고 지어 준다고 하였다. 그러한 號를 지어준 까닭은 오직 우리나라에서는 徐丙五의 재능을 깨트릴 사람이 없는 것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지은 것이다. 그리고 특상으로 조선왕실의 御印이 찍힌 中國宋代의 명필, 蘇東坡의 眞筆과 趙孟頫의 그림을 下賜했다(申大植, 《石齋 徐丙五》, p.42). 운현궁생활에서 그는 대원군의 빼어난 蘭畝씨를 배우는 한편, 민영익, 민병식, 박영효, 박기양, 민병달 등 당대의 명사들과 交遊하였다.

1889년 27세로 進士試驗에 합격하고 新寧郡守에 임명되었다. 워낙 풍류를 즐기던 石齋라 수개월 후 관직을 사퇴하고 대구에서 필묵을 벗삼아 장기, 바둑, 가야금을 즐기며 悠悠自適한 시간을 보내었다. 30대 후반부터 3년간 중국에 머물면서 당지의 석학들과 망명 정객인 민영익과 사귀었다. 소년시대에는 秋史, 大院君의 영향을 받았으나 중국에서 돌아온 후에는 안진경, 오창석, 소동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3년간의 중국 遊學時節을 보내고 귀국하는 길에 山東省 부근에 있던 영국 총통(中國名, 駱任庭)의 초대를 받았는데 너무 거만했는지 石齋는 다음과 같은 詩를 써 주었다.

楚人餐後名傳遠 晉士採來香不休
雪白盛紅多別種 也知黃色最居頭

초나라 사람(屈原)이 반찬으로 한 뒤
 국화 이름이 더욱 났고,
 진(晋)의 선비가 캐어온 후
 그 향기가 사라지지 않는구나
 흰 국화 붉은 국화 등 종류도 많지만
 응당 알 것은 황국(黃菊)이 제일이지니

이 시는 백인종, 황인종 등 여러 인종 중에서 황인종이 제일 우수하다는 것을 국화를 비유해 빗대어 쓴 것이다. 귀국한 후 얼마되지 않아 石齊는 일본 역대 총리대신 大畏重信, 犬養毅와 일본 정계의 巨物 野人 頭山滿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초청을 받아 도일하여 일본의 석학, 거유들과 文墨交換으로 그들을 경탄시켰으며 世紀의 偉才라고 절찬을 받았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국내의 정세가 혼란해지자 귀국하여 밀양에 있는 國農所를 불하받아 개간사업에 손을 댔다. 쓸모없게 황폐된 땅을 불하받아 전 재산을 그 개간사업에 쏟아 넣었다. 이듬 해의 큰 흉수로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큰 돈만 날렸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급기야는 동성로의 아흔 아홉칸 집을 친구이자 대구 갑부인 梧庭 李宗勉에게 팔고 길건너 중앙파출소 쪽으로 이사했다. 이 사한 집에서 그는 글씨와 그림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채를 사들고 와 그림을 그려달라 요청하자 대나무를 그려주었더니 비딱하게 그려졌다고 불평을 했다. 石齊는 그에게 부채를 다시 사오라 하고 그 부채에다 게를 한 마리 그리고 無臙公子라고 글씨를 써 주었다. 그제사 그는 만족하고 돈을 치루고 나갔다. 그의 無知함을 臙도 없는 놈이라고 빗대어 써 준 것을 그는 몰랐을 것이다.

1921년 嶺南書畫研究會를 창설하고 경향각지의 서화인들을 결속하였으니 이것은 대구 최초의 미술단체였다. 대구가 전국 서화계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石齊의 명성은 더욱 알려졌다.

1922년 「선전」이 시작되자 石齊는 심사위원으로 서울을 자주 왕래하였다. 따라서 石齊의 門下에는 많은 서화인이 출입하였다. 肯石 金鎮萬, 兌堂 徐丙柱, 雲岡 裴孝源, 葵塘 韓維東, 眉山 徐昌圭, 竹僊 徐東均, 安東의 李源一, 慶州의 李命龍, 全南 求禮의 林承稷, 林承高, 安東 禮安의 李容準, 光州의 趙光萬 등 書畫뿐만 아니라 詩·琴·圍碁, 醫藥 등 각 부문의 제자들이 집단을 이룰 정도였다.

180cm를 넘는 키의 石齊는 70세의 고령에도 80kg의 몸무게를 가질 만큼 건장했다. 71세 되던 봄 日本의 犬養毅 총리대신의 초청으로 도일하여 일본 각 대학의 한학교수, 서화가, 문인, 棋士들이 동경의 石齊 숙소를 방문하여 文墨의 交換과 바둑 대국 등이 있었다. 특히 犬養毅 총리대신(일본기원 3단)과의 대국에서 두 번을 이기고 세 번째 대국 중 뇌일혈로 졸도하여 입원하였다. 일본 각계 각층의 인사들로부터 극진한 간병과 도움으로 회복되어 곧장 귀국하였다.

귀국 후는 대국은 하지 않고 관전하며 바둑을 지도하였다. 1953년, 당시 경북지사였던 阿部는 石齊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대국을 가졌다. 石齊는 두 판을 이기고 한 판을 저 주는 식으로 해주었더니 그는 石齊를 붙들고 밤을 세게 되었다. 새벽녘 오른 팔에 마비증상을 느끼고 귀가 했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뇌일혈로 진행되었다. 근 일주일의 의식을 잃고 있다가 어느 날 아침이 늦도록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나이 74세, 1936년 음력 3월 어느 날 오전 11시, 華國之才, 天下英才 石齊는 조용히 운명하였다.
石齊는 八能 중에도 특히 漢詩에 제일 능하였다. 그가 남긴 250여편의 詩作 중 몇편을 소개한다.

古木(一)

古樹欹斜臨古道 枝不生花腹生艸
行人不見樹少時 樹見行人幾番老

古木이 비스듬이 옛길에 서 있으니 가지에는
꽃이 피지 않고 나무 배에는 풀이 우묵하다.
아! 길 가는 사람은 나무 젊었을 때를 보지 못하였는데
古木은 길 가는 사람 몇년 늙는 것을 봤겠느냐.
(石齊의 少年時 詩임)

金剛山 詩(二)

金剛奇絕冠吾東 天下何山何與同
突兀是峯還是石 清涼非雨亦非風
十方菩薩來空外 萬朵芙蓉出海中
若使解看眞面目 六根塵滯一時通

금강산의 기암절벽은 동양의 으뜸이니
천하의 어느 산도 감히 비할 수 없네.
뽕죽숫은 봉우리 다시보면 모두가 돌
비바람도 아닌 청량한 기운 온 산을 덮고 있네.
시방보살이 공중으로 날아 들고
수만의 연꽃은 해금강으로 변해 솟았네.
진실로 금강의 진면목을 보고 깨달으면
인간육체의 티끌은 일시에 사라질 수 있으련만.
(이 詩는 당시 동아일보가 주최한 전국 한시대회에 응모해서 일등으로 당선한 작품임)

激勵詩 金性洙氏 所宮之業

朝朝喚起自家魂 不是煤痕是血痕
細看字字行行意 舌弊唇焦出苦言

매일 아침 自家의 정신을 환기시키니
이것은 활자의 끄름이 아니라 피맺힌 흔적이로구나.

글자 한자 한자 줄줄이 뜻을 자세히 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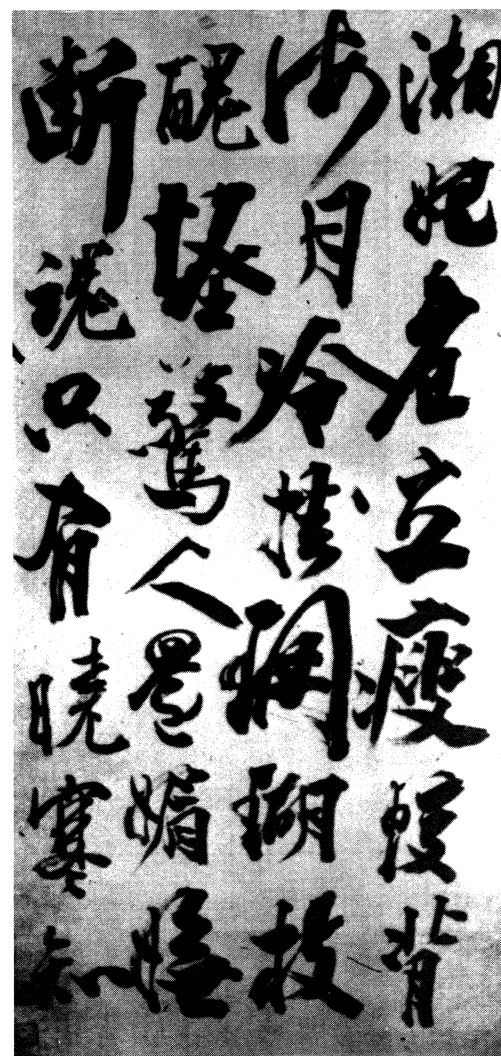
혀를 해치고 입술이 마르도록 苦言을 發했도다.

(이 詩는 동아일보사를 경영하던 金性洙를 격려한 것으로, 일찌기 仁村 金性洙는 한국의 碩學

石齋를 예방하여 자기의 아호를 지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에 石齋가 仁村이란 호를 지어 주었

다.—仁村回顧錄)

石齋는 탁월한 재질의 소유자로서 어느 한 사람에게 사사한 바 없으나 많은 고금의 筆帖과 문헌을 숙독하여 自得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년 이후는 중국 전통예술과 斯界大家들의 交遊로 자기예술의 일



〈사진 12-82〉

行書(추사체)



〈사진 12-83〉

四君子

대 轉機를 마련하였다.

그는 顏眞卿, 王羲之, 蘇東坡, 董基昌, 翁方綱 등의 中國書法과 秋史體를 잘 썼다(사진 12-82). 古典 臨書에 있어서도 原書家의 筆體를 확실히 體得하고 나름대로의 독특한 서체를 창작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서체란 중후하고 조형적 미와 強靱한 필력을 특징으로 하며 그의 문하생 작품에도 잘 나타나고 있으며 영남일대는 물론 중국과 일본에까지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

그는 항상 楷行草體를 상용하나 隸書에도 뛰어나 소박하고 雄渾한 필치는 他의 追從을 不許한다.

文人畫에 있어서 少時에는 石坡 大院君의 필법을 방불케 하였으나 중년 이후는 중국의 영향으로 화풍이 많이 달라졌다. 그의 文人畫는 한결 유연하고 소박하며 文氣가 充溢하여 文人들로부터 질찬을 받았다. 文氣와 멋이 넘치는 다양한 文人畫도 만년에는 四君子(사진 12-83)에만 주력하게 된다.

2. 朴基敦 (1873~1947)

한말에서 일제 암흑기로 이어지는 민족 수난기에 민족의 자존과 국권의 회복을 위해 一身의 영화와 온 家産을 던져 경제·교육·체육·서예계에 혁혁한 공을 이룩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곧 박기돈(사진 12-8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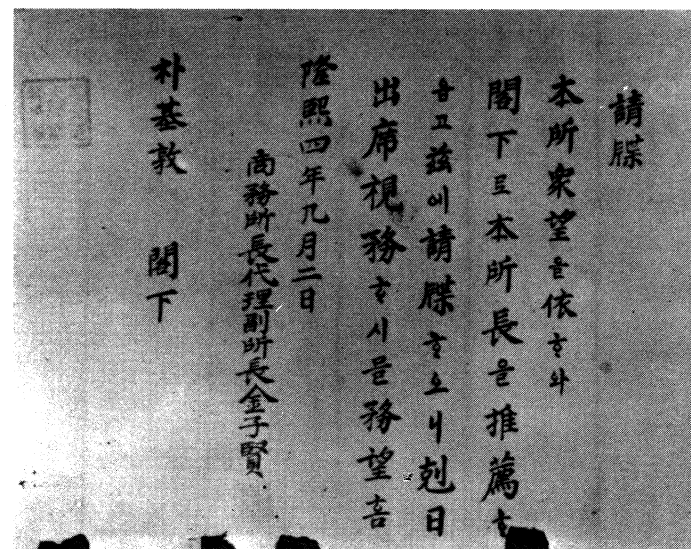
박기돈의 字는 景臨이고 號는 晦山이다. 그는 밀양 朴氏 糾正公派의 20代孫으로, 中樞院 議官을 지낸 從二品 嘉善大夫 朴文煥과 貞夫人 濟州高氏 사이에서 三男으로 1873년 음력 正月 三日에 출생하였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서울에서 벼슬을 한 양반으로 불교를 숭상해온 집안이다.

18세에 新安朱氏와 결혼했으며 그의 부친은 장남 朴基福이 합천 야로에 장만해 놓은 농장에 은거하고 있었다. 晦山은 어릴 때부터 성품이 활달하여 글보다 말타기와 활쏘기 등 武藝를 더 즐겼다. 무예만 즐겨 정신이 팔린 晦山이 글이 부족한 것을 걱정한 부친은 그를 야로로 불러내려 한학자 李是庵을 초빙해서 3년동안 한학을 배우도록 했다. 뒷날 그가 서예가로 명성을 떨친 것은 이 때에 닦은 서예 솜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의 공직생활은 1901년 12월 1일에 量務委員에 위촉됨으로써 시작했고 1903년 1월 24일에는 상공 학교 교관으로 임명되었다. 2년 뒤인 1905년에는 그에게 중추원 의관 敍品 六品 通訓大夫의 벼슬이 내려졌다. 6월 29일에는 다시 正三品 通政大夫의 敍品이 내려졌다.



〈사진 12-84〉 박 기 돈



〈사진 12-85〉 박기돈이 대구 상무소장으로 추대

중구 서야동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다. 이것이 晦山이 대구에 머물게 된 경위이다.

대구에 정착하게 된 晦山은 대구의 재산가이며 명망이 높은 서상돈, 김광제와 더불어 설립한 大邱民議所에 관계하게 된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 씌워 놓은 1,200만원의 국채를 보상하기 위해 대구민의회가 금연운동에 나섰을 때 晦山은 앞장 서서 이 운동에 애국적 정열을 쏟았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는 장죽을 든 사람을 꾸짖거나 설득하여 장죽을 빼앗았으며 하루에 한 묶음이나 되는 장죽을 회수해 태워 없애 버렸다. 晦山이 중심이 된 금연운동으로 전국 모금 금액의 3할인 7만원의 국채보상금을 모았다. 그러나 일본 관헌의 탄압으로 대구민의회는 더 이상의 운동을 펼치지 못하고 1907년 6월 해산당하고 만다.

商務를 진흥하는 것만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고 굳게 믿었던 晦山은 새로운 상공업을 대구에 移植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 그 성과는 눈부신 것이었다.

1909년 대구 서문로에 晦山出版社와 대구목재소를 설립했고 이듬해에는 역시 서문로에 普惠藥房이란 제약회사를 세워 은단 등 약품을 제조했다. 그리고 원대동에 제지공장도 설립하였다. 이 해 겨울에 그는 서울 한강의 얼음을 기차로 실어와 동촌에 만들어 둔 어름창고에 저장했다가 이듬해 봄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또 서울에서 이발사를 한 사람 데려와 대안동에 이발소를 차렸다. 이것이 대구 최초의 이발소가 되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대구 상공업의 개척자로 종횡무진하게 활동해 온 晦山이 大邱商務所長으로 추대된 일〈사진 12-85〉은 당연한 것이었다. 1915년 7월에 조선총독부의 조치에 따라 한국인의 大邱商務所와 大邱日本人商業會議所가 병합하여 大邱商業會議所로 발족했고 晦山은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의원직 4분의 3을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어 2년의 임기를 끝으로 大邱商業會議所와는 인연을 끊었다.

1917년 한 때, 경영난에 허덕이던 明信學校(현 復明學校)를 인수하여 私財를 털어 육영사업에 힘쓰

기도 했다. 큰 농장을 관리하면서 野人으로 돌아온 晦山은 서예를 주로 했으며 특히 행서에 뛰어나 당시 石齋 徐丙五와 대구에서는 쌍벽을 이루었다.

그의 글씨는 힘이 있고 활달하며 단정하고 깔끔한 점이 있어 그의 성품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3. 金鎮萬 (1876~1933)

翠色本宜霜後見 清聲偏向月中聞

소나무의 푸른 빛은 본래 서리맞은
뒤에 보는 것이 마땅하고,
맑은 술바람 소리는 오직 달빛 속에서 들린다.

肯石 金鎮萬<사진 12-86>은 1876년 8월 24일 대구 남산동 622번지에서 金在穰과 李春玉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 해는 강화조약체결과 함께 조선의 문호가 개방되고 약소제국이 열강제국들에 위해 잠식되어 가고 있던 때이다. 침략과 항거의 피비린내나는 투쟁의 시대적 상황은 한 예술가의 비극적 생애를 예고하는 불길한 조짐이었으며 그의 인간형성과 예술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사진 12-86> 김 진 만

유년시절의 총명한 지혜와 장대한 氣骨은 肯石의 높은 학문과 예술, 그리고 사상가로서의 자질을 일찍 약속하고 있었다. 四書三經을 숙독하던 12세 되던 해에 달성 徐氏門中の 承旨 徐佑淳의 장녀로 肯石보다 4년 연상인 徐福을 아내로 맞아 4남 3녀를 두었다.

29세 되던 1905년에는 소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어 일제는 한반도 强占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傾國의 弱小民은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한창 나이의 혈기에 차 있던 肯石의 학문과 예술은 자연히 구국정신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이듬해 드디어 일본 統監府가 설치되고 한말 巨儒 崔益鉉이 日警에 체포되어 대마도에 감금되어 있다가 그 곳에서 卒去하였다.

1910년 치욕의 한일합방조약이 조인되고 대한제국이 패망함으로써 亡國의 백성이란 쓴잔을 들어야만 했다. 이같은 韓末風塵의 침울한 氣運과 일제하의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肯石의 집안은 항상 和氣를 잃지 않고 부인의 內助로 큰 변화없는 살림을 꾸려 나갔다. 그러나 평온한 생활 가운데서도 肯石은 조국이 일제치하에서 독립하지 못함을 개탄하고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과 心身을 바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심하였다.

1915년 대구 달성공원에서 結團한 大韓光復會는 만주지방에 무관학교 설립과 군대편성을 하고 이를 위한 군자금은 국내 부호의 기부금과 잡화상의 경영에서 얻은 이익금, 해외에서 일본화폐 위조 등의 방법으로 조달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체험한 肯石은 같은 해 경북 달성군 수성면 安逸庵에서 표면상으로는 詩會라 칭하고 동지가 모여 비밀결사인 朝鮮國權恢復團을 조

직하는 데 직접 가담하였다.

1916년 군자금 모금이 어렵게 되자 당시 대구에서 이름난 부호 徐佑淳(당시 65세, 大邱 南町)의 돈을 빼내기로 그의 장남인 徐相俊과 사위 肯石은 합의를 보고 같은 해 음력 8월 4일 동지 6명을 모아 밤중에 침입케 하였으나 徐佑淳의 완강한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쳐 나오다가 길을 막는 하인 禹道吉(당시 35세)에 휴대한 권총으로 발사하여 중상을 입힘으로써 소위 大邱拳銃強盜事件으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것이다. 이듬해 3월 이 사건으로 金鎮瑀(肯石의 아우)는 징역 12년, 肯石을 비롯한 鄭雲日, 崔丙圭, 林丙日, 權國弼 등 5명은 각 10년, 崔俊明은 징역 2년, 朴尙鎮, 金在烈은 징역 6개월, 洪宙一은 징역 5개월, 李始榮은 징역 4개월의 언도를 받고, 직접 가담자와 연루자 11명이 모두 옥고를 치루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肯石은 부인을 보내 여러번 장인에게서 돈을 얻고자 하였으나 번번히 거절당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대구 중심의 군자금 조달에 얼마나 깊이 가담하였던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1917년에는 뉴욕에서 개최된 세계약소민족 대표회의에 朴容晩이 한국대표로 참석했고 다음 해에는 東三省의 독립운동가 呂準 등 39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상해에서는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등 국내외 애국지사들의 조국광복을 향한 발걸음이 힘차고 빨라지고 있었다.

肯石은 10년이란 중형에도 좌절됨이 없이 감방을 잠시 쉬는 곳으로 여겨 광복을 위한 자세에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으니 그의 墨竹作品에 이런 畫題가 보인다.

抱節不爲霜雪改
成林終興鳳凰期
節介(竹節)를 안고 서리와 눈을 맞고도 고치려 하지않고,
竹林을 이루어 마침내 鳳凰과 더불어 함께 함을 기약하네.

1930년 오랜 刑期를 마치고 출감한 肯石에게는 기울어진 家産과 일거일동을 감시하는 日警의 눈빛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그의 예술은 오히려 逸氣를 뿜고 성숙되어 갔으니 예술과 학문만이 그의 존재 이유였다. 그러나 그의 둘째 아들인 金永佑(광복단원)가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후 31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니 아들의 慘喪을 당한 정신적 충격과 오랜 刑苦로 인한 신체의 고통으로 광복의 날을 앞두고 1933년 음력 11월 12일 오전 7시. 남산동 622번지 자택에서 한 많은 57년의 일생을 끝마쳤다.

肯石은 숭고한 애국정신을 발휘하여 조국의 자주독립 운동에 헌신, 노력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공헌한 바 크다 하여 1977년 12월 13일 박정희 대통령이 증손 金和燮에게 건국훈장 국민장을 追敍한 바 있다. 작고시 그를 끔찍히 아끼던 石齊 徐丙五는 輓章에 哀絶한 心情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다.

憶昔同君萬里行 禁山吳水路縱橫
記曾威海船頭別 淚眼相看去住情
隨意揮來筆一枝 東破書體土亭詩



〈사진 12-87〉 墨 竹

其人如玉兼三絕 歷數臨池更有誰
蘭摧柱折不堪聞 萬事人間盡化雲
悵恨靈魂招不得 舊山黃葉雨紛紛

옛날 자네와 같이 萬里길을 여행할 때
楚나라 山, 吳나라 江길을 중횡하였더라.
일찍 威海 뱃머리에서 서로 이별한 것을
생각하니 눈물어린 눈으로 서로 보니
가고 머무는 情이더라.

뜻에 따라 쓴 글씨는
蘇東坡의 글씨체요, 上亭의 詩로다

玉과 같은 자네가 三絕을 겸했으니
역력히 臨池에 헤아려 본들 다시 또 뉘 있나.

蘭草와 桂樹가 꺾여진 것을 참아 들을 수 없으니
人間萬事가 모두 구름으로 化했구나.

슬프다. 영혼을 어디서 부르랴
옛 동산 가을 비에 낙엽만 떨어지네.

韓末의 風塵 속에서 태어나 망국의 恨을 안고 日帝治下의 어두운 세상을 살다 간 肯石은 대구가 낳은 박식한 학자요, 애국지사로서 또 글씨, 四君子, 器血折枝등 文氣있고 단아한 작품을 남긴 서화가로서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아 오늘의 후손들과 후진들에 기리 빛나는 교훈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대구 부호 徐佑淳이 그를 사위로 맞아들인 점이나 그의 畫題에서 보이는 글귀로 보아 肯石의 가문은 韓末의 착실한 儒家이며 예의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으리라 추측된다. 언제부터인가는 알 수 없으나 石齊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남서화연구회를 통해 그 교유는 더욱 두터워졌다.

1901년을 전후하여 石齊와 동행하여 중국의 威海, 蘇洲, 南京등지로 周遊하면서 그 곳 당대의 碩學名筆인 吳昌碩, 蒲作英, 齊白石등과 교류하면서 대륙의 예술을 몸소 익혔다. 1926년에 石齊를 중심으로 경향 각지의 수많은 서화동호인이 모여 발기한 교남서화연구회를 통해 畫業에 정진하는 한편 작품도 발표하였다.

直剛淳厚한 성격의 肯石은 四君子 중에서도 竹을 즐겨 그렸으며 그의 墨竹은 石齊의 畫法을 追從하

여 清朝風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다. 石齊의 竹이 外方向의 雄渾한 맛을 보여준다면 肯石의 그것은 堅固하며 멋부림이 없는 검소한 맛을 주는 것이 다른 점이다. 대체로 그의 竹幹은 交幹보다 直曲幹으로 하는 것이 많은데 이는 後者가 前者보다 간결하고 날씬하여 剛正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시원스럽고 生氣가 있다. 枝는 左右生枝로 균형을 잡으며 堅強하고 원숙하여 生意가 엿 보인다. 葉은 疊小技法을 많이 사용하여 柔和로워 보이나 다소 무거운 感を 준다. 節은 點節내지 銀鉤의 技法으로 點墨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그의 墨竹法은 畫竹之法 幹如篆 枝如草 葉如眞 節如隸 所謂書畫一法이라고 한 明나라 王絨의 畫竹理論과 합당하다 하겠다.

文人畫의 生命은 形似에 있지 않고 神似에 있으며 神秘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아무래도 文字香 書券氣가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肯石 또한 항상 形似에 치우칠까 自戒하고 있음인지 그의 墨竹〈사진 12-87〉 畫題에 이런 글귀가 있다.

寫竹如書法不可強求
形似只要神韻自在

대나무를 그림이 書法과 같아서 억지로 모양을 닮게 요구할 수 없으며, 다만 神과 통하는 韻致가 스스로 마음대로 되는 것을 要締로 할 뿐이다.

肯石의 초기 器皿折枝는 거친 線과 稚拙한 形相들로 인해 화면은 다소 난잡한 면을 보인다. 그러나 중년에 이르면서 이러한 난잡, 치졸성은 精濾되어 線은 渴筆에 의해 堅固, 간결해지며 형상은 간소한 가운데 의미를 풍부히 하면서 화면은 格을 갖춘다. 만년에는 형상과 濃淡에 구애됨이 없이 물질은 멀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逸意의 경지에 이른다.

또한 그는 글씨, 특히 行書에 능했다고 전해지나 작품이 희귀하여 잘 알 수 없으나 현재 동화사 입구 화강암으로 된 구름다리 건너기 전 우측 대자연암으로 되어있는 寺蹟碑文에 그 筆跡을 더듬어 볼 수 있다. 예술에의 재질과 청아, 강직한 성품에 감동된 石齊는 자기 號에서 石字를 따서 肯石이라 아호를 지어주며 항상 친구처럼 더 가까이 옆에 두고자 했다. 肯石이 돌을 많이 그리고 유작에서 石竹이 많이 보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한다.

鄭思肖가 南宋이 몽고의 元나라에 망하자 趙氏의 宋나라를 그리워하며 이름을 思肖로 고치고 평생 北面해 앉지 않아 字를 所南이라 했다. 鄭思肖가 국도를 빼앗긴 울분으로 흙없는 露根蘭을 사랑하여 墨蘭의 시조가 되었듯 肯石은 書畫에 精進하면서도 精神을 중히 여겼으니 四君子도 亡國의 설움을 달래고 傲霜孤節의 精神을 배워 몸소 실천한 사람이다. 평생을 두고 바라던 조국광복의 기쁨을 맞지 못하고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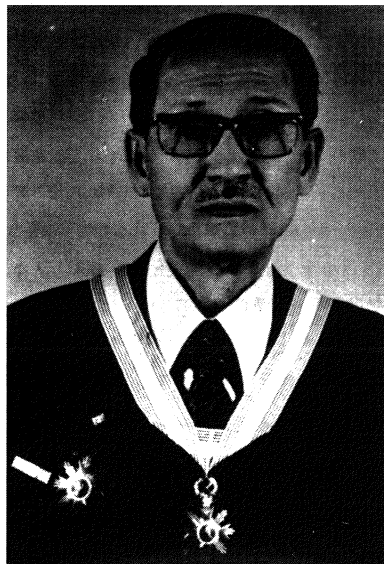
〈사진 12-88〉 器皿折枝

완숙된 文人畵의 세계를 펼치지 못한 채, 서리맞은 뒤 푸른 소나무의 孤節과 달빛속 솔바람 소리의 清雅함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으니 그가 남긴 글(사진 12-88) 속에서나 그를 기억하리라.

爲警迷塵夢古鍾亦在床
玉錚珠顆碧山味不尋常

옥그릇의 구슬같은 과일은 山中의 맛이 심상치 않고,
昏迷한 塵世의 꿈을 깨우치기 위하여 낡은 鍾도 또한 바닥에 있네.

4. 徐東均 (1902~1978)



〈사진 12-89〉 서 동 균

대구가 낳은 한국 서화계의 大家, 竹僮 徐東均(사진 12-89)은 1902년 음력 2월 17일 대구 향촌동(당시 먹당골목)에서 徐基奭과 密陽朴氏 사이의 晩得子로 태어났다. 거기에서 선친의 4형제 집안의 獨子였으니 집안 사랑은 한 몸에 받고 자랐다. 까다로운 성격과 식성은 이같은 유아기의 성장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그의 평생의 생활태도와 예술정립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5세가 되던 1907년에 들어 그의 조부 徐溶默으로부터 한문과 서예를 배웠으며 당시 유명한 서예가였던 八下 徐錫止에게서 서예를 배우고 또 영향을 많이 받았다. 13세 때 모친의 병환이 위독해지자 집안 사람들이 주선하여 여섯살 연상인 金海金氏를 맞아 결혼을 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巨儒였던 金晩翠를 獨師丈으로 모시고 한학에 전념하였다. 15세가 되어 海星普通學校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공부하였는데 이 해 장남 有燮을 얻었고 모친이 손자를 업고 학교에 나타나면 “아이가 아이를 낳았다”고 놀리는 친구들의 놀림에 부끄러워 도망치곤 하였다 한다.

竹僮 생전의 말에 의하면 공부에는 한술 李孝祥이 뛰어났고 圖畵와 習字에는 자신을 따를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해성학교 졸업반이었던 竹僮은 1919년 3·1운동 때 대구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잠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그 다음 해 그는 평생을 서화의 길을 걷도록 한 石齊 徐丙五를 만나게 된다. 18세인 1920년의 일이었다.

石齊가 안동에서 열린 백일장 試官으로 참석하던 길에 친구인 의성군수 孫海震의 관사에 들렀다가 竹僮의 글씨를 보게 되었다. 대구에 돌아온 石齊는 하인을 보내 竹僮을 데려오도록 했다. 글씨 1장, 그림 4장을 쓰고 그리게 한 뒤 “글을 함부로 내어서는 안된다”고 꾸중부터 해 놓고 수년간 공부한 雲岡 裴孝源보다 낫다고 재주를 인정하고 칭찬까지 해 주었다. 그리고 顏眞卿 筆帖인 雙鶴銘을 주면서 이것을 백 번 쓰면 글자보는 눈이 뜨이고 천번 쓰면 잘 쓰게 되고 만 번 쓰면 명필 소리를 듣게 될 것이

라 말했다. 竹儂은 명필 소리를 듣기 위해 하루 2, 3번씩 써서 5년에 5천번을 썼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竹儂은 石齊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門下에서 서화를 공부하게 되었다. 붓(대)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竹農의 號도 石齊로부터 받았다.

1921년 일본으로 건너가 中村不折, 橋本關雪 등에게 東洋畵 수업을 받았으나 부모의 간청으로 귀국하고 말았다. 石齊가 창설한 교남서화연구회에 들어가 본격적인 서화의 기량을 닦았다.

20세 되던 1922년에 「선전」에 처음 입선하고 그 뒤 연 8회에 걸쳐 입·특선하였다. 계속 石齊의 門下를 출입하여 石齊의 직접적인 가르침보다 스스로 체득해 石齊의 筆法을 익혀 나갔다.

1925년 진주에서 開城人 又淸 黃成河와 합동전을 가졌고 밀양, 의령, 온양, 안동, 공주, 전주, 대구, 부산 등지에서 평생 25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1929년 한 해를 의령에 있다가 1930년 일본 미술인 그룹인 「경북미술협회」에 대항하여 서동진, 박명조, 최하수 등과 「郷土會」를 조직하는 데 동참하였다.

1935년 엄하였지만 존경하였던 스승 石齊가 세상을 떠났다. 石齊가 임종시 “내가 죽거든 棺上銘旌은 꼭 네가 써라.”는 유언으로 竹儂을 후계자로 인정하였다.

13세의 어린 나이로 本意아닌 결혼을 하여 부부의 정을 잊은 채 서예에 더욱 몰두하게 된 竹儂에게 스승의 죽음은 슬픔과 함께 스승의 예술을 이어야 한다는 비장한 결심마저 갖게 했다.

장남 有燮이 20세가 되기 전 공부하러 일본으로 갔고 그 뒤를 이어 차남 在燮도 일본으로 갔다. 아들을 걱정하던 아내도 막내 宗燮를 데리고 일본으로 갔다. 竹儂도 하는 수 없이 일본으로 건너가 過本史邑과 교유하며 大阪書畵俱樂部에서 사범으로 있었다. 3년 뒤 1941년 병을 얻어 한국으로 되돌아 왔다. 병은 완쾌되었으나 다시 일본으로는 가지 않았다. 이로써 그는 처자와 어이없는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었다.

39세의 竹儂은 하늘 아래 혼자 남게 되었다.



〈사진 12-90〉

墨竹畵

아내와 더불어 자식들을 잃은 뒤
로 나는 오늘까지 고적한 생활을
하고 있다. 오직 붓과 더불어 살
고 있다. 마음이 고적한 때는 언
제나 붓을 잡는다. 평정을 되 찾
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회고
록, 매일신문 1974. 8.23)

이 글을 썼는 1974년에 10년전에 아내가
중풍으로 고생하다 죽고 아들 셋도 모두 죽었
다고 했으니 홀로 된 竹儂옆에 말없는 筆墨
만이 남은 셈이다.

조국광복과 더불어 그는 경북여자고등학교
에서 교편을 잡고 중등교원양성소에서 동양화
및 동양미술사를 강의했다. 그 뒤 경북미술협
회 창설에 참여하고 1951년부터 3년간 신명
여자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1949년에 시작된 「국전」에 서예부가 없자
그는 孫在馨과 함께 서예부 설치를 받기하여
1952년에 그 결실을 보았다. 「국전」 서예부
증설에 공헌한 그이지만 「국전」에는 참여하지
않고 재야작가로서 대구를 지키고 있었다. 그
러나 만년에 서예가로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문화훈장 대통령 正章 및 副章을 받고(1975)
같은 해에 재야작가로서 처음으로 「국전」의
초대작가로 추대됨과 동시에 심사위원으로도
위촉되어 그의 예술세계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石齊가 세상을 떠난 후 교남서화연구회를 계승했고 뒷날 종로에 영남서화원으로 개칭하여 후학들을
양성했다. 日帝時 서예교사였던 芳墨 川田雄峯은 石齊, 竹儂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니 대구에 온 것이
다행이라 했고 清香會長은 붓 한 자루로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竹儂
이라 했다. 大·中·細字 등 十體에 능하고 사군자, 기명절지, 산수, 인물에 두루 능했다는 竹儂이,
남에게 배우려 하지 말고 스스로 깨달으며 노력하라던 石齊의 교훈을 傳受할 大器를 찾지 못함을 늘 안
타까워 했다.



〈사진 12-91〉 墨 蘭



〈사진 12-92〉 墨 梅 畫



〈사진 12-93〉

紫蟹黃華

제자들이 자주 體本을 요구하면 ‘네가 공부하느냐 내가 공부하느냐?’ 하면서 體本을 써 주었고 꼬치 꼬치 筆法을 물으면 ‘妙處不傳’이라 했다. 흔히들 竹儂은 올바른 제자를 기르지 못했다고 하지만 배우는 사람들이 竹儂의 가르침을 이해못해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이다.

1968년 장녀 玉珍을 잃고 천주교에 입교하여 영세를 받았으며 계산성당내 계산석예원을 열었다. 이 해에 ‘붓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竹儂을 ‘내가

바로 대나무가 되어 버렸다’는 竹儂으로 雅號를 바꾸었다. 1946년 44세 때 孫氏夫人을 後妻로 맞아 根變을 낳아 모두 四男二女를 얻었으나 현재는 四男 根變과 二女 慶珍만 남아 있다.

1978년 5월 24일 오전 4시 자택에서 눈을 감은 竹儂은 四君子의 대가로서 近代 韓國文人畫의 終焉이었다. 생전에 竹儂은 畫家보다는 書藝家로 불리어지기를 좋아했다. 사실 竹儂의 예술적 경지와 그 가치는 四君子에서 찾아진다.

‘意志를 수련하고 美意識을 養成하고 정서를 함양하는 心畫’가 四君子라고 한 竹儂은 文人畫의 표현을 神氣에 두었다. 그것은 形似나 寫實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四君子論을 펴고 있다(「목요탐방」, 매일신문, 1972, 8.17)

四君子는 미끈하게 보기 좋대서 잘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俗氣를 벗어나야 한다. 低俗해서는 四君子가 아니다. 俗氣를 벗어 고상하고 筆力이 생동하고 韻致가 흘러야 잘된 四君子이다. 四君子는 글씨와 같이 作家의 고상한 품위나 人格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옹대, 중후하고 심원한 중국의 대륙적인 氣風을 동경하였는데 이는 石齊의 畫風을 통해 경험한 것이며 그 뒤로도 조선적인 표현양식과 기법보다는 중국大家의 畫帖에 관심을 두고 自己 체질화 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같은 竹儂의 태도는 그의 四君子 곳곳에서 나타난다. 竹儂을 대표하고 작품 숫자에서도 가장 많은 墨竹畫〈사진 12-90〉에서 淸의 鄭板橋의 영향이 짙으며 墨 蘭〈사진 12-91〉의 경우에도 중국의 吳昌碩, 蒲作英의 상書筆法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怪石을 곁들인 墨梅畫〈사진 12-92〉도 吳昌碩의 특징과 다르지 않다. 菊花〈사진 12-93〉의 잎은 吳昌碩과 石齊의 形態와 같다.

여기서 竹儂과 肯石과 石齊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石齊는 文人의 풍류에 따른 餘技로서 자유분방하고 흥중을 토로하는 힘의 표현이 특징적이며 外方向

의 雄渾한 활달한 氣가 넘쳐 있다. 이것에 비해 竹僊은 보다 전문적인 화가로서의 기질을 보인다. 즉 치밀한 구도와 內方向으로 함축된 造形美를 보여 잘 정리된 端雅한 화면이 특색이다. 肯石은 이들의 중간쯤에 해당되는 세계를 보인다. 四君子에 있어 힘이나 멋의 과시나 대담함과 치밀성이 아니라 剛直하고 儉素한 文人의 세계를 열어 보인다. 이것은 그림보다 畫題가 우수하고 우선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竹僊의 文人畫는 첫째 전통적인 정신과 石齊로부터의 書畫修業 및 계승 둘째 氣質과 生活環境에 따른 我執으로 石齊와 清末의 文人畫 畫風을 固執, 셋째 文人畫의 神氣를 철저히 추구했다는 점에서 그의 예술세계와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

第6節 體育・스포츠

大邱市史(體育, 스포츠편)에 이어 資料編을 꾸리면서 한결 같이 크게 느끼는 바는, 그동안 우리는 역사적 흔적의 중요성을 잊고 너무나 소홀했다는 후회와 아쉬움이다. 그래도 이정도의 내용이라도 꾸릴 수 있었던데는 경상북도 체육회의 《慶北體育》제2권과 제3권 그리고 제4권의 책자와 대구매일신문사의 유승환기자 (향토체육의 脈)의 노고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리고 특히 생활체육에 관한 많은 자료를 입수, 제공해준 사회진흥과의 이영규선생에게도 고마운 정을 보낸다.

아울러 두 권의 책자 모두에게 보탬이 되었던 《韓國體育史》(서울, 靑雲出版社)의 著者, 故 羅絢成 教授님, 특히 처음서부터 끝까지 많은 관련자료의 제공과 지도조언이 크셨던, 日益 老益壯하신 은사 崔榮浩선생님에게 오늘의 영광과 보람을 함께 드린다. (1994. 1. 25 山格洞 寧茅庵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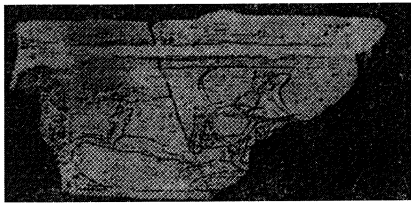
◆ 三國 및 統一新羅時代의 유희와 스포츠



舞踊塚의 狩獵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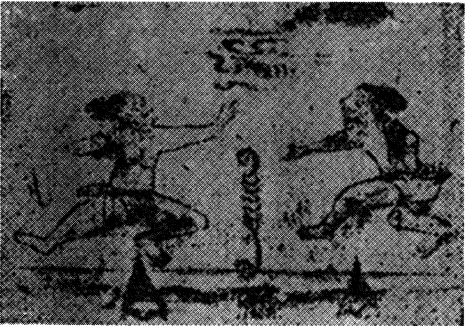
角觝塚의 角觝圖



狩獵壁塼(慶州博物館 所藏)



저포(樗蒲)의 想像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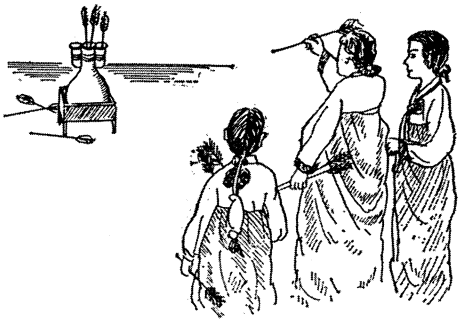
舞蹈塚의 手搏圖



舞蹈塚의 群舞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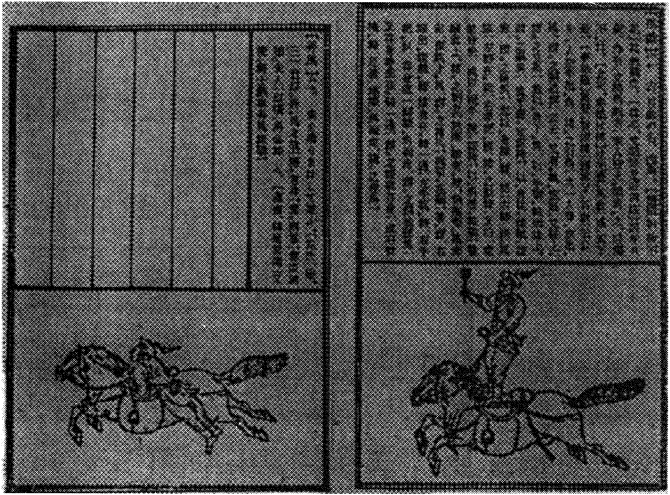


쌍 룯(雙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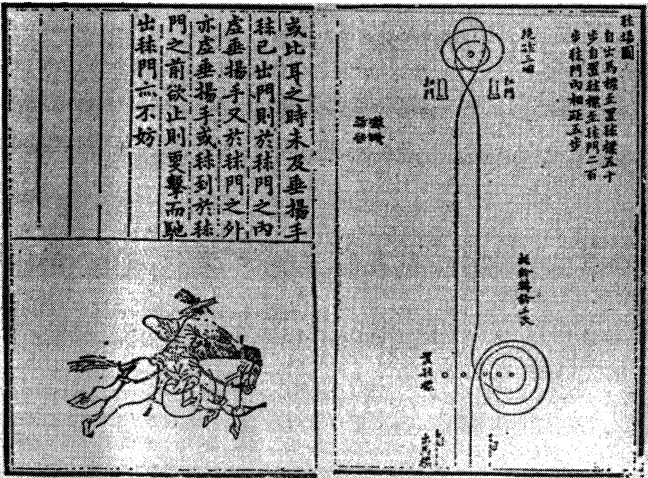


투 호(投壺)

◆ 高麗時代



馬上才
(出典:大漢和辭典, 武藝圖譜通志 參照:想像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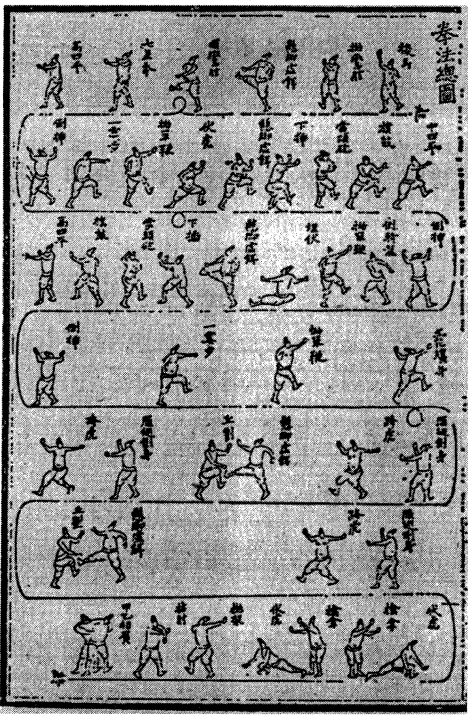


擊逐(出典:武藝圖譜通志)

◆ 朝鮮時代



皮頭槍(出典:太宗・世宗實錄 參照:想像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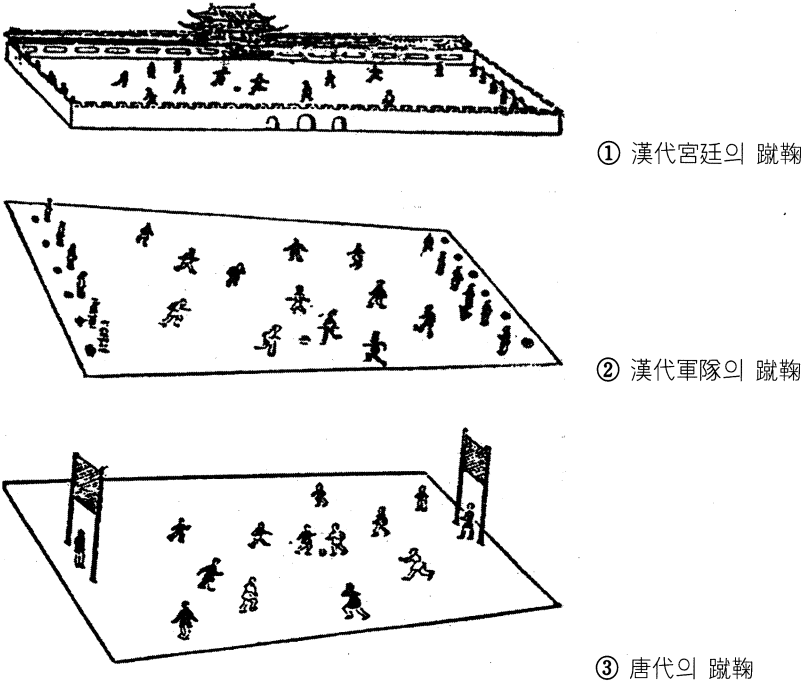


拳法(手搏)(出典:武藝圖譜通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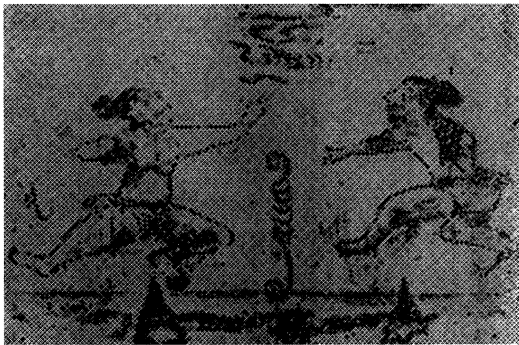
◆ 다음 鞠의 形態와 構造를 示唆하는 記錄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즉 史記 衛將軍 驃騎列傳 素隱 條에 鞠戲는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그 속을 털로 채워 만든 鞠을 차는 놀이다. (出典:汪雲程의 蹴鞠圖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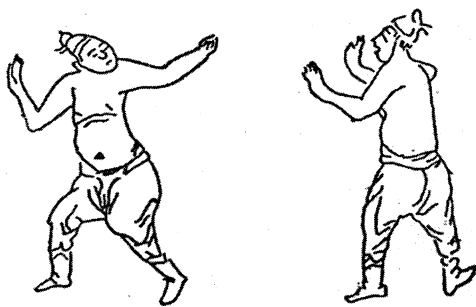
◆ 그러면 蹴鞠은 어떠한 方式의 運動이었던가?
우리 나라 文獻은 前述한 바와 같이 三國史記에 簡略한 言及이 있고 三國遺事 紀異 卷1 太宗 春秋公 條에도 庾信이 春秋公과 더불어 正月 牛忌日에 自己집(庾信) 앞에서 蹴鞠을 하다가 故意로 春秋의 裙을 밟아서 웃고름을 찢었다.



◆ 高麗時代の 武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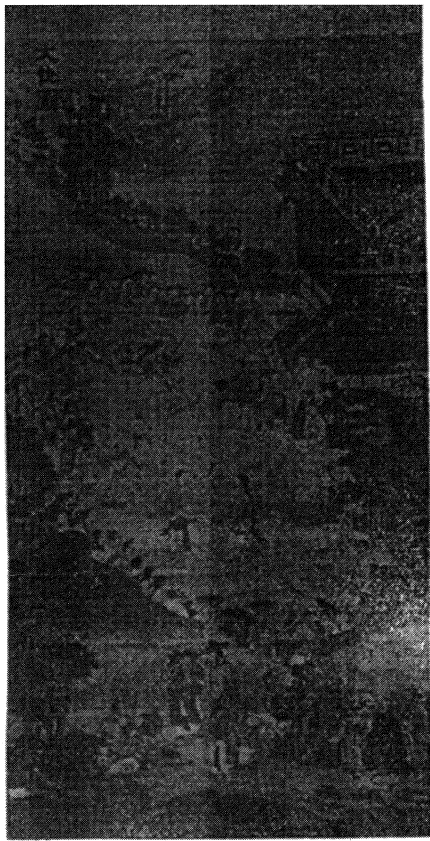


丸都에 있는 舞踊塚玄室壁畫(手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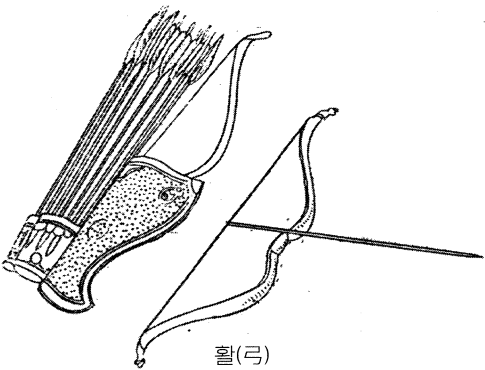
武藝圖譜通志의 拳法圖譜
(兩人對立作雁翅側身勢 跨虎勢兩手開闔左右相尋)

◆ 씨름과 托肩이 함께하는 풍속도: 오늘의 민속경기 씨름에서의 풍물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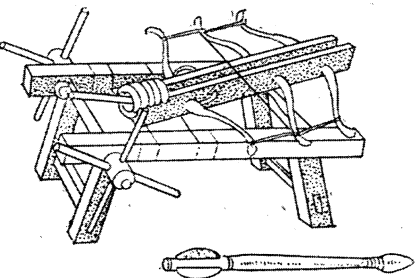


大 快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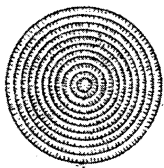
◆ 연맹왕국시대의 무기



활(弓)



노(弩)



등패(藤牌)



마석검(磨石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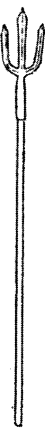
방패(防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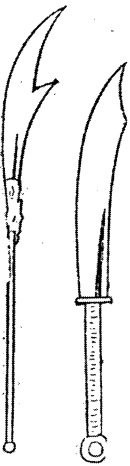
창(槍)



모(矛)



칼(刀)



(李勳鐘, 國語學習圖譜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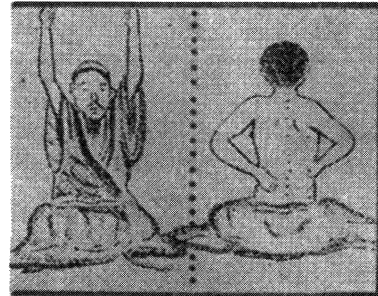
◆ 지식층의 위생사상과 의료체조

(李滉이 實施했던 活人心方)

조선의 儒學者들도 실질적인 면에서는 결코 그들의 건강 유지의 중요성을 도외시하지 않았던 것이며, 실제로 그들은 건강유지의 방법으로 室內에서도 할수 있는 신체의 동작과 마찰, 지압 등등의 방법을 혼용한 醫療體操의인 방법을 體得하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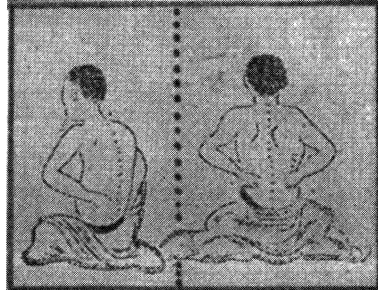
- ① 두 손으로 崑崙(머리 위)을 싸고, 雜念없이 이(齒)를 서로 맞추는 것이 36번, 또 두 손으로 天鼓(뒤통수 밑)를 24번 친다.
② 두 손을 쥐고 桂天(귀 뒤 근육)을 左右로 24번 돌린다.



- ③ 입을 다물고 혀(舌)를 옷잇몸 左右로 돌리면서 36번 비빈다. 唾液으로 양치질을 36번 한 후 그 양치질한 液體를 세 번 나누어 마치 단단한 물건을 삼키는 것처럼 神經을 모아 삼킨다.
④ 두 손으로 賢이 부착한 곳을 36번 마찰한다.(그 이상 하여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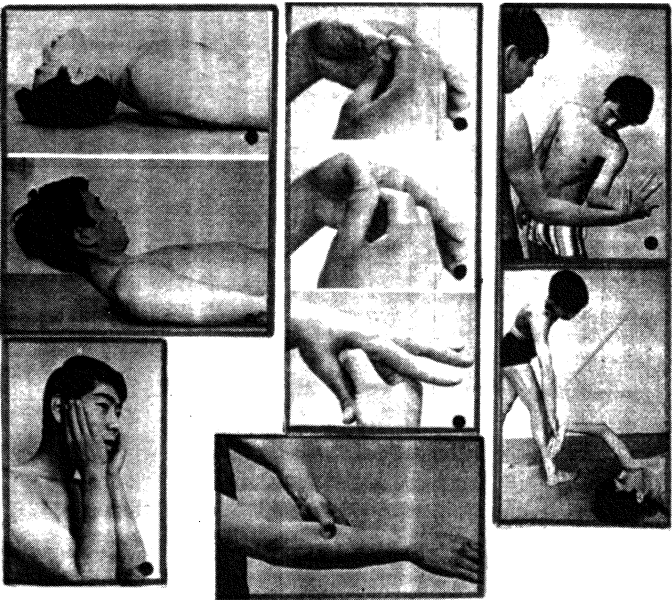
- ⑤ 左右別로 각각 關麓轡(갈빗대 옆)를 36번을 伸縮시킨다.
⑥ 두 손으로 左右를 같이 關麓轡를 36번 伸縮시킨다.



- ⑦ 두 손도 머리 위로 올려 깎지거리를 하여 숨쉬기를 5번 한후에 손을 交代로 이마를 9번 친다.
⑧ 두 손을 오그려서 두 발바닥 중심을 12번 꺾은 후 다리를 거두고 端正히 앉는다.

(出典:李滉의 活人心方圖)

◆ 지금의 의료체조 몇가지(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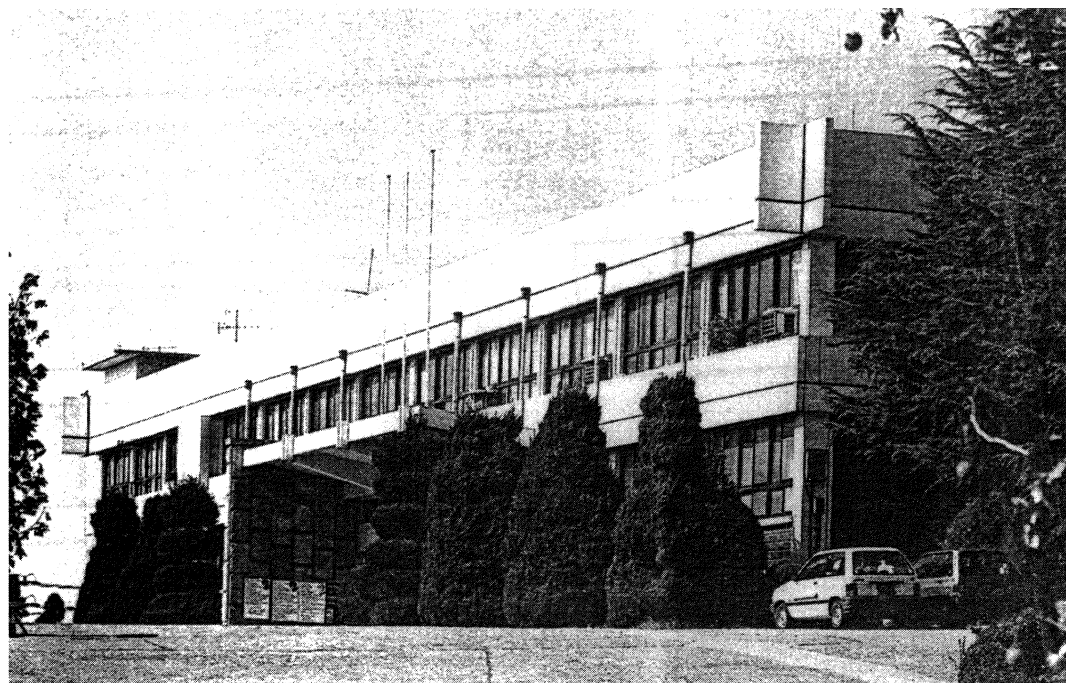
◆ 대구 1911년 축구 첫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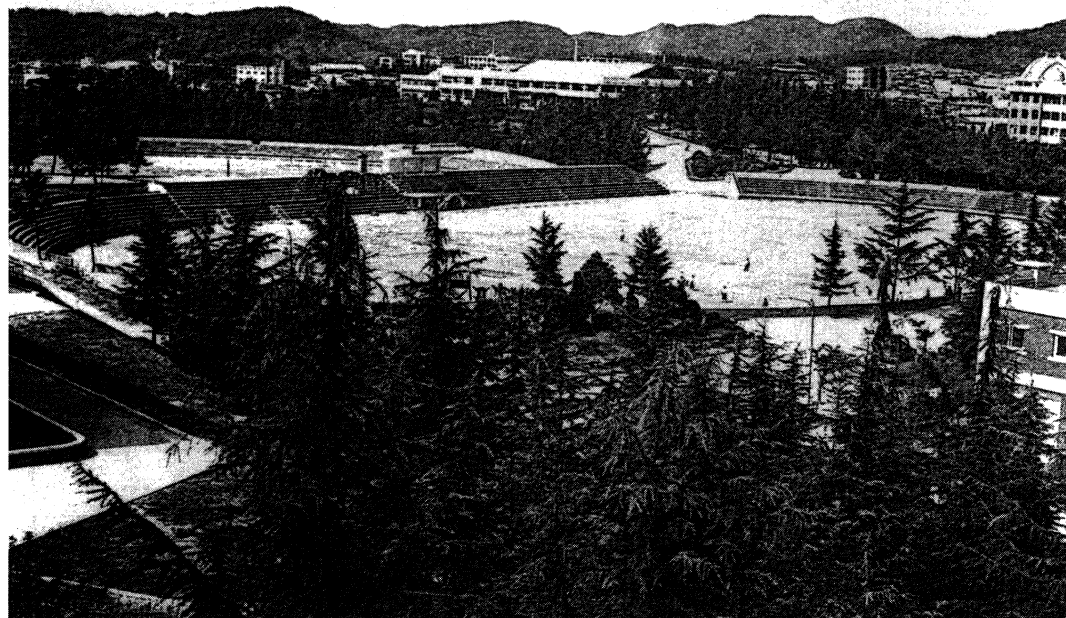
계성학교 설립자인
제임스 E 아담스
선교사



국내에 축구가 처음 소개될
무렵인 1906년 대한체육구
락부 소속 선수들이 동소문
밖 삼선평에서 망건과 조끼
를 착용한 채 축구를 하고
있다.



경북대학교 체육관



경북대학교 대운동장(축구·야구장)

◆ 옛날의 운동회



1930년대 국민학교 대운동회(경주계림국민학교)



1930년대 경주·포항 대항 경기대회(국민학교부)

◆ 오늘날의 운동회



◆ 광목으로 만든 유니폼으로 전국을 누볐던 30년대의 계성학교 축구팀



◆ 30년대들어 계성학교 축구부는 각종대회서 두각을 나타내 1차 전성기를 맞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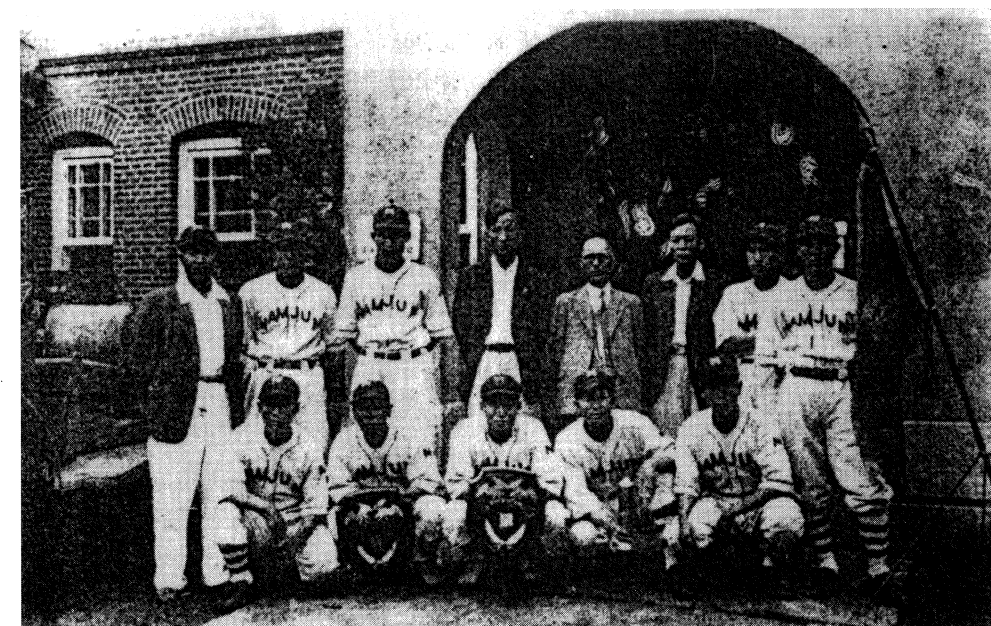
사진은 1934년 제 5회 전조선 중등부축구대회서 우승한 계성학교 축구부



◆ 1935년 신궁대회에서 출전했을때의 조용해씨.(앞줄 중앙, 공을 안고 있다)



◆ 1930년대부터 8.15 광복직후까지 향토야구를 빛내던 인물들. 앞줄 왼쪽부터 임정도, 박정표, 이종대, 윤재준씨. 뒷줄왼쪽 두번째부터 최문보, 고광적씨등의 얼굴이 보인다. (사진 및 도움말제공:임정도 경북야구협회고문)



◆ 75년 당시 무명이던 청구고가 대통령금배전국고교축구대회서 전남기계공고와 공동우승을 차지하는 공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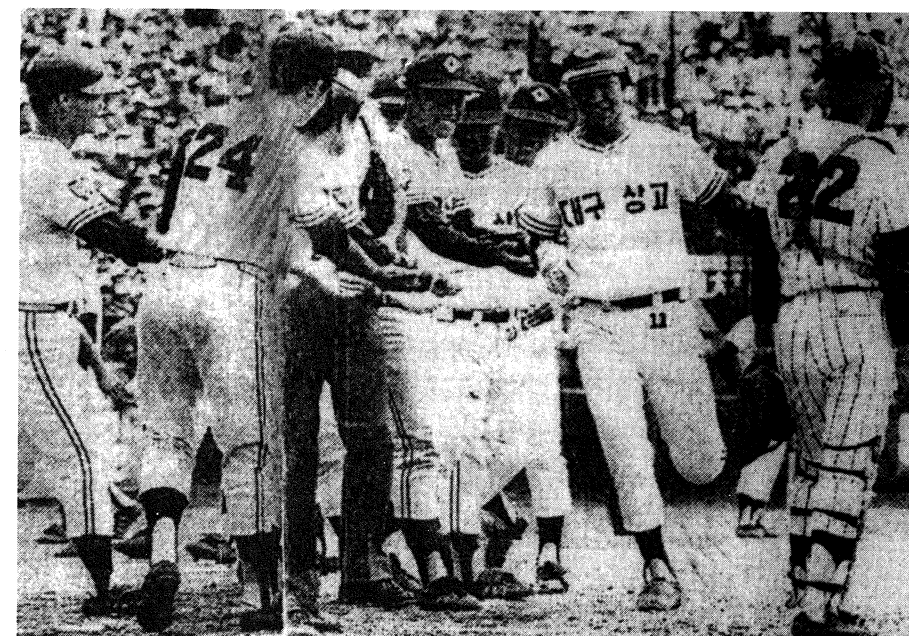
◆ 80년대 중반에도 고교축구의 맹활약은 눈부셨다.
87년 광주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대륜고교팀



◆ 79년 33회 황금사자기 대회에서 8년만에 우승을 차지한 경북고 선수들이
우승기와 트로피를 들어보이며 관중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 80년 제10회 봉황대기 준준결승전 대구상고와 세광고의 경기. 이날 고교야구
최초의 사이클히트를 기록한 대구상고 이종두가 3회초 좌월2점 홈런을 날린후
동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 第11回 大會(1936年 伯林)
孫基禎選手 마라톤에서 優勝



테오토를 뒀는
순간의 孫基禎選手

◆ 백림올림픽 마라톤에서 金메달을 획득한 孫基禎.
3位の 南昇龍選手, 가슴에는 日章旗가 그려져 나라이름은
우리 國民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우국지사이자
소설 “장록수”의
작가이며 시인인
沈熏선생의 민족의 자존심과
혼을 불러 일으킨
「그날이오면」에서의
외침은 잊을 수 없는
감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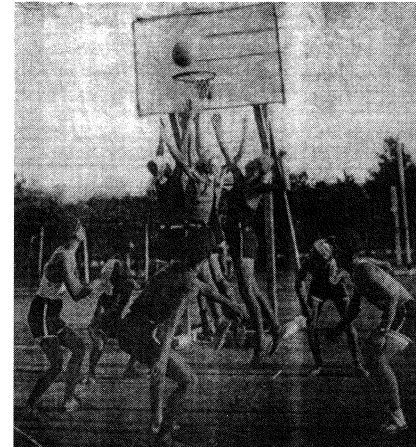
◆ 우리나라 最初の 올림픽大會
(로스안젤스)참전선수 金恩培(왼편)



◆ 로스안젤스 올림픽대회 메인 스타디움



- ◆ 1934년 대구농림학교 교정에서 펼쳐진 초창기향토농구경기. 머리에 두건을 두르거나 모자를 쓴채 경기를 하는 모습이 이채롭다.



- ◆ 50년대후반 키가 작아 난쟁이 선수 들로 불렸던 대건고 농구부원. 이용택(앞줄 왼쪽 두번째) 정수웅(뒤줄 왼쪽 두번째)등이 화려한 플레이를 펼쳤다.



- ◆ 慶尙南北의 맞수

1955년 대구.부산 농구대회에서 경남고와 친선경기를 가진 대구상고팀. 임봉건(윗줄 맨 왼쪽). 임승철(윗줄 왼쪽 네번째) 임동명(아랫줄 왼쪽 세번째)등이 활약했다.



◆ 大邱運動協會誕生

1922년 達城公園入口 朝陽會館 (구 源花女學校 本館)에서 發足함으로서 道內最初の 체육기관으로 기록되고 있다.



◆ 解放의 感격안고 「嶺南體育會再發足」1945년 8월 16일 日帝의 탄압으로 地下로 잠적한 영남체육회를 다시 세우고 當時 西門路 金聖在씨집 2층에 간판을 내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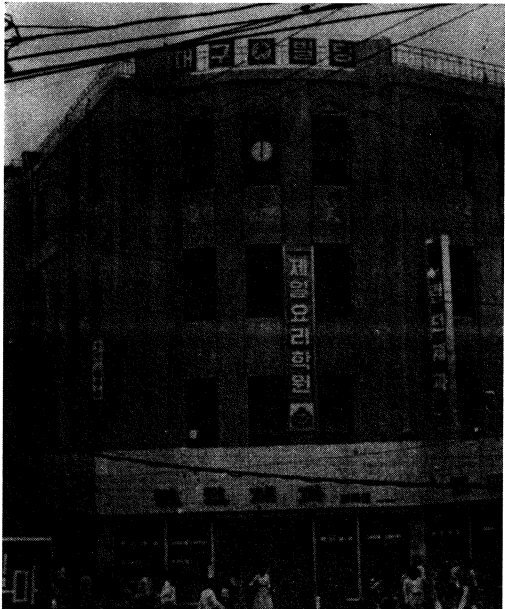
◆ 嶺南體育會創立

1935년 6월 17일 大邱市南城路 裴日佑氏가 經營하는 高等寫眞館 에서 慶北體育의 母體인 「영남체육회」를 창립했다. 이로써 향토체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 體育會事務室 移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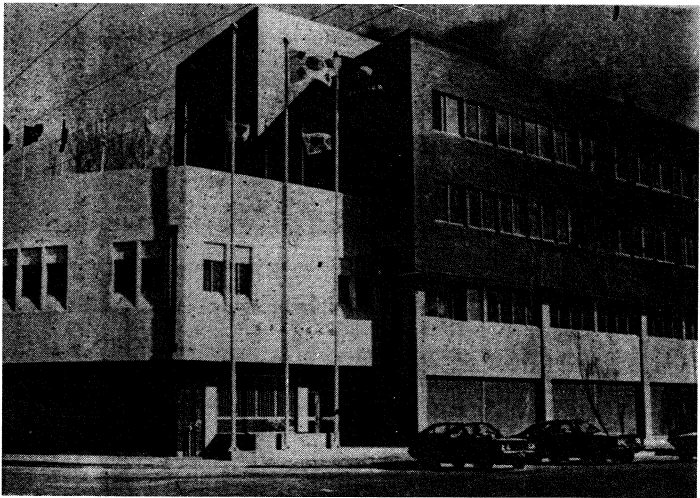
영남체육회 再發足 석달후인 45년 11월 東城路 丘山閣(현 大邱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 全國體典등 치러낸 產室 舊 公평동 체육회관
1955년 3월 16일부터 1979년 12월 12일까지
公평동 舊 체육회관에서 慶北체육회는 量과
質면에서 雄道 경북체육의 면모를 과시 體典
에서 두번 우승이라는 업적을 남겼다.



◆ 垞地 3百 50평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6百 29평으로
산하 각 경기단체를 한 곳에 입주키 위해 준공된 慶北체육회관
(1979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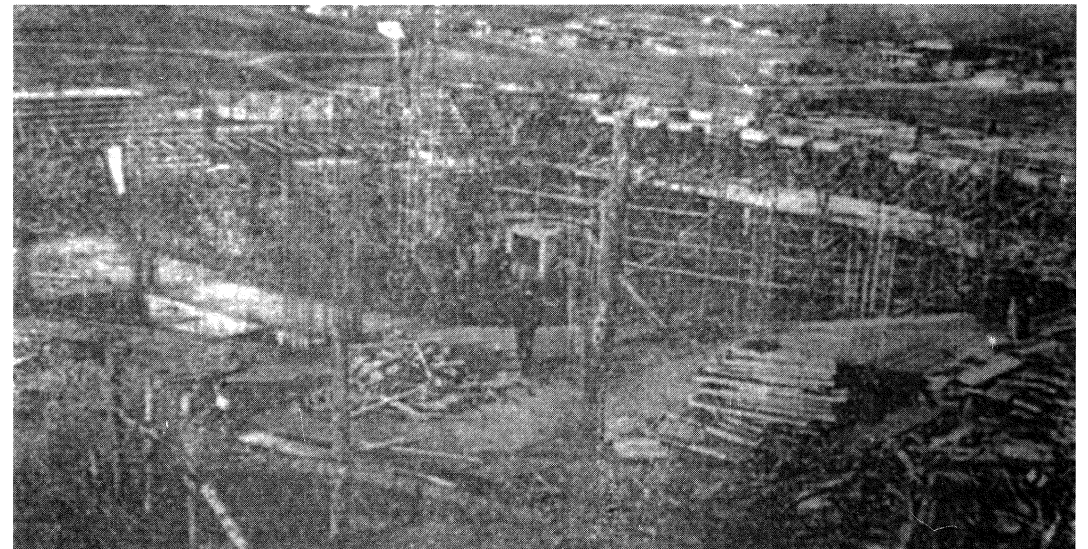
◆ 앞줄좌로부터 강사 김재근, 소장 최영호, 강사 장기일 선생, 이 세분은 모두 일본체육 전문학교 출신이다. 정해문, 곽성우, 조윤제, 여인종, 김상곤, 황돈수 선생들이 보인다. 이러한 27명의 선생들은 주로 학교교사로 근무하면서 사회체육에도 관여 향토체육.스포츠 발전에 크게 공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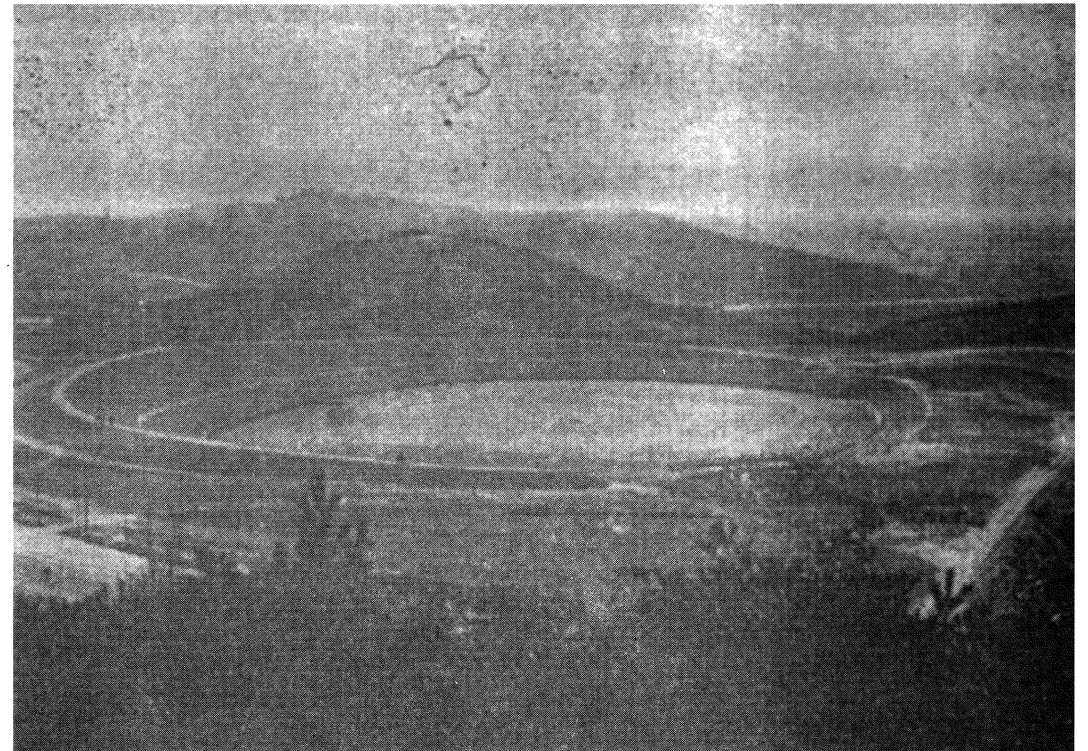
◆ 1950년대까지의 대구 종운(大邱市 綜合競技場 全景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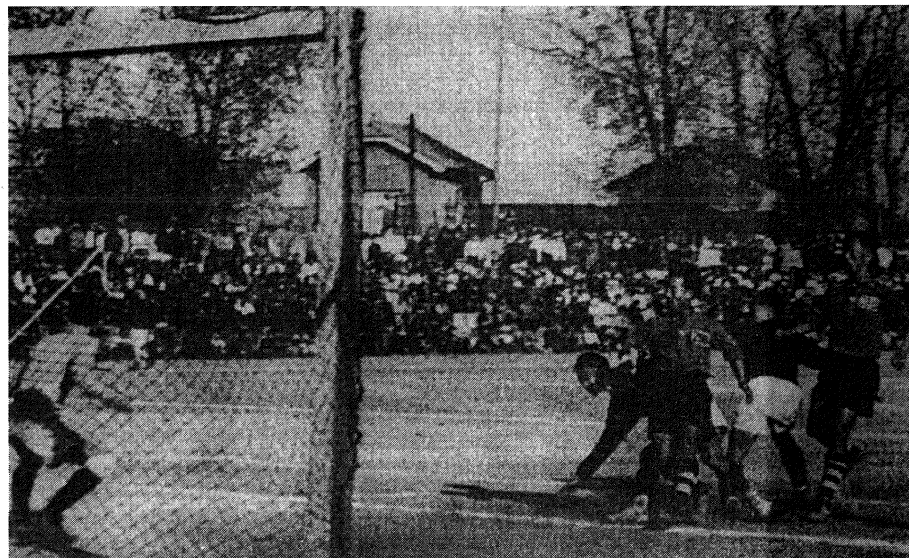
⬡ 경기장 擴充 등에 과감한 投資는 그와 비례해서 스포츠는 發展해 나간다.



⬡ 두류산 공원 젊은이의 광장(축구장)조감도



- ◆ 30년대말부터 해방전까지 대구·경북축구를 비롯해, 전체육구는 일제의 전쟁광기에 휘말려 쇠퇴 일로로 치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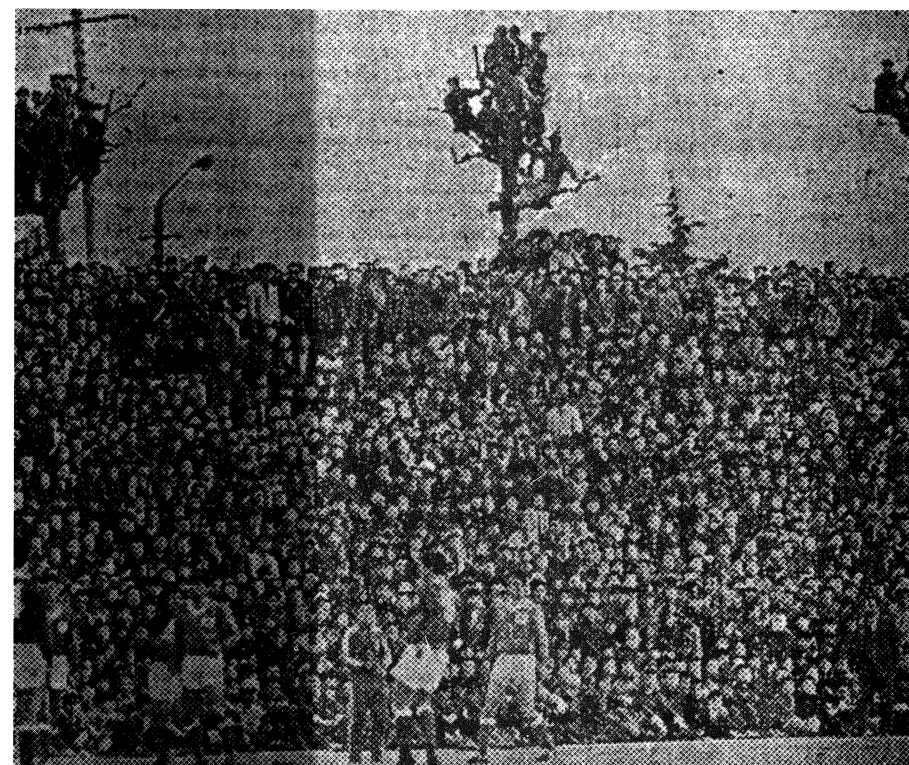
- ◆ 50년대 암흑기를 거친 후 60년대초 향토축구 재건에 일익을 담당했던 제일모직 축구부.
감독:민병대, 코치:문정식씨, 향토출신 선수:이상문, 김정수, 하재만, 이만규, 이상규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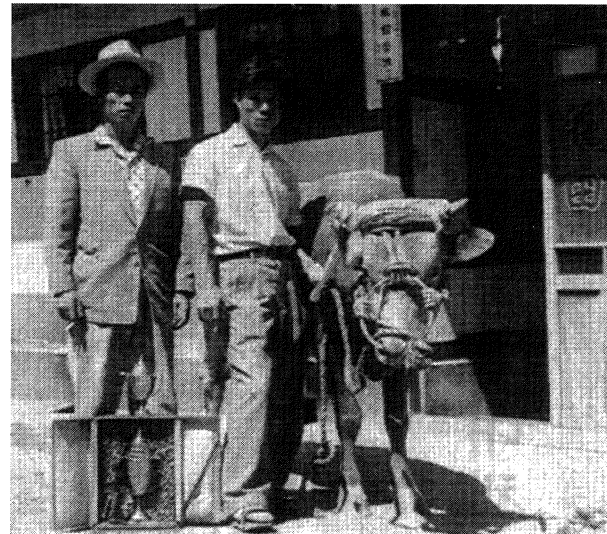
⊕ 우수선수 경리력 향상은 효율적인 훈련에서 나온다.



⊕ 대구 축구열기가 되살아난 72년, 국가대표 상비군팀과 청소년 대표팀 평가전서
당시 최대인 5만여 관중이 운집했다.



◆ 57년 8월 대전에서 열린 씨름대회에서 우승한후
부상으로 탄 황소옆에 선 고우주장사(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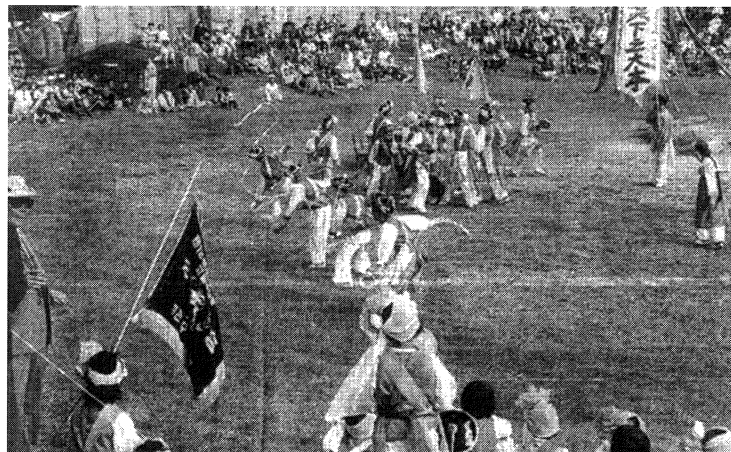
◆ 角抵(씨름)

高句麗 首都이었던 丸都 所在 角抵
塚玄室의 壁畵



◆ 지금의 경주 종합경기장(황성공원)

경주씨름의 요람으로 각광을 받았던 황성공원씨름장.
대회시작전 풍물패들의 농악. 번외경기인 여성씨름 등이 펼쳐졌다.



◆ 60년대 경주여자씨름
의 대스타 강잠숙
여장사의 최근모습.



◆ 고병간 총장, 최영호, 허복 교수의 모습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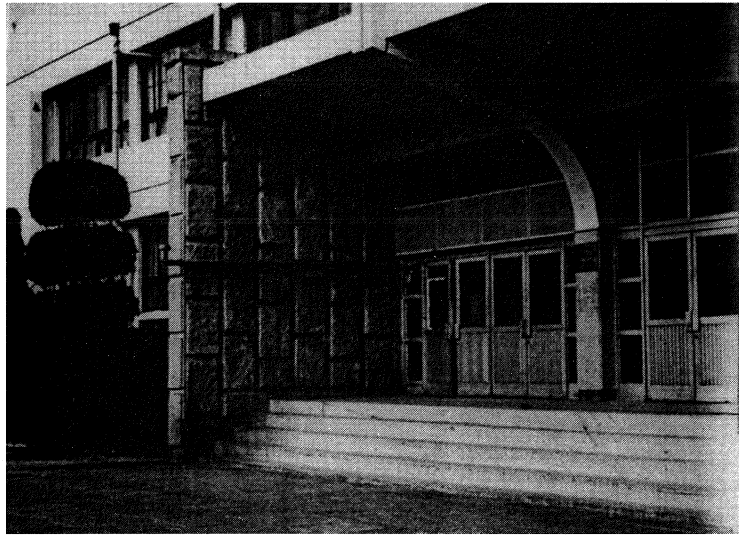
1958.11.16. 경북대학교 단과대학 대항 야구대회 우승기념(사대) 특히 뒷편의 초창기 경북대학교 대운동장 및 야구장 스탠드의 기초공사의 모양이 이채롭다.



◆ 오늘(1994년)의 경북대학교 대운동장, 육상경기, 축구, 야구장, 체육관.



◆ 경북대학교 체육관 동 체육과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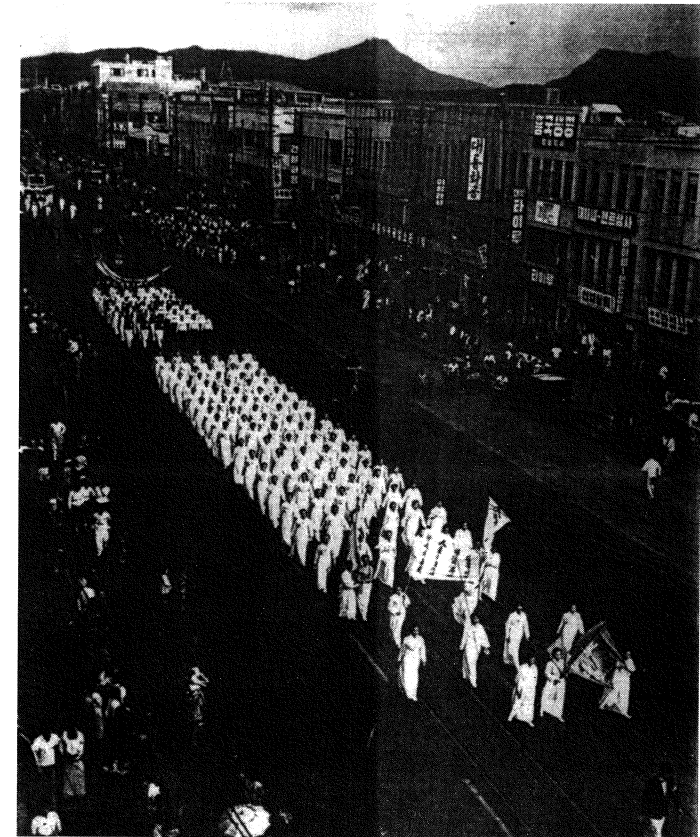


◆ 1960.1.20 대구상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 대구 여성매스게임

특히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 운동장까지 장대같은 소나기를 아랑곳 하지않고 시민들의 박수 갈채속에 행진을 계속한 일은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행진



- ◆ 최영호 교수의 발의로 시작, 김정묵 교수의 후원과 임성애 교수의 구상과 지도로 이루어졌다.
지도위원:이경인, 이영숙, 주연희 선생
30세 이상의 어머니 300명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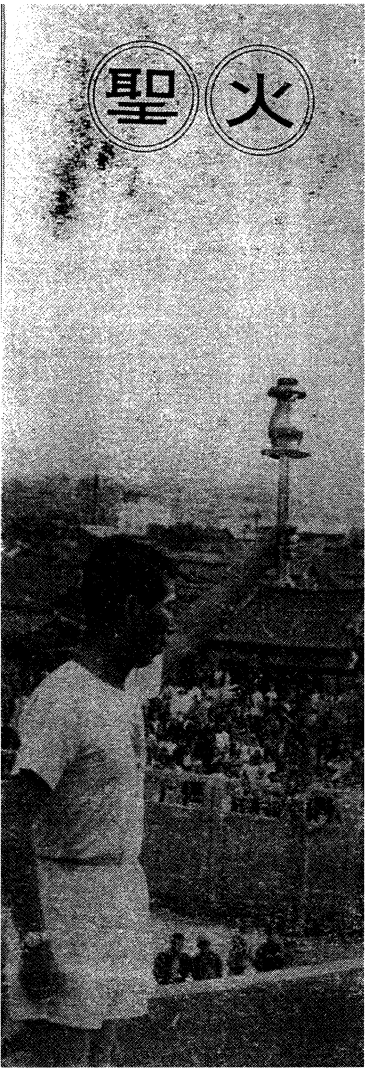


1959년도 제40회 전국체전 식전행사에서 갈채를 받았던 大邱의 모성체육회원들의 매스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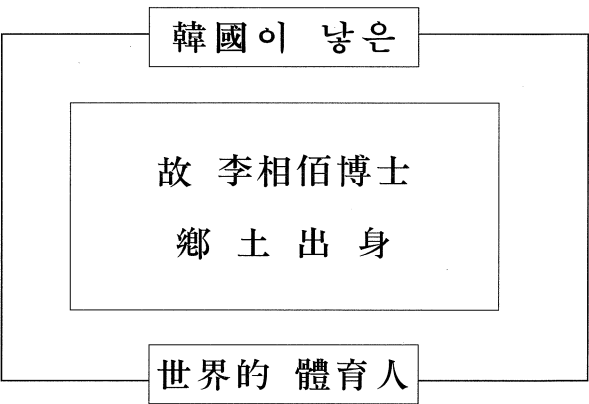


35년이 지난 오늘의 임성애 경대 명예교수의 노익장 한 모습.

- ❖ 올림픽에서 聖火라는 말은 1956년에 채용되었고 이것을 처음 채택한 대회는 1928년의 제9회 암스델담 대회였다.
또한 1936년 제11회 베를린 대회부터는 칼.담 박사의 발의로 고대올림픽의 정신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올림피아의 크코노스의 언덕에서 태양의 열로부터 점화하는 장엄한 聖火 点火式을 거행하고 이것을 여러명의 선수가 大會場까지 운반하여 대회기간 중 타오르게 하였는데 이러한 聖火 릴레이(Torch relay)는 베를린 대회가 처음이다.
- ❖ 우리나라는 전국체육대회가 국가웅창과 민족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체력을 향상 시킨다는 뜻에서, 우리 국가의 개국시조인 단군님께 맹세하고 그 강임과 조람을 비는 마음으로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을 聖地로 삼고 제37회 대회(1956년)부터 聖火奉載行事를 거행해 왔다.



노익장 하시던 고 최인호 교수의
성화대 점화 직전의 모습(1962년)
제43회(대구)전국체육대회 최종주자.
* 1963년에 별세 하셨습니다.



◆ 1903년 8월5일 대구시 서문로 2가 12번지에서 출생
(1966년 4월14일 상오 7시에 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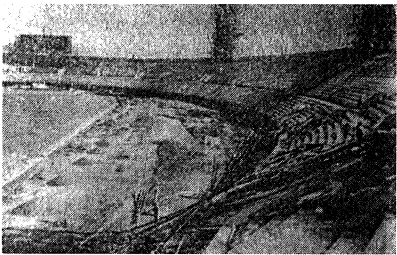
永訣式을 끝내고 大邱로의 길 —影幀을 先頭로한 葬儀行列—

◆ 시 설 명:대구시민운동장(1966.8.23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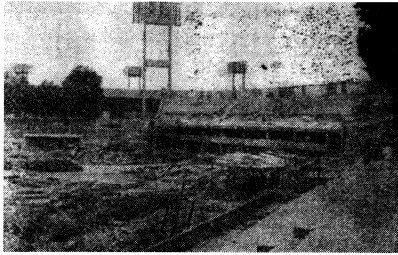
◆ 시설위치:대구직할시 북구 고성3가 2



◆ 보수중인 大邱 綜運 主競技場
(7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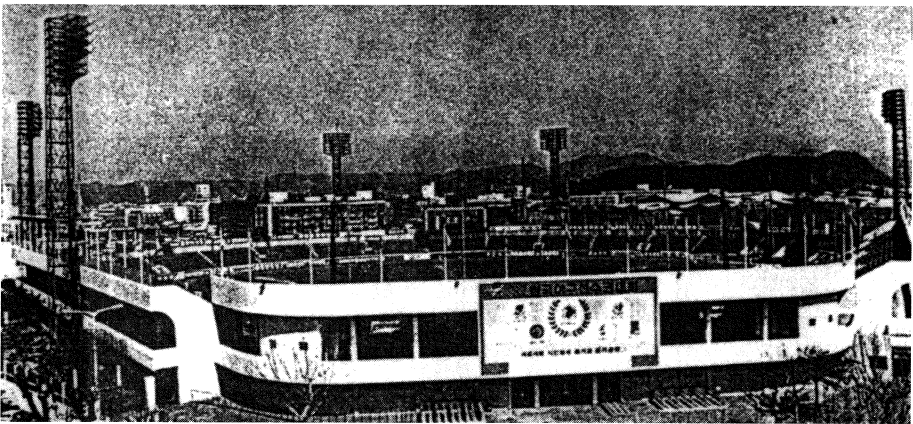


◆ 75년 第56回 體典을 위한 大邱 綜運 야구장 보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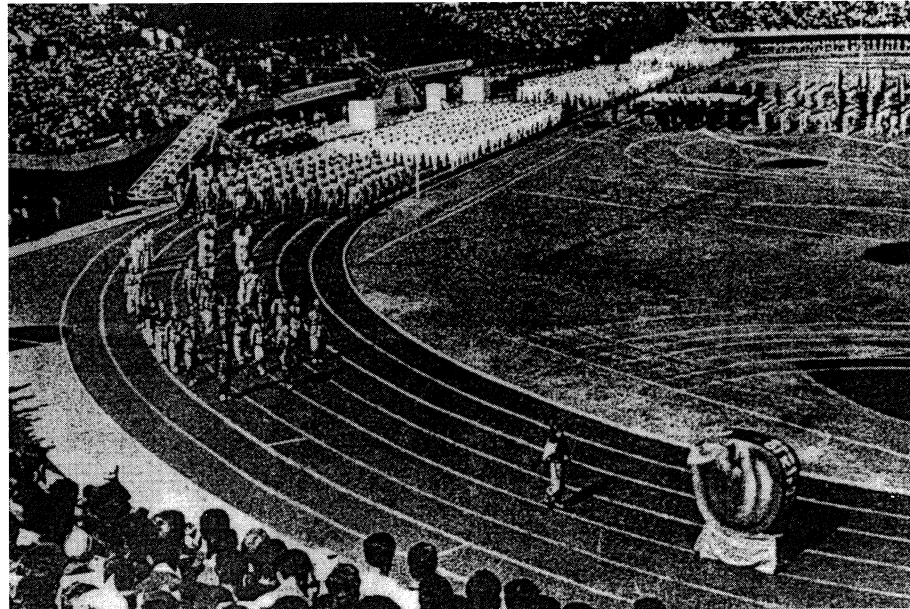
◆ 시 설 명:대구시민운동장 야구장

◆ 시설위치:대구직할시 북구 고성3가 2



◆ 第47回 全國體典

이 대회서부터 입장상 제도 실시 및 개회서 팡파르 연주, 남.여 혼성합창 처음 실시. 대한체육회가 직접 경기운영 주관, 대회표어 처음 사용(새희망, 알차게, 보다 힘차게)



第47回 全國體典慶北選手團 入場



◆ 第47回 全國體典受賞式

1966년 10월10일-15일까지(6일간)

서울개최, 1위 서울, 2위 경북, 3위 전남.

大韓體育會會長閔寬植氏로 부터 準優勝盆을 받는 慶北選手團 總監督 崔亨吉氏(1966년)

◆ 第49回 全國體育大會



凱旋퍼레이드
이 感激! 이 기쁨을 함께 ...
1968年 9月 19日
中央通을 누빈 任員 選手들의 화려한 市街
行進



優 勝 畫 報

◆ 慶北은 68년 제49회와 70년 제51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만년 우승 서울」을 당당히
누르고 종합전적 1위. 道內 모든곳은 환성의
도가니로 변했고 「慶北體育」의 향상을 증명했다.

◆ 이 대회부터 고체성화 및 대통령 임장상배 신설 스탠드 관람자 5륵기
색깔 모자로 좌석분류, 모범선수단상 실시 등이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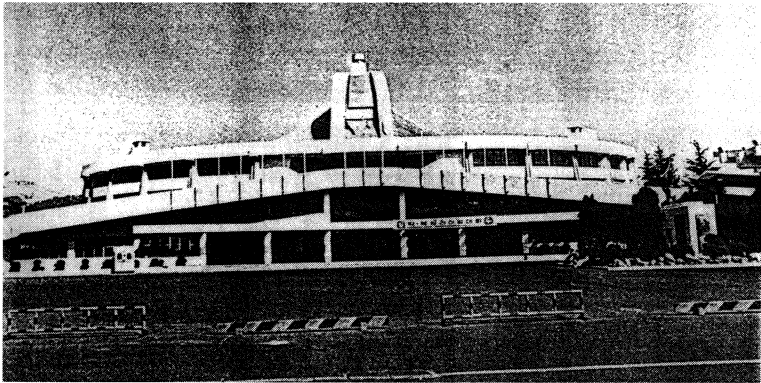
凱旋歡迎大會 잘싸웠다 體育慶北을 誘示
68年 9月 19日 歡迎大會場光景



◆ 4冠王 琴香順選手를 致賀하는 梁會長
- 歡迎大會場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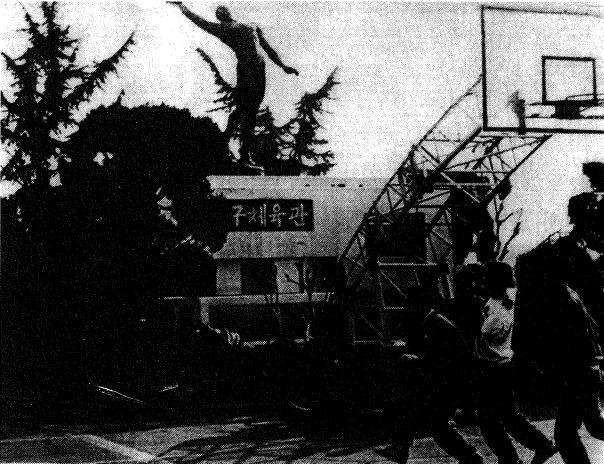
優 勝 畫 報

- ◆ 시 설 명:대구체육관
- ◆ 시설위치:대구직할시 북구 산격동 1427-1(1969년도에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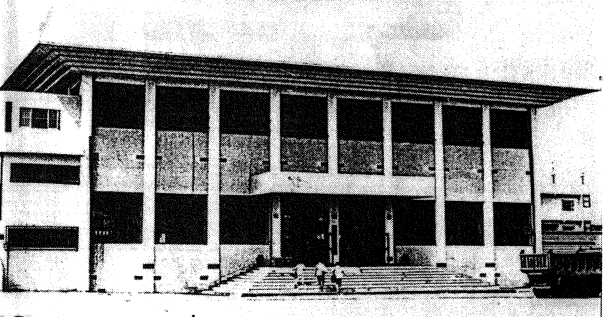


◆ 대구체육관앞 해르매스 형의 동상(배구의 스파이크 모습)—농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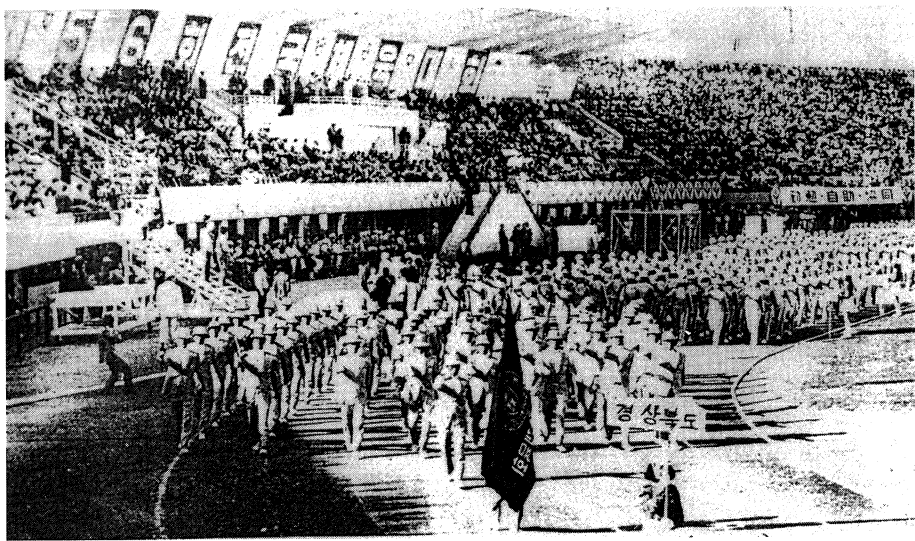
- ◆ 萬年우승 서울 깨고 榮光의 體典
- ◆ 종합 우승
(1970년 제51회 전국체전)



- ◆ 시 설 명:대구체육관 유, 검도장
- ◆ 시설위치:대구직할시 북구 산격동 1427-1



◆ 제56회 전국체전 대구서 개최(197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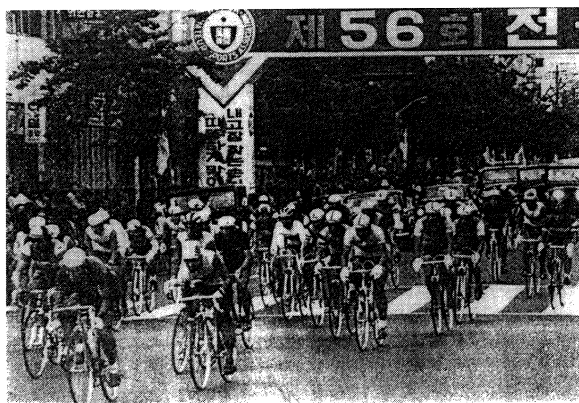


◆ 大邱에서 개최된 제56회 전국 체전에
서 慶北은 준우승을 차지했다.



종 합 2 위

◆ 1975년 전국체육대회 자전거 로드레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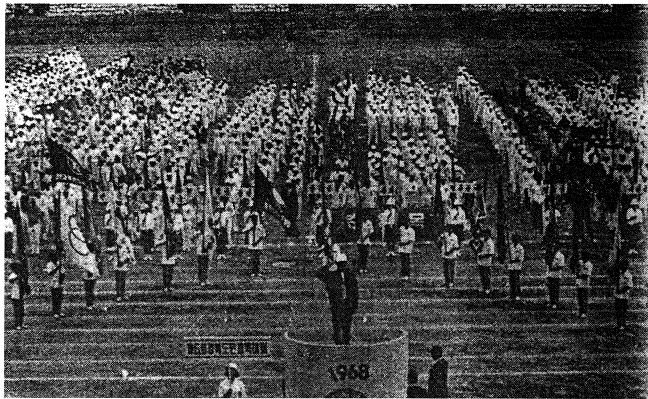
◆ 대구·경북 체육·스포츠의 저력

◆ 道民體典 畫報 (1968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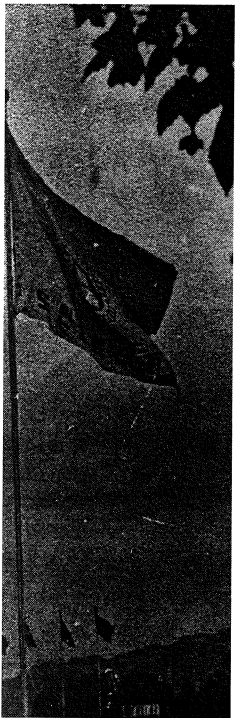


◆ 入場式

選手代表宣誓의 엄숙한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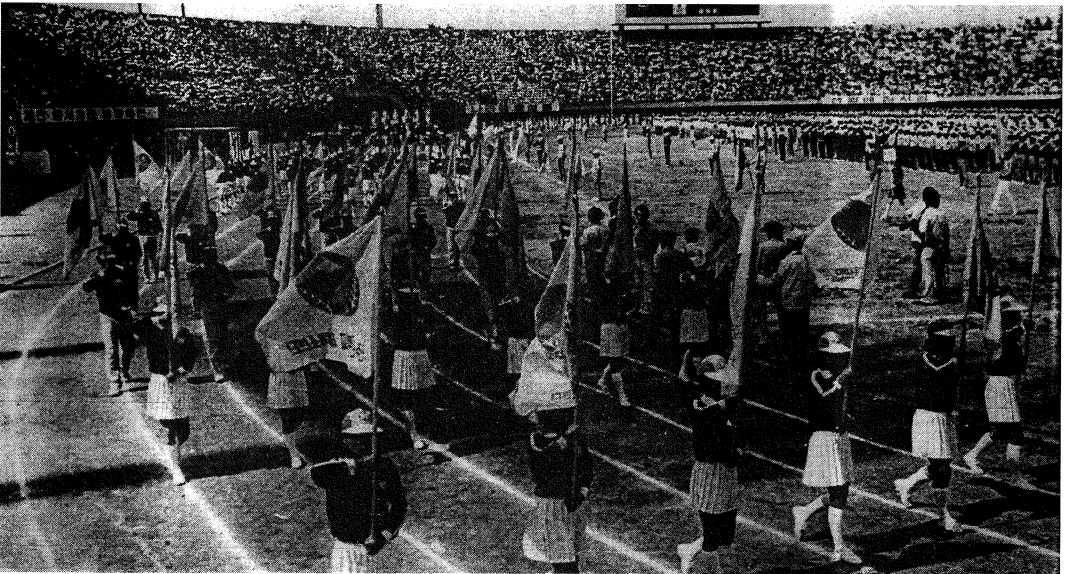


◆ 大會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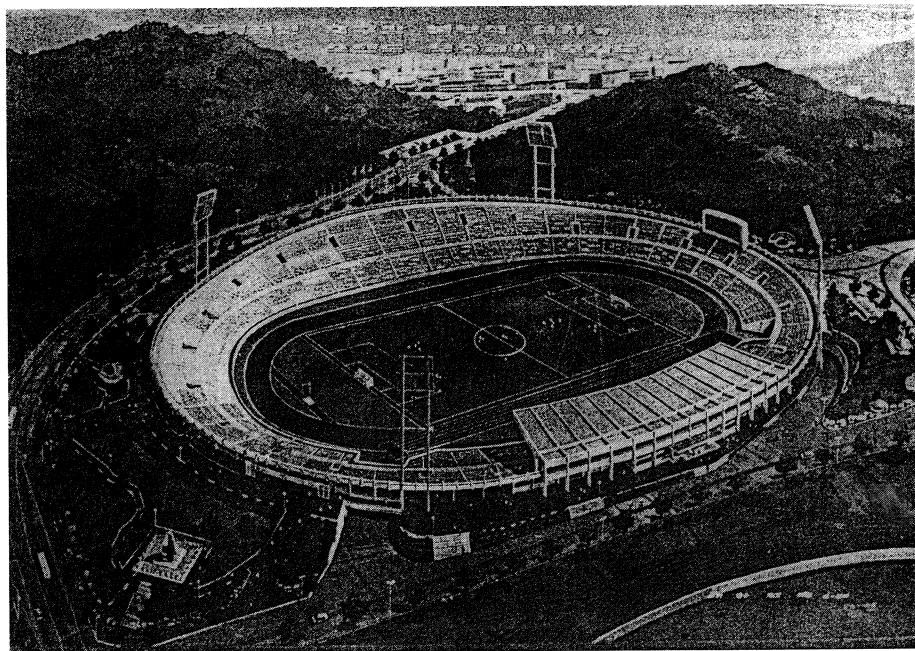


◆ 제7회 전국 소년체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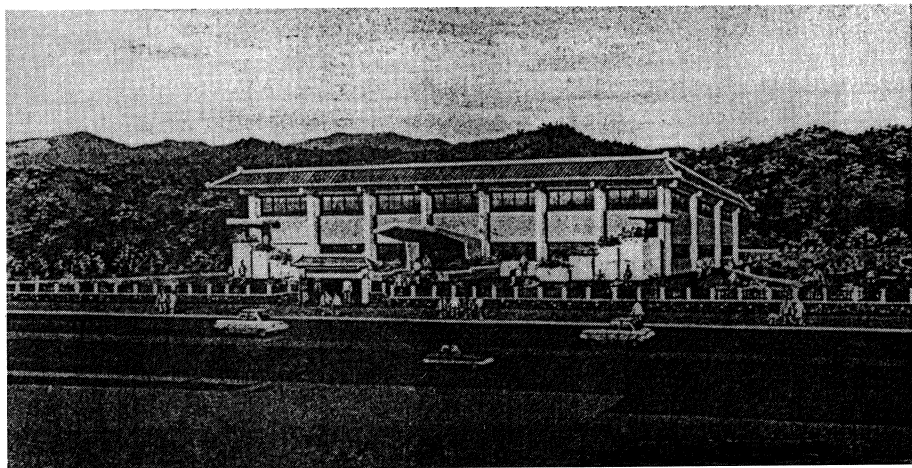
1978년 5월 27일 30일까지 열린 제7회 전국 소년체전이 大邱에서 개최됐다.



- ◆ 77년 5월 5일 개장된 두류공원 젊은이 광장
慶北은 頭流 젊은이 광장 등 야외 경기장은 그런대로 自慰할 수 있다.
- ◆ 시 설 명:두류운동장 축구장
- ◆ 시설위치:대구직할시 달서구 성당동 산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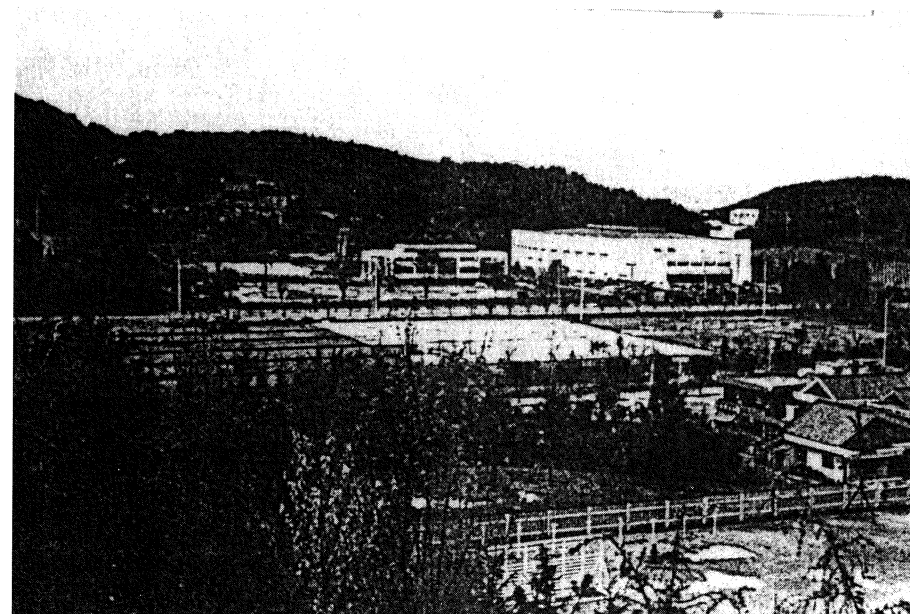


- ◆ 시 설 명:두류유도관
- ◆ 시설위치:대구직할시 달서구 성당동 1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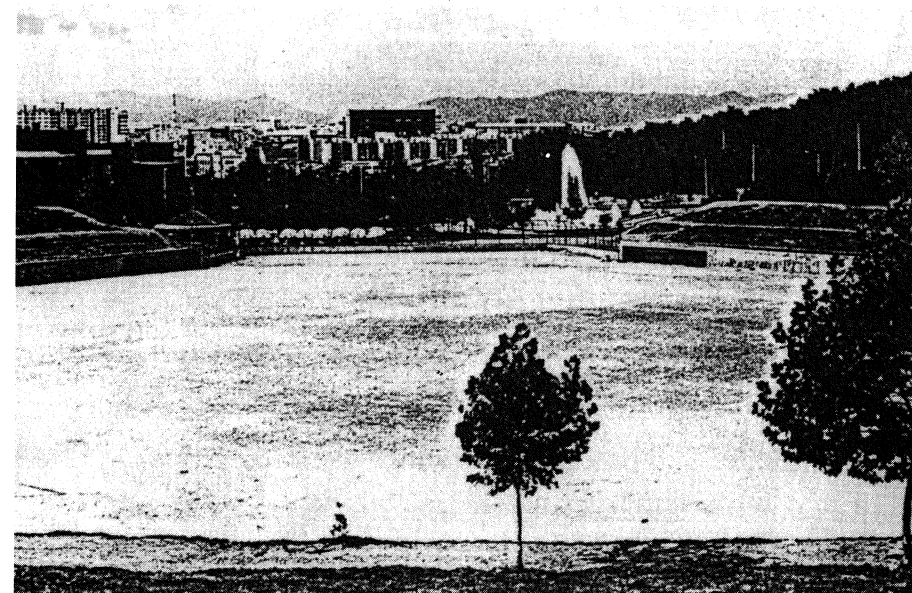
◆ 시설명:대구두류 수영장

◆ 시설위치:대구직할시 달서구 성당동 1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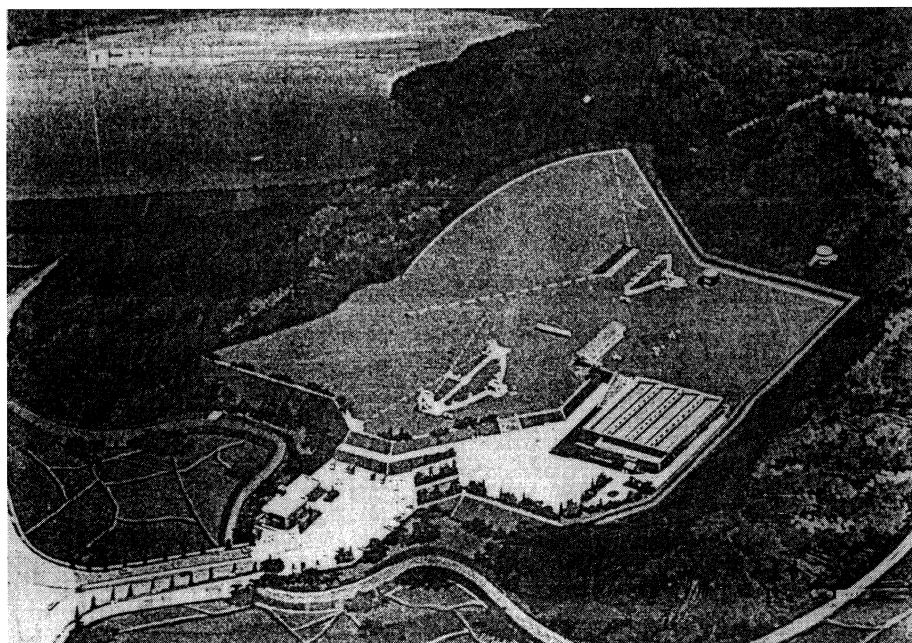
◆ 시설명:두류 야구장

◆ 시설위치:대구직할시 달서구 성당동 산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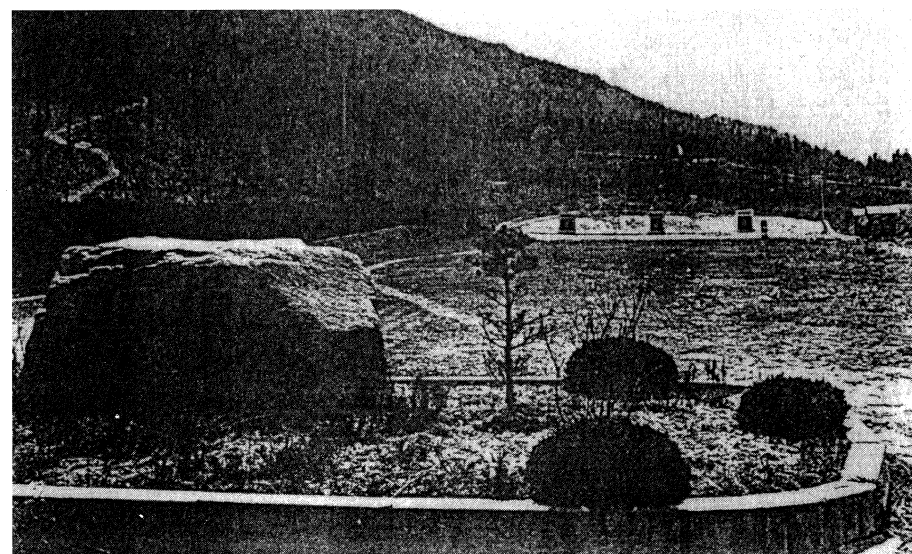
◆ 시설명:대구봉무 사격장

◆ 시설위치:대구직할시 동구 봉무동 산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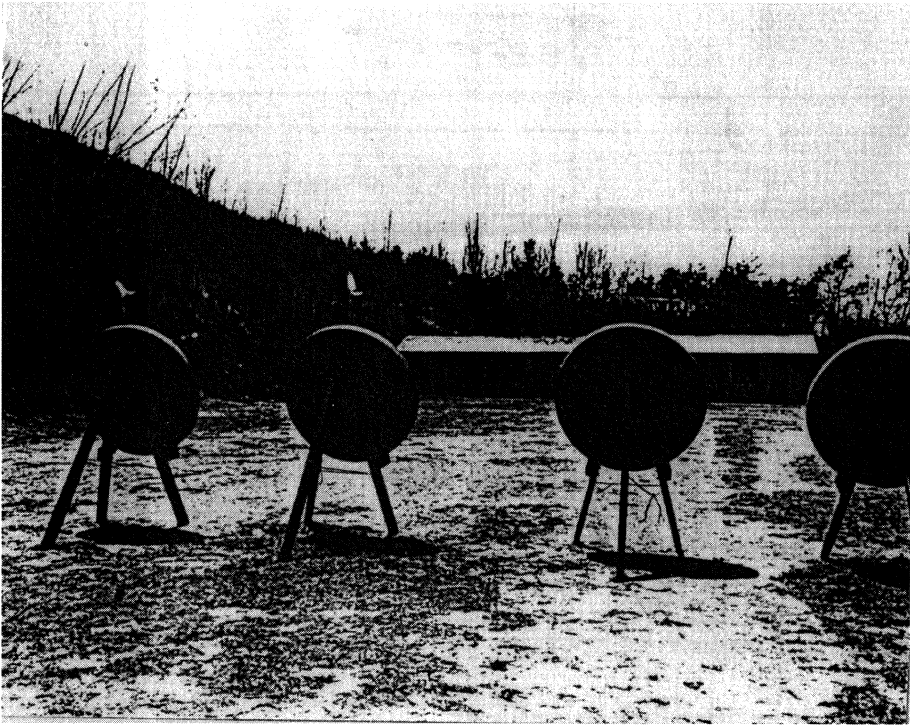
◆ 시설명:대구 국궁장

◆ 시설위치:대구직할시 남구 대명동 산305



◆ 시설명:대구 양궁장

◆ 시설위치:대구직할시 남구 대명동 산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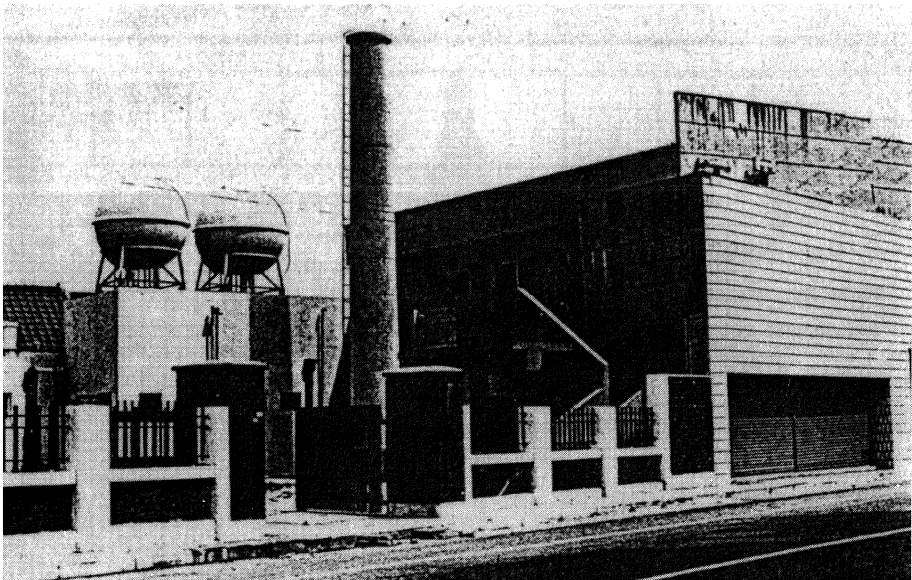


◆ 시설명:대구 승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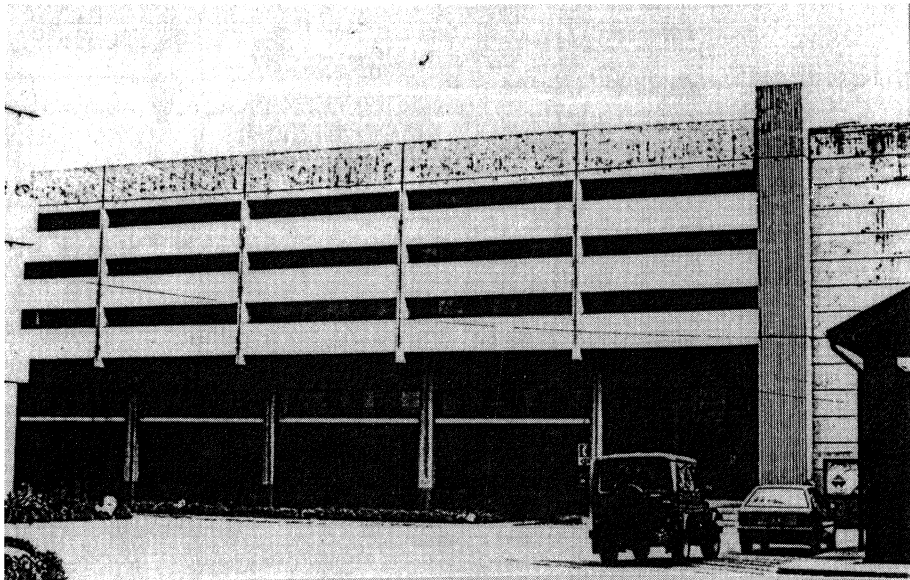
◆ 시설위치:대구직할시 남구 대명동 306



◆ 시 설 명:대구 수성 수영장
◆ 시설위치:대구직할시 수성구 수성1가 96-15



◆ 시 설 명:대구 학생 체조 체육관
◆ 시설위치:대구직할시 중구 대봉동 111



◆ 시설명:대구만촌 자전거 경기장

◆ 시설위치:대구직할시 수성구 만촌동 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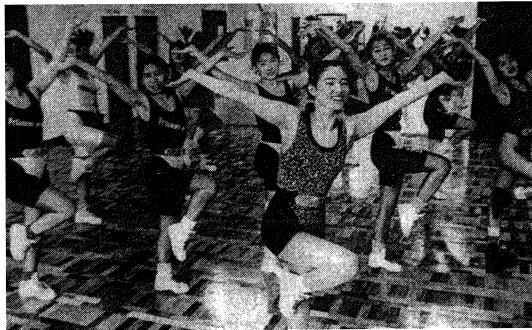
◆ 시설명:대구장애인 복지회관 체육관

◆ 시설위치:대구직할시 수성구 파동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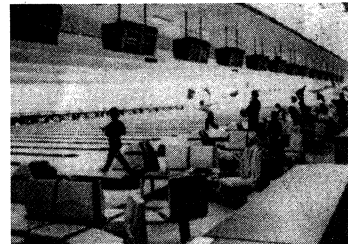
◆ 심폐기능 강화, 혈액순환촉진, 근력유지에 큰 효과를 내고 있는 에어로빅이 생활체육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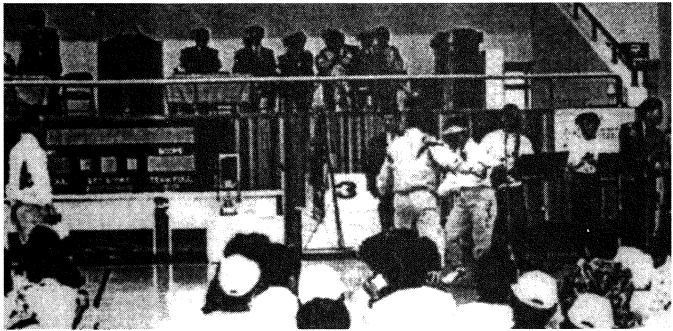
◆ 새벽건강체조로 상쾌한 아침을 여는 대구시민들



◆ 현대 볼링 프라자



◆ 범 대구시민 건강달리기대회—보는 체육에서 참여하는 체육으로



◆ 지역간 이해와 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남.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스포츠의 교류와 단일팀 구성을 성사 시키려는 정신으로.

◆ 대구직할시 생활체육협의회 주최 이웃사랑실천 한마음 시민걷기대회가 대구시민 5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5월 30일 두류축구장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 시 설 명:앞산 시민 체육 공원
◆ 시설위치:대구직할시 남구
 봉덕동 산 227-1



◆ 시 설 명:동촌유원지
 시민 체육공원
◆ 시설위치:대구직할시 동구
 효목1동 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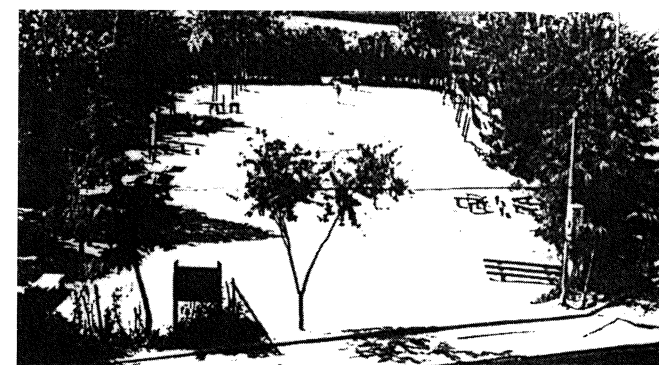


◆ 시 설 명:동대구로
 시민 체육공원
◆ 시설위치:대구직할시 동구
 신천4동 742

- ◆ 시설명: 산격 시영 아파트
체육공원
- ◆ 시설위치: 대구직할시 북구
산격2동 500-1



- ◆ 시설명: 평리 제1시민
체육공원
- ◆ 시설위치: 대구직할시 서구
평리동 1230-6



- ◆ 시설명: 매자골 시민체육공원
- ◆ 시설위치: 대구직할시 달서구
송현동 7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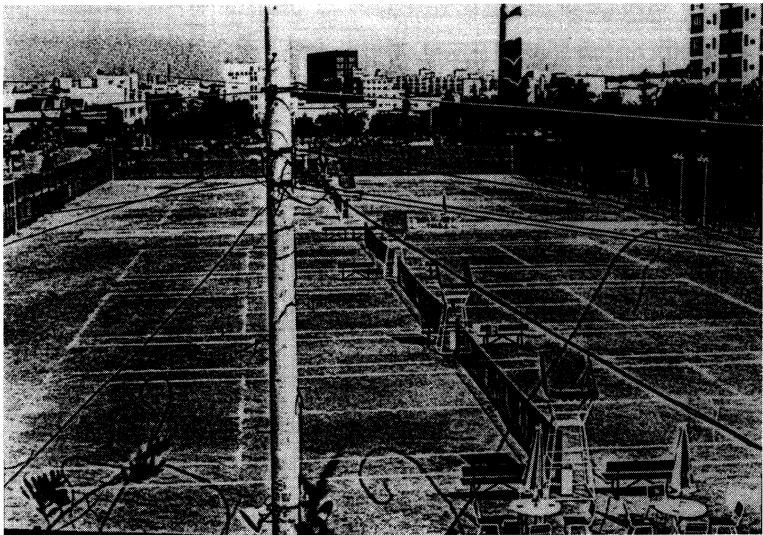
- ◆ 시설명:범어 시민체육공원
- ◆ 시설위치:대구직할시 수성구
범어동 산24-1, 산25,
산26, 산28, 산250일원



- ◆ 시설명:앞산 안지랑골
체육공원
- ◆ 시설위치:대구직할시 남구
대명9동 산222번지



- ◆ 시설명:앞산강당골 체육공원
- ◆ 시설위치:대구직할시 남구
봉덕3동 산123, 128,
127-2번지 일부



◆ 시설명:대구 감삼 테니스장
◆ 시설위치:대구직할시 서구 내당동 4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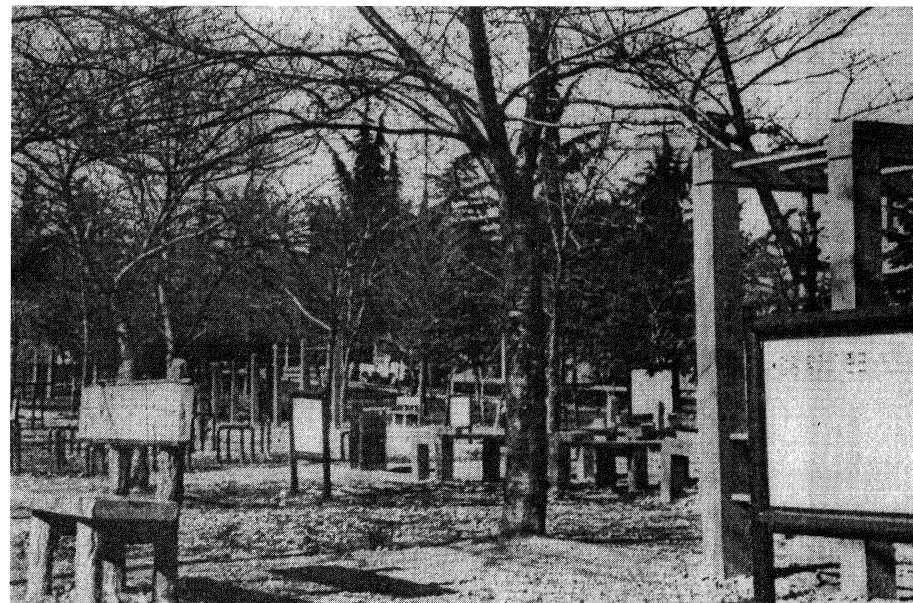
◆ 시설명:침산 시민체육공원
◆ 시설위치:대구직할시 북구 침산동 126-1, 126-2



◆ 특히 앞산 큰골 체육공원에선 새벽 5시만 되면 황수암 선생의 지도로 200명 가까운 시민들이 아침체조로 새벽을 연다.



인근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근 공원에 운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게끔 충분한 시설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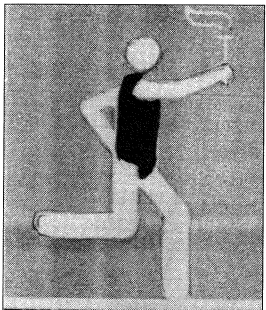


◆ 구호:알뜰체전, 화합체전, 통일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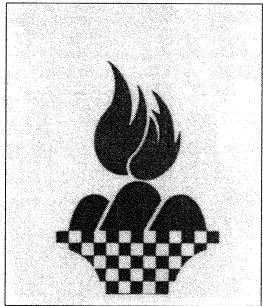


경 기			
경기장악도	69	사이클	115
대회장·경기장통신망	70	복싱	125
육상	74	레슬링	127
수영	84	역도	129
축구	90	씨름	137
야구	93	유도	139
테니스	95	검도	141
정구	98	궁도	143
농구	101	양궁	144
배구	104	사격	149
탁구	107	승마	154
핸드볼	110	체조	156
럭비풋볼	113	하키	159
		펜싱	
		배드민턴	
		태권도	
		조정	
		로울러스케이팅	
		요트	
		볼링	
		골프	
		근대5종	
		카누	
		보디빌딩	
		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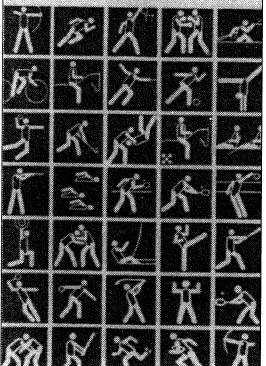
◆ 제73회전국체전
(1992년)



◆ 심벌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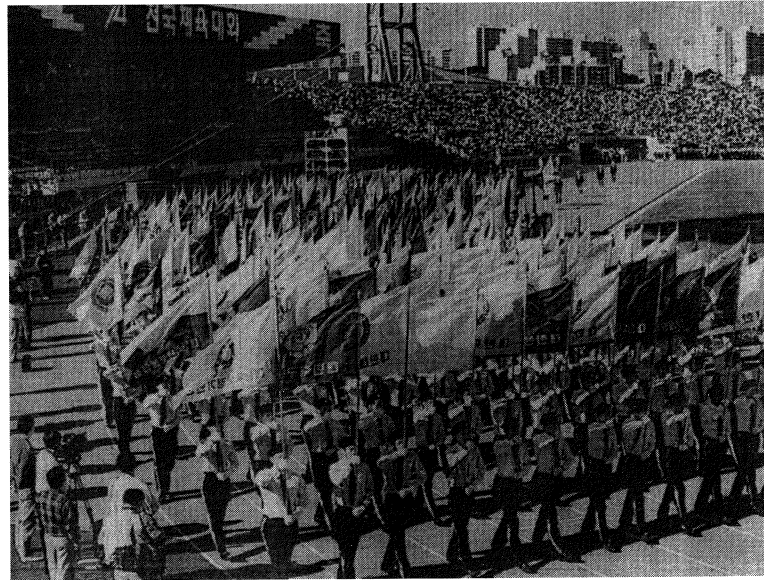


◆ 포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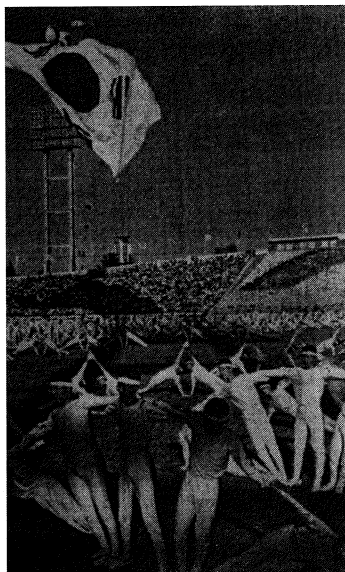
◆ 화합무대 팡파르

시.도 선수단 입장에 앞서 각 경기단체 깃발을 든 기수들이 본부석앞을 행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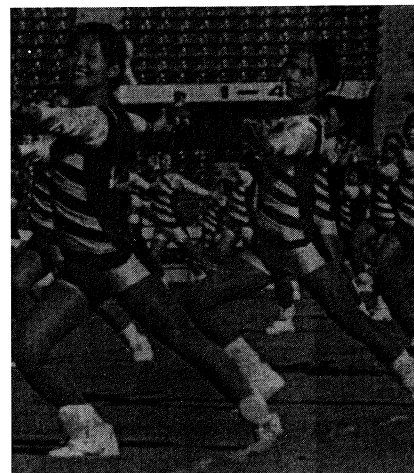
◆ 피어나는 民族의 꽃

총장.무진中 학생들이 펼치는 男中매스게임으로 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의 기상과 패기를 힘차게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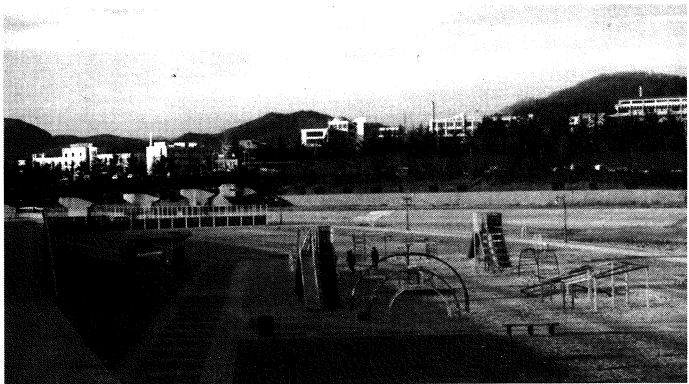


◆ 藝鄉의 향기

주부.여대생들로 구성된 생활체조. 아름다운 여성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꿈을 이루고 나라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기원하며 생활체조를 연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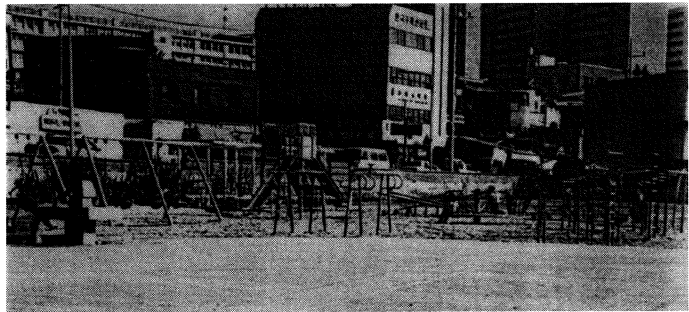
◆ 대구 신천 고수부지 체육.스포츠 시설(상동교 —————> 침산교까지)
◆ 도청앞 체육.스포츠 시설



◆ 제2신천교 —————> 동신교 사이의 시설



◆ 신성교 —————> 제2신천교 사이의 시설



◆ 도청앞 체육·스포츠시설에서의 노인들의 게이트볼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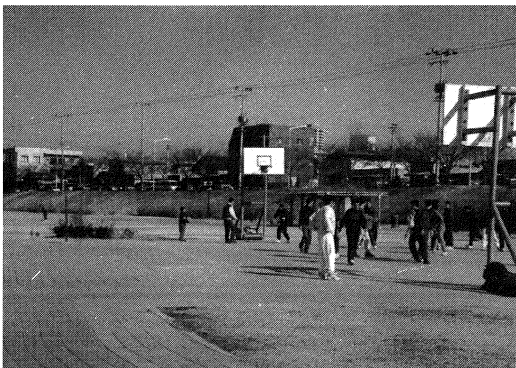
◆ 수성교 —————> 대봉교 사이의 스케이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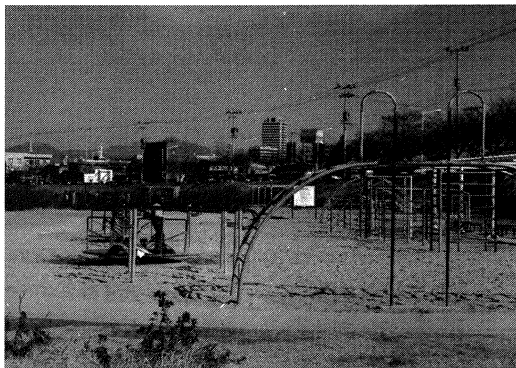
8편의 족구(세팍타크로)장, 맨손체조장

◆ 대봉교 밑의 6면의 게이트볼장이 잘 활용되고있다.
침산교에서 → 성동교 → 도청교 → 경대교 → 신천교 → 신성교 → 제2신천교 → 동신교 → 수성교 → 대봉교 → 제2대봉교 → 중동교 → 상동교에 이르는 신천교수부지에는 여타의 23개소의 체력장과 넓은 공간이 많이 있어, 시설 조성과 확장의 가능성은 매우크고 산책, 건강 달리기 코스로도 활용성이 높아, 신천교 하천에 많은 물만 흐른다고 상상해 볼 때, 문득 어느 선진 외국에 온 듯한 환상에 사로 잡히게 된다.

◆ 동신교 —————> 수성교 사시의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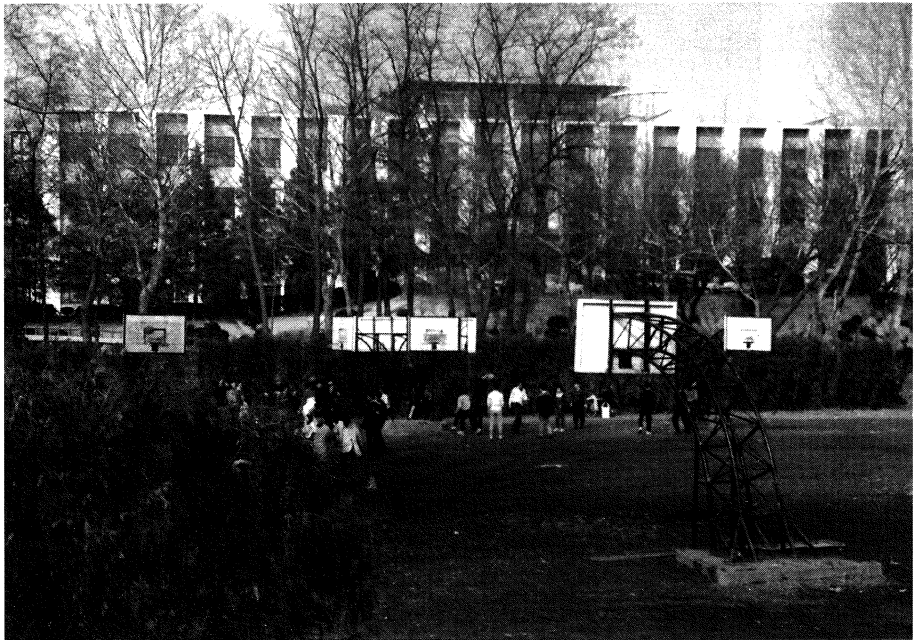
◆ 동신교 —> 수성교 사이의 어린이 놀이터



- ◆ 직장, 학교의 공공체육.스포츠 시설 일부
- ◆ 경북대학교 테니스장(10면) 북구 산격동 1370번지



◆ 경북대학교 옥외 농구장



◆ 경상북도 도청 테니스 코트, 북구 1443-5



◆ 1958년에 설치된 옥외기계체조장(경북대학교)



第 7 節 大邱市域의 寺刹 및 佛教團體 現況(1994. 4. 現在)

1. 三國時代

사찰명	소속종단	주소	전화	주지
동화사	조계종	동구 도학동 35	982-0101	金弘基(無空)
부인사	조계종	동구 신무동 356	982-5006	연재한(성태)
관음사	조계종	동구 도동 672	984-9940	김동조

2. 新羅時代

사찰명	소속종단	주소	전화	주지
파계사	조계종	동구 중래동山 7	984-4550	배태식
안일사	조계종	남구 대명6동山 225	652-0610	시진
임휴사	조계종	달서구 서인동 1321	632-4844	김명배(禪鋒)
은적사	조계종	남구 봉덕4동 1572	653-1572	윤필진(사요)
염불암	조계종	동구 도학동 35	982-0226	조성섭

3. 高麗時代

사찰명	소속종단	주소	전화	주지
복지장사	조계종	동구 도학동 670	982-0511	신병희(도봉)

4. 朝鮮時代

사찰명	소속종단	주소	전화	주지
비로암	조계종	동구 도학동 35	982-0223	고영일
내원암	조계종	동구 도학동 35	982-0225	惟贊
성전암	조계종	동구 중대동 1-1		이규형(哲雄)
양진암	조계종	동구 도학동 35	982-0224	변연이
용화사	조계종	수성구 범어3동 2138	755-9277	김정환
황용사	조계종	남구 대명2동 1959-22	652-7823	황용

5. 日帝時代

사찰명	소속종단	주소	전화	주지
대덕사	조계종	남구 대명동山 227-1	652-5636	문성경
보현사	조계종	중구 남산2동 932-35	254-6966	김기찬(벽암)

사찰명	소속종단	주 소	전 화	주 지
법륜사	조계종	동구 신천2동 588-5	953-6114	이길화(법정)
관음사	조계종	중구 삼덕동2가 26	421-3700	金鍾憲(元明)
대성사	조계종	중구 서야1	23-9651	장용존(岡一)
금용사	조계종	달서구 성당1동 198-19	66-5404	김현자(혜선)
정혜사	법화종	중구 남산동 145-13	23-2517	安永根(道耕)
통천사	조계종	동구 효목1동 3-1	941-3503	이 태 일

6. 8 · 15以後

1) 조 계 종

사찰명	소속종단	주 소	전 화	주 지
선법사	조계종	수성구 범어1동山 175	753-7309	이순철(至恭)
청용사	조계종	수성구 지산동 665-3	763-6807	강 성 수
용운사	조계종	달서구 두류동 835-6	623-8895	이 오 순
보문사	조계종	남구 대명6동山 221-10	652-3219	정 초 우
금산사	조계종	동구 효목1동 183-3	942-8526	이상우(법현)
관제사	조계종	북구 산격동 1180-130	943-0842	김태훈(법륜)
신고사	조계종	동구 미래동山 80	982-0434	주 동 주
고성사	조계종	수성구 수성4가 1131-3	755-7309	안종순(보인)
대성사	조계종	남구 대명동山 227-1	66-4413	정 도 우
법장사	조계종	남구 봉덕2동山 148	471-0414	송진영(법정)
옥련암	조계종	중구 봉산동 223-2	425-4368	金 正 輪
대덕암	조계종	수성구 상동 250	763-7169	전 성 천
대지선원	조계종	남구 이천1동 453-17	471-6495	김문성(동호)
정법사	조계종	동구 신암5동山 45-5	943-2227	이상일(혜정)
정암사	조계종	수성구 파동山 83	762-3840	김 남 규
용화사	조계종	달서구 용산동 365-1	553-1984	白瑛玉(혜연)
삼보사	조계종	수성구 파동 264	763-5223	정 향 춘
정법회거사림	조계종	중구 대봉2동 690-127	423-8626	南 斗 熙
화정사	조계종	북구산격동 962	92-5921	이윤생(대농)
봉천사	조계종	동구 백안동 175동구 동구	982-7533	이 준 희
대원사	조계종	지묘동山 80	982-0455	김기룡(벽봉)
금오정사	조계종	수성구 고모동 1-3	812-8712	팽 오 주
약수암	조계종	동구 도학동 35	982-0330	박 정 운
길상선원	조계종	수성구 범물동 824-1	763-3952	이 광 희

사찰명	소속종단	주 소	전 화	주 지
서 봉 사	조계종선학원	남구 이천1동 439-2	621-4813	김 경 희
금 강 사	조 계 종	수성구 범어1동 636-1	72-4004	현 철
홍 천 사	조 계 종	동구 효목동 187-13	958-0108	이상우(정묵)
칠 보 사	조 계 종	동구 동내동 246-1	962-5581	정 법 광
여여선원	조 계 종	달서구 송현1동 1982-4	622-0336	이병호(혜운)
청 수 사	조 계 종	수성구 범어4동 117-36	741-2561	주 종 열
보 덕 사	조 계 종	수성구 파동 81	762-0095	오 덕 기
보 광 원	조 계 종	수성구 지산동 650-1	763-8414	임 화 산
연 왕 사	조 계 종	달서구 본동 916	631-6356	조제희(용암)
혜 중 원	조 계 종	수성구 만촌2동 718-1	72-1028	손 승 보
대 불 사	조 계 종	북구 북현2동 210-3	92-4812	김 법 명
신 고 사	조 계 종	동구 미래동山 80	982-0434	주 동 주
고 성 사	조 계 종	수성구 수성4가 1131-3	755-7309	안종순(보인)
대 성 사	조 계 종	남구 대명동山 227-1	66-4413	정 도 우
법 장 사	조 계 종	남구 봉덕2동山 148	471-0414	송진영(법정)
옥 련 암	조 계 종	중구 봉산동 223-2	425-4368	金正輪
대 덕 암	조 계 종	수성구 상동 250	763-7169	전 성 천
대지선원	조 계 종	남구 이천1동 453-17	471-6495	김문성(동호)
정 법 사	조 계 종	동구 신암5동山 45-5	943-2227	이상일(혜정)
정 암 사	조 계 종	수성구 파동山 83	762-3840	김 남 규
용 화 사	조 계 종	달서구 용산동 365-1	553-1984	白瑛玉(혜연)
삼 보 사	조 계 종	수성구 파동 264	763-5223	정 향 춘
정법회거사림	조 계 종	중구 대봉2동 690-127	423-8626	南斗熙
화 정 사	조 계 종	북구산격동 962	92-5921	이윤생(대능)
봉 천 사	조 계 종	동구 백안동 175동구 동구	982-7533	이 준 희
대 원 사	조 계 종	지묘동山 80	982-0455	김기룡(벽봉)
금오정사	조 계 종	수성구 고모동 1-3	812-8712	팽 오 주
약 수 암	조 계 종	동구 도학동 35	982-0330	박 정 운
길상선원	조 계 종	수성구 범물동 824-1	763-3952	이 광 희
서 봉 사	조계종선학원	남구 이천1동 439-2	621-4813	김 경 희
금 강 사	조 계 종	수성구 범어1동 636-1	72-4004	현 철
홍 천 사	조 계 종	동구 효목동 187-13	958-0108	이상우(정묵)
칠 보 사	조 계 종	동구 동내동 246-1	962-5581	정 법 광
여여선원	조 계 종	달서구 송현1동 1982-4	622-0336	이병호(혜운)
청 수 사	조 계 종	수성구 범어4동 117-36	741-2561	주 종 열

사찰명	소속종단	주소	전화	주지
보덕사	조계종	수성구 파동 81	762-0095	오덕기
보광원	조계종	수성구 지산동 650-1	763-8414	임화산
연왕사	조계종	달서구 본동 916	631-6356	조제희(용암)
혜중원	조계종	수성구 만촌2동 718-1	72-1028	손승보
대불사	조계종	북구 복현2동 210-3	92-4812	김법명
대원사	조계종	수성구 범어2동 188-2	72-0276	이정훈
용흥사	조계종	수성구 파동 295	763-3603	박기종
성화사	조계종	달서구 성당1동 521	625-9030	최원수(진각)
법수원	조계종	수성구 범물동 694	761-3663	이상덕
대각사	조계종	북구 서변동 1102	951-1678	최창식(법혜)
성불사	조계종	달서구 송현동 322	625-5779	이종열(정오)
자혜사	조계종	중구 삼덕동 279-5	812-9337	이법공
길상선원	조계종	수성구 상동 32-2	762-5417	최원명
마하연사	조계종	동구 상매동 88	962-9158	김동수
광명사	조계종	수성구 황금동 048	763-2746	이채수
선주사	조계종	수성구 파동 142-6	763-7252	최선주(문갑)
해탈사	조계종	남구 이천1동 454-14	623-9008	
지장사	조계종	수성구 범어2동 136-10	755-9817	허성철
동지장사	조계종	동구 신편동 74	962-7887	구봉순
관음사	조계종	북구 태전동 575	30-1230	김순복
원정사	조계종	북구 읍내동 248-2	30-3823	박성훈
법성사	조계종	동구 신천1동 686-13	422-8188	성선자
염화사	조계종	수성구 파동 110-97	762-6281	김명희
수도암	조계종	수성구 범어2동 136-44	72-7070	최태수
보성사	조계종	달서구 송현동山 1952-1	627-1379	김영원(보혜)
염불선원	조계종	수성구 지산동 578	762-0120	이종택
극락정사	조계종	수성구 황금동 398	765-3737	박형윤
효성사	조계종	남구 봉덕2동 1064-311	624-5777	
보리원	조계종	달서구 이곡동 1000-131	582-7611	최재호(정약)
석가사	조계종	남구 이천동 97-3	812-0780	이태희
영봉사	조계종	수성구 내환동 447-1	812-9857	곽병환
관음정사	조계종	수성구 파동山 20-4	764-6070	정명환
불국사	조계종	동구 방촌 857-66	985-1917	김근해
안성사	조계종	동구 신서동 1025	962-0714	류임수
감포사	조계종	남구 이천1동 454-31	68-5151	

사찰명	소속종단	주 소	전 화	주 지
향연사	조계종	수성구 파동 118-51	763-0643, 765-2570	송완용
만불회	조계종	수성구 범어2동 177-10	765-0101	박창훈
붓다사	조계종	달서구 도원동 1143	623-0123	강영홍(해원)
공덕원	조계종	수성구 만촌1동 615-2	741-0088	김명호(석용산)
묘적사	조계종	동구 내공동 117	962-5440	정경조
보광사	조계종	수성구 범물동 652-1	763-5794	윤두이
보덕사	조계종	동구 신암동 165-21	956-0295	배재학(정공)
각황사	조계종	수성구 상동 533-1	765-4335	최종수
원만사	조계종	중구 동산동 708	32-1914	白琚宣(보현)
묘광사	조계종	수성구 파동 394-2	765-3708, 762-7564	변인철
죽림정사	조계종	달서구 두류동 101-10	627-1850	안종식(정우)
불현정사	조계종	달서구 송현동 1950-23	651-4889	윤승희
보림사	조계종	수성구 파동 118-105	766-0092	신근우
법왕사	조계종	수성구 파동 116	766-3477	권실상
북전암	조계종	남구 대명2동 1957-27	68-5040	손봉순

2) 원 불 교

사찰명	소속종단	주 소	전 화	주 지
대구교당	원불교	중구 남산1동 677-180	426-9191	손봉순, 백인교 서영인, 안성원
서성로교당	원불교	중구 서성로1가 57	255-1029	유 의 명
봉덕교당	원불교	남구 봉덕1동 850-4	471-6027	박현일, 정인주인
대현교당	원불교	북구 대현1동 165-5	941-2729	김 지 은
삼덕교당	원불교	중구 삼덕2가 287	425-0896	송 명 호
대명교당	원불교	남구 대명9동 922-3	651-0310	조 효 경
서문교당	원불교	서구 비산4동 264-12	255-3437	신 종 수
수성교당	원불교	수성구 범어1동 805-29	764-1355	황 민 정

3) 진 각 종

사찰명	소속종단	주 소	전 화	주 지
본원심인당	진각종	달서구 성당1동 207	66-1023	김 두 화
회락심인당	진각종	중구 남산3동 584-1	255-1450	안병준(索廣)
의밀심인당	진각종	남구 이천2동 271-2	66-8746	박 정 대

사 찰 명	소 속 종 단	주 소	전 화	주 지
최정심인당	진 각 종	달서구 이곡동 684-2	581-6174	권영택(德一)
행대심인당	진 각 종	수성구 중동 394	763-5430	한 경 출
시경심인당	진 각 종	수성구 수성4가 1216	752-4688, 742-4088	최 해 옥
불정심인당	진 각 종	중구 남산4동 2482-22	23-9317	센 데(상재)
정원심임당	진 각 종	중구 달성동 12-1	554-2037	李 泰 子
국영심인당	진 각 종	남구 대명동 2013-121	66-4084	

4) 통불교 보살회

사 찰 명	소 속 종 단	주 소	전 화	주 지
통불교보살회 본부	통불교보살회	서구 내당4동 248-6	563-9154-5	채 수 한
법 장 선 원	통불교보살회	북구 노원동2가 297-53	352-3000	배 승 자

5) 법 화 중

사 찰 명	소 속 종 단	주 소	전 화	주 지
신 광 사	법 화 중	남구 대명동山 219-1	66-4274	구 두 준
동 인 사	법 화 중	중구 동인1가동 93	425-0152	소 청 심 원
금 각 사	법 화 중	달서구 두류2동山 299-3	628-0733	이종덕(만수)
대 용 사	법 화 중	남구 봉덕2동 118-2	621-4480	이 무 구
증 심 사	법 화 중	수성구 시지동山 13	82-2280	조 만 조
해 용 사	법 화 중	남구 봉덕2동 1259-20	621-0406	
선 광 사	법 화 중	남구 봉덕2동 1259	66-4174	
광 덕 사	법 화 중	동구 진인동山 1	982-8688	박 선 제
백 운 사	법 화 중	수성구 지산동 347	762-0153	서 순 득
통 천 사	법 화 중	북구 산격동 1435-26	92-0455	오 순 복
복 요 사	법 화 중	남구 봉덕2동 1253-7	652-0773	
약 정 사	법 화 중	달서구 진천동 79-23	632-5044	이 희 엽
정 암 사	법 화 중	수성구 수성1가 249-121	72-9664	김 재 선
불 은 사	법 화 중	동구 신서동 84	962-3329	한 영 용
장 암 사	법 화 중	동구 숙천동 83	962-7029	최순택(최선덕락)
황 용 사	법 화 중	달서구 송현동山 323	621-2389	김 경 호
성 불 사	법 화 중	남구 봉덕2동山 103	471-0611	
토 굴 암	법 화 중	남구 봉덕2동山 155	471-6208	김성우(두한)
덕 화 사	법 화 중	남구 봉덕2동 1270-21	477-5608	

6) 원 효 종

사찰명	소속종단	주소	전화	주 지
백련사	원효종	달서구 송현동 2012	653-4324	황순진(전광)
봉선사	원효종	북구 매천동 189	30-1125	김기열(경분)
호심사	원효종	동구 검사동 764-9	984-0343	최경호
호암사	원효종	동구 봉무동山 4-3	983-2154	송철호
時度寺	원효종	동구 상매동 287	963-3756	박순자

7) 정 토 종

사찰명	소속종단	주소	전화	주 지
팔만사	정토종	남구 대명4동 3004-12	653-1836	윤태조
수덕사	정토종	남구 봉덕2동山 37	68-3200	최성학
와불사	정토종	동구 중대동 925-2	954-0757	신재순
선암사	정토종	동구 신암1동 722-141	959-4668	한명주
장암사	정토종	동구 신암4동 1661	942-2449	박찬규
대왕사	정토종	수성구 범물동 262	763-8079	최귀생
용화사	정토종	수성구 범어3동 2138	755-9277	김정한

8) 진 언 종

사찰명	소속종단	주소	전화	주 지
진광원	진언종	중구 대봉1동 7-36	425-5134	서영옥(玄州)

9) 태 고 종

사찰명	소속종단	주소	전화	주 지
등불암	태고종	수성구 파동99	763-3605	박옥석
구암사	태고종	동구 신천1동 806-3	423-3410	박영백
응원사	태고종	중구 남산1동 676-17	425-5953	김기옥(철로)
成修寺	태고종	동구 용계동 201-2	962-0121	
백운사	태고종	동구 신암4동 1792-1	941-4435	김태두
굴암사	태고종	남구 봉덕2동 1239	68-0418	
죽림사	태고종	수성구 지산동山 22-2	812-2645	김윤덕
지장사	태고종	달서구 송현동山 22-5	621-7521	이회웅
화엄사	태고종	남구 대명2동 2563-18	653-3253	엄홍영
혜운사	태고종	남구 대명동山 200-10	66-5204	김정태
보원사	태고종	수성구 범물동 701	763-2829	권금석
용궁사	태고종	동구 진인동 412	982-0565	이태금

사찰명	소속종단	주 소	전 화	주 지
대 덕 사	태 고 종	수성구 연호동 175-1	812-1587	이 상 희
법 령 사	태 고 종	동구 미대동 133-1	982-5793	김 유 근
수 덕 사	태 고 종	남구 봉덕2동山 37	68-3200	최 성 학
보 은 사	태 고 종	동구 능성동山 4	982-7094	최 상 태
옥 련 사	태 고 종	수성구 파동 110-132	763-0455	김 동 수
일 광 사	태 고 종	남구 대명동 554-2	627-8215	
대 원 사	태 고 종	동구 지묘동山 1	981-6627	성 옥 선
대 흥 사	태 고 종	동구 신암1동 722-210	941-2560	신 선 암
삼 용 사	태 고 종	수성구 범어2동 142-3	755-1235	박 분 덕
愚 成 寺	태 고 종	달서구 송현동 192-6	68-2279	金 百 萬
독 불 사	태 고 종	동구 용수동 680-3	982-8610	최 석 순
견 불 사	태 고 종	남구 봉덕2동 1259-19	66-8330	김 성 국
관 음 사	태 고 종	동구 상매동 125	963-3102	손 명 순
호 법 사	태 고 종	중구 대신1동 291-30	254-9089	이남승(方山)
반 야 사	태 고 종	동구 신서동 980	962-5258	정덕술(宗德)
칠 불 암	태 고 종	동구 지묘동 315-1	982-1385	김영희(법전)
천 성 사	태 고 종	수성구 가천동 152	812-3419	임 성 제
우 복 사	태 고 종	수성구 삼덕동 810	812-8315	오 정 식
대 보 사	태 고 종	남구 대명동 2036-28	66-4202,475-4101	박영재,박영관

10) 總 持 宗

사찰명	소속종단	주 소	전 화	주 지
開 天 寺	총 지 종	중구 봉산동 230-12	425-7910	海 鵬 海
제 석 사	총 지 종	동구 효목2동 443-3	743-9813	황 윤 식

11) 乘 宗

사찰명	소속종단	주 소	전 화	주 지
선 가 사	승 종	수성구 지산동 707	762-2034	송 현 출
성 불 사	一 乘 宗	달서구 죽전동 377-2	556-3717	이 갑 수

12) 天 台 宗

사찰명	소속종단	주 소	전 화	주 지
대 성 사	천 태 종	달서구 성당1동 520-3	66-6108	金成根(勇岩)

13) 미 타 종

사찰명	소속종단	주 소	전 화	주 지
용운사	미타종	동구 신암1동 692	941-3154	박수찬

14) 如來宗

사찰명	소속종단	주 소	전 화	주 지
龍珠寺	여래종	동구 울암동 137	962-0833	신도균

15) 大乘宗

사찰명	소속종단	주 소	전 화	주 지
송강사	대승종	달서구 파산동 134	582-7916	구관용(惠正)

16) 일관도

사찰명	소속종단	주 소	전 화	주 지
국제도덕협회	일광도	남구 이천1동 438-6	66-7862	김정희

17) 관음종

사찰명	소속종단	주 소	전 화	주 지
백련사	관음종	수성구 범물동 1031	763-3784	김종순

18) 교화원

사찰명	소속종단	주 소	전 화	주 지
성심사	교화원	북구 매천동111	30-4871	이양희
아미사	교화원	동구 지묘동 236	983-1816	마우일

19) 선교종

사찰명	소속종단	주 소	전 화	주 지
도성사	선교종	동구 지묘동 159	982-2500	구본선(법현)
도광사	선교종	남구 대명5동 1708-6	622-8589	윤재본
용운사	선교종	달서구 용산동 384	559-7187	김이섭
관등사	선교종	수성구 만촌2동 984-1	72-5876	한순모

20) 모은정사				
사찰명	소속종단	주 소	전 화	주 지
모은정사	모은정사	중구 남산2동 241	254-2208	김진영(玄雲)

21) 본 원 중				
사찰명	소속종단	주 소	전 화	주 지
원기사	본원중	달서구 상인동山 42	633-1444	정우담

22) S.G.I.한국불교회				
사찰명	소속종단	주 소	전 화	주 지
S.G.I.한국불교회	S.G.I.한국불교회	동구 신암4동 259-6	941-4906	조대철

23) 圓 融 宗				
사찰명	소속종단	주 소	전 화	주 지
法性寺	圓融宗	동구 매여동 275	964-3606	엄선덕

